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인적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인적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19.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기반본부장 김자현

교육R&D팀장 노준석

교육R&D팀 이다연

등록

KACES-1940-R031

ISBN

978-89-6748-337-1(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레지나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동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춘모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황정옥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연구보조원

길영순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김도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민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한혜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석사과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3. 연구방법 및 과정	7
 II.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11
1. 선행 연구 고찰	11
2. 문화기반시설 유형 및 현황	23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29
4.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현황	39
 III.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및 실태	 53
1. 실태 조사 설계	53
2. 통계처리 및 분석 결과	61
 IV. 문화기반시설 운영 우수 사례	 143
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분석	143
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 토론회	188
3.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사례 : 광주 ‘아트 피크닉’	192
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특징	195
 V.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199
1.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지원체계 구축	199
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활동 확대	202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	208

Ⅵ. 결론 및 제언	225
1. 결론	225
2. 제언	230
 참고문헌	 235
 부록	 239

표 목차

〈표 I-1〉	조사 디자인 구성 및 단계별 내용	7
〈표 II-1〉	문화기반시설별 프로그램 개설기준 및 역할	12
〈표 II-2〉	지역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21
〈표 II-3〉	문화시설의 정의	23
〈표 II-4〉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23
〈표 II-5〉	문화기반시설 현황	24
〈표 II-6〉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25
〈표 II-7〉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26
〈표 II-8〉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위치	32
〈표 II-9〉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별 사업 현황	33
〈표 II-10〉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별 추진 사업	35
〈표 II-11〉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참여 현황	36
〈표 II-12〉	2019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현황	37
〈표 II-13〉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현황	37
〈표 II-14〉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현황	38
〈표 II-15〉	2019 아르떼 아카데미 인력양성 사업 현황	40
〈표 II-16〉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 인력연수 현황	44
〈표 II-17〉	광역센터별 인력양성사업 현황	45
〈표 III-1〉	조사 절차 및 내용	54
〈표 III-2〉	1단계 : 기존 자료 수집대상과 내용	54
〈표 III-3〉	2단계 : 사전조사	55

〈표 Ⅲ-4〉	2단계 : Pre-test 조사대상과 항목	56
〈표 Ⅲ-5〉	문화예술(교육) 인력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56
〈표 Ⅲ-6〉	기관관계자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59
〈표 Ⅲ-7〉	표본추출 방법	60
〈표 Ⅲ-8〉	데이터 처리 및 분석	60
〈표 Ⅲ-9〉	시설유형 분류	61
〈표 Ⅲ-10〉	시설별 자체 시설 보유 여부	61
〈표 Ⅲ-11〉	회원제 운영 여부	62
〈표 Ⅲ-12〉	회원제를 운영하는 시설의 평균 회원 수	62
〈표 Ⅲ-13〉	시설유형별 이용자분포 평균 비율	62
〈표 Ⅲ-14〉	시설유형별 이용자 성별 분포 평균	63
〈표 Ⅲ-15〉	시설유형별 평균 직원 수	63
〈표 Ⅲ-1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담당 평균인원수	64
〈표 Ⅲ-17〉	시설유형별 대상별(생애주기별, 대상별) 프로그램 평균수	64
〈표 Ⅲ-18〉	문화예술교육 실시 주 이유	65
〈표 Ⅲ-1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주 이유	65
〈표 Ⅲ-20〉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66
〈표 Ⅲ-21〉	시설유형별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67
〈표 Ⅲ-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1,2,3순위)	67
〈표 Ⅲ-23〉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순위)	68
〈표 Ⅲ-24〉	고유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평가	69
〈표 Ⅲ-25〉	최소/최대 회원수	69
〈표 Ⅲ-26〉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	69

〈표 III-27〉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	70
〈표 III-2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용공간 유무	72
〈표 III-2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용공간 수	72
〈표 III-30〉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평균 전용공간 수	72
〈표 III-31〉	수강료 수령 방식	73
〈표 III-32〉	시간당 지급 강의로	73
〈표 III-33〉	시설별 시간당 지급 강의로	74
〈표 III-34〉	프로그램운영 자평가	74
〈표 III-35〉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10문항)	75
〈표 III-36〉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75
〈표 III-37〉	우리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76
〈표 III-38〉	우리기관은 타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잘 이 루어지고 있음	76
〈표 III-39〉	우리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77
〈표 III-40〉	우리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 문화역량 강화 및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77
〈표 III-41〉	우리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78
〈표 III-42〉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78
〈표 III-43〉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79
〈표 III-44〉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79
〈표 III-45〉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문화예술의 체계적 학습, 교 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80
〈표 III-46〉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그 외	80
〈표 III-47〉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분야(복수응답)	81

〈표 Ⅲ-48〉	문화예술관련 업무 종사기간	81
〈표 Ⅲ-4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업무 종사기간	81
〈표 Ⅲ-50〉	업무, 기량에 대한 자평가	82
〈표 Ⅲ-51〉	전공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82
〈표 Ⅲ-52〉	시설별 자격증 소지 종류	82
〈표 Ⅲ-53〉	시설별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 정도	83
〈표 Ⅲ-54〉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의 필요성	83
〈표 Ⅲ-55〉	시설별 본인의 문화예술 능력, 기량에 대한 자평가	84
〈표 Ⅲ-56〉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자평가	84
〈표 Ⅲ-57〉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전체)	85
〈표 Ⅲ-58〉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기타) 주관식	85
〈표 Ⅲ-59〉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	85
〈표 Ⅲ-60〉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의지정도	86
〈표 Ⅲ-61〉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 의지정도	86
〈표 Ⅲ-62〉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10문항)	87
〈표 Ⅲ-63〉	(1문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	87
〈표 Ⅲ-64〉	(2문항) 전공분야의 전문성	88
〈표 Ⅲ-65〉	(3문항)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교수(강의)	88
〈표 Ⅲ-66〉	(4문항) 타 문화예술분야와 융합 교육	89
〈표 Ⅲ-67〉	(5문항)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89
〈표 Ⅲ-68〉	(6문항) 문제해결능력(문제학습생 혹은 돌발상황 해결 등)	90
〈표 Ⅲ-69〉	(7문항)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향상	90
〈표 Ⅲ-70〉	(8문항)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91

〈표 III-71〉	(9문항) 해당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의 최신동향 이해 도	91
〈표 III-72〉	(10문항) 강의외 기타 업무	92
〈표 III-73〉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기 관,단체) 유무	92
〈표 III-74〉	시설별 외부네트워크 종류	93
〈표 III-75〉	외부네트워크와의 연계활동 내용(1순위)	93
〈표 III-76〉	외부네트워크와의 연계활동 내용(2순위)	94
〈표 III-77〉	(1) 문화시설 네트워크와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 정도	95
〈표 III-78〉	(2)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과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 정도	96
〈표 III-79〉	(1)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	97
〈표 III-80〉	(2)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 네 트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	98
〈표 III-81〉	성별	99
〈표 III-82〉	연령대	99
〈표 III-83〉	기관관계자 상관분석 문항 구성	99
〈표 III-84〉	기관평가 문항 상관관계	99
〈표 III-85〉	인적역량 상관관계	100
〈표 III-86〉	사회적역량 상관관계	100
〈표 III-87〉	기관평가 문항 상관관계 계수	100
〈표 III-88〉	기관평가 문항 상관관계	101
〈표 III-89〉	참여시설 평균 수	102
〈표 III-90〉	주요 참여시설 1,2,3 순위 분포	103
〈표 III-91〉	주요 참여시설(1,2,3)의 운영 주체	103

〈표 Ⅲ-92〉	주요 시설(1,2,3)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수	103
〈표 Ⅲ-93〉	문화예술교육 종사방식	104
〈표 Ⅲ-94〉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104
〈표 Ⅲ-95〉	해당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기간	104
〈표 Ⅲ-96〉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1,2,3순위)	104
〈표 Ⅲ-97〉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기타) 주관식	105
〈표 Ⅲ-98〉	현 시설 활동기간별 프로그램(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제 1순위)	106
〈표 Ⅲ-99〉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107
〈표 Ⅲ-100〉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 국가의 문화역량 강 화에 기여	107
〈표 Ⅲ-101〉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 문화예술 향유와 창 조력 함양	108
〈표 Ⅲ-102〉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4): 평생에 걸쳐 문화예 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은 균등한 기회제공	108
〈표 Ⅲ-103〉	본인의 전문영역(장르)	109
〈표 Ⅲ-104〉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	109
〈표 Ⅲ-105〉	종사방식 - 지식, 경험 및 능력 수준 자평가	110
〈표 Ⅲ-106〉	활동기간별 자평가 -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	110
〈표 Ⅲ-107〉	주요 전문장르별 자평가 -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	110
〈표 Ⅲ-108〉	주요 학습대상층 분포	111
〈표 Ⅲ-10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111
〈표 Ⅲ-110〉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112
〈표 Ⅲ-111〉	장르 전문분야에 대한 자가진단(9문항)	113

〈표 Ⅲ-11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직무역량 자평가	114
〈표 Ⅲ-11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시 한계 및 문제점	115
〈표 Ⅲ-114〉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가진단(9문항)	116
〈표 Ⅲ-115〉	네트워크 유무(기관, 단체, 모임)	117
〈표 Ⅲ-116〉	네트워크 수(평균)	117
〈표 Ⅲ-117〉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기관,단체) 종류	117
〈표 Ⅲ-118〉	관련 모임	118
〈표 Ⅲ-119〉	관련모임 참석정도	118
〈표 Ⅲ-120〉	문화예술교육 관련 외부 네트워크와의 교류 형태(1,2,3순위)	118
〈표 Ⅲ-121〉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 정도	119
〈표 Ⅲ-122〉	관련 이외 친목 교류 정도	119
〈표 Ⅲ-123〉	교육프로그램, 연수 참여	119
〈표 Ⅲ-124〉	교육 프로그램, 연수 참여기관명	119
〈표 Ⅲ-125〉	참여횟수	120
〈표 Ⅲ-126〉	네트워크 수(평균)	120
〈표 Ⅲ-12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1,2,3순위)	120
〈표 Ⅲ-128〉	연수방법	121
〈표 Ⅲ-129〉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9문항)	121
〈표 Ⅲ-130〉	인적역량 강화의 중요성	122
〈표 Ⅲ-131〉	교육 프로그램, 연수에 불참한 이유(1,2,3 순위)	122
〈표 Ⅲ-132〉	문화예술교육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11문항)	123

〈표 Ⅲ-133〉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내용	123
〈표 Ⅲ-134〉	성별	124
〈표 Ⅲ-135〉	평균연령	124
〈표 Ⅲ-136〉	연령대	124
〈표 Ⅲ-137〉	학력	124
〈표 Ⅲ-138〉	전공	124
〈표 Ⅲ-139〉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형(복수응답)	125
〈표 Ⅲ-140〉	강의-거주-출신지역 일치/불일치	125
〈표 Ⅲ-141〉	자격증 보유	126
〈표 Ⅲ-142〉	자격증 종류	126
〈표 Ⅲ-143〉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 실시시 가장 중요한 기준(1순위)	126
〈표 Ⅲ-144〉	종사방식 -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에 대한 자평가	127
〈표 Ⅲ-145〉	종사방식 - 인적 역량 평균	127
〈표 Ⅲ-146〉	종사방식 - 직무역량 평균	127
〈표 Ⅲ-147〉	활동기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 실시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128
〈표 Ⅲ-148〉	활동기간 -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128
〈표 Ⅲ-149〉	활동기간 - 인적 역량 평균	129
〈표 Ⅲ-150〉	활동기간 - 직무역량 평균	129
〈표 Ⅲ-151〉	활동기간 - 사회적 역량 평균	129
〈표 Ⅲ-152〉	전문인력(강사) 상관분석 문항 구성	130

〈표 Ⅲ-153〉	공동체 영역 문항 상관관계	130
〈표 Ⅲ-154〉	인지·인식 영역 문항 상관관계	131
〈표 Ⅲ-155〉	전문분야 자평가 영역 문항 상관관계	131
〈표 Ⅲ-156〉	전문인력(강사) 문항 상관관계 계수	132
〈표 Ⅲ-157〉	전문인력 문항 상관관계	133
〈표 Ⅲ-158〉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4
〈표 Ⅲ-159〉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5
〈표 Ⅲ-160〉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6
〈표 Ⅲ-161〉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4):‘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은 균등한 기회 제공’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7
〈표 Ⅲ-16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1,2,3순위)’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8
〈표 Ⅳ-1〉	우수사례 목록	147
〈표 Ⅳ-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인	150
〈표 Ⅳ-3〉	성북문화원 조직구성	151
〈표 Ⅳ-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토론회 진행 내용	188
〈표 Ⅴ-1〉	문화기반시설 파트너십을 위한 주체별 기능 및 역할	200
〈표 Ⅴ-2〉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체계	203
〈표 Ⅴ-3〉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성격	203
〈표 Ⅴ-4〉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에서의 문화기반시설별 주요 핵심 위치	205

〈표 V-5〉	문화기반시설 인적 역량강화 연수의 비전 및 전략	208
〈표 V-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 및 내용	210
〈표 V-7〉	연수 중장기 목표	218
〈표 V-8〉	연수성격에 따른 연수주체 및 대상	218
〈표 V-9〉	연수 운영주체별 역할	220
〈표 V-10〉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강화 연수 구성안	222
〈표 VI -1〉	연수 운영주체 및 내용, 대상	230

그림 목차

〈그림 II-1〉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13
〈그림 II-2〉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델(안)	22
〈그림 II-3〉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개소수	26
〈그림 III-1〉	문화예술(교육) 인력 측정 구조	53
〈그림 III-2〉	기관관계자 측정 도구	53
〈그림 III-3〉	고유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평가	69
〈그림 III-4〉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 차별성	69
〈그림 III-5〉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 차별성(주관식)	70
〈그림 III-6〉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	71
〈그림 III-7〉	문화예술관련 업무 종사기간	81
〈그림 III-8〉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 의지정도	86
〈그림 III-9〉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	105
〈그림 III-1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한계 및 문제점	116
〈그림 III-11〉	전공	124
〈그림 III-12〉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 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5
〈그림 III-13〉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6
〈그림 III-14〉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137
〈그림 IV-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146
〈그림 IV-2〉	우수사례 방문대상 선정과정	147
〈그림 IV-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 범주별 상호관계	149

〈그림 IV-4〉	심층 인터뷰 코딩과정	149
〈그림 IV-5〉	중외공원 문화벨트 협력체계	193
〈그림 V-1〉	지역 문화기반시설 전달 체계	200
〈그림 V-2〉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	205
〈그림 V-3〉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장성(실재적 성격)	207
〈그림 V-4〉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207
〈그림 V-5〉	연수 체계도	217
〈그림 V-6〉	연수 운영주체별 협력관계	220

요약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문화기반시설별 차별성이 없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 시설별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문화기반시설이 소속된 지역의 환경, 예산과 인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확보되어야 가능함.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핵심은 물리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본 연구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토대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및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구조적 한계점 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 분석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인적 역량 개발에 대한 인식도, 현황, 수요 조사 및 분석
- 국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우수 사례 분석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및 인적 역량 강화 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 관련 자료 조사 및 문헌 분석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국내 연구 분석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구조적 한계점 분석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1단계 : 정형적 통계자료와 비정형적 질적 자료 수집
- 2단계 : 사전조사(Pilot study + 탐색조사) 및 설문 문항(측정도구) 구성
- 3단계 : 인터뷰/설문조사 실시
- 4단계 : 데이터 처리 및 분석(SPSS.24.version, Text 분석(R studio, 3.6.0.version))

〈표 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수

구분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인력
대 상	전국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응답 수	161(웹 145 + 오프라인 21)	253(웹 199 + 오프라인 54)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조사 및 요인분석
- 1단계 : 질적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 담당자 인터뷰 실시
- 2단계 :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의 원칙에 따라 코딩
- 3단계 : 요인분류 및 분석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토론회
- 소규모 지역(생활권 내)의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및 인적역량 강화 활동이 밀도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시설 간 네트워크 및 사례, 인적 역량과 활용,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연구 결과 및 제언

1) 연구의 결과

(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

- 콘텐츠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문화자원 그리고 주민을 연결하고, 소통,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지역 공간을 아우르는 물리적 · 상징적 공간이자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음.
- 문화기반시설에서는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협력기관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기관의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
- 또한, 1) 지방문화원은 향토/지역문화를 콘텐츠로, 전통/지역문화의 거점으로 2) 문화의집

은 생활문화를 콘텐츠로, 생활문화커뮤니티 거점으로 3)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전시형태로, 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 거점으로 4) 도서관은 인문학을 콘텐츠로, 지역 인문학의 거점으로 5)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각예술/전시 형태로, 참여 대상 및 지역 단위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강화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아르떼 아카데미와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및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아르떼 아카데미는 창의적 교육 역량 증진, 전문 교수법 체득, 예술 전문성 심화,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등을 목표로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체계화된 국가 수준의 연수 교육과정으로 보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연수 담당강사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및 광역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능력 향상 및 창의적 교육역량 증진 등 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수를 실행하고 있음.
- 광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는 연수의 일관성 및 지역적 특성이 부족하여 연수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니며,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연수와의 위계 또는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유사한 형태의 연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앙차원의 연수체계 확립이 필요함.

(2)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설문조사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관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의 정도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식 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상태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 해당기관의 목적, 기능에의 부합 정도 평가’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 의지’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과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역량 평가,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잦을수록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이유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가 71.7%로 가장 많았음.
-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의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의 판단’이 24.8%, ‘지역특성 반영도’ 13.7%의 순으

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것에 대한 제 1순위는, ‘예산지원(45.7%)’, 다음으로 ‘전문인력 지원(26.6%)’로 나타남.
- ‘시설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모든 시설이 60%이상 차별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획일성, 유사성, 예산 부족, 대중적, 유행 편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응답함.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89.4%)’,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86.3%)’,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85.1%)’,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80.8%)’,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향상(77.1%)’,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73.9%)’, ‘문제해결 능력(73.9%)’, ‘전공분야의 전문성(72.8%)’, ‘수준 높은 교수(강의)(63.6%)’, ‘강의 외 기타 업무(62.5%)’로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공동체성은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거주 지역 일치’, ‘인적 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 평가’, ‘전문분야 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관계성 등이 깊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종사 동기 1순위에서는 ‘자신의 전문재능을 살리기 위해서’가 46.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도움’이 22.5%, ‘지역민 욕구충족’이 10.8%순으로 나타났음.
- 활동기간별 프로그램(수업)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순위로는,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내용과의 적합성’이 43%로 가장 높았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에서는, ‘예산지원’이 30.9%,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25.7%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한계 및 문제점(1순위)에서는,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이 19.8%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9개 문항) 중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함’의 긍정적인 응답이 90% 넘게 나온 문항들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 임.
- 적절한 교육(연수) 방법으로는, ‘집체연수’가 57.7%, ‘출퇴근’이 25.2%로 나타났으며, 교육

(연수) 불참 이유 1순위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62.8%, ‘프로그램(연수)의 유무를 몰라서’가 25.5%로 나타남.

(3) 문화기반시설 우수사례 분석

-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23곳의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화기반시설 유형, 교육 대상과 내용의 차별성,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11곳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1) 전문성(professionality), 2) 교수역량(instructional method), 3) 사회성(sociality), 4) 지역공동체성(communality) 등 4개 대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 분석함.

(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협력 추진 체계, 기관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기초 생활권, 혹은 광역 거점이라는 물리적 접근성과 관계 중심 혹은 콘텐츠 중심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관계자들의 자기 개발 환경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에서 참여의 관점으로 볼 때 1)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은 관람(공연, 전시, 해설)에서 교육(체험)과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2) 문화원, 문화의집 등은 학습에서 자치 모임, 동아리 등 관계 형성으로, 그리고 주민 강사(기획자), 봉사(재능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자 혹은 플랫폼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은 콘텐츠(참여 경험) 중심의 공모(단위 사업)지원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대상 중심으로 콘텐츠가 접근된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지역의 맥락성과 기관 고유 기능의 관계에서 콘텐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광역 혹은 기초단위의 사업 추진 시에도 위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플랫폼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

(5)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술교육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자생력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로부터

터 비롯되므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특수성과 맥락성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에 기초해야 함.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직무역량(기획,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강화하는 형식의 모델을 구축하였음.

〈표 2〉 문화기반시설 인적 역량강화 연수의 목표 및 전략

구분	세부내용			
목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			
구성요인	문화예술교육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비전 등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문화기반시설 목적 및 특성	
	직무역량		기획역량,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		자발성, 연대성, 공유성, 소속감 등	
운영전략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고유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협력과 공유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질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실천능력 배양			
추진전략	교육지원	환경지원	연구지원	취업지원
	교육체계구축	협업체계 구축	교육과정 구성	취업정보공유
	질 관리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	연수자료 개발	사업정보공유
	컨설팅	이파일 박스 (eFile Box)	연구소모임 지원	전문인력의 매칭

2) 연구의 제언

- 인적 역량 강화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및 내용을 담아내는 국가수준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소통,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허브와 이에 대한 협력 지원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의 공모 지원보다는 자율적인 사업 기획이나 협력 사업이 가능한 채널(협의 회의)을 지속, 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원(인적,

공간, 정보)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자원 정보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개인, 단체)을 연결하고, 공간 자원(각 시설)을 공유하며, 정보(콘텐츠, 경험 지식)를 공유하는데 정책적 역량 집결이 요구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관기관 (시설형)협의 회의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의 협의 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기초문화재단 및 교육, 복지, 주민자치, 생활문화 등의 기관/시설 정보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및 단체 등 지역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문화기반시설 중에서도 운영 주체, 지역적 접근성에 따라 시설의 역량과 역할이 상이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전략 연구가 필요함.
- 향후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이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생활권 단위로 밀착되는 역할로서, 지역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방법 및 과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한국의 계층별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문화적 소비와 향유에 있어서의 양극화(Polarization in Cultural Consumption and Enjoyment)로 이어져서, 소위 「문화적 약자(the Culturally Disadvantaged)」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지자체)별 경제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차이가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 지역에 따른 질적, 양적 차이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의 격차 해소와 평등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문화기반시설별 차별성은 없고, 교육 프로그램도 기반시설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이고 유사하며, 또한 두드러진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실정임. 문화예술교육의 세부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반면, 질적으로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문화정책의 대상을 예술부문에서 국민 전체로, 중앙문화에서 지역문화로 확산하는 전환점을 맞이함. 특히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문화공간이 확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문화 복지정책 차원에서 문화정책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문화 복지 이념이 문화 정책의 핵심 가치로 부각됨.
-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인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생활권 단위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 능력 증진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평생문화학습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이 시기에는 1996년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의집’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며, 주민에게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예술적이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1) 문화관광체육부의 2019년도 예산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0.7% 증가 하였다.(2018년 113,967,000, 2019년 228,708,000원). 출처: <https://www.mcst.go.kr/>. 또한 정부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으로 문화기반시설 수를 증설(2018년 2,749개 → 2022년 3,043개)할 예정임.

- 1997년 「문화비전 2000계획」 ‘창조적인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이 중요 과제로 ‘문화 민주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 2000년대 초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수립되고 이후에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 검토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고 「지역문화 통계조사」를 진행하여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만들었음(임학선, 2014:14).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 중이며, 문화기반시설 수는 '18년 2,749개에서 '22년 3,043개로 증설 예정임. 지역 거점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짐²⁾.
- 문화예술교육의 시각에서 볼 때 문화기반시설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양한 유형의 예술이 만나 새로운 교육경험을 만들어 내고 삶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서 문화기반시설은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때 문화예술교육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게 되며, 모인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필요, 의지에 따라 진화, 발전하게 됨.
- 사람들에게 삶으로서의 문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 지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사람들이 만나는 지역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창조하고 매개(지역의 자원과 사람, 매체)하는 역할을 하게 됨.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공간은 지역성, 역사성, 시대성을 담아내고 지역 구성원들의 특성을 반영하며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게 됨.
- 17개 시도의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 서울·부산센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교육관련 시설 협력망 구축), 대구센터(문화기반 시설 연계 교육 강화) 대전센터(문화의집 기능 회복 및 활성화) 등
- 그러나, 문화기반시설별 차별성이 없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 시설별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질적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2) 출처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국무회의 심의 통과 (2019.1.29.)

- 이런 문화기반시설의 차별성 및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은, 문화예술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영역 간 상호의존, 교통, 유기적 연대성 부족에 있음.
- 작은 단위로 지역화 된 생활권이 문화예술 생태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구성원들의 지역공동체성(Commuality: Community+personality) 즉 공유된 의식과 가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됨. 따라서 이 지역공동체성의 내면화를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또 이 지역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지역주민-문화예술창작자-문화예술교육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간의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상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음.
- 공동체 구성원의 변화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다문화가구 증가, 외국인 거주자 증가, 핵가족 중심 가족 비율의 감소와 1인 가구 및 결손가정 증가라는 문화예술의 토대인 공동체 구성원 성격변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음.
-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자생력을 가질 때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자생력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로부터 비롯되므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실천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구성(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등)이 요구되며,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는 사람(학습자, 교수자), 내용과 방법(교육적 지식 및 프로그램, 교수법), 환경(교육적 환경, 정책), 소통(쌍방향, 체험과 표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략과 연구, 실천이 요구됨.
-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은 보다 정밀한 조사 분석과 해석에 입각해야 함.
 - 기존자료 분석과 함께, 수량적 통계분석과 심층인터뷰를 동시에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분석결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석결과를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구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인적 역량 개발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내용, 설문조사 결과,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기반시설의 현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국내 선행연구 분석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내 연구 분석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구조적 한계점 파악

○ 국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우수 사례 요인 분석

-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도모하는 우수 문화기반시설의 사례 분석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성공 요인 분석
- 도출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분석

○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식도 조사

-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이해 수준과 자체 노력을 점검

○ 인적 역량 개발 수요조사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인력)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역량개발 현황
-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수요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 내용 등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 문화기반시설 지원 전달체계,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구조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모델 및 운영 방안

3. 연구방법 및 과정

- 관련 자료 조사 및 문헌 분석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국내 연구 분석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구조적 한계점 분석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운영방식, 추진 구조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표 1-1〉 조사 디자인 구성 및 단계별 내용

진행단계		내용
1단계	기존 자료 수집	정형적 통계자료 + 비정형적 질적 자료
2단계	조사 과정	⇒기존자료 수집 ⇒사전조사(Pilot study + 탐색조사) ⇒조사표(인터뷰, 설문)완성 ⇒데이터 정리·처리·분석
3단계	조사 방법 및 내용	표본 수, 추출방법, 인터뷰/설문조사 실시
4단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통계처리(SPSS.24.version), Text 분석(R studio, 3.6.0.version)
5단계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 우수사례 조사 및 요인분석
 - 면접법에 기반 한 질적 조사 연구의 방법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원칙을 준용
 - 심층 인터뷰 : 질적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 담당자 인터뷰 실시
 - 결과분석 :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론의 원칙에 따라 코딩. 담당자의 진술들을 유의미한 단위로 분절, 분류하고, 개별 단위에 의미를 부여함.
 - 요인분류 : 개별 단위는 유사성과 차이의 관점에서 분절하여 대영역으로 통합하고 소영역으로 세분화함.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토론회
 - 소규모 지역(생활권 내)의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및 인적역량 강화 활동이 잘 이뤄지는 곳에서 문화기반시설, 평생교육기관, 주민센터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대상(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현장·학계 관계자, 지역 생활권 내 문화기반시설, 평생교육기관, 주민센터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토론회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으로 실시함.
 - 각 시설 간 네트워크 및 사례, 인적역량과 활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Ⅱ.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선행 연구 고찰
2. 문화기반시설 유형 및 현황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4.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현황

Ⅱ.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선행 연구 고찰

- '09, '12년에 실시된 문화기반시설 대상 실태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증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자원, 혹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모든 문화기반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참여 대상의 범주에서는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이 성인 대상으로 특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참여대상이 대부분 아동, 성인에 머물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시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문화, 가족 등의 형태로 확대되어야 함이 제시되었음. 이는 지속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기도 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설인 만큼 대부분 주민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는 것이 확인됨. 문화의집 경우 외부 지원에 의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특징이 있으며 공간과 더불어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이 높아 보임.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등은 학습 공간 제공 차원으로 문화예술교육 역할을 모색·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외부기관 연계/협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혹은 주민 관심도, 지자체 관심도 등에서는 문화원 및 문화의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애로사항은 예산 및 재정 확보가 다소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게 예산 및 재정 확보,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 참여자 인식 부재, 참여자 저조의 순으로 나타남.
-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집, 문화원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문화의집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개설기준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이 <표Ⅱ-1>로 정리될 수 있음.

〈표 II-1〉 문화기반시설별 프로그램 개설기준 및 역할

구 분	대상	개설 의지/기준	협력/연계	역할
문화예술회관	성인	주민 수요	문화예술단체	주민 선호 프로그램 운영
문화의집	아동	지역 특성, 외부 지원	학교, 공공기관	학습 공간 제공, 주민 선호 프로그램 운영
문화원	성인	주민 수요	정부, 공공기관, 문화예술인	주민 선호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아동	운영진 판단	정부, 공공기관	학습 공간 제공
도서관	아동	주민 수요	다른 종류의 문화 시설	학습 공간 제공

- 이후 '17년에 실시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단체 내의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다년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중 또한 낮은 편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관련 주민의 관심도, 지자체의 관심도 등에서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공간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볼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실태 조사 연구의 경우, 기관 담당자,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조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참여 전문인력 대상 조사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 선행 연구별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적 패러다임 연구」(2007)

-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그 성과가 분산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구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됨.
 - 각 영역별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복잡성을 자연 생태계와의 유사성의 관점에서 공급형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의 관계망으로 구성함.
 - 나아가 자연이 생태계구조가 자생성에 근거하여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것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둬.
 -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적 패러다임은 「작은 단위로 지역화 된 생활권」, 「기초예술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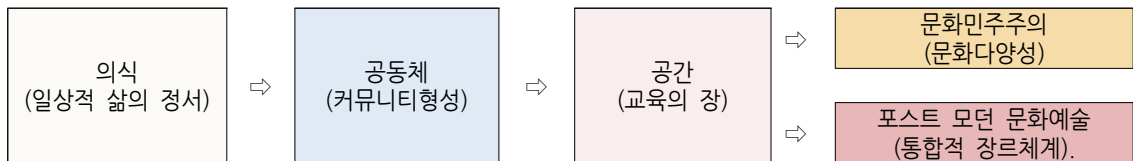
역」, 「창조산업」, 「전달매체」, 「문화상품의 소비와 비판적 수용」으로 구성됨.

-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은 일상의 삶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동아리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연구 내용 및 시사점

-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된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개념을 ‘일상적 삶의 정서’, ‘공동체(커뮤니티)의 형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 ‘문화다양성의 관점’, ‘통합적 장르 체계’로 제시함.

〈그림 II-1〉 사례연구를 통한 한국 문화예술교육 현황분석



- 문화예술의 생태계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구조와 교육방향 재정립을 시도.
- 문화예술 영역의 자생성을 위한 외부 환경요인 영향을 분석.
- 자생적 순환 구조를 위한 동력으로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의 상호존중 제시

○ 한계점

- 문화예술 생태계의 외부 영역으로써 일상적 생활권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동성 부족.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다양성, 즉 인구구성, 도시-농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의 사회적 변화가 초래한 맥락들을 고려하지 못함.
- 다소간 지나치게 생활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예술교육의 가능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있어 복합적 다양성(Complex Diversity in Making and Consuming the Cultural & Artistic Contents)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의 미비.

○ 성과와 의의

- 한국 문화예술 구조 분석에 있어 문화예술 생태계적 패러다임(Ecological Paradigm of Culture and Arts)이라는 새로운 접근 틀 제시
- 생태계의 외부 영역(일상생활 영역, 생산과 소비영역)이 문화예술 영역의 자생성

(Self-growth of Culture and Arts)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

- 문화예술교육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포스트모던 문화예술(Post-modern Culture and Arts)의 중요성 부각.

(2)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09)

○ 주요 내용

- 전국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 지역 주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 지역 거점 문화기반시설과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문화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 전략을 제시.
-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활성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의 방안 모색.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

○ 한계점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요인인 활동가 및 강사에 대한 조사가 배제됨.
-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제시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활성화 모델에 반영되지 않음.
-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실태에 대한 수량적, 질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인적 구성원인 활동 및 전파자의 의견수렴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문화예술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별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사례를 들어서 구분하여 논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함.

○ 성과와 의의

-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지역별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을 규명, 이를 활성화에 반영.
- 전문인력 유무의 변수로 문화기반시설 운영 실태를 구분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 활성화에 전문인력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문화창작 및 공유의 장으로서 문화기반시설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을 「시설관계자 - 전파자(활동가, 강사) - 시설이용자(주민)」의 3차원으로 구성하여 파악함.
- 실태조사에서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분석하여 활성화 모델 개발에 반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모델이 도출될 것임.
- 지역 특화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의 근본적인 토대는 지역민-문화기반시설-활동가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임.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2012)

○ 주요 내용

- 2008년에 이어 현재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인적·물적 환경을 분석하여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
-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 현황과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요 등을 조사함.
- 나아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시사점

- 시설 유형별로 전국 16개 시·도 400개소의 시설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함.
- 소재지별로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대도시 지역 시설이 전체 시설의 31.0%에 해당함.
- 시설 운영주체의 경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50%를 넘었으며, 사립시설 20.3%, 위탁운영 10.0% 등으로 나타남.
-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에서 2011년과 2012년 모두 수행한 기관은 문화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순으로 조사됨.
- 2년간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시설은 문예회관과 문화의집,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미술관 순으로 조사됨.
- 2008년과 2012년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의집과 도서관이 ‘진행하지 않음’에서 ‘진행’으로 전환한 것과 미술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의 수행 경험이 증가한 것임.
- 프로그램 개설 수는 문예회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미술관, 박물관 순으로 조사됨.
- 문예회관과 문화원은 일반 성인 프로그램을, 문화의집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모두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설함.
-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문예회관은 유·아동 및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수가 2008년에 비해 2012년 대폭 증가함.
- 문화의집의 경우, 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원의 경우, 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술관의 경우,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서는 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성과와 의의

- 2008년과 2012년 조사를 종합해 본 결과, 성인에 치중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을 다양한 연령대 및 계층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아동 및 청소년 등의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문화 및 노인 등 현재 사회적 추세에 따른 다양한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고민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게 예산 및 재정 확보, 인력부족, 인프라 부족, 참여자 인식 부재, 참여자 저조의 순으로 조사됨.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방안 연구」(2015)

○ 주요 내용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의 창조와 집적, 전달, 매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정부 또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힘쓰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고 그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도 다변화하여 문화예술의 유통 및 지역주민의 보다 풍요로운 문화향유와 참여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구, 면적 등과 같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여건에 의해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및 서비스 전달에 지역 간 불균형 및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생색내기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시설의 경우 콘텐츠의 부족과 운영 부실로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실태와 주민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공급방안, 즉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의 배치 및 확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및 시사점

- 지역 문화기반시설 배치 개선방안으로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문화기반시설 이용 시 최대 이동의향 거리(도시지역/농어촌 지역 구분)를 토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네트워크(Network) 분석을 통해 각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권역(Service area)을 도출함.
- 어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나타내는 4가지 변수(비 서비스권 비율, 지역인구 비율, 청소년계층 비율, 재정의존도)를 고려하여 입지지수를 설정하고, 기초 자치단체별로 입지지수를 도출함.
-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의 확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문화기반시설 통계 및 평가체계 구축, 문화기반시설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유인 제공 등을 제시.

(5)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2016)

○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력 플랫폼 구축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을 유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태와 수요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조사함.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내용 및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아직 시장 수요의 규모 및 수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융·복합 기반의 협업 확대, 통합예술 장르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교육과 비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촉구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들의 소통, 공유,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창조 영역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력 협업 플랫폼은 오프라인의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협업 프로젝트 랩(Lab)을 구축하고, 협업의 결과물을 현장에서 사업화, 창업화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지식 공유 플랫폼은 현 시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모델로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이 지식 아카이빙 및 공유 활동을 지원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2017)

○ 주요 내용

- 사회적 ·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다차원적인 정책 접근과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의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지역의 문화생태계(환경)를 둘러싼 공급 환경과 수요 환경의 자원을 파악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의 범위와 지표 및 문항 설계 등 조사 체계를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주요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DB화하고 전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수 및 학습 공간 일지도, 프로그램 장르 등 다양한 분석을 진행함.
- 조사를 위한 지표 체계는 1) 자원(지역경제자원, 지역문화자원, 지역인적자원), 2) 수요(문화예술교육 과거 경험, 문화예술행사 관람), 3) 공급(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인력,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예산,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4) 실행(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수행,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 사업 수행,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경로), 5) 성과 및 향후 의향(문화예술교육 성과 인식, 문화예술교육 환경 인식, 향후 문화예술교육 수행 의향)으로 구성함.

○ 연구 내용 및 시사점

- 연구 내용 중 문화기반시설 조사는 기초문화재단(47개), 문예회관(97개), 문화원(146개), 문화의집(39개)으로 진행됨.
- 조사 내용은 종사자 수, 문화예술교육 담당인력, 교통 접근성, 예산, 문화강좌(아카데미)운영 여부,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장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 여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인식,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민의 관심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자체 관심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인력 수급의 수월성,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단체의 충분성,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연계/협력(문화기반시설, 지역생활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시 연계/협력도가 활발한 영역, 향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시설/단체,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 의향, 문화예술교육 중점 교육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행 시 중요 고려 요인을 포함함.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한 운영단체(2,053개)의 사업계획서(4,008개의 프로그램)를 분석한 결과, 운영단체 내의 학습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진행 하는 비율은 전체의 12.7%에 불과함.

- 운영단체들이 최근 3년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단 한 번 수행한 비율이 55.8%에 이르러 절반 이상의 운영단체가 단발성 참여에 그치고 있음.
- 2회 이상 참여한 운영단체라 하더라도 공모사업에서 60% 정도는 해당 사업 내에서만 중복 참여함으로써 사업간 수행 경험의 부족함이 실정임.
- 운영단체들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개별 프로그램을 전수 분석한 결과, 단일 장르/교육이 59%, 통합 장르/교육의 비중이 41%로 분류됨.
- 단일 장르/교육의 상위 5개 분야는 음악, 연극/뮤지컬, 미술, 영화/영상, 문화재/문화유산/전통으로 나타났으며, 통합 장르/교육의 상위 5개 분야는 미술, 연극/뮤지컬, 인문, 음악, 영화/영상으로 나타남.
- 통합 장르/교육 분야에서 사업 모두 융합 비중이 고르게 높은 가운데,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사업은 미술과의 융합이 높고, 토요문화학교 기획 사업은 미술과 음악이 높은 반면, 부처 간 협력사업은 다양한 장르/교육 분야가 포함되어 설계됨.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여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민 관심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자체 관심도 등에서는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인력 수급의 수월성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은 문화원, 문화의집 경우, 예산 및 재정 확보를 가장 많이 언급함.
- 전반적으로 문화의집, 문화원이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인력 수급 및 예산 확보에서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시 연계/협력도가 활발한 영역에서는 문화원은 문화예술인, 문화의집은 유관 공공기관, 문예회관은 문화예술단체로 나타나 문화기반시설 목적성에 따라 연계/협력도에서 차이가 발생함.
- 운영단체 소재지는 수도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리적 모습으로는 ‘L-Type’의 양상이 두드러짐.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지역 운영단체를 중심으로 인근 시/도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운영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전국을 커버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수행되고 있음.
- 인근 시/도 지역 및 전국을 커버하는 운영단체는 전통이 있는 대규모의 운영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의 신생단체들은 입지하고 있는 시/도 지역 내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운영단체의 연혁과 규모에 따라 선택적, 자발적으로 활동 영역이 구분됨.

○ 성과와 의의

-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전북, 강원은 문화예술교육의 투자와 공급이 활성화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맥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인프라이자 매개자로서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및 활동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시.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향유 차원에서의 매개의 역할 뿐 아니라 신규 관객을 발굴하고 생활권 내에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
- 이를 위해 중앙-지역 간 지원체계 및 협력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지역 내 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간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인구구조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 지역의 수요정보와 정책과 제도, 예산과 사업, 문화시설 및 단체 현황 등 지역의 공급정보를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체계적, 중장기적인 지원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지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분야별, 지역별, 장르별로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략 방안을 제시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지역문화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문화 정책으로서 “생활문화 정책”과 기존 예술정책에서 “생활예술 정책” 등의 개념 정립 또한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

(7)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2018)

○ 주요 내용 및 의의

- 지역 분권 맥락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체계를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둠.
- 광역 및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실태 분석,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조정 및 운영 역량 강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자치 환경 조성의 비전 제시.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직·수평적 체계 구축(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방안 제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역할의 중요성 부각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합(FGI)을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의 조사 분석 반영.

〈표 II-2〉 지역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분석 항목	분석 결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비전, 미션, 정체성 설정 미흡 - 지역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의 통합적 리더십 미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정책역량	- 조사 연구, 사업 기획, 평가, 컨설팅, 소통 및 협력 기반의 네트워킹 등 정책 개발 역량 미흡
기초 및 생활 밀착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필요성	- 지역 현장 기반의 혁신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미흡 - 지역 현장의 자원 발굴, 활용체계 미흡 - 기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필요
기초 및 생활밀착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이해관계 복잡성 및 상호 불신 환경 존재 - 기초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민간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의 참여 가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체계	-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지역 현장에 바탕을 둔 사업 기획 활성화 필요 - 지역 인적 자원들의 소통과 협업 플랫폼 구축 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설치, 지정, 운영에 있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가 체계	- 장기적으로 기능 확대에 따른 자체 사업평가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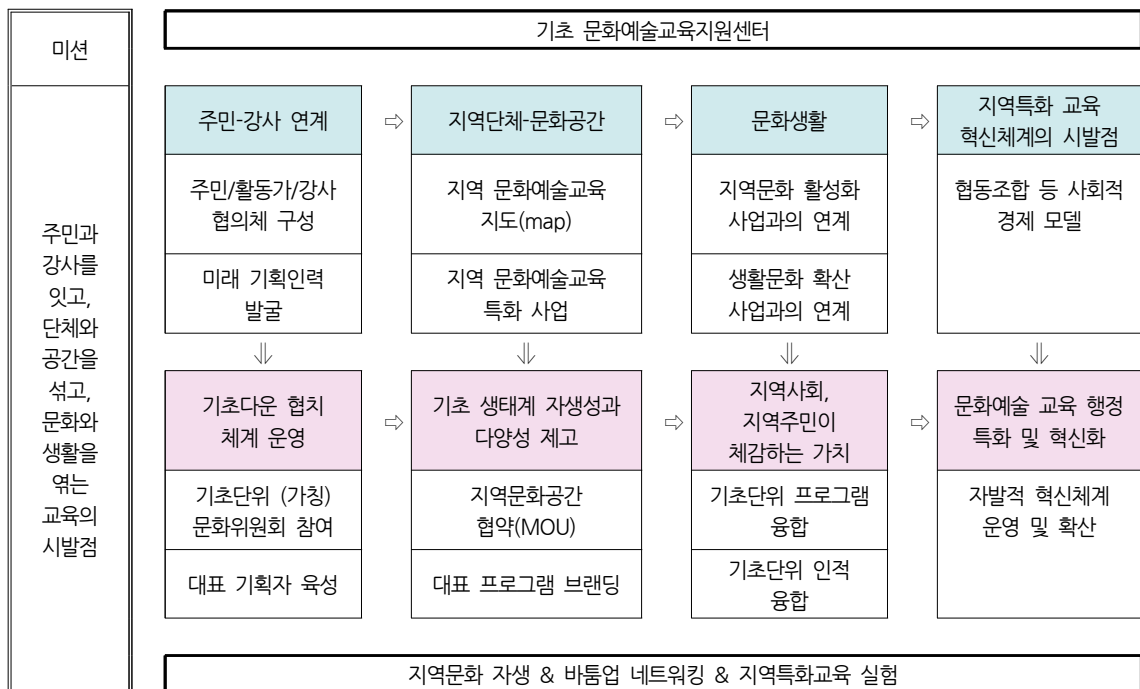
○ 한계점

-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델에서, 「주민-활동가-강사 협의체 구성」을 지역문화자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지역을 바탕으로 한 협의체의 이념적 모티브가 불확실함.
- 보고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연구의 결과이지만, 인터뷰 조사만으로 현장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심층인터뷰는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량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심층인터뷰 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통해서 내용을 범주화 및 계량화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황 파악, 문제점 및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음.
-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체계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분권과 혁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위한 인적 토대로서 지역민-활동가-강사의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성(Communality) 즉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 공유하는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of Local Culture and Arts)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공간, 예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지역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형태를 다양

하게 설정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기초 단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권역별 또는 문화소외 지역 등에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와 관련, 새로운 독립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문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분의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재단 등을 운영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컨설팅 체계를 구축,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2〉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모델(안)³⁾



○ 성과와 의의

- 지역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자치적 환경, 운영의 자율성 조성이 지역 문화예술

3)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2018)

활성화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제시.

-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 분석하여 현장의 실제적 욕구(Active needs)를 반영한 현장 중심적(Field-Centered) 연구결과와 비전을 도출한 점.

2. 문화기반시설 유형 및 현황

2.1. 문화시설 범주

- 문화시설은 인간의 창의성이나 감수성 계발과 그것의 다양한 형태로의 표현 및 감상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공간 및 시설 또는 ‘문화’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 즉 개인의 내면적인 세계를 남에게 표출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 내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인 잠재력을 실현시켜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표 II-3〉 문화시설의 정의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	<p>“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p> <p>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p> <p>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p> <p>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p> <p>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p> <p>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표 II-4〉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구분		내용
공연 시설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구분		내용
시설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 시설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시설(「도서관법」 제2조제1호)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
지역 문화 복지 시설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 시설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 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시설		•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2.2.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유형

-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참조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 -5〉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8.1.1)⁴⁾

세부	개소(관)
국립도서관	1
공공도서관	1,042
박물관	873
미술관	251
문예회관	251
지방문화원	231
문화의집	100
소계	2,749

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표 II -6〉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 (2018.1.1.)⁵⁾

시 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2,749	1	1,042	791	231	20	873	398	371	104	251	68	168	15	251	231	100
서울	386	1	160	132	22	6	129	28	73	28	43	5	33	5	23	25	5
부산	103	0	40	24	14	2	30	13	6	11	7	2	3	2	11	15	0
대구	74	0	36	19	10	7	15	7	5	3	4	2	0	2	11	8	0
인천	101	0	48	40	8	0	28	14	13	1	5	2	3	0	9	10	1
광주	61	0	23	17	6	0	12	5	3	4	10	2	7	1	7	5	4
대전	55	0	24	22	2	0	14	4	4	6	5	2	3	0	4	5	3
울산	41	0	18	14	4	0	9	7	1	1	0	0	0	0	5	5	4
세종	14	0	5	4	1	0	7	3	4	0	0	0	0	0	1	1	0
경기	526	0	250	236	11	3	140	55	75	10	54	12	38	4	42	31	9
강원	218	0	56	33	22	1	100	50	45	5	17	4	13	0	21	18	6
충북	128	0	45	30	15	0	42	25	12	5	11	5	6	0	12	11	7
충남	160	0	59	40	19	0	52	31	17	4	9	2	7	0	18	16	6
전북	161	0	58	39	18	1	43	28	10	5	18	6	12	0	16	14	12
전남	200	0	67	46	21	0	57	34	19	4	29	8	21	0	21	22	4
경북	198	0	65	37	28	0	67	38	18	11	11	5	5	1	26	23	6
경남	198	0	67	43	24	0	66	42	19	5	9	4	5	0	21	20	14
제주	125	0	21	15	6	0	62	14	47	1	19	7	12	0	3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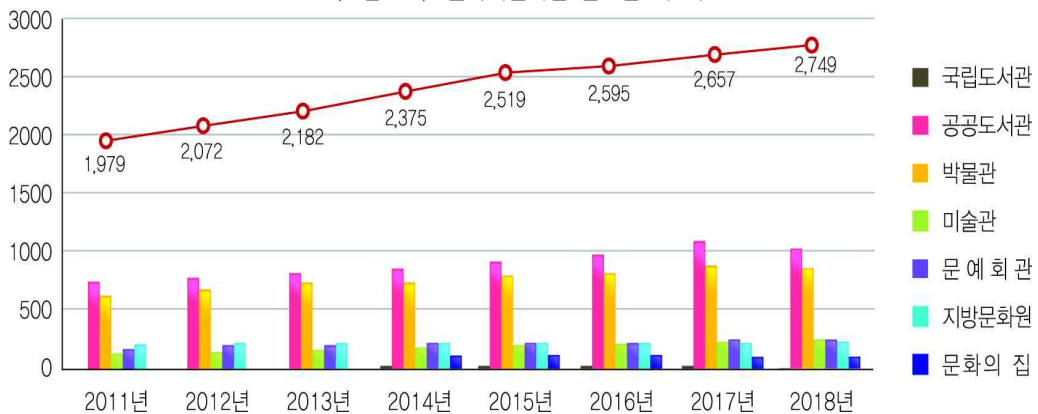
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8)

- 2011년 이후 문화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문화의집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설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7〉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개)

연도별	총 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2018	2,749	1	1,042	873	251	251	231	100
2017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2016	2,595	1	978	826	219	229	228	114
2015	2,519	1	930	809	202	232	229	116
2014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2013	2,182	-	828	740	171	214	229	-
2012	2,072	-	786	694	154	209	229	-
2011	1,979	-	759	655	145	192	228	-

〈그림 II-3〉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개소수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국립도서관

- 도서관협력망의 중앙관으로 공공도서관 지역 대표관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협력사업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교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의 임무를 띠고 있음.
- 「2018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1개가 있음. 조직은 2015년 기준 관장을 비롯하여 3부(기획 연수부, 자료 관리부, 디지털 자료 운영부), 3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1개소(도서관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음.

(2) 공공도서관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공공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문화 활동·독서 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이 포함됨.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병원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과 같은 특수도서관을 제외한 국·공립 도서관으로 한정했으며,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공 도서관은 1,042개관이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 792개관, 교육청이 설립한 공공 도서관이 230개관, 민간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이 20개로 나타났음.
- 「도서관법」 제 28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첫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둘째,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셋째,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넷째,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다섯째,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여섯째,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마지막으로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임. 최근에는 단순한 도서의 대출과 반납, 열람 외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3)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 제3장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분포와 운영 현황 분석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이며,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동법 제4조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둘째,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셋째,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넷째,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다섯째,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여섯째, 국내 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일곱째,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등록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등록박물관은 873개관(국공립 411개관, 사립 358개관, 대학 104개관)이며 등록미술관은 251개관(국공립 68개관, 사립 168개관, 대학 15개관)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문예회관

- 문예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약칭으로 「2018년 문예회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고 전시 및 문화예술행사 등의 용도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의미함. 다만 실제 명칭은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센터, 아트센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1996년에 수립된 「문화복지 중기계획」에서는 기초 지자체에 문예회관 1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촉진과 지역 예술인의 창작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은 251개관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전국 문화예술회관 상호간 협력증진 및 교육·연수, 조사·연구,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5)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공공단체)으로 1950년대 자생적으로 출범, 60년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4년 7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음.
- 지방문화원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군·구별로 1개를 설치하며,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31개관으로 나타났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첫째,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둘째,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셋째, 지역문화의 국내 외 교류. 넷째,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다섯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여섯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일곱째,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임.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1962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6) 문화의집

- 문화의집은 1996년부터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의 극복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 창작의 실현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창작 및 문화체험, 예술교육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설립되었음. 조성 당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부스, 영상·음반 등 각종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AV감상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CD부스, 공연·전시·친목모임 등에 활용되는 문화감상실, 개인 취미활동이 가능한 공방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 창작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 등으로 구성되었음. 기존의 대형화된 문화센터나 문예회관과 다른 생활권 시설로서 부담 없는 시설이용 및 저렴한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창작·체험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문화의집은 100개관으로 나타나며, 각 지역 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문화의집협회가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3.1.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위치

- 문화예술교육은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비확정적인 전달 체계로 안착·확장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맥락은 문화예술교육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읽히지기도 함.
-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형평성을 토대로 참여의 범주와 접근성(내용)을 설정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⁶⁾,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참여 범주를 계층화·대상화한다는 한계를 탈피하고, 가족·시민 등으로 전달 체계에서의 참여(수혜) 범주를 확장하였음.

6) 생활문화 정책 이후,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 중

- 문화예술교육은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문화 향유와 일상화, 지역화보다 콘텐츠(참여 경험)를 중심으로 한 문화 향유와 문화 역량 강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지원시설의 기반 위에 지역·일상이라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확장되어 왔음.
- 다만, 일상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 요구에 따라 생활권에서 쉽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고자 “꿈꾸는 예술터”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공간/시설 기반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19년 4월에는 생활SOC 3개년(‘20년~’22년)⁷⁾ 계획 내에도 포함되어 추후 지속적인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초기부터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⁸⁾을 모델로 확장되어 왔으며 정책 초기에는 기초예술, 문화향유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구축하고자 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생태적 패러다임 연구(200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일상적 삶의 정서, 2)공동체(커뮤니티) 형성, 3)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 4)문화 다양성의 관점, 5)통합적 장르체계 등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가치이기도 함.
-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은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뿐 아니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가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향식(Bottom up) 체제로 읽혀질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제도적으로 실행된 2005년을 기점으로 문화 정책에서 문화 복지 개념이 확고해 졌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생활문화(예술), 지역문화의 개념과 실행이 확장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정책이 병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 다만,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문화예술 범위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특히 “생활문화센터의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범위는 지역 주민 다수가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됨.”⁹⁾
- 이와 같은 변화에서 주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접근성은 일상성, 공동체성, 문화다양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접근성에는 지역성이라는 토대가 존재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관계망에서 예술적 체험의 자기표현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 생활화, 지

7)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훈령* 제2조)

8)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부처간 거버넌스 모델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 거버넌스 모델로 살펴볼 수 있음.

9)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에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동호회들의 형태 및 분야 등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봉사, 교육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음. 142p참조.

역 공동체성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18~'22)>에서는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로의 전환과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¹⁰⁾에서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특히,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전략 과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과 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꿈다락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밝힘.
- 콘텐츠 중심으로 확장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자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¹¹⁾이며 지역 공간을 아우르는 물리적·상징적 공간이자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각기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기에 문화예술교육 전달 체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다소 한계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다수의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르페 아카데미(Arte academy)”,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단위사업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주요 인프라로 참여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문화기반시설을 바라보는 기능은 크게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로 참여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기관으로서의 참여로 볼 수 있음¹²⁾
-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성격(장르적 융합 형태)과 접점(네트워크 역량)은 1) 지방문화원은 향토/지역문화로, 전통/지역문화 중심체로 역할 2) 문화의집은 생활문화로, 생활문화커뮤니티로서의 역할 3)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전시형태로, 시설 공간을 활용한 상주예술단체 연계 역할 4) 도서관은 인문학 형태로, 시설 공간을 활용한 인문거점의 역할 5)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각예술/전시 형태로, 참여 대상 및 지역 단위 거점의 역할을 가질 것으로 임혀짐¹³⁾

10)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 봉사)등을 제시함.

11)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에서는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의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전달 체계를 통해 문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문화자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분야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임.”을 밝힘

12) <2018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구축방안 연구> 63p 참조

13) <2018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구축방안 연구> 64p 참조하여 재구성 함. 선행 연구에서는 공공 도서관을 문화기반시설로 보았을 때, 인문학을 중심으로 ‘길 위의 인문학’파트너로 그 역할을 살펴보았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문교육, 문화교육이 가능한 도서관의 형태도 다수 존재하며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과의 접점뿐 아니라 기초단위의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와 커뮤니티아트로서 그 역할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기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시설공간을 활

〈표 II-8〉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위치

구 분	참여 방식	콘텐츠 성격	주요 역할과 기능
도서관	문화예술교육의 주체/ 협력 기관/ 수혜 기관	인문학	인문학 거점
박물관		시각예술 / 전시	참여 대상 및 지역 거점
미술관		공연 / 전시	지역 문화예술 거점
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	생활문화커뮤니티 거점
문화의집		향토 / 지역문화	전통 / 지역문화 거점
문화원			

- 2014년부터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두됨. 생활문화의 등장 배경에는 여가 시간의 확대, 고령화 시대의 확장, 주체적인 문화 참여 활동(욕구)의 증가, 지역 주민 문화 활동 공간의 다변화, 문화 활동 영역의 다양화,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등 4차 산업 혁명 등의 사회적 변화가 있음.
- 초기 생활문화의 개념적 접근은 문화 향유 및 참여적 문화 활동의 관점에서 창작 중심의 정책과 대비한 문화 복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음. 생활문화는 1) 전문예술과 대비되는 행위자의 관점, 2) 협의의 예술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성과 포괄성을 수용하는 확장적 관점, 3) 공간적 · 시간적 관점, 4) 문화 활동의 주체성 및 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해 왔으며, 5) 수동적인 문화 강자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기획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문화교육, 문화 동호회 활동 및 사회 공헌(봉사) 활동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띰.¹⁴⁾
- 지역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원, 문화의집 등은 민간위탁 형태로 생활문화센터의 역할도 수행함. 이와 같은 경우, 이전 시설의 운영 방향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생활문화센터 조성 목적을 고려해 운영 방향을 수립함.¹⁵⁾
- 지역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의집은 문화적 소외 극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 창작 실현을 목표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창작 ·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추진되기에 맥락적으로 생활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됨.
- 생활문화센터는 국민(또는 주민)을 문화예술 창조 주체로 설정하고 주민에 의한 문화예술 참여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양혜원, 2015:46).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문화시설이 관람 및 강습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함.
- 문화예술회관은 생활문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전시 · 교육적 기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거점 공간으로

용한 상주예술단체 연계방안 뿐 아니라 ‘꿈의 오케스트라’ 등과의 접점을 갖고 있음.

14) <2016 생활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연구> 참조.

15)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 조사> 141p 참조.

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¹⁶⁾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등은 문화예술 회관의 새로운 정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공급중심의 정책 관점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가 각기 다른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 변용 · 생산의 체제로 동시적으로 임혀질 수 있음.

3.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3.2.1. 문화기반시설 협회 주요 사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는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유기적인 정책 담론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있음.
- 유관기관 회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별 · 대상별 · 시설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 체계 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지속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의 현황 및 의견 공유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코자 추진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거점 기관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9>¹⁷⁾¹⁸⁾와 같음.

<표 II-9>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별 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	목적	대상	추진방식
한국도서관 협회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역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 토론, 탕방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자생적인 인문 활동 확산에 기여	전국 도서관 이용자	전국 300개
	도서관 재능 기부 강연회	연계기관과 함께 전국의 소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시민과 학생을 위한 도서관 재능 기부 강연회를 추진	전국 도서관 이용자	한국사고와표현학회 공동 추진, 10월의 하늘준비위원회와 진행
한국박물관 협회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박물관의 정체성에 부합한 인문학적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인문의식 고취 및 역사의식 함양 현장속의 인문학, 생활 속의 인문학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	전국 등록 공·사립·대학 박물관 대상 공모

16) <2018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평가 연구> 참조.

17) <표 II-9>의 사업 현황은 개별 문화기반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의 유형이 아닌 문화기반시설 연합기관에서 기획·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임.

18)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홈페이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정자료(2019) 참조.

구 분	사업명	목적	대상	추진방식
		을 통해 유물과 현장, 그리고 역사화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 마련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문화 서비스 강화: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특화된 사립박물관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	학예 인력, 교육 인력 등 인건비 지원
	「청소년 멘토 KB!」와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인류문화유산과 역사적인 산물을 체감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련 교육을 통해 관련 및 체험기회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향유에 보다 관심을 갖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초, 중, 고등학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포함된 사회복지기관 단체 참여 가능)	참가비 지원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박물관의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권과 문화적 역량을 제고	연령별 참여 구분 없음	대상 및 내용에 따라 강의,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복합적으로 구성
	제 13회 한국박물관국제 학술대회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 및 연구 지원을 통한 구심점을 구축하고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개념 확장의 계기 마련 해외 전문가의 발표를 통한 박물관계의 국제적 현상 이해와 정보 교류 활성화 도모 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학술 단체의 계획적 연구 지원의 토대 마련 박물관 및 관련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박물관 활성화 및 전문가들 간의 교류 확대		각 주제별로 국내 박물관 학술 단체 및 해외 박물관 관계자 발표 키노트 세션, 참여 단체 섹션으로 구분하여 진행
	한국 대학생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교육 운영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실무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기회 확대 박물관·미술관 인력 보충으로 관운영 활성화에 기여	전국 박물관·미술관 / 대학생 및 휴학생	온·오프라인을 통한 회원 관 대상 참여 공고, 참여 대학생 모집 대학생 모집 후 개별 면접을 통해 문화시민봉사자 선정 문화시민봉사자 대상 기본 소양교육 및 뮤지엄 탐방 시행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미술관 문화가	“문화가 있는 날” 소외지역 미술관의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주민들	직장인, 시니어, 주부, 가족,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협회 사업수행기관 공모 사립미술관이 개발

구 분	사업명	목적	대상	추진방식
	있는 날	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가능하나 '성인 및 문화소의 계층'을 두된 대상으로 함	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문화의 집 협회	따로 또 같이-우리 동네 문화 아카이브	지역 주민의 시선으로 동네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 오늘과 일상을 기록하고 과거와 현재를 새롭게 해석하며 동네 문화자원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일상적, 자율적 주민 문화 활동 활성화	전국 문화의집	전국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공모
한국문화 예술회관 연합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사업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문화 활동 장려	지역 문예회관 및 청소년	지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역 문예회관 및 지역 주민	지역 문예회관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
한국문화원 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고령사회 어르신 세대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세대통합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등)	60세 이상 어르신(50대의 경우 20%이내 참여 가능)	전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각 문화기반시설에서는 <표 II-10>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서관협회, 박물관협회는 “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협회, 미술관협회는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의집 및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원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
-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주요하게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혹은 동아리 지원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인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표 II-10>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별 추진 사업

구 분	추진 사업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 이용자 대상 길 위의 인문학, 재능기부 진행
한국박물관협회	-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문화시민봉사단 교육 운영 등 진행
한국사립미술관협회	- 문화가 있는 날 추진
한국문화의집협회	- 지역 주민 대상 우리 동네 문화 아카이브 진행

구 분	추진 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지역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대상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진행 - 문화예술회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진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어르신 세대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동, 세대통합프로그램 진행

3.2.2.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문화 예술교육 주요 사업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들 수 있음.
- <표 II-11>는 지역 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현황과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문화기반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을 제외 하면 미술관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

<표 II-11>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참여 현황¹⁹⁾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계
강원		1				2	3
광주	1	1	2			1	5
경기			1			6	7
경남						4	4
경북	1	1	1	1		2	6
대구			1			2	3
대전	1						1
부산			1			3	4
서울		1	3			1	5
세종		1			1	1	3
울산					1		1
인천	1				1		2
전남			2			2	4
전북						5	5
제주	1		2			1	4
충남		3	2		1	3	9
충북			1			3	4
계	5	8	16	1	4	36	70

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 참조(2019.10월 현황).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는 문화원이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이는 협력 혹은 수혜적 위치가 아닌 주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인 만큼 문화원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II-12〉 2019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현황²⁰⁾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계
강원							0
광주	1				1		2
경기					1		1
경남		1			1	2	4
경북						1	1
대구						1	1
대전					2		2
부산							0
서울			1				1
세종							0
울산							0
인천							0
전남							0
전북			1		4		5
제주			1				1
충남						1	1
충북	1						1
계	2	1	3	0	9	5	20

-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임. 2009년도부터 추진된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시범사업 초기 국·공립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현재는 문화기반시설이 운영 기관이 되어 문화시설의 공간과 유치원·어린이집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2019년 문화기반시설의 유아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현황은 〈표 II-13〉과 같음.

〈표 II-13〉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참여 현황²¹⁾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계
강원		3			1			4

20) 지역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참조(2019.10 현황).

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정자료(2019) 참조.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계
광주	1						2	3
경기		1	1			2	1	5
경남	1		2					3
경북					1	1	1	3
대구		1				2		3
대전					1		2	3
부산			1			1		2
서울							3	3
세종	1	1						2
울산		2					1	3
인천	1	1			1		1	4
전남	1		1				2	4
전북						1	1	2
제주	1		1				3	5
충남	1	2					2	5
충북	1	1	1			1		4
계	8	12	7	0	4	8	19	58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지역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의 무 배치기관 외의 문화시설 중에서는 문화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다수 포함됨.
-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시설 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19년 7~9월동안 총 7회에 걸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함.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함.

〈표 II-14〉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현황²²⁾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계
강원		2	1		1		2	6
광주				2	2		1	5
경기		2	2					4
경남		2	1			1	4	8
경북			3			2	1	6
대구		1				3	2	6
대전		2	1				3	6
부산		3	2			1	1	7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정자료(2019) 참조.

구 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기타	계
서울	1		1			2	3	7
세종								0
울산		1			1		2	4
인천	1	1	1		2		1	6
전남		3	2				1	6
전북			1	2		1	4	8
제주		1			1		1	3
충남	1	1	3	1	1			7
충북		3	1	1			1	6
계	3	22	19	6	8	10	27	95

4.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현황

4.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 아르떼 아카데미는 창의적 교육 역량 증진, 전문 교수법 체득, 예술 전문성 심화,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등을 목표로 실행됨. 이를 위해 예술 가치 체험, 창의적 사고의 구조화, 효과적 교수법 구안 및 응용력 강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 2019년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양성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기획자,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학교 예술강사 및 교원, 교육실행자, 중등 일반교사, 초등 일반교사,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되고 있음.
 - 연수의 시기는 5월~ 10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업의 진행은 1일, 1박2일, 2박3일, 3박 4일의 형태로 진행되며, 연수의 대부분이 숙박형 연수로 진행됨. 연수는 방학일정을 중심으로 7월~8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연수의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기획자, 행정가에 대한 연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학교 예술강사, 초등 일반교사와 중등 일반교사,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에 대한 연수도 진행되고 있음.
 - 연수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젝트·기획형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의 실체가 주를 이루며, 온·오프라인 연계연수와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도 실시되고 있음. 또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구성되어 있으며, 초·중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자체 기획형 연수도 진행되고 있음.
- 2019년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양성 연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와 철학, 기획, 행정 및 문화예술교육의 실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체계화된 국가수준의 연수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 담당강사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단점이 있음.

○ 아르떼 아카데미 인력양성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5>와 같음.

<표 II-15> 2019 아르떼 아카데미 인력양성 사업 현황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2 : 감각의 재발견(1차)	문화예술교육강사	5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블렌디드]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실행자(예술강사, 기획자)	5월	1박2일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연수 이수자 대상 과정 (통학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1 : 오월, 몸에 묻는 이름들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5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축제기획 : 화성, 어느 별에서의 하루	문화예술교육 강사, 기획자	6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공공예술 : APAP(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걸어서 예술 숲으로	문화예술교육 강사, 기획자	6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융·복합 미래기술과 문화예술교육 1 : 재생공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아트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6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세운상가 속 키워드 탐색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6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3 : Lost and Found-스토리텔링을 통한 작은 극 찾기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예술가	6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2019 K-TAT Lab Workshop 1	학교 예술강사 및 교원	7월 ~8월	3박4일	숙박형 연수
지역문화예술교육트렌드 2019: 문화트렌드 읽기,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기획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7월 ~8월	3박4일	숙박형 연수
전통탈춤으로 예술수업 만들기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 아카이빙 사례 워크숍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철학: 일상과 예술 (※부제 변경: 공연예술 → 일상과 예술)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7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예술로 즐기는 소리, 사운드 아트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애니메이션 감상교육의 이해와 활용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창의력을 펼치는 몸짓, 몸으로 상상하기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 행정가를 위한 라이프 코칭 (life coaching)	문화예술 관련 행정인력	7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4 : 몸으로 만나는 나 (1차)	문화예술교육 강사	7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x생태문화 : 단오를 품은 강릉, 우리의 상상	문화예술교육 강사, 기획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9 : Let's go together! (2차)	문화예술교육 강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8 : 팔월, 몸이 묻는 이름들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 관리 및 운영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6 : Lost and Found - 일상 속 이야기의 발견과 작은 연극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생활문화 공간으로의 문화의집 이해	교육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등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놀이수업과 학습동기 유발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교수트랙 / 예술교육전문성 -창의적교육개발 및 실행
디지털로 즐기는 형형색색 민속문화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기획트랙 / 예술교육 전문성 영역(문화재)
여성과 공예 - 공예를 통해 여성을 말한다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과정 : 교수트랙/예술교육 전문성(시각예술- 공예)
연극무대: 우리 삶 속의 제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2019 K-TAT Lab Workshop 2	학교 예술강사 및 교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온오프라인 연계 연수]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2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기획 워크숍 : 학교문화예술교육 디자인 공작소	교사,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기획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교사-예술교육가 협력] FGI 워크숍 : 학교문화예술교육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	교사,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기획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2019 교원 자체기획형 연수] 예술가의 가방 - 관찰하고 상상하는 탐색의 여정(중등)	중등 일반교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온오프라인 연계연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예술창작과 교육 '데이터미학과 인공지능'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8월	3박4일	숙박형 연수
[온오프라인 연계연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예술창작과 교육 '데이터미학과 인공지능'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교사	8월	3박4일	숙박형 연수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기	교육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연수구분 : 기획트랙 / 교육대상이해(유아)
시·원하다 - 시로 꿈꾸다 x 시로 만들다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연수구분 : 교수트랙 / 예술교육 전문성 영역(인문사회)
자치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실행자(기획자 및 학교/사회 예술강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 행정가 네트워킹 워크숍-견고 잠자고 깨어있는 손들 (※부제 변경: 몸·관계와 소통의 열림 → 견고 잠자고 깨어있는 손들)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5 : 몸으로 만나는 나 (2차)	문화예술교육 강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문화예술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온오프라인 연계 연수]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1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8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장단노리 - '두드림의 즐거움'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연수구분 : 교수트랙 / 예술교육전문성-공연예술(음악)
[2019 교원 자체기획형 연수] 예술가의 가방 - 관찰하고 상상하는 탐색의 여정(초등)	초등 일반교사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연수구분 : 교원연수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로 다시 보는 장애 예술 교육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과정구분 : 공동트랙 / 기획전문성- 교육대상 이해 / 장애·특수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수업 컨설팅	교육 실행자(학교·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8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10 : 감각의 재발견 (2차)	문화예술교육 강사	9월	2박3일	숙박형 연수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교육 공간 (1차)	문화예술 관련 행정인력	9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2차)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행정가)	10월	1일	-
지역 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 (2차)	지역 문화 재단(광역 및 기초)	10월	1일	-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1차)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행정가)	10월	1일	-
지역 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 (1차)	지역 문화 재단(광역 및 기초) 종사자	10월	1일	-

4.2.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및 광역센터

- 지역의 전문인력 연수지원은 각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및 창의적 교육역량 증진 등 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 연수의 시기는 2월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1일, 1박2일, 2박3일의 일정으로 대부분이 통학형 연수로 진행되며 일부는 숙박형 연수로 진행됨.
- 연수의 대상은 예술가, 매개자, 기획자로 진행되며, 지역특성화, 유아지원 사업, 꿈다락 지원사업의 관계자만을 위한 연수도 있으며, 예비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
- 연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연수와 해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된 연수 그리고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로 진행되고 있음.

4.2.1.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의 연수내용은 예비학예인력의 기본교육, 전문인력의 실무교육, 현장실무교육, 문화예술행정 특별과정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수의 시기는 5월~ 12월로 진행되며 1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됨.
-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에서는 2019년 연수추진 방향을 1)예술교육전문성, 기획전문성, 기본소양과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현장탐방에 대한 교육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세분화, 2) 지역기반시설과의 네트워킹 등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종사자 간 원활하고 창의적인 관계 형성과 기관 간 협력 연수 추진을 통한 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3)교육진흥원과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와의 협력으로 연수 횟수 증가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의 인력연수(2017년~ 2019년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6>²³⁾과 같음.

<표 II-16> 문화기반시설 연합회(협회) 인력연수 현황

구 분	연도	연수명	주요내용	일정	대상
한국박물관 협회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	2019 전국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예비 학예인력 기본교육	12월 1박2일	-학예사 기본 소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박물관·미술관 근무자(경력 2년 미만)또는 근무희망자
		2019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심화연수)교육	8월 (1박 2일)	박물관·미술관 재직 학예사
		2019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심화연수(학예)	8월 (1박2일)	박물관·미술관 재직 학예사
	2018	2018 관장·학예사 국제 행사 참가 및 박물관·미술관 단기연수	(주제) Educate, Engage, Elevate! Museums on the Rise 교육, 참여, 상승! 떠오르는 박물관	5월 (5박7일)	- 국·공·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재직 관장 - 박물관·미술관 재직 학예사
		2018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전문교육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국내외 윤리 및 규범, 실무사례 등	11월 2일(12시 수)	유관기관 및 국·공·사립 박물관 종사자
		2018 전국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전문인력 실무교육 일정	특강, 전시, 사례발표 및 현장 탐방	11월	박물관·미술관 재직자
		2018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예비학예인력 기본교육	예비학예인력 기본교육	12월 (1박2일)	예비 학예사
	2017	2017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경 콘퍼런스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 특강 및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장 간의 정보교화, 네트워크 강화	12월 (1박2일)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장
		2017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실무 교육	11월	박물관·미술관 재직

23)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홈페이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행정자료(2019) 참조.

구 분	연도	연수명	주요내용	일정	대상
		교육아카데미			학예사
한국문화 예술회관 연합회	2018	2018 문예회관 아카데미	문화예술행정 특별과정	2월	문예회관 종사자 및 시,군,구 지자체 문화예술과 종사자
			신규자 과정(경영자, 실무자) 등 8개 과정	4월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2018 찾아가는 서비스 접점 인력 교육	기본실무과정, 현장실무과정	5월~11월	문예회관 종사자 및 공연장 도우미(기관당 1회 교육)
	2019	2019 문예회관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과정	-	-
	2019	2019 문예회관 아카데미	신규자 과정(경영자·실무자)	-	-
문화의집	2019	2019 문화의집 성과공유 워크숍	공간 탐방 및 문화의집 역할에 대한 고민	12월 (1박 2일)	문화의집 운영자
	2019	2019 지역의 힘	지역 문화정책 공유 축제	11월 (1박2일)	한국문화의집 협회 사무처
	2019	2019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	8월 (2박3일)	문화기반시설 교육 담당자
	2019	2019 아르떼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역량 증진	8월 (1박2일)	교육실행자 연수
	2018	2018 문화의집 권역별 워크숍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컨설팅	7월	문화의집 교육 담당자

4.2.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12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 및 해외전문가 연계 문화예술 연수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 광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는 연수의 일관성 및 지역적 특성이 부족하여 연수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님.
- 광역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수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의 위계 또는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며 유사한 형태의 연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앙차원의 연수체계 확립이 필요함.
- 광역센터 인력양성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7>²⁴⁾과 같음.

24) 지역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표 II-17〉 광역센터별 인력양성사업 현황

연수 주체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경북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몸과 예술교육자의 정신	충북,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 실행자	2월	1박2일	해외전문가 연계 문화예술교육 연수
	커뮤니티댄스1, 2, 3	무용전공자 또는 노인대상 커뮤니티 댄스에 관심 있는 예술가, 예술강사	10월	1박2일	영국문화원과 협력연수
	영상메이커	지역특성화, 꿈다락 운영기관·단체 관계자	8월	1박2일	경북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
서울 문화 재단	서울 예술인 역량강화 사이버 연수원	-예술전공 대학(원)생, -예술 관련 준비자, 종사자 -예술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11월	-	예술인을 위한 실용적인 이러닝 강좌 개설
	서울예술교육포럼	예술가, 예술교육 정책 및 기관,단체 관계자	12월	1일 (5시수)	서울예술교육 2.0을 준비하는 연구공유포럼
울산 문화 재단	유아기 예술교육의 마중물	유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예술강사, 유아강 사, 기획자, 예비인력)	5월	1박2일(1 2시수)	유아문화예술교육 해외전문가 초청연수
	교사와 교실이 행복한 드라마	울산지역 초·중·고 교사	7월	2박3일	드라마를 주제로 역량별 연수 프로그램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교육	관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9월	1박2일(1 2시수)	미디어아트 기술관련 기술 관련 기초개념 이해 및 교육 사례 학습 및 체험
인천 문화 재단	눈으로 말해요! 아동극과 영유아	유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5월	6시수	해외전문가 연계 문화예술교육 연수
	데이터와 연산장치	인천지역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7월	1박 2일 (16시수)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제주 문화 재단	필드노트-수집된 물질들	도내,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8월	1박2일(1 2시수)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연수
	soundscape x emotionscape	도내,외 문화예술교육 3년이상 활동가	11월	1박2일	문화예술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채움 IAa	17세이상	5월	주 1회 4회차 (2시수)	-
		20세이상 여성			
		8~13세			
		17세이상			
		17세이상			

연수 주체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채움이아 2기	14~16세	9월	주1회2시간	-
		14~16세			
		14~16세			
		17세이상			
		8~10세			
		20세이상			
	채움이아 3기	경로당 4팀	11월	주 1회 4회차 (2시수)	-
		어린이집6-7세반			
		20세이상			
		20세이상			
		17세이상			
		20세이상			
충북 문화 재단	우리가 만나 좋은 예·감	예술강사 및 기획자	6월	1박2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연수
		예술가 및 예술단체,초중등교사	7월	1박2일	
		청소년지도사	9월	1박2일	
		예비교원	9월	1일/2회	
		예술가 및 예술단체, 유아교사	12월	1일/2회	
		통합	하반 기	1일/3회	
	삶은 감각이다	기획자,예술강사,그 외 문화예술현장 관계자	6월	1박2일	삶,공간,몸,감각을 주제로 한 예술가 참여 워크숍
대구 문화 재단	내 안에 숨겨진 예술감성	기획자,예술강사,초중고 교사	7월	2일 2차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연수
	전문인력연수 : 끝나지 않은 이야기 STEP1 [신소리] 좋은 말로 마음을 풀어지게 하다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예비인력	5월	4일 (총21시 수)	전문인력연수
	전문인력연수 : 끝나지 않은 이야기 STEP2 [이음새] 문화예술과 기술을 잇다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예비인력	7월	3일 (총18시 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과정명: 현대예술 다시보기 '테크놀로지의 활용'
	전문인력연수 : 끝나지 않은 이야기 STEP3 [새길]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다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기획자, 예비인력	9월	4일(총24 시수)	-
	전문인력연수 : 끝나지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11월	4일(총24	원하는 강좌 및 시간

연수 주체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얇은 이야기 STEP4 [길라잡이] 나아갈 방향으로 이끌다	기획자, 예비인력		시수)	선택 가능
강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2019 강원문화아카데미 개회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문화시설 관계자	2월	1일	-
	2019 경력자 대상 문화예술교육아카데미 - 지구별 여행자의 합한선택 브이로그 패키지 여행	꿈다락,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3년이상인 단체의 구성원	9월	1박2일	숙박형 연수
경기 문화 재단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1	실무자	6월	1일	연간 총3회진행 (2회 필수참여)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1	실무자	8월	1일	연간 총3회진행 (2회 필수참여)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1	실무자	10월	1일	연간 총3회진행 (2회 필수참여)
경남 문화 재단	2019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연수 '일취월장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예비 기획자 및 기획자	5월~ 8월	총4회 (과정별 1박2일 숙박형)	- 기초과정 - 심화좌경1 - 심화과정2 - 연계과정(교육진흥원)
	2019 TA 강사 레벨업 프로젝트	예술교육가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단체 참여강사	6월	1박2일 숙박형	-
	2019 아르떼 아카데미 경남센터 협력 연수 '몸, 통하기'	문화예술교육 활동단체 기획자	8월	2박3일 총 18시수 (숙박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2019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	11월	2일	진흥원 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신청방법 안내 - 예술활동증명 - 저작권 보호 - 표준계약서 작성법
대전 문화 재단	2019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 예술경험은 어떻게 삶에 의미를 주는가	문화예술교육 실행자(예술강사, 기획자)	7월	2일(총12 시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부산	2019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심화과정	-	2월	1박2일 숙박형	-

연수 주체	과정명	대상	시기	형태	비고
문화 재단	‘문화다양성,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2019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 지역문화예술교육 말모이 in 부산	부산에서 활동하는 3년 미만 예비 기획자	5월	2일 (12시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 아이들의 예술경험을 위한 시각예술 창작 워크숍	부산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5월	1일 (6시수)	미술경험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가능성 모색 해외초정기관 : 디아크 (THE Ark)
광주 문화 재단	up+power = 우퍼	광주 활동 예술인	12월	2일 (10시수)	복지지원사업과 창작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2019 예술경영아카데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단체(개인), 지역문화예술단체, 관련(공공)기관 종사자	6월	1일 (5시수)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창의예술교육연구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인생라운드 #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단체 기획자, 및 강사진	6월	1일/4회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 축사업
충남 문화 재단	내기한판 -내가 기획한 판	문화기획자,활동가,문화 예술기관,단체 실무자 또는 관심자,예술강사, 문화기획에 관심있는 자 등	6~8 월	13회차/4 시수	2019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축제기획자, 지역거점 문화기획자 양성
전라 남도 문화 재단	2019 해외전문가 연계 연수	도내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자(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기획자 등)	10월	2박3일	해외 교육기관 및 아르떼 아카데미 연계 초청 연수
전라 북도 문화 재단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이슈포크샵	창의적 예술 놀이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원 등 도민	10월	1일	-
	예술 재능 발견 프로젝트 -D.D.Go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8월	2박3일	2019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Ⅲ.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설문조사(수량적 분석)

1. 설문조사 설계
2. 통계처리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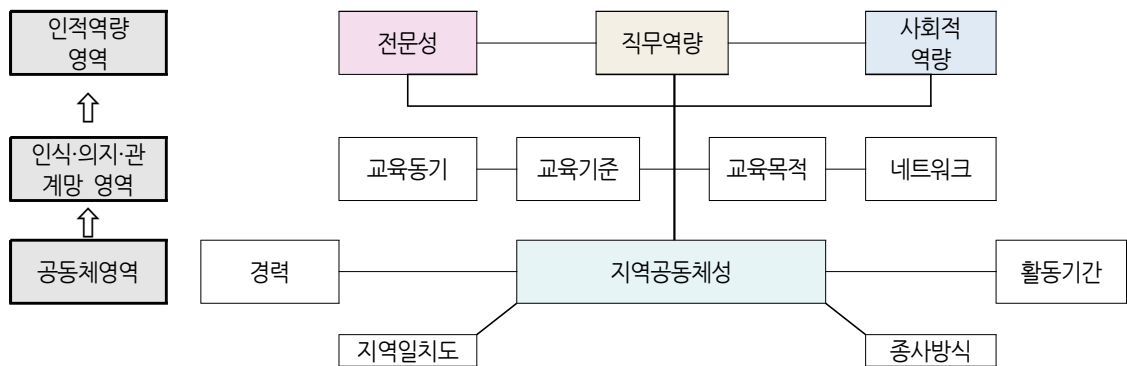
Ⅲ.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설계

1.1.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수량적 측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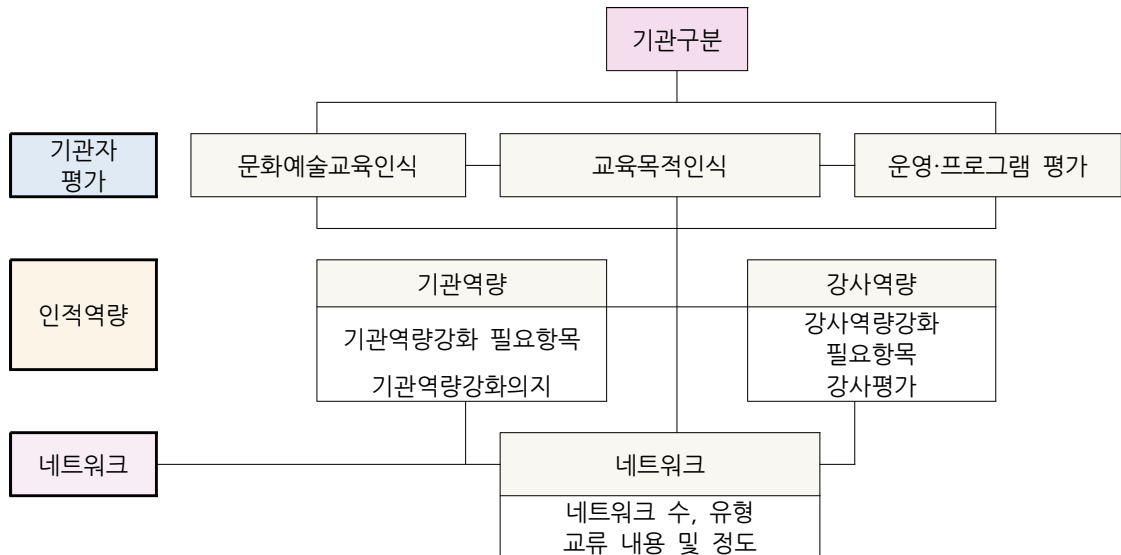
○ 전문인력(문화예술(교육) 인력) 측정 구조

〈그림 Ⅲ-1〉 문화예술(교육) 인력 측정 구조



○ 전문인력(기관관계자) 측정 구조

〈그림 Ⅲ-2〉 기관관계자 측정 도구



1.2. 조사절차와 방법

□ 조사절차 및 내용

〈표 III-1〉 조사 절차 및 내용

	진행단계	내용
1단계	기존 자료 수집	정형적 통계자료 + 비정형적 질적자료
2단계	사전조사	Pilot study + Pre-test
3단계	설문구성	설문문항(기관관계자용 / 전문인력용) 완성
4단계	조사실시	배부·회수 ⇨ 데이터 정제·처리·분석
5단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통계처리(SPSS.24.ver.), R-studio 3.6.0.ver.

○ 1단계 :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관련 기존 자료 수집과 분석)

〈표 III-2〉 1단계 : 기존 자료 수집대상과 내용

자료유형	수집 대상	자료형태	수집방법	출처
정형적 통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실태(시설규모, 이용자분포, 예산, 전문인력 등)의 현황 ■ 문화향수실태(예술향유,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관광, 사이버문화활동)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실태(활동 분야 및 내용,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생활 및 복지)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 통계수치 ■ 그래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검색, 문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IS 국가통계포털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고서 및 관련 단체 자료
비정형적 질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 관련 보고서 ■ 사례(프로그램) 자료 ■ 문화예술교육 관련 2차 자료(연구물) ■ 언론자료(영상, 언론기사, SNS 등) ■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공연 등 관련 안내문, 홍보물, 리플릿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 ■ 기록물, 언론기사 ■ 영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자료검색, 소장기관 방문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및 도서관 ▶ On-line

• 정형적 통계자료 수집

- 문화예술 기반과 교육과 관련된 5개 카테고리(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공연예술 실태, 문화향수 실태, 문화예술 활동 현황, 예술인 실태)에 관한 수량적 자료 수집 및 분류(지역별, 자치단체별)
- 국가통계포털, 지자체 및 관련기관 공개정보 활용
- 기존 조사보고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자료 및 데이터 수집

• 질적 자료 수집

- 정부,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보고서, 관련 단체 조사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 단체

보고서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수집

- 보고서와 운영 사례집에서 장·단점, 문제점 발췌 및 분류(기관별, 수행 사업 및 프로그램 유형별)
- 문화기반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2차 자료(연구물) 수집 및 분석
-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발췌 분류, 연구결과로 제시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가능성 및 효율성 분석(기존 자료 및 수치 대비)
- 언론자료(영상, 언론기사, SNS 등),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공연 등 관련 출판물(안내문, 홍보물, 리플릿, 팸플릿 등) 수집 및 분류, 파일로 저장
- 관련 기호, 문자를 주제별(공연, 활동, 교육 등)로 분류하여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파일(.txt)로 생성, 저장

○ 2단계 : 사전조사

〈표 III-3〉 2단계 : 사전조사

조사형식	조사방법	조사내용
■ Pilot study	•전문인력(강사) 심층인터뷰	•지자체 문화예술 관계자,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전문인력(강사) ²⁵⁾ 에 대한 심층인터뷰 •역량 강화교육 평가, 긍정/부정적인 면, 강화에 필요한 지원 등 •활동의 효과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설비 및 운영에 문제점 및 필요한 점
■ Pre-test	•예비 설문조사	•문헌연구 + Pilot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배부·회수(n=30)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을 통해서 문항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 파일럿 조사(pilot study)

- 목적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디자인을 위한 전문가의 견해, 의견 수렴
- 대상 : 문화예술 기반 시설 관계자(21명), 문화예술(교육) 인력(8명)
- 방법 : 사전 협조요청 후 방문, 인터뷰
- 실시기간 : 2019년 7월15일 ~ 2019년 10월20일

• pre-test

- 목적 :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문항 작성을 위한 탐색조사(문항 신뢰도, 타당도 검증)
- 대상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 문화예술(교육) 인력 = 30명

25) Pilot 조사는 인터뷰조사와 병행하여 21개소 문화기반시설에 방문하여 기관관계자(21명)와 전문인력(8명)에게 실시한 내용임.

- 방법 : 사전 협조회의 후 설문조사(혹은 대면 표준화 인터뷰)
- 실시기간 : 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22일(3주간)
- 조사문항 : 기관관계자(175문항), 전문인력(171 문항)
- 통계처리 : 문항신뢰도(Cronbach's alpha) 확인

〈표 III-4〉 2단계 : Pre-test 조사대상과 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기반시설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인식수준 측정(관련 지식 및 정보 수준, 필요성 인식정도, 운영 만족도, 정책 및 운영의 문제점 인식) □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및 실천 □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 기존 교육의 개선점, 요구 □ 해당 기반시설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도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인식수준 측정(관련 지식 및 정보 수준, 필요성 인식정도, 운영 만족도, 정책 및 운영의 문제점) □ 전문지식 및 강의, 활동 현황 □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 문제점, 개선할 점 □ 역량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및 실천 □ 전문강사 및 활동가의 교육 역량 개발의 수요, 개발에 필요한 지원

○ 3단계 : 설문지 구성

• 설문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 문화예술(교육) 인력 : 171문항 = 객관식 145 + 주관식 26
- 기관관계자 : 91문항 = 객관식 75 + 주관식 16

• 문화예술(교육) 인력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표 III-5〉 문화예술(교육) 인력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1차 구성요인	2차 구성요인	측정도구	측정도구 추출 근거	문항 번호
인 적 역 량	목적 인식	문화예술 교육목적 인식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자체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장 제 1조(목적),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입각	B1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전문성	장르 전문 역량 자평가	본인의 지식 및 경험, 능력 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0 점척도)	전문능력 측정 자체개발	B2-2
		전문가 인식	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	강성룡(2013)	C1-1

	1차 구성요인	2차 구성요인	측정도구	측정도구 추출 근거	문항 번호
	창작, 실기 자평가		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C1-2
			나는 전문분야의 역사, 이론, 매체, 작가, 현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C1-3
		창작, 실기 자평가	나는 전문분야에 대한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문능력 측정 자체 개발	C1-4
			나는 전문분야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다.	전문능력 측정 자체 개발	C1-5
			나는 전문분야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전문능력 측정 자체 개발	C1-6
			나는 전문분야 작품을 전시를 하거나, 공모전 등에 입상한 적이 있다.	전문능력 측정 자체 개발	C1-7
			나는 전문분야의 공연이나 전시회를 자주 접해보고 다른 표현방법을 개발한다.	강성룡(2013)	C1-8
			나는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창작자로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C1-9
	직무역량 C2	교수 기본역량	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	직무역량 측정 자체개발	C2-1
			나는 교수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강성룡(2013)	C2-2
			나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강성룡(2013)	C2-3
			나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	강성룡(2013)	C2-4
			예술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강성룡(2013)	C2-14
			학습자 차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강성룡(2013)	C2-15
		교육 운영역량	나는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강성룡(2013)	C2-7
			나는 다양한 교수방법(강의, 실기, 체험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강성룡(2013)	C2-8
			나는 다양한 평가방법(사전평가, 교육 중 평가, 교육 후 평가 및 지필평가, 실기평가, 연구평가 등)을 골고루 활용한다.	직무역량 측정 자체개발	C2-10
			나는 수업 전 계획서와 수업 진행 후 수업일지, 결과물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후 자료화 한다.	강성룡(2013)	C2-11
			나는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직무역량 측정 자체개발	C2-12
			나는 문화적 다양성(다문화, 연령대 등)을 잘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역량 측정 자체개발	C2-13
			나는 타 예술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인력들과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타 예술장르와의 통합수업을 꾀한다.	강성룡(2013)	C2-16
		교육지향성	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자들이 올바른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성룡(2013)	C2-5
			나는 학습자들이 예술을 즐겁게 접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C2-6
			나는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보조 교재를 적절히 사용한다.		C2-9
	사회적 역량 C4	상호관계 구축	나는 학습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부담 없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여 편안하게 접근한다.	강성룡(2013)	C4-1
			학습대상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의사소통, 코칭, 파트너십 등)을 하고 있다	강성룡(2013)	C4-2

	1차 구성요인	2차 구성요인	측정도구	측정도구 추출 근거	문항 번호
			나는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창작이나 연주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호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성룡(2013)	C4-3
			나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듣는 편이다.	강성룡(2013)	C4-4
			나는 내가 전달한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강성룡(2013)	C4-5
			나는 상대방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단어 및 대화 기술을 구사한다.	강성룡(2013)	C4-6
		공동활동	나는 관계 기관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강성룡(2013)	C4-7
			나는 해당 지역 전통문화, 역사적 배경과 기능을 습득하여 그 지역의 학습자와 함께 공동체적 작업을 하고 있다	강성룡(2013)	C4-8
			나는 관계기관 내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강성룡(2013)	C4-9
네 트 워 크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종류, 유형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지식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 유무	네트워크 측정 자체개발	C5-1
			네트워크는 대개 몇 개 정도		C5-2
			네트워크(단체, 기관 등)는 어떤 유형		C5-3
	네트워크 활동	활동정도, 교류내용	모임 정도	네트워크 측정 자체개발	C5-4
			네트워크의 참석 정도		C5-5
			교류는 어떤 형태		C5-6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는 어느 정도		C5-7
커 뮤 니 티	지역과의 시공적 관련성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존재 및 위치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하는 주요 지역	지역공동체성 자체개발	E1-1
			현 거주지역		F-3
			출신지역		F-8
	공동체 의식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지역공동체성 자체개발	E2-1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E2-2
			해당 단체 또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까?		E2-3
	구성원과 의 공유성	관계성 (상호작용), 공공성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서의 강의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공동체성 자체개발	E2-4
			강의 이외에도 해당 단체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E2-5
			그 문화예술교육활동의 대상들은 아동·청소년·청장년·노년 등으로 다양합니까?		E2-6
			타 지역의 다른 공동체(예술단체, 주민단체 등)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E2-7
			지역 일반주민들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식, 정보를 소통, 공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E2-8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E2-9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보존,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다른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까?		E2-10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보존,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E2-11

• 기관관계자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표 III-6〉 기관관계자용 주요 문항 및 측정도구 구성

1차 구성요인	2차 구성요인	측정도구	측정도구 추출 근거	문항 번호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및 운영	시설	기관명칭, 자체시설보유	기존 보고서	A1,A2
	회원제	회원제 유무, 회원수		A3
	이용자분포	이용자 분포		A4
	담당인력	담당인력 수, 성격		A5
	예산	연간 예산 비율		A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생애주기별, 대상별 구분	기존 보고서	B1
	프로그램 실시 이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요이유		B2
	프로그램 개설 기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중요기준		B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복수응답)	자체 개발	B4
	고유목적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고유목적, 기 능에의 부합성	자체 개발(10점 척도)	B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유무)	자체 개발(주관식 문항)	B6
	질적 강화 노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노 력정도	자체 개발(주관식 문항)	B7
	전용공간	전용공간 유무, 개수, 면적(m ²)	기존 보고서 유무 + 주관식	B8,B9
	수강	수강료 수수 여부	자체 개발	B10
	강의료	강의료 정도(시간 당)		B11
	프로그램평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평가	자체 개발(복수응답)	B1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한계와 문제점		B12-2
문화예술교육 인식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정도	자체 개발	B12-3
	문화예술교육 목적 인식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자체개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입각	C1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인적 역량	활동분야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분야	자체 개발	D1-1
	종사 기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종사기간		D1-2
	관련 학위, 자격증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위, 자격증 보유여부, 명칭 (주관식)		D1-3
	노력정도	직무 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		D1-4
	본인 평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능력, 기량 자평가		D1-5
	역량 강화 필요성	문화예술교육 관련 역량 필요 유무, 필요 항목 자평가		D1-6 D1-7
	인적 역량 강화 의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의 의지 정도	자체 개발(10점 척도)	D1-8
	인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	인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항목	자체 개발	D1-9
사회적 역량	네트워크	외부 연계 네트워크 유무, 개수	자체 개발	D2-1 D2-2
	네트워크 유형	연계 네트워크의 유형	자체 개발	D2-3
	연계, 협력 형태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의 형태	자체 개발	D2-4
	교류, 공유	지식, 정보의 공유 및 교류 정도	자체 개발	D2-5

○ 4단계 : 조사 실시

- 표본 수
 - 관계자(n=161), 전문인력(n=253)
- 표본추출 방법

〈표 III-7〉 표본추출 방법

구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강사)
대상	전국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
모집단수	3,504	불특정(10,000명으로 상정)
조사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표본설계	지역별 층화 추출	단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 설문지를 통한 웹메일, 우편, 현지방문 배부 및 회수	구조화 설문지를 통한 웹메일, 우편, 현지방문 배부 및 회수
조사기간	2019년 9월 30일 ~ 12월 3일까지	2019년 9월 30일 ~ 12월 3일까지
응답수	161(웹 145 + 오프라인 21)	253(웹 199 + 오프라인 54)
표본오차	±6.643	±6.149
통계처리	SPSS.24.ver. 프로그램, R-studio.3.6.0. 사용	

○ 5단계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표 III-8〉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데이터 성격 (사용프로그램)	input-flame	분석방법	결과도출
SPSS.sav (SPSS.24ver.)	·기초통계 처리 후, 데이터 정리 및 분석틀 구축	·기술통계	·통계처리 결과는 SPSS.sav. 및 한글파일로 변화, 저장
		·다원적 분석 및 추론통계 -주요변수간 상관관계분석	·txt.파일로 저장
txt. (R studio.3.6.0)	·txt. 데이터의 정제	·문서단어행렬 분석 (DocumentTermMatrix)	·단어 클러스팅 확인 ·단어간 연관성 확인
		·주요 단어 빈도 및 단어 간 상관 관계분석	·시각화(graph, wordcloud, cluster Dendrogram 등)

2. 통계처리 및 분석 결과

2.1. 기관관계자 통계 분석

2.1.1. 기술통계 처리 결과

□ 시설유형 분류

- 설문에 답한 시설은 161개이며, 유형별 분류는 <표 Ⅲ-9>와 같음. 문화기반시설 이외의 기관(복지시설, 문화재단, 평생교육원 등)은 기타로 분류함.

<표 Ⅲ-9> 시설유형 분류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합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6	6.8	32.1	14.2	10.5	11.7	10.5	100

□ 자체 시설보유 여부

- 기관의 시설 보유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161개 시설 중 ‘자체시설보유’하고 있는 곳이 109개소, ‘타 기관 시설 임차 또는 임대계약’인 곳이 52개소로 나타남. 67.7%가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의 순으로 자체시설보유도가 높고, 문화원의 경우는 자체 시설보유도가 가장 낮아 69.2%가 ‘타 기관 시설 임차 또는 임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0> 시설별 자체 시설 보유 여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보유	N	21	8	16	18	16	17	13	109
	%	95.5	72.7	30.8	78.3	94.1	89.5	76.4	67.7
임차 임대	N	1	3	36	5	1	2	4	52
	%	4.5	27.3	69.2	21.7	5.9	10.5	23.5	32.2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회원제 운영 여부

- 회원제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이 55.9%로 과반수이상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문화원과 도서관의 경우는 50% 이상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평균 회원 수는 도서관이 가장 많게 나타났음.

〈표 III-11〉 회원제 운영 여부

	시설 수	%
회원제 운영	90	55.9
아님	71	44.0
합계	161	100

〈표 III-12〉 회원제를 운영하는 시설의 평균 회원 수

	회원 수(단위: 명)	시설 수
문예회관	2,698.6	10 (45.4%)
문화의집	350.0	4 (36.3%)
문화원	435.0	48 (92.3%)
도서관	54,214.3	13 (56.5%)
기타	15,054.6	15 (88.2%)
합계	72,752.5	90 (55.9%)

□ 시설유형별 이용자 분포 평균 비율

- 시설유형별 이용자 분포 평균비율은 ‘노년층’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년층’이 22.5% 순이며, ‘특수계층(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등)’ 비율이 2.3%로 가장 낮음.
-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은 노년, 장년, 중년층의 시설이용률이 높고, 도서관은 중년, 청년, 아동층이, 박물관은 아동, 청소년층이 높았으며, 미술관은 청년, 중년, 청소년, 아동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3〉 시설유형별 이용자분포 평균 비율(%)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특수계층	기타
문예회관	평균	3.5	8.9	17.7	16.6	22.2	26.0	18.9	3.8	0
	N	13	13	15	17	20	20	19	12	6
문화의집	평균	1.2	16.1	8.3	8.3	25.6	27.6	28.4	0.5	0
	N	5	7	6	7	10	11	11	4	3
문화원	평균	0.7	0.9	2.9	2.1	10.1	33.7	44.9	1.1	2.0
	N	50	50	51	51	51	52	52	50	50
도서관	평균	9.5	16.9	11.9	18.3	23.6	14.3	10.2	1.7	1.0
	N	20	21	22	20	21	21	19	15	9
박물관	평균	5.2	20.9	18.8	14.5	11.1	15.4	10.7	2.5	6.7
	N	17	17	17	17	17	17	17	17	17
미술관	평균	6.7	17.2	19.9	22.6	21.5	9.8	5.7	3.3	1.1
	N	15	16	17	19	19	19	16	16	15
기타	평균	4.6	11.77	4.4	3.6	11.0	10.2	59.0	6.3	12.4
	N	9	9	9	10	10	14	16	9	10
전체	평균	3.9	10.3	10.4	10.8	16.3	22.5	29.4	2.3	3.3
	N	129	133	137	141	148	154	150	123	110

□ 시설유형별 이용자분포 남녀 비율

- 시설 유형별 이용자의 성별 분포 비율은 여성이 63.2%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4〉 시설유형별 이용자 성별 분포 평균(%)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남성	평균	35.7	24.0	40.3	37.1	43.1	40.6	37.0	36.8
	N	21	11	52	22	17	19	13	158
여성	평균	64.3	76.0	59.8	62.9	56.9	59.4	63.0	63.2
	N	21	11	52	22	17	19	13	159

□ 시설유형별 평균 직원 수

- 시설 유형별 직원 수는 ‘정규직’ 평균이 7.5명, ‘비정규직’ 3.3명이며, ‘자원봉사자’는 10.7명이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7.3명으로 나타났음. 특히 문예회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규직의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도서관이 3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문화의집과 문화원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많게 나타났음.

〈표 III-15〉 시설유형별 평균 직원 수(단위:명)

		직원수			자원봉사자	문화예술 (교육)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문예회관	평균	15.3	3.4	2.6	1.2	3.2
	N	22	22	20	20	21
문화의집	평균	2.2	1.3	0.3	4.6	8.6
	N	10	10	9	10	11
문화원	평균	3.3	2.0	1.9	2.9	10.9
	N	52	49	51	49	50
도서관	평균	15.7	4.3	2.9	31.5	2.8
	N	20	19	22	20	20
박물관	평균	2.1	1.8	1.3	2.8	2.5
	N	17	17	17	17	17
미술관	평균	2.1	2.0	0.9	0.9	1.7
	N	19	19	18	18	19
기타	평균	14.9	12.3	5.3	42.2	17.5
	N	17	17	17	17	17
합계	평균	7.5	3.3	2.2	10.7	7.3
	N	157	154	154	152	156

□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담당 평균 인원 수

- 문화예술교육 담당인력 중 ‘정규직’은 ‘도서관’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문화원’이 0.9명으로 가장 적음. 반면 “지원사업을 통한 수급”에서는 ‘문화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III-1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담당 평균인원수(단위:명)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총인원	자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수급
문예회관	평균	4.3	2.8	1.5	2.5	1.8	0.7
	N	20	20	20	20	20	20
문화의집	평균	5.9	1.8	2.1	8.9	4.4	6.0
	N	10	9	8	11	10	9
문화원	평균	3.5	0.9	2.7	11.5	3.3	8.4
	N	49	48	48	49	49	48
도서관	평균	8.1	6.1	2.0	2.8	1.3	1.7
	N	20	19	17	18	18	18
박물관	평균	2.1	1.0	1.1	3.0	1.6	1.4
	N	16	16	16	17	17	17
미술관	평균	2.7	1.4	1.4	3.1	1.5	1.6
	N	19	19	19	19	19	19
기타	평균	16.9	2.5	14.3	16.8	8.5	8.4
	N	17	17	17	17	17	17
합계	평균	5.7	2.2	3.4	7.7	3.1	4.7
	N	151	148	145	151	150	148

□ 시설유형별 대상별(생애주기별, 대상별) 프로그램 평균수

- 각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대상(생애주기, 대상별)에 대한 프로그램 수 평균에서 생애주기에 서는 ‘노년(만 65세 이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7.2개로 가장 많고, ‘유아’가 1.8개로 가장 적으며, 대상에서는 “가족단위”가 1.8개로 가장 많음.

〈표 III-17〉 시설유형별 대상별(생애주기별, 대상별) 프로그램 평균수(단위:개수)

구분		생애주기별							대상별		
		유아 (만5세 이하)	아동 (만6-11세)	청소년 (만12-17세)	청년 (만18-34세)	중년 (만35-50세)	장년 (만50-64세)	노년 (만65세 이상)	다문화	가족 단위	기타
문예회관	평균	0.6	2.1	0.9	4.8	6.1	6.6	5.7	0.7	2.1	0.3
	N	12	14	13	15	16	17	14	12	13	12
문화의집	평균	0.1	2.7	1.4	7.8	9.7	11.5	7.0	0.7	1.7	3.7
	N	7	7	7	6	7	10	8	6	7	7
문화원	평균	0.1	0.1	0.1	3.6	6.3	8.5	7.7	1.2	0.5	0.4
	N	34	35	42	36	39	49	43	30	30	31
도서관	평균	5.8	11.1	7.2	4.3	6.6	6.0	4.3	2.8	2.5	3.0
	N	16	19	19	15	20	19	18	11	13	12
박물관	평균	1.7	4.1	4.8	1.7	3.3	3.3	2.1	1.7	2.7	1.8
	N	15	17	16	15	15	16	16	15	15	15
미술관	평균	0.6	2.1	2.4	1.4	1.0	1.6	2.3	1.4	1.5	1.6
	N	14	16	16	16	15	17	15	13	14	14
기타	평균	6.4	11.4	5.4	5.0	6.5	13.6	20.6	1.8	4.1	2.8
	N	8	8	10	9	10	11	16	9	9	9
합계	평균	1.8	4.2	3.0	3.6	5.5	7.1	7.2	1.4	1.8	1.5
	N	106	116	123	112	122	139	130	96	101	100

* 다문화: 부모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포함, 기타: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 문화예술교육 실시의 주 이유

-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이유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71.7%)’, ‘기관의 사업방침(12.6%)’ 순으로 나타났음.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의 문화에 대한 니즈와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8〉 문화예술교육 실시 주 이유

내 용	N	%
기관의 사업방침(기관대표의 의지)	20	12.6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114	71.7
정부(지자체)시책으로 인한 예산지원	16	10.1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	1.3
기관 홍보	2	1.3
프로그램의 차별성	4	2.5
그 외	2	1.3
합계	160	100
합계(결측 포함)	161	

□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의 주 이유

-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미술관은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 순으로 ‘기관의 사업방침’이라고 응답했으며, 박물관은 ‘예산지원’, ‘기관의 사업방침’ 순으로 응답하였음.
-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때 거의 모든 시설들이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기관의 사업방침도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주 이유

		기관 사업방 침(기관대표 의 의지)	지역사회 시 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정부(지 자체) 예산지원	타기관 후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관 홍보	프로 그램의 차별성	그외	전체
문예 회관	N	3	15	1	1	0	1	0	21
	%	14.3	71.4	4.8	4.8	0	4.8	0	100
	%	15.0	13.2	6.3	50.0	0	25.0	0	13.2
문화의 집	N	1	8	2	0	0	0	0	11
	%	9.1	72.7	18.2	0	0	0	0	100
	%	5.0	7.0	12.5	0	0	0	0	6.9
문화원	N	2	47	3	0	0	0	0	52
	%	3.8	90.4	5.8	0	0	0	0	100
	%	10.0	41.2	18.8	0	0	0	0	32.7
도서관	N	2	20	1	0	0	0	0	23
	%	8.7	87.0	4.3	0	0	0	0	100
	%	10.0	17.5	6.3	0	0	0	0	14.5
박물관	N	5	4	6	0	0	1	1	17
	%	29.4	23.5	35.3	0	0	5.9	5.9	100
	%	25.0	3.5	37.5	0	0	25.0	100	10.7
미술관	N	2	12	2	1	1	1	0	19
	%	10.5	63.2	10.5	5.3	5.3	5.3	0	100

		기관 사업방 침(기관대표 의 의지)	지역사회 시 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정부(지 자체) 예산지원	타기관 후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관 홍보	프로 그램의 차별성	그외	전체
기타	%	10.0	10.5	12.5	50.0	50.0	25.0	0	11.9
	N	5	8	1	0	1	1	0	16
	%	31.3	50.0	6.3	0	6.3	6.3	0	100
	%	25.0	7.0	6.3	0	50.0	25.0	0	10.1
합계	N	20	114	16	2	2	4	1	159
	%	12.6	71.7	10.1	1.3	1.3	2.5	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의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의 판단’이 25%, ‘지역특성 반영도’가 13.7% 순으로 나타났음.
-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을 기초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가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기관장 및 운영진의 의지에 의해 교육의 방향 및 프로그램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20〉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내 용	N	%
지역사회주민들의 요구	78	48.8
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진의 판단	40	25
기관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4	2.5
지역 특성 반영도	22	13.7
지역 보유 문화예술(교육)인력 활용	8	5.0
외부의 지원	7	4.4
기타	1	0.6
합계	160	100

□ 시설유형별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 문예회관, 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고, ‘지역특성 반영도’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원,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관 운영진의 판단’이 높게 나타남.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은 ‘기관 운영진의 판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대체로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은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는 ‘기관 운영진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21〉 시설유형별 신규 프로그램 개설기준

		지역사회주 민들의 요구	기관교육프 로그램운영 진의 판단	기관이미지 에 도움이 되는 정도	지역특성 반영도	지역문화예 술포육인력 활용	외부의 지원	기타	전체
문예회관	N	10	4	1	5	1	0	0	21
	%	47.6	19.0	4.8	23.8	4.8	0	0	100
	%	12.8	10.0	25.0	22.7	12.5	0	0	13.1
문화의집	N	6	2	0	3	0	0	0	11
	%	54.5	18.2	0	27.3	0	0	0	100
	%	7.7	5.0	0	13.6	0	0	0	6.9
문화원	N	28	11	1	9	2	0	1	52
	%	53.8	21.2	1.9	17.3	3.8	0	1.9	100
	%	35.9	27.5	25.0	40.9	25.0	0	100	32.5
도서관	N	17	3	0	2	0	1	0	23
	%	73.9	13.0	0	8.7	0	4.3	0	100
	%	21.8	7.5	0	9.1	0	14.3	0	14.4
박물관	N	3	8	1	0	1	4	0	17
	%	17.6	47.1	5.9	0	5.9	23.5	0	100
	%	3.8	20.0	25.0	0	12.5	57.1	0	10.6
미술관	N	3	9	1	3	2	1	0	19
	%	15.8	47.4	5.3	15.8	10.5	5.3	0	100
	%	3.8	22.5	25.0	13.6	25.0	14.3	0	11.9
기타	N	11	3	0	0	2	1	0	17
	%	64.7	17.6	0	0	11.8	5.9	0	100
	%	14.1	7.5	0	0	25.0	14.3	0	10.6
합계	N	78	40	4	22	8	7	1	160
	%	48.8	25.0	2.5	13.7	5.0	4.4	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1, 2, 3 순위)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1, 2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인력 지원’,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 2, 3 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N	%	N	%	N	%
전문인력 지원	43	26.6	19	11.7	16	9.9
예산 지원	74	45.7	48	29.6	13	8.0
인적역량 강화(관계자 및 교육 인력)	9	5.7	20	12.3	30	18.5
홍보 및 정보 공유 강화	6	3.8	9	5.6	15	9.3
문화기반시설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3.8	13	8.0	13	8.0
지역분권화/지역민과의 연계	3	1.9	4	2.5	12	7.4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15	9.4	26	16.0	31	19.1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보	3	1.9	18	11.1	19	11.7
문화예술교육 법·정책적·제도적 지원	2	1.2	5	3.1	12	7.4
그외	1	0.6	0	0	1	0.6
합계	161	100	161	100	161	100

□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순위)

-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1순위로 ‘예산지원’을 선택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미술관은 ‘전문인력 지원’을 1순위로 선택하고 있음.
- 시설이나 예산지원이 확보된 다음으로는 전문인력 지원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에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23>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순위)

		전문인력지원	예산지원	인적역량강화 (관계자 및 교육인력)	홍보 및 정보공유강화	문화기반시설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분권화/ 지역민과의 연계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확보	문화예술교육 법·정·책적· 제도적 지원	그 외	합계
문예회관	N	8	7	1	1	2	1	1	1	0	0	22
	%	36.4	31.8	4.5	4.5	9.1	4.5	4.5	4.5	0	0	100
	%	18.6	9.5	11.1	16.7	33.3	33.3	6.7	50.0	0	0	13.7
문화의집	N	0	8	1	0	0	1	1	0	0	0	11
	%	0	72.7	9.1	0	0	9.1	9.1	0	0	0	100
	%	0	10.8	11.1	0	0	33.3	6.7	0	0	0	6.8
문화원	N	8	31	3	1	2	0	6	1	0	0	52
	%	15.4	59.6	5.8	1.9	3.8	0	11.5	1.9	0	0	100
	%	18.6	41.9	33.3	16.7	33.3	0	40.0	50.0	0	0	32.3
도서관	N	3	9	2	3	1	0	5	0	0	0	23
	%	13.0	39.1	8.7	13.0	4.3	0	21.7	0	0	0	100
	%	7.0	12.2	22.2	50.0	16.7	0	33.3	0	0	0	14.3
박물관	N	5	10	0	0	0	0	1	0	1	0	17
	%	29.4	58.8	0	0	0	0	5.9	0	5.9	0	100
	%	11.6	13.5	0	0	0	0	6.7	0	50.0	0	10.6
미술관	N	10	5	1	0	1	0	1	0	1	0	19
	%	52.6	26.3	5.3	0	5.3	0	5.3	0	5.3	0	100
	%	23.3	6.8	11.1	0	16.7	0	6.7	0	50.0	0	11.8
기타	N	9	4	1	1	0	1	0	0	0	1	17
	%	52.9	23.5	5.9	5.9	0	5.9	0	0	0	5.9	100
	%	20.9	5.4	11.1	16.7	0	33.3	0	0	0	100	10.6
합계	N	43	74	9	6	6	3	15	2	2	1	161
	%	26.7	46.0	5.6	3.7	3.7	1.9	9.3	1.2	1.2	.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관 고유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평가

- 운영 프로그램이 기관 고유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10점 척도)의 평균값에서는 문화원이 7.4%, 미술관 7.4%, 박물관 7.2%로 높게 나타났고, 문화의집 6.9%, 도서관 6.7%, 문예회관 6.7%로 나타났음. 기관 고유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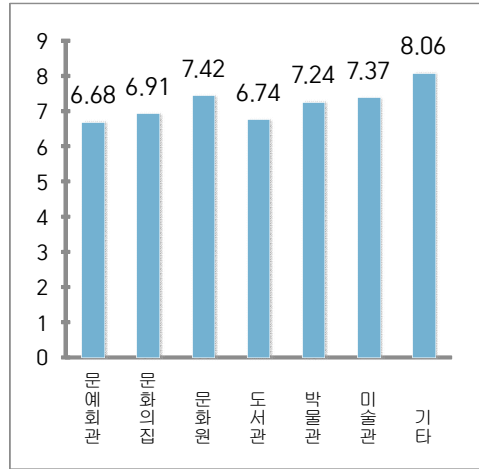
〈표 III-24〉 고유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평가(범위 : 0.0~10.0)

	평균	N
문예회관	6.7	22
문화의집	6.9	11
문화원	7.4	52
도서관	6.7	23
박물관	7.2	17
미술관	7.4	19
기타	8.1	17
전체	7.2	161

〈표 III-25〉 최소/최대 회원수(단위: 명)

	평균	Min.	Max.
프로그램의 고유목적, 기능 부합 자평가	7.23	2	10

〈그림 III-3〉 고유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평가(범위 : 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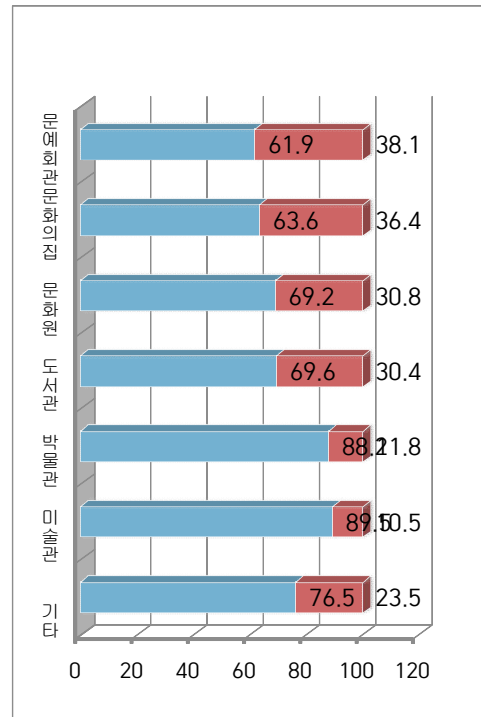
□ 시설별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

- 박물관, 미술관은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있다'고 80%대의 응답을 하였고, 도서관과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은 60%대로 응답을 함. 응답한 시설들은 대부분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III-26〉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

		차별성 있음	차별성 없음	전체
문예회관	N	13	8	21
	%	61.9	38.1	100
	%	11.1	18.6	13.1
문화의집	N	7	4	11
	%	63.6	36.4	100
	%	6.0	9.3	6.9
문화원	N	36	16	52
	%	69.2	30.8	100
	%	30.8	37.2	32.5
도서관	N	16	7	23
	%	69.6	30.4	100
	%	13.7	16.3	14.4
박물관	N	15	2	17
	%	88.2	11.8	100
	%	12.8	4.7	10.6
미술관	N	17	2	19
	%	89.5	10.5	100
	%	14.5	4.7	11.9
기타	N	13	4	17
	%	76.5	23.5	100
	%	11.1	9.3	10.6
전체	N	117	43	160
	%	73.1	26.9	100
	%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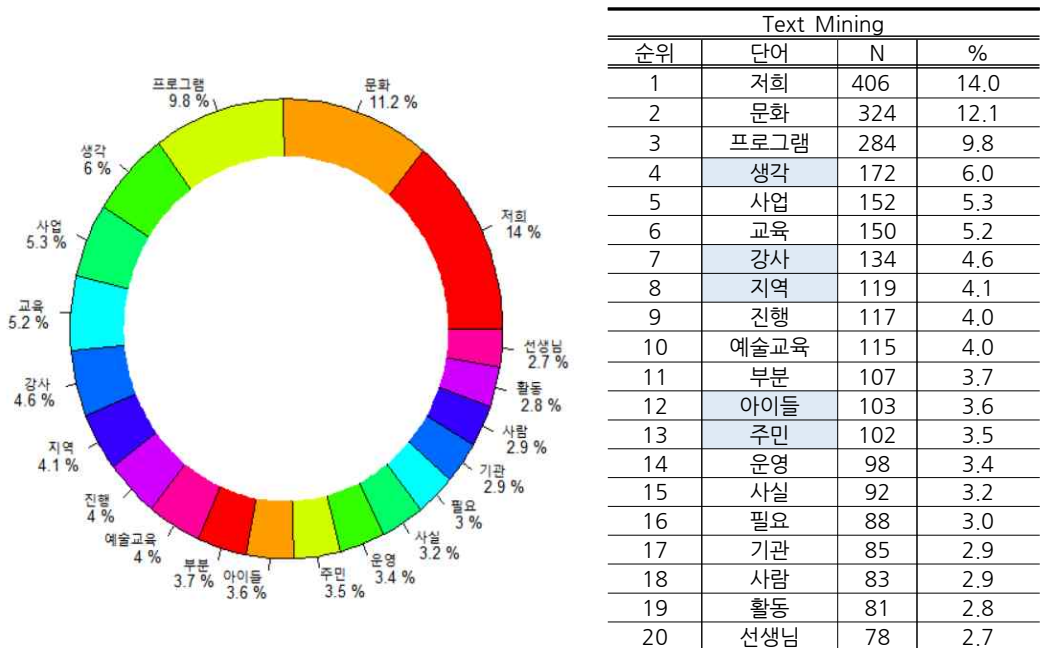
〈그림 III-4〉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



□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주관식 문항) Text Mining 분석결과

-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 내용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한 Text Mining 분석결과, 주목할 용어 20개 추출
- 차별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빈도가 잦은 ‘생각’, ‘강사’의 차별성, 그리고 ‘지역’, ‘아이들’, ‘주민’의 등장 횟수가 많은 편임.
- 이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의 차별성’, ‘강사들의 차별성’, ‘지역강조’, ‘아이들 강조’, ‘주민 강조’를 스스로의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III-5〉 다른 시설과의 프로그램의 차별성(주관식)



□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주관식 문항)

- ‘차별성이 없다’는 응답의 주관식 기입의 총 37개소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유사성, 획일성”때문이라는 응답이 2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음. 세부내용은 <표 III-27>와 같음.

〈표 III-27〉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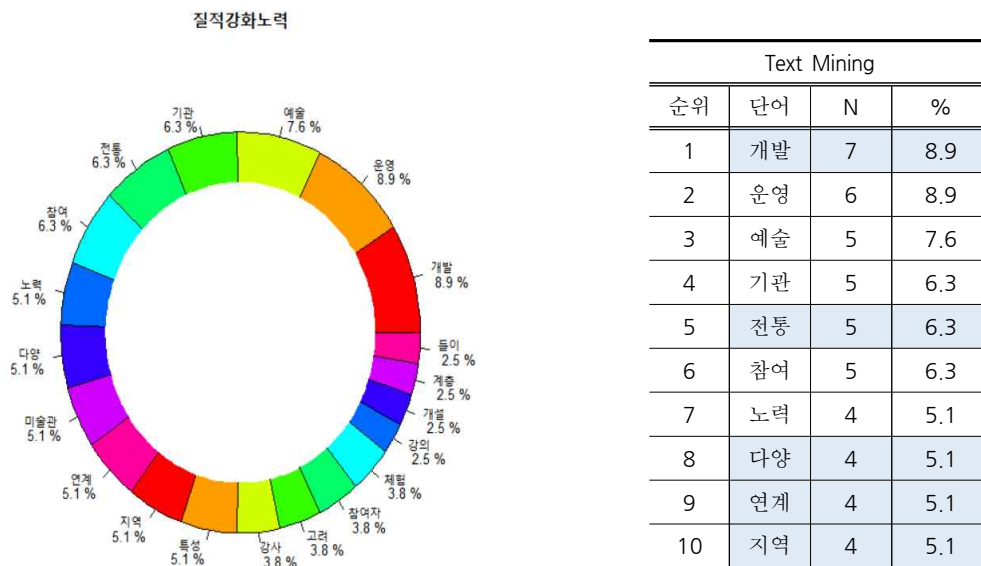
내 용	세부 내용
1. 프로그램의 획일성, 유사성 (2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하고 있는 걸 바쁘게 하고 있음(1개소) • 보통의 문화원과 비슷한 수준(1개소) • 자치회관과 중복 프로그램이 많음(1개소) • 대개 비슷함.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1개소) • 특색 프로그램이 없음(1개소)

내 용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프로그램(1개소) •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1개소) • 문화강좌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함(1개소) • 다른 공연장과 같이 콘서트 위주 공연(1개소) • 단순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1개소) • 지역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타 지역과 비슷(1개소) • 그 외 프로그램 획일성 관련 응답(13개소)
2.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예산의 지역분권 부족(1개소) • 지역 특성과 예산에 맞추다보니(1개소) • 다양한 문화생활이 늘어가는 데 예산은 줄어들거나 한정되어 있음(1개소) • 예산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차별성 키우기 어려움(1개소) • 별도의 예산이 없어 강사의 재능기부에 의존(1개소) • 예산부족(1개소)
3. 대중적, 유행 편승으로 인해서(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대중적이어서(1개소) • 강사수급, 지역민 요구에 치중하다보니 유행을 타게 됨(1개소)
4.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부족으로(2개소)
5. 그 외 사정으로 인해서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 취미 소양 중심(1개소) • 운영목적이 기초문화 확산에 있음(1개소) • 현재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지 않음(1개소)
합계(n)	37개소

□ 고유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주관식 문항)

- ‘기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노력’에 대한 주관식 문항의 Text Mining 분석결과, 빈도수 4이상의 상위단어 10개 추출.
- 질적 강화를 강조하는 용어로 빈도가 잦은 것은 ‘개발’, ‘전통’, ‘다양’, ‘연계’, ‘지역’임.

<그림 III-6>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



- 이는 각 기관의 질적 강화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전통 강조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계 프로그램」, 「지역 연관적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용공간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의 유무에 대해, 79.2%가 있음으로 응답함.

〈표 III-2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용공간 유무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있음	N	12	9	38	19	16	16	16	126
	%	9.5	7.1	30.2	15.1	12.7	12.7	12.7	100
	%	57.1	90.0	73.1	82.6	94.1	84.2	94.1	79.2
없음	N	9	1	14	4	1	3	1	33
	%	27.3	3.0	42.4	12.1	3.0	9.1	3.0	100
	%	42.9	10.0	26.9	17.4	5.9	15.8	5.9	20.8
계	N	21	10	52	23	17	19	17	159
	%	13.2	6.3	32.7	14.5	10.7	11.9	10.7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전용공간의 수는 최소 1개, 최대 13개이며, 면적은 최소 15(m²)에서 최대 15,000(m²)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표 III-2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용공간 수(단위: 개), 면적(단위: m²)

	N	Min.	Max.	평균
프로그램전용공간 수	127	1	13	3.41
전용공간 면적 (m ²)	123	15	15,000	443.02

-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용 공간 수는 문화의집이 4.7개로 가장 많음.

〈표 III-30〉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평균 전용공간 수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전체
평균	3.3	4.7	3.9	3.6	2.3	1.8	4.1	3.4
N	12	10	38	19	16	16	16	127

□ 수강료 수령 방식

- 수강료 수령방식으로는 ‘수령 안함’이 35.0%로 가장 많았고, ‘수령함’이 31.9%로 나타났으며, ‘회원비만 수령’하는 경우도 6.3%로 나타남.

〈표 III-31〉 수강료 수령 방식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수령함	N	10	6	24	4	1	1	5	51
	%	19.6	11.8	47.1	7.8	2.0	2.0	9.8	100
	%	47.6	54.5	46.2	17.4	5.9	5.3	29.4	31.9
안함	N	8	3	7	10	9	11	8	56
	%	14.3	5.4	12.5	17.9	16.1	19.6	14.3	100
	%	38.1	27.3	13.5	43.5	52.9	57.9	47.1	35.0
재료비만	N	0	1	8	7	1	1	1	19
	%	0	5.3	42.1	36.8	5.3	5.3	5.3	100
	%	0	9.1	15.4	30.4	5.9	5.3	5.9	11.9
회원비만	N	0	0	9	0	0	0	1	10
	%	0	0	90.0	0	0	0	10.0	100
	%	0	0	17.3	0	0	0	5.9	6.3
기타	N	3	1	4	2	6	6	2	24
	%	12.5	4.2	16.7	8.3	25.0	25.0	8.3	100
	%	14.3	9.1	7.7	8.7	35.3	31.6	11.8	15.0
계	N	21	11	52	23	17	19	17	160
	%	13.1	6.9	32.5	14.4	10.6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간당 지급 강의료

- 시간당 지급 강의료는 ‘4~7만원’이 34.4%, ‘7~10만원’이 16.3%, ‘3~4만원’이 15.6%로 나타남.

〈표 III-32〉 시간당 지급 강의료

	N	%
10만원이상	9	5.6
7~10만원	26	16.3
4~7만원	55	34.4
3~4만원	25	15.6
3만원미만	15	9.4
지급하지 않음	7	4.4
기타	23	14.4
계	161	100

- 시간당 강의료 지급에서 가장 많은 ‘4~7만원’에 대해 시설별로 보면, 도서관이 47.8%, 문화원이 42.3%, 박물관이 41.2%, 미술관이 36.8%로 나타남.
- 문화의집은 ‘3~4만원’ 대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시설에 비해 강의료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33〉 시설별 시간당 지급 강의로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10만원 이상	N	1	0	1	1	2	2	2	9
	%	11.1	0	11.1	11.1	22.2	22.2	22.2	100
	%	4.8	0	1.9	4.3	11.8	10.5	11.8	5.6
7~10만원	N	4	0	6	5	4	3	4	26
	%	15.4	0	23.1	19.2	15.4	11.5	15.4	100
	%	19.0	0	11.5	21.7	23.5	15.8	23.5	16.3
4~7만원	N	5	1	22	11	7	7	2	55
	%	9.1	1.8	40.0	20.0	12.7	12.7	3.6	100
	%	23.8	9.1	42.3	47.8	41.2	36.8	11.8	34.4
3~4만원	N	4	6	8	1	1	0	5	25
	%	16.0	24.0	32.0	4.0	4.0	0	20.0	100
	%	19.0	54.5	15.4	4.3	5.9	0	29.4	15.6
3만원미만	N	1	1	8	1	0	1	3	15
	%	6.7	6.7	53.3	6.7	0	6.7	20.0	100
	%	4.8	9.1	15.4	4.3	0	5.3	17.6	9.4
지급안함	N	1	1	0	1	1	2	1	7
	%	14.3	14.3	0	14.3	14.3	28.6	14.3	100
	%	4.8	9.1	0	4.3	5.9	10.5	5.9	4.4
기타	N	5	2	7	3	2	4	0	23
	%	21.7	8.7	30.4	13.0	8.7	17.4	0	100
	%	23.8	18.2	13.5	13.0	11.8	21.1	0	14.4
계	N	21	11	52	23	17	19	17	160
	%	13.1	6.9	32.5	14.4	10.6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평가

-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음’이 52.8%, ‘매우 잘 운영되고 있음’이 21.1%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3.9%로 높게 나타남.

〈표 III-34〉 프로그램운영 자평가

	N	%
매우 잘 운영되고 있음	34	21.1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음	85	52.8
보통임	34	21.1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7	4.3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음	1	0.6
계	161	100

□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10문항) 복수응답

-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10문항)에서는 ‘예산 및 재정 부족’이 69.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이 51.5%,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이 37.2%로 나타남.
-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로 예산, 시설환경, 전문인력을 지적하고 있음.

〈표 III-35〉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10문항)

	그렇다		합계
	N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부족	24	14.9	161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부족	19	11.8	161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60	37.2	161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부족	32	19.8	161
예산 및 재정 부족	112	69.5	161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16	9.9	161
참여자들의 낮은 호응 및 참여도	29	18.0	161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83	51.5	161
기타	3	1.9	161
문제점 없음	7	4.3	161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예산, 재정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문화의집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능력 부족’, 도서관에서는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부족’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표 III-36〉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능력 부족	N	1	10	4	3	3	3	24	24
	%	4.2	41.7	16.7	12.5	12.5	12.5	100	100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부족	N	4	2	3	6	2	2	19	19
	%	21.1	10.5	15.8	31.6	10.5	10.5	100	100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N	8	3	18	7	9	10	5	60
	%	13.3	5.0	30.0	11.7	15.0	16.7	8.3	100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N	3	3	9	4	6	4	3	32
	%	9.4	9.4	28.1	12.5	18.8	12.5	9.4	100
예산, 재정 부족	N	12	10	41	13	12	13	10	111
	%	10.8	9.0	36.9	11.7	10.8	11.7	9.0	100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N	2	1	4	3	2	2	1	15
	%	13.3	6.7	26.7	20.0	13.3	13.3	6.7	100
참여자들의 낮은 호응 및 참여도	N	3	2	5	9	3	4	3	29
	%	10.3	6.9	17.2	31.0	10.3	13.8	10.3	100
기관내 설비, 장비, 공간 등 부족	N	8	6	37	13	5	8	5	82
	%	9.8	7.3	45.1	15.9	6.1	9.8	6.1	100
기타	N	1	1	2	1	1	6	-	7
	%	16.7	16.7	33.3	16.7	16.7	100	-	100
문제점 없음	N	1	-	-	-	-	-	1	3
	%	100	-	-	-	-	-	100	100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여도 자평가(1)

-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박물관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도서관, 문화원, 미술관, 문화의집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있음, 이에 비해 문예회관의 경우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III-37〉 우리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3	2	17	4	9	8	8	51
	%	5.9	3.9	33.3	7.8	17.6	15.7	15.7	100
	%	13.6	18.2	32.7	17.4	52.9	42.1	47.1	31.7
그렇다	N	7	5	25	16	4	9	6	72
	%	9.7	6.9	34.7	22.2	5.6	12.5	8.3	100
	%	31.8	45.5	48.1	69.6	23.5	47.4	35.3	44.7
보통	N	10	4	10	3	3	1	2	33
	%	30.3	12.1	30.3	9.1	9.1	3.0	6.1	100
	%	45.5	36.4	19.2	13.0	17.6	5.3	11.8	20.5
그렇지 않다	N	2	0	0	0	0	1	1	4
	%	50.0	0	0	0	0	25.0	25.0	100
	%	9.1	0	0	0	0	5.3	5.9	2.5
전혀 그렇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0.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여도 자평가(2)

- ‘타 분야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 도서관, 박물관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문화원은 ‘그렇다’, ‘보통이다’로, 문예회관은 ‘보통이다’, ‘그렇다’로 평가하고 있음, 문화의집과 미술관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표 III-38〉 우리기관은 타 분야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1	2	10	3	2	4	6	28
	%	3.6	7.1	35.7	10.7	7.1	14.3	21.4	100
	%	4.5	18.2	19.2	13.0	11.8	21.1	35.3	17.4
그렇다	N	9	2	19	10	8	2	8	58
	%	15.5	3.4	32.8	17.2	13.8	3.4	13.8	100
	%	40.9	18.2	36.5	43.5	47.1	10.5	47.1	36.0
보통	N	10	7	19	8	5	8	2	59
	%	16.9	11.9	32.2	13.6	8.5	13.6	3.4	100
	%	45.5	63.6	36.5	34.8	29.4	42.1	11.8	36.6
그렇지 않다	N	2	0	4	2	1	5	1	15
	%	13.3	0	26.7	13.3	6.7	33.3	6.7	100
	%	9.1	0	7.7	8.7	5.9	26.3	5.9	9.3
전혀 그렇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여도 자평가(3)

-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식 확산에 기여’에 대해서 ‘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24.8%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표 III-39〉 우리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3	2	13	4	5	7	6	40
	%	7.5	5.0	32.5	10.0	12.5	17.5	15.0	100
	%	13.6	18.2	25.0	17.4	29.4	36.8	35.3	24.8
그렇다	N	12	6	29	11	7	7	7	79
	%	15.2	7.6	36.7	13.9	8.9	8.9	8.9	100
	%	54.5	54.5	55.8	47.8	41.2	36.8	41.2	49.1
보통	N	6	3	10	6	3	4	4	36
	%	16.7	8.3	27.8	16.7	8.3	11.1	11.1	100
	%	27.3	27.3	19.2	26.1	17.6	21.1	23.5	22.4
그렇지 않다	N	1	0	0	2	1	1	0	5
	%	20.0	0	0	40.0	20.0	20.0	0	100
	%	4.5	0	0	8.7	5.9	5.3	0	3.1
전혀 그렇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0.6
계	N	22	11	52	23	17	19	4	161
	%	13.7	6.8	32.3	14.3	10.6	11.8	2.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여도 자평가(4)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문화역량 강화, 제고에 기여한다’에 대해서 ‘그렇다’ 48.4%, ‘매우 그렇다’ 28.0%로 긍정 응답이 76.4%로 나타남.

〈표 III-40〉 우리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 문화역량 강화 및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3	3	17	4	5	6	7	45
	%	6.7	6.7	37.8	8.9	11.1	13.3	15.6	100
	%	13.6	27.3	32.7	17.4	29.4	31.6	41.2	28.0
그렇다	N	12	6	26	12	7	8	7	78
	%	15.4	7.7	33.3	15.4	9.0	10.3	9.0	100
	%	54.5	54.5	50.0	52.2	41.2	42.1	41.2	48.4
보통	N	5	2	8	6	4	3	3	31
	%	16.1	6.5	25.8	19.4	12.9	9.7	9.7	100
	%	22.7	18.2	15.4	26.1	23.5	15.8	17.6	19.3
그렇지 않다	N	2	0	1	1	0	2	0	6
	%	33.3	0	16.7	16.7	0	33.3	0	100
	%	9.1	0	1.9	4.3	0	10.5	0	3.7
전혀 그렇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0.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여도 자평가(5)

- ‘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가치증대에 기여한다’에 대해서 ‘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28.0%로 긍정 응답이 77.1%로 나타남.

〈표 III-41〉 우리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3	3	16	5	6	6	6	45
	%	6.7	6.7	35.6	11.1	13.3	13.3	13.3	100
	%	13.6	27.3	30.8	21.7	35.3	31.6	35.3	28.0
그렇다	N	12	6	27	10	7	9	8	79
	%	15.2	7.6	34.2	12.7	8.9	11.4	10.1	100
	%	54.5	54.5	51.9	43.5	41.2	47.4	47.1	49.1
보통	N	5	2	9	6	3	4	3	32
	%	15.6	6.3	28.1	18.8	9.4	12.5	9.4	100
	%	22.7	18.2	17.3	26.1	17.6	21.1	17.6	19.9
그렇지 않다	N	2	0	0	2	0	0	0	4
	%	50.0	0	0	50.0	0	0	0	100
	%	9.1	0	0	8.7	0	0	0	2.5
전혀 그렇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0.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1)

- 문화예술교육 목적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57.8%, ‘어느 정도 중요하다’ 33.5%로 긍정 응답이 91.3%로 높게 나타남.

〈표 III-42〉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중요하다	N	11	7	29	12	12	13	9	93
	%	11.8	7.5	31.2	12.9	12.9	14.0	9.7	100
	%	50.0	63.6	55.8	52.2	70.6	68.4	52.9	57.8
어느정도 중요하다	N	7	2	21	8	4	6	6	54
	%	13.0	3.7	38.9	14.8	7.4	11.1	11.1	100
	%	31.8	18.2	40.4	34.8	23.5	31.6	35.3	33.5
보통이다	N	4	1	2	3	0	0	2	12
	%	33.3	8.3	16.7	25.0	0	0	16.7	100
	%	18.2	9.1	3.8	13.0	0	0	11.8	7.5
중요하지 않다	N	0	1	0	0	1	0	0	2
	%	0	50.0	0	0	50.0	0	0	100
	%	0	9.1	0	0	5.9	0	0	1.2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2)

- 문화예술교육 목적이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가 34.8%, ‘어느 정도 중요하다’ 47.2%로 긍정 응답이 82.0%로 나타남.

〈표 III-43〉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중요하다	N	5	3	16	6	10	9	7	56
	%	8.9	5.4	28.6	10.7	17.9	16.1	12.5	100
	%	22.7	27.3	30.8	26.1	58.8	47.4	41.2	34.8
어느정도 중요하다	N	12	6	25	13	5	8	7	76
	%	15.8	7.9	32.9	17.1	6.6	10.5	9.2	100
	%	54.5	54.5	48.1	56.5	29.4	42.1	41.2	47.2
보통이다	N	5	1	11	4	2	2	2	27
	%	18.5	3.7	40.7	14.8	7.4	7.4	7.4	100
	%	22.7	9.1	21.2	17.4	11.8	10.5	11.8	16.8
중요하지 않다	N	0	1	0	0	0	0	1	2
	%	0	50.0	0	0	0	0	50.0	100
	%	0	9.1	0	0	0	0	5.9	1.2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3)

- 문화예술교육 목적이 ‘문화예술의 향유와 창조력 함양’이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가 42.2%, ‘어느 정도 중요하다’ 40.4%로 긍정 응답이 82.6%로 나타남.

〈표 III-44〉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중요하다	N	8	5	18	10	9	11	7	68
	%	11.8	7.4	26.5	14.7	13.2	16.2	10.3	100
	%	36.4	45.5	34.6	43.5	52.9	57.9	41.2	42.2
어느정도 중요하다	N	7	4	23	10	7	7	7	65
	%	10.8	6.2	35.4	15.4	10.8	10.8	10.8	100
	%	31.8	36.4	44.2	43.5	41.2	36.8	41.2	40.4
보통이다	N	6	1	11	3	0	1	2	24
	%	25.0	4.2	45.8	12.5	0	4.2	8.3	100
	%	27.3	9.1	21.2	13.0	0	5.3	11.8	14.9
중요하지 않다	N	1	1	0	0	0	0	1	3
	%	33.3	33.3	0	0	0	0	33.3	100
	%	4.5	9.1	0	0	0	0	5.9	1.9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4)

- 문화예술교육 목적이 ‘문화예술의 체계적 학습,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이란 인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가 45.3%, ‘어느 정도 그렇다’ 39.8%로 긍정 응답이 85.1%로 높게 나타남.

〈표 III-45〉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문화예술의 체계적 학습,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중요하다	N	6	6	20	14	10	9	8	73
	%	8.2	8.2	27.4	19.2	13.7	12.3	11.0	100
	%	27.3	54.5	38.5	60.9	58.8	47.4	47.1	45.3
어느정도 중요하다	N	11	3	25	4	6	8	7	64
	%	17.2	4.7	39.1	6.3	9.4	12.5	10.9	100
	%	50.0	27.3	48.1	17.4	35.3	42.1	41.2	39.8
보통이다	N	4	1	7	5	0	2	2	21
	%	19.0	4.8	33.3	23.8	0	9.5	9.5	100
	%	18.2	9.1	13.5	21.7	0	10.5	11.8	13.0
중요하지 않다	N	1	1	0	0	0	0	0	2
	%	50.0	50.0	0	0	0	0	0	100
	%	4.5	9.1	0	0	0	0	0	1.2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1	0	0	1
	%	0	0	0	0	100	0	0	100
	%	0	0	0	0	5.9	0	0	0.6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5) 주관식

〈표 III-46〉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_그 외

내 용	N
교육기획,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세분화 (실기위주와 구분 필요) 전문인력 채용	1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문화예술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1
관계기관의 협력 및 활성화 중요	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한다는 목적과 방향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할 수 있으나 저소득자녀나 장애인은?	1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	1
여가활용에 기여	1
행복한 노후	1
행정적인 지원(예산공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문화기반시설들의 열정과 노력을 지원해주는 것	1
현재 추세는 양질의 여가 활동을 보내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여가 활동이라	1
합계	9

□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분야(복수응답)

-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분야(복수응답)에서는 ‘전반적인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문예회관과 문화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 행정 및 예산’도 많이 나타남.

〈표 III-47〉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분야(복수응답)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전반적인 기획 및 관리	N	11	8	33	18	14	17	12	113
	%	9.7	7.1	29.2	15.9	12.4	15.0	10.6	100
프로그램 직접 운영 및 강의	N	5	1	4	3	14	11	2	40
	%	12.5	2.5	10.0	7.5	35.0	27.5	5.0	100
교육 관련 행정 및 예산	N	11	6	33	10	13	14	12	99
	%	11.1	6.1	33.3	10.1	13.1	14.1	12.1	100
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보조	N	5	2	16	8	10	13	6	60
	%	8.3	3.3	26.7	13.3	16.7	21.7	10.0	100
그 외	N	3	1	2	2	1	9	0	9
	%	33.3	11.1	22.2	22.2	11.1	10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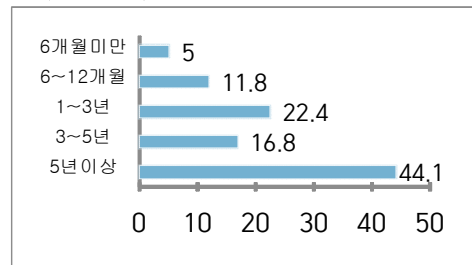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및 시설별 종사기간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종사기간으로는 ‘5년 이상’이 44.1%로 가장 많음.

〈표 III-48〉 문화예술관련 업무 종사기간

	빈도	유효%
6개월 미만	8	5.0
6~12개월	19	11.8
1~3년	36	22.4
3~5년	27	16.8
5년 이상	71	44.1
계	161	100

〈그림 III-7〉 문화예술관련 업무 종사기간



〈표 III-4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업무 종사기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6개월 미만	N	3	0	2	1	0	2	0	8
	%	37.5	0	25.0	12.5	0	25.0	0	100
	%	14.3	0	3.8	4.3	0	10.5	0	5.0
6~12개월	N	3	1	5	4	2	1	3	19
	%	15.8	5.3	26.3	21.1	10.5	5.3	15.8	100
	%	14.3	9.1	9.6	17.4	11.8	5.3	17.6	11.9
1~3년	N	4	1	10	6	3	6	6	36
	%	11.1	2.8	27.8	16.7	8.3	16.7	16.7	100
	%	19.0	9.1	19.2	26.1	17.6	31.6	35.3	22.5
3~5년	N	4	0	10	4	4	1	4	27
	%	14.8	0	37.0	14.8	14.8	3.7	14.8	100
	%	19.0	0	19.2	17.4	23.5	5.3	23.5	16.9
5년 이상	N	7	9	25	8	8	9	4	70
	%	10.0	12.9	35.7	11.4	11.4	12.9	5.7	100
	%	33.3	81.8	48.1	34.8	47.1	47.4	23.5	43.8
계	N	21	11	52	23	17	19	17	160
	%	13.1	6.9	32.5	14.4	10.6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능력, 기량에 대한 자평가

-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능력, 기량에 대한 자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가 50.5%로 가장 많음.

〈표 III-50〉 업무, 기량에 대한 자평가

	빈도(수)	비중(%)
충분히 갖추고 있다	15	15.5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49	50.5
보통이다	26	26.8
조금 부족하다	6	6.2
매우 부족하다	1	1.0
계	97	100

□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소지자

- 학위나 자격증은 전체 33.8%가 소지하고 있으며, 시설별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39명 중 문화원이 10명, 미술관 9명임.

〈표 III-51〉 전공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소지	N	8	2	15	7	7	12	3	54
	%	14.8	3.7	27.8	13.0	13.0	22.2	5.6	100
	%	38.1	18.2	28.8	30.4	41.2	63.2	17.6	33.8
미소지	N	13	9	37	16	10	7	14	106
	%	12.3	8.5	34.9	15.1	9.4	6.6	13.2	100
	%	61.9	81.8	71.2	69.6	58.8	36.8	82.4	66.3
계	N	21	11	52	23	17	19	17	160
	%	13.1	6.9	32.5	14.4	10.6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III-52〉 시설별 자격증 소지 종류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문화예술계열 자격증	N	3	0	4	3	3	6	3	22
	%	13.6	0	18.2	13.6	13.6	27.3	13.6	100
	%	60.0	0	40.0	50.0	100	66.7	100	56.4
인문계열 자격증	N	0	0	0	0	0	1	0	1
	%	0	0	0	0	0	100	0	100
	%	0	0	0	0	0	11.1	0	2.6
사회계열 (교직포함) 자격증	N	0	2	0	0	0	1	0	3
	%	0	66.7	0	0	0	33.3	0	100
	%	0	66.7	0	0	0	11.1	0	7.7
자연계열 자격증	N	2	1	6	3	0	1	0	13
	%	15.4	7.7	46.2	23.1	0	7.7	0	100
	%	40.0	33.3	60.0	50.0	0	11.1	0	33.3
계	N	5	3	10	6	3	9	3	39
	%	12.8	7.7	25.6	15.4	7.7	23.1	7.7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업무관련 지식, 기술 개발노력 정도

- 업무관련 지식, 기술 개발노력을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8.1%, ‘그렇다’ 48.8%로 긍정적 응답이 66.9%로 나타남.

〈표 III-53〉 시설별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 정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4	1	9	1	7	4	1	29
	%	13.8	3.4	31.0	3.4	24.1	13.8	3.4	100
	%	19.0	9.1	17.3	4.3	41.2	21.1	25.0	18.1
그렇다	N	9	6	25	9	8	14	1	78
	%	11.5	7.7	32.1	11.5	10.3	17.9	1.3	100
	%	42.9	54.5	48.1	39.1	47.1	73.7	25.0	48.8
보통 이다	N	8	3	16	11	2	1	1	47
	%	17.0	6.4	34.0	23.4	4.3	2.1	2.1	100
	%	38.1	27.3	30.8	47.8	11.8	5.3	25.0	29.4
아니다	N	0	1	2	2	0	0	1	6
	%	0	16.7	33.3	33.3	0	0	16.7	100
	%	0	9.1	3.8	8.7	0	0	25.0	3.8
계	N	21	11	52	23	17	19	4	160
	%	13.1	6.9	32.5	14.4	10.6	11.9	2.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3.8%가 ‘그렇다’고 응답함.

〈표 III-54〉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성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그렇다	N	19	11	51	20	17	19	14	151
	%	12.6	7.3	33.8	13.2	11.3	12.6	9.3	100
	%	86.4	100	98.1	87.0	100	100	82.4	93.8
아님	N	3	0	1	3	0	0	3	10
	%	30.0	0	10.0	30.0	0		30.0	100
	%	13.6	0	1.9	13.0	0	0	17.6	6.2
계	N	22	11	52	23	17	19	17	161
	%	13.7	6.8	32.3	14.3	10.6	11.8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인 문화예술 능력, 기량 평가

- 본인의 문화예술 능력, 기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12.6%,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43.4%로 긍정 응답이 56.0%로 나타남.

〈표 III-55〉 시설별 본인의 문화예술 능력, 기량에 대한 자평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충분히 갖추고 있다	N	3	0	3	1	8	2	3	20
	%	15.0	0	15.0	5.0	40.0	10.0	15.0	100
	%	15.0	0	5.8	4.3	47.1	10.5	17.6	12.6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N	11	4	21	3	8	14	8	69
	%	15.9	5.8	30.4	4.3	11.6	20.3	11.6	100
	%	55.0	36.4	40.4	13.0	47.1	73.7	47.1	43.4
보통이다	N	5	5	21	15	1	2	5	54
	%	9.3	9.3	38.9	27.8	1.9	3.7	9.3	100
	%	25.0	45.5	40.4	65.2	5.9	10.5	29.4	34.0
조금 부족하다	N	1	2	6	4	0	1	1	15
	%	6.7	13.3	40.0	26.7	0	6.7	6.7	100
	%	5.0	18.2	11.5	17.4	0	5.3	5.9	9.4
매우 부족하다	N	0	0	1	0	0	0	0	1
	%	0	0	100	0	0	0	0	100
	%	0	0	1.9	0	0	0	0	.6
계	N	20	11	52	23	17	19	17	159
	%	12.6	6.9	32.7	14.5	10.7	11.9	10.7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 스스로 역량강화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3.8%가 그렇다고 답함.

〈표 III-56〉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 자평가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그렇다	N	19	11	51	20	17	19	3	151
	%	12.6	7.3	33.8	13.2	11.3	12.6	2.0	100
	%	86.4	100	98.1	87.0	100	100	75.0	93.8
아니다	N	3	0	1	3	0	0	1	10
	%	30.0	0	10.0	30.0	0	0	10.0	100
	%	13.6	0	1.9	13.0	0	0	25.0	6.2
계	N	22	11	52	23	17	19	4	161
	%	13.7	6.8	32.3	14.3	10.6	11.8	2.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6문항)

-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복수응답)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69.1%,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이 58.0%로 높게 나타남.

〈표 III-57〉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전체)

	N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94	58.0
문화예술교육 담당 전문인력 확보	74	48.1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68	42.0
문화예술(교육)인력, 주민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62	38.3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112	69.1
그외	3	1.9

-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기타) 주관식

〈표 III-58〉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기타) 주관식

내용	N
강의로 인상	1
문화 교육의 스키마, 실제 경험, 타 기관의 운영 방침 등	1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미술관 환경과 기회	1
합계	3

-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모든 시설들은 ‘교육 수준 향상,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도서관의 경우, ‘교육 담당 전문인력 확보’ 문항 또한 가장 높게 응답했음.

〈표 III-59〉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교육 기획 및 운영	N	11	7	32	12	10	14	8	94
	%	11.7	7.4	34.0	12.8	10.6	14.9	8.5	100
교육 담당 전문인력 확보	N	10	6	19	13	10	11	9	78
	%	12.8	7.7	24.4	16.7	12.8	14.1	11.5	100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N	7	2	30	8	6	9	6	68
	%	10.3	2.9	44.1	11.8	8.8	13.2	8.8	100
문화예술인력, 민과의 협업적 네트워크	N	9	3	21	8	7	7	6	61
	%	14.8	4.9	34.4	13.1	11.5	11.5	9.8	100
교육 수준 향상, 확산 위한 재정적 지원	N	14	9	35	13	14	16	10	111
	%	12.6	8.1	31.5	11.7	12.6	14.4	9.0	100
그 외	N	0	0	2	0	0	1	0	3
	%	0	0	66.7	0	0	33.3	0	100

□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의지

-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기관의지는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 7.08로 높게 나타났음.

〈표 III-60〉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의지정도(범위: 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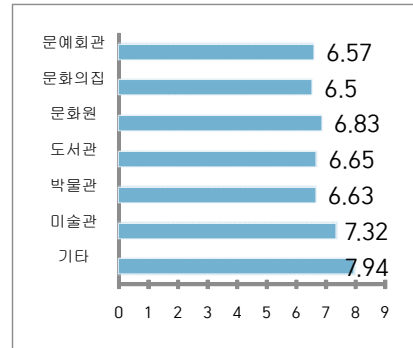
	N	Min.	Max.	평균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의지 정도(10점)	95	0	10	7.08
유효수 (목록별)	95			

-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 기관의 의지정도는 기타 7.9, 미술관 7.3이며, 상대적으로 문화의집 의지정도는 6.5로 낮게 나타났음.

〈표 III-61〉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 의지정도
(범위: 0.0~10.0)

	평균	N
문예회관	6.6	21
문화의집	6.5	10
문화원	6.8	52
도서관	6.7	23
박물관	6.6	16
미술관	7.3	19
기타	7.9	17
소계	6.9	158

〈그림III-8〉 시설별 인적역량 강화 의지정도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10문항)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9.4%, ‘전공 분야의 전문성’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2.8%, ‘수준 높은 교수(강의)’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63.6%,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3.9%,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5.1%,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3.9%,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향상’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7.1%,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6.3%,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0.8%, ‘강의 외 기타 업무’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62.5%로 나타났음.

〈표 III-62〉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10문항)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계	
	N	%	N	%	N	%	N	%	N	%	N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	86	53.4	58	36.0	17	10.6	0	0	0	0	161	100
전공분야의 전문성	48	29.6	70	43.2	37	22.8	6	3.7	0	0	161	100
수준 높은 교수(강의)	36	22.2	67	41.4	49	30.2	9	5.6	0	0	161	100
타 분야와의 융합 교육	40	24.8	79	49.1	40	24.8	1	0.6	1	0.6	161	100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62	38.5	75	46.6	23	14.3	1	0.6	0	0	161	100
문제해결능력	51	31.7	68	42.2	41	25.5	1	0.6	0	0	161	100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향상	50	31.1	74	46.0	36	22.4	1	0.6	0	0	161	100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58	36.0	81	50.3	19	11.8	3	1.9	0	0	161	100
문화기반시설의 최신동향 이해도	56	34.8	74	46.0	29	18.0	2	1.2	0	0	161	100
강의 외 기타 업무	19	11.9	81	50.6	53	33.1	7	4.4	0	0	161	100

- 모든 시설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이 ‘매우 그렇다’ 53.8%, ‘그렇다’ 35.6%로 긍정적인 응답이 89.4%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63〉 (1문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11	8	21	15	11	13	7	86
	%	12.8	9.3	24.4	17.4	12.8	15.1	8.1	100
	%	50.0	72.7	40.4	65.2	68.8	68.4	41.2	53.8
그렇다	N	5	2	27	8	3	6	6	57
	%	8.8	3.5	47.4	14.0	5.3	10.5	10.5	100
	%	22.7	18.2	51.9	34.8	18.8	31.6	35.3	35.6
보통이다	N	6	1	4	0	2	0	4	17
	%	35.3	5.9	23.5	0	11.8	0	23.5	100
	%	27.3	9.1	7.7	0	12.5	0	23.5	10.6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전공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그렇다’ 30.0%, ‘그렇다’ 43.1%로 긍정적인 응답이 73.1%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64〉 (2문항) 전공분야의 전문성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9	3	11	5	7	9	4	48
	%	18.8	6.3	22.9	10.4	14.6	18.8	8.3	100
	%	40.9	27.3	21.2	21.7	43.8	47.4	23.5	30.0
그렇다	N	6	4	24	10	7	9	9	69
	%	8.7	5.8	34.8	14.5	10.1	13.0	13.0	100
	%	27.3	36.4	46.2	43.5	43.8	47.4	52.9	43.1
보통이다	N	7	4	16	7	1	1	1	37
	%	18.9	10.8	43.2	18.9	2.7	2.7	2.7	100
	%	31.8	36.4	30.8	30.4	6.3	5.3	5.9	23.1
아니다	N	0	0	1	1	1	0	3	6
	%	0	0	16.7	16.7	16.7	0	50.0	100
	%	0	0	1.9	4.3	6.3	0	17.6	3.8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4	160
	%	13.8	6.9	32.5	14.4	10.0	11.9	2.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교수(강의)’가 필요하다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63.8%로 응답하고 있으나 그 다음 순으로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30.6%임.

〈표 III-65〉 (3문항)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교수(강의)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7	3	10	4	3	5	4	36
	%	19.4	8.3	27.8	11.1	8.3	13.9	11.1	100
	%	31.8	27.3	19.2	17.4	18.8	26.3	23.5	22.5
그렇다	N	8	4	20	12	6	9	7	66
	%	12.1	6.1	30.3	18.2	9.1	13.6	10.6	100
	%	36.4	36.4	38.5	52.2	37.5	47.4	41.2	41.3
보통이다	N	7	4	19	6	6	4	3	49
	%	14.3	8.2	38.8	12.2	12.2	8.2	6.1	100
	%	31.8	36.4	36.5	26.1	37.5	21.1	17.6	30.6
아니다	N	0	0	3	1	1	1	3	9
	%	0	0	33.3	11.1	11.1	11.1	33.3	100
	%	0	0	5.8	4.3	6.3	5.3	17.6	5.6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타 문화예술분야와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3.8%이며 단, 문화원의 경우는 ‘그렇다’ 다음 순으로 ‘보통이다’로 응답함.

〈표 III-66〉 (4문항) 타 문화예술분야와 융합 교육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6	4	12	5	5	2	6	40
	%	15.0	10.0	30.0	12.5	12.5	5.0	15.0	100
	%	27.3	36.4	23.1	21.7	31.3	10.5	35.3	25.0
그렇다	N	10	3	21	13	7	16	8	78
	%	12.8	3.8	26.9	16.7	9.0	20.5	10.3	100
	%	45.5	27.3	40.4	56.5	43.8	84.2	47.1	48.8
보통이다	N	5	4	19	5	4	1	2	40
	%	12.5	10.0	47.5	12.5	10.0	2.5	5.0	100
	%	22.7	36.4	36.5	21.7	25.0	5.3	11.8	25.0
아니다	N	1	0	0	0	0	0	0	1
	%	100	0	0	0	0	0	0	100
	%	4.5	0	0	0	0	0	0	0.6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1	1
	%	0	0	0	0	0	0	100	100
	%	0	0	0	0	0	0	5.9	0.6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이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이 85.1%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67〉 (5문항)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9	8	16	8	8	7	6	62
	%	14.5	12.9	25.8	12.9	12.9	11.3	9.7	100
	%	40.9	72.7	30.8	34.8	50.0	36.8	35.3	38.8
그렇다	N	9	2	26	12	7	10	8	74
	%	12.2	2.7	35.1	16.2	9.5	13.5	10.8	100
	%	40.9	18.2	50.0	52.2	43.8	52.6	47.1	46.3
보통이다	N	4	1	10	3	1	2	2	23
	%	17.4	4.3	43.5	13.0	4.3	8.7	8.7	100
	%	18.2	9.1	19.2	13.0	6.3	10.5	11.8	14.4
아니다	N	0	0	0	0	0	0	1	1
	%	0	0	0	0	0	0	100	100
	%	0	0	0	0	0	0	5.9	0.6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대부분의 시설들이 '문제해결능력'이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긍정적인 응답이 73.8%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문예회관은 '그렇다' 59.1%, '보통이다' 22.7%, 문화원은 '그렇다' 40.4%, '보통이다' 32.7%, 도서관은 '그렇다' 34.8%,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가 동일한 응답 비율로 30.4%, 30.4%로 응답하고 있음.

〈표 III-68〉 (6문항) 문제해결능력(문제학습생 혹은 돌발상황 해결 등)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4	6	14	7	6	6	7	50
	%	8.0	12.0	28.0	14.0	12.0	12.0	14.0	100
	%	18.2	54.5	26.9	30.4	37.5	31.6	41.2	31.3
그렇다	N	13	3	21	8	8	10	5	68
	%	19.1	4.4	30.9	11.8	11.8	14.7	7.4	100
	%	59.1	27.3	40.4	34.8	50.0	52.6	29.4	42.5
보통이다	N	5	2	17	7	2	3	5	41
	%	12.2	4.9	41.5	17.1	4.9	7.3	12.2	100
	%	22.7	18.2	32.7	30.4	12.5	15.8	29.4	25.6
아니다	N	0	0	0	1	0	0	0	1
	%	0	0	0	100	0	0	0	100
	%	0	0	0	4.3	0	0	0	0.6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대부분의 시설들이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향상'이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76.9%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단, 문예회관의 경우, '그렇다' 59.1%, '보통이다' 22.7%, 도서관의 경우, '그렇다' 47.8%, '보통이다' 26.1% 순으로 응답함.

〈표 III-69〉 (7문항)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향상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4	8	18	5	5	4	6	50
	%	8.0	16.0	36.0	10.0	10.0	8.0	12.0	100
	%	18.2	72.7	34.6	21.7	31.3	21.1	35.3	31.3
그렇다	N	13	2	23	11	8	9	7	73
	%	17.8	2.7	31.5	15.1	11.0	12.3	9.6	100
	%	59.1	18.2	44.2	47.8	50.0	47.4	41.2	45.6
보통이다	N	5	1	11	6	3	6	4	36
	%	13.9	2.8	30.6	16.7	8.3	16.7	11.1	100
	%	22.7	9.1	21.2	26.1	18.8	31.6	23.5	22.5
아니다	N	0	0	0	1	0	0	0	1
	%	0	0	0	100	0	0	0	100
	%	0	0	0	4.3	0	0	0	0.6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6.3%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70〉 (8문항)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6	6	15	8	5	10	8	58
	%	10.3	10.3	25.9	13.8	8.6	17.2	13.8	100
	%	27.3	54.5	28.8	34.8	31.3	52.6	47.1	36.3
그렇다	N	11	5	30	9	10	9	6	80
	%	13.8	6.3	37.5	11.3	12.5	11.3	7.5	100
	%	50.0	45.5	57.7	39.1	62.5	47.4	35.3	50.0
보통이다	N	5	0	5	5	1	0	3	19
	%	26.3	0	26.3	26.3	5.3	0	15.8	100
	%	22.7	0	9.6	21.7	6.3	0	17.6	11.9
아니다	N	0	0	2	1	0	0	0	3
	%	0	0	66.7	33.3	0	0	0	100
	%	0	0	3.8	4.3	0	0	0	1.9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모든 시설들이 ‘해당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의 최신동향 이해도’가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80.6%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71〉 (9문항) 해당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의 최신동향 이해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6	5	17	7	5	8	8	56
	%	10.7	8.9	30.4	12.5	8.9	14.3	14.3	100
	%	27.3	45.5	32.7	30.4	31.3	42.1	47.1	35.0
그렇다	N	12	4	26	9	9	8	5	73
	%	16.4	5.5	35.6	12.3	12.3	11.0	6.8	100
	%	54.5	36.4	50.0	39.1	56.3	42.1	29.4	45.6
보통이다	N	3	2	8	7	2	3	4	29
	%	10.3	6.9	27.6	24.1	6.9	10.3	13.8	100
	%	13.6	18.2	15.4	30.4	12.5	15.8	23.5	18.1

아니다	N	1	0	1	0	0	0	0	2
	%	50.0	0	50.0	0	0	0	0	100
	%	4.5	0	1.9	0	0	0	0	1.3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3	16	19	17	160
	%	13.8	6.9	32.5	14.4	10.0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강의 외 기타 업무’가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이 62.2%로 나타남. 단,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11.9%)보다는 ‘보통이다’(33.3%)의 응답 비율이 높았음.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으며, 문화의집과 도서관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표 III-72〉 (10문항) 강의 외 기타 업무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매우 그렇다	N	3	2	8	3	1	0	2	19
	%	15.8	10.5	42.1	15.8	5.3	.0	10.5	100
	%	13.6	18.2	15.4	13.6	6.3	.0	11.8	11.9
그렇다	N	9	4	28	8	10	11	10	80
	%	11.3	5.0	35.0	10.0	12.5	13.8	12.5	100
	%	40.9	36.4	53.8	36.4	62.5	57.9	58.8	50.3
보통이다	N	8	5	16	10	3	7	4	53
	%	15.1	9.4	30.2	18.9	5.7	13.2	7.5	100
	%	36.4	45.5	30.8	45.5	18.8	36.8	23.5	33.3
아니다	N	2	0	0	1	2	1	1	7
	%	28.6	0	0	14.3	28.6	14.3	14.3	100
	%	9.1	0	0	4.5	12.5	5.3	5.9	4.4
전혀 아니다	N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계	N	22	11	52	22	16	19	17	159
	%	13.8	6.9	32.7	13.8	10.1	11.9	10.7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외부 네트워크 유무, 수

- 외부 네트워크는 문화의집 72.7%, 미술관 68.4%, 도서관 63.6%, 문화원 57.7% 순으로 ‘있음’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문예회관은 59.1%, 박물관은 52.9%로 ‘없음’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73〉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지식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기관,단체) 유무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있음	N	9	8	30	14	8	13	9	91
	%	9.9	8.8	33.0	15.4	8.8	14.3	9.9	100

	%	40.9	72.7	57.7	63.6	47.1	68.4	52.9	56.9
없음	N	13	3	22	8	9	6	8	69
	%	18.8	4.3	31.9	11.6	13.0	8.7	11.6	100
	%	59.1	27.3	42.3	36.4	52.9	31.6	47.1	43.1
계	N	22	11	52	22	17	19	17	160
	%	13.8	6.9	32.5	13.8	10.6	11.9	10.6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별 외부 네트워크 종류

- 시설별 외부네트워크 종류는 각 교급별 학교, 복지기관, 평생교육시설, 공연장 등 다양함.

〈표 III-74〉 시설별 외부네트워크 종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N	%	문화의집	N	%	평생교육 시설	N	%	주민센터	N	%
	32	19.8		17	10.5		25	15.4		22	13.6
소공연장	N	%	복지회관	N	%	유치원	N	%	생활문화 센터	N	%
	14	8.6		19	11.7		17	10.5		14	8.6
박물관	N	%	문화체육 시설	N	%	초등학교	N	%	영상미디어 센터	N	%
	24	14.8		12	7.4		27	16.7		5	3.1
미술관	N	%	청소년활동시 설	N	%	중학교	N	%	아동복지 센터	N	%
	20	12.3		9	5.6		19	11.7		12	7.4
기타 전시시설	N	%	지방문화원	N	%	고등학교	N	%	노인복지관	N	%
	20	12.3		26	16.0		14	8.6		22	13.6
도서관	N	%	국악원	N	%	대학교	N	%	장애인 복지관	N	%
	31	19.1		4	2.5		25	15.4		9	5.6
작은도서관	N	%	전수회관	N	%						
	17	10.5		4	2.5						

□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 활동

- 문예회관, 문화의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는 ‘문화예술교육 공동 수행’을 위한 연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원은 ‘장소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75〉 외부네트워크와의 연계활동 내용(1순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문화예술교 육공동수행	N	5	4	8	8	4	6	4	39
	%	12.8	10.3	20.5	20.5	10.3	15.4	10.3	100
	%	55.6	50.0	25.8	57.1	50.0	50.0	44.4	42.9
인력지원	N	0	0	2	3	1	2	0	8
	%	0	0	25.0	37.5	12.5	25.0	0	100
	%	0	0	6.5	21.4	12.5	16.7	0	8.8
프로그램 개발	N	3	2	4	1	0	2	1	13
	%	23.1	15.4	30.8	7.7	0	15.4	7.7	100
	%	33.3	25.0	12.9	7.1	0	16.7	11.1	14.3

장소제공	N	0	1	15	2	1	0	2	21
	%	0	4.8	71.4	9.5	4.8	0	9.5	100
	%	0	12.5	48.4	14.3	12.5	0	22.2	23.1
경비지원	N	0	0	0	0	0	0	1	1
	%	0	0	0	0	0	0	100	100
	%	0	0	0	0	0	0	11.1	1.1
그외	N	1	1	2	0	2	2	1	9
	%	11.1	11.1	22.2	0	22.2	22.2	11.1	100
	%	11.1	12.5	6.5	0	25.0	16.7	11.1	9.9
계	N	9	8	31	14	8	12	9	91
	%	9.9	8.8	34.1	15.4	8.8	13.2	9.9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문화의집, 도서관은 ‘인력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예회관은 ‘프로그램 개발’과 ‘장소제공’이, 문화원은 ‘장소제공’이 연계활동 내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76〉 외부네트워크와의 연계활동 내용(2순위)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계
문화예술 교육공동 수행	N	1	0	3	2	0	0	1	7
	%	14.3	0	42.9	28.6	0	0	14.3	100
	%	16.7	0	12.5	15.4	0	0	20.0	10.9
인력지원	N	1	3	5	6	1	2	0	18
	%	5.6	16.7	27.8	33.3	5.6	11.1	0	100
	%	16.7	75.0	20.8	46.2	20.0	28.6	0	28.1
프로그램 개발	N	2	1	5	2	1	2	2	15
	%	13.3	6.7	33.3	13.3	6.7	13.3	13.3	100
	%	33.3	25.0	20.8	15.4	20.0	28.6	40.0	23.4
장소제공	N	2	0	6	2	1	3	0	14
	%	14.3	0	42.9	14.3	7.1	21.4	0	100
	%	33.3	0	25.0	15.4	20.0	42.9	0	21.9
경비지원	N	0	0	3	0	1	0	1	5
	%	0	0	60.0	0	20.0	0	20.0	100
	%	0	0	12.5	0	20.0	0	20.0	7.8
그외	N	0	0	0	0	1	0	1	2
	%	0	0	0	0	50.0	0	50.0	100
	%	0	0	0	0	20.0	0	20.0	3.1
계	N	6	4	22	12	5	7	5	61
	%	9.8	6.6	36.0	19.7	8.2	11.5	8.2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외부 네트워크와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 정도

- 문화시설 네트워크와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가장 높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 순으로 높아서 교류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77〉 (1) 문화시설 네트워크와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 정도

	문예회관		소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기타전시관	
	N	%	N	%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30.3	4	33.3	6	26.1	4	20.0	2	10.5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20	60.6	6	50.0	14	60.9	14	70.0	13	68.4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9.1	2	16.7	2	8.7	2	10.0	3	15.8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0	0	0	0	1	4.3	0	0	1	5.3
소계	33	100	12	100	23	100	20	100	19	100
결측	128		149		138		141		142	
합계	161		161		161		161		161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시설	
	N	%	N	%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32.3	6	35.3	6	37.5	2	11.1	2	16.7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7	54.8	10	58.8	9	56.2	12	66.7	8	66.7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12.9	1	5.9	1	6.3	4	22.2	2	16.7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0	0	0	0	0	0	0	0	0	0
소계	31	100	17	100	16	100	18	100	12	100
결측	130		144		145		143		149	
합계	161		161		161		161		161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N	%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11.1	10	38.5	0	.0	2	50.0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6	66.7	13	50.0	3	75.0	2	50.0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22.2	3	11.5	1	25.0	0	.0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0	0	0	0	0	0	0	0		
소계	9	100	26	100	4	100	4	100		
결측	152		135		157		157			
합계	161		161		161		161			

□ 외부 네트워크와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 정도

-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과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가장 높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 순으로 높아서 교류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78〉 (2)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과의 지식, 정보 교류활동정도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6	25.0	4	23.5	7	25.9	3	15.8	2	14.3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4	58.3	12	70.6	16	59.3	14	73.7	11	78.6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12.5	1	5.9	4	14.8	2	10.5	1	7.1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1	4.2	0	0	0	0	0	0	0	0
소계	24	100	17	100	27	100	19	100	14	100
결측	137		144		134		142		147	
합계	161		161		161		161		161	
	대학교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아동복지시설	
	N	%	N	%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7	28.0	8	36.4	3	23.1	1	20.0	5	41.7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5	60.0	11	50.0	10	76.9	4	80.0	5	41.7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12.0	2	9.1	0	.0	0	.0	1	8.3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0	0	1	4.5	0	0	0	0	1	8.3
소계	25	100	22	100	13	100	5	100	12	100
결측	136		139		148		156		149	
합계	161		161		161		161		161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총응답수					
	N	%	N	%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8	36.4	3	33.3	122	26.6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59.1	4	44.4	276	60.2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	4.5	2	22.2	50	12.3				
전혀 교류, 공유가 없다	0	0	0	0	5	0.8				
소계	22	100	9	100	453	100				
결측	139		152							
합계	161		161							

□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1)

-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은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서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교류는 안전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 지방문화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III-79〉 (1) 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

	문예회관		소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기타전시관	
	N	%	N	%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5	15.2	1	8.3	4	17.4	2	10.0	2	10.5
비정기적으로 모임	14	42.4	4	33.3	9	39.1	10	50.0	6	31.6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11	33.3	3	25.0	9	39.1	8	40.0	9	47.4
거의 모임이 못함	3	9.1	4	33.3	1	4.3	0	.0	2	10.5
소계	33	100	12	100	23	100	20	100	19	100
결측	128		149		138		141		142	
합계	161		161		161		161		161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시설	
	N	%	N	%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5	16.1	3	17.6	5	31.3	3	16.7	2	16.7
비정기적으로 모임	11	35.5	8	47.1	7	43.8	7	38.9	4	33.3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11	35.5	4	23.5	2	12.5	5	27.8	6	50.0
거의 모임이 못함	4	12.9	2	11.8	2	12.5	3	16.7	0	.0
소계	31	100	17	100	16	100	18	100	12	100
결측	130		144		145		143		149	
합계	161		161		161		161		161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N	%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1	11.1	12	46.2	0	.0	1	25.0		
비정기적으로 모임	3	33.3	5	19.2	2	50.0	2	50.0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5	55.6	8	30.8	1	25.0	0	.0		
거의 모임이 못함	0	.0	1	3.8	1	25.0	1	25.0		
소계	9	100	26	100	4	100	4	100		
결측	152		13		157		157			
합계	161		161		161		161			

□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2)

-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은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비정기적으로 모임’이 그 다음 순으로 높아서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교류는 안전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단, 유치원의 경우, ‘거의 모이지 못함’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III-80〉 (2) 교육연구시설,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시설, 복지시설 네트 구성원과의 상호협력 모임 정도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	N	%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5	20.8	1	5.9	3	11.1	1	5.3	2	14.3
비정기적으로 모임	7	29.2	4	23.5	8	29.6	5	26.3	3	21.4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6	25.0	5	29.4	9	33.3	8	42.1	6	42.9
거의 모이지 못함	6	25.0	7	41.2	7	25.9	5	26.3	3	21.4
소계	24	100	17	100	27	100	19	100	14	100
결측	137		144		134		142		147	
합계	161		161		161		161		161	
	대학교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아동복지시설	
	N	%	N	%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1	4.0	5	22.7	2	15.4	0	.0	0	.0
비정기적으로 모임	7	28.0	4	18.2	4	30.8	3	60.0	6	50.0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15	60.0	10	45.5	5	38.5	1	20.0	4	33.3
거의 모이지 못함	2	8.0	3	13.6	2	15.4	1	20.0	2	16.7
소계	25	100	22	100	13	100	5	100	12	100
결측	136		139		148		156		149	
합계	161		161		161		161		161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총응답수					
	N	%	N	%	N	%				
정기적으로 모임	2	9.1	0	.0	68	15.0				
비정기적으로 모임	14	63.6	4	44.4	160	35.4				
안전, 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	3	13.6	4	44.4	158	35.0				
거의 모이지 못함	3	13.6	1	11.1	66	14.6				
소계	22	100	9	100	452	100				
결측	139		152							
합계	161		161							

□ 성별, 연령대

- 성별은 여성이 69.4%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음.

〈표 III-81〉 성별		
	N	%
남성	49	30.4
여성	112	69.6
합계	161	100

〈표 III-82〉 연령대		
	N	%
20대	24	14.9
30대	48	29.8
40대	52	32.3
50대	29	18.0
60대이상	8	4.9
합계	161	100

2.1.2. 기관관계자 상관분석

〈표 III-83〉 기관관계자 상관분석 문항 구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	C1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4문항)	.918
	B12-3	문화예술교육사업 인식평가(5문항)	.924
	B12-1	프로그램 운영상태 평가(1문항)	-
	B5	프로그램 목적, 기능 부합 평가(1문항)	-
인적 역량	D1-8	기관 인적역량 강화 의지정도(1문항)	-
	D1-5	기관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1문항)	-
	D1-4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1문항)	-
	D1-9	전문인력 역량강화 필요항목(10문항)	.871
사회적 역량	D2-2	외부 네트워크 수(1문항)	-
	D2-3.3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정도(1문항)	-
	D2-3.4	구성원들과의 접촉 정도(1문항)	-

□ 기관평가 상관관계

- 기관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의 정도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인식정도」와 관계성을 가지며, 또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상태에 대한 자평가」, 「프로그램이 해당기관의 목적, 기능에의 부합 정도 평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와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84〉 기관평가 문항 상관관계

	측정	C1	B12-3	B12-1	B5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C1	1			
문화예술교육사업 인식	B12-3	.660**	1		
프로그램 운영상태	B12-1	.387**	.627**	1	
프로그램 목적, 기능 부합	B5	.385**	.604**	.432**	1

** $p < .01$

□ 인적역량 상관계

-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 의지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도 높고, 또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도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남.
- 이는 기관 관계자의 「인적역량 강화의지」를 높이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을 높이게 되며, 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85〉 인적역량 상관계

	측정	D1-8	D1-5	D1-4	D1-9
기관 인적역량 강화 의지	D1-8	1			
기관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	D1-5	.349**	1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	D1-4	.211**	.552**	1	
전문인력 역량강화 필요항목	D1-9	.366**	.345**	.151	1

** $p < .01$

□ 사회적 역량 상관계

- 기관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잦을수록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6〉 사회적 역량 상관계

	측정	D1-8	D1-4	D1-9
외부 네트워크 수	D2-2	1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정도	D2-3.3	.188	1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 정도	D2-3.4	.110	.242*	1

** $p < .01$

□ 기관평가 - 인적역량 - 사회적 역량 상관계

〈표 III-87〉 기관평가 문항 상관계 계수

기관평가		C1	B12-3	B12-1	B5	D1-8	D1-5	D1-4	D1-9	D1-8	D1-4	D1-9
교육목적인식	C1	1										
교육사업인식	B12-3	.660**	1									
프로그램운영상태	B12-1	.387**	.627**	1								
프로그램부합	B5	.385**	.604**	.432**	1							
인적역량 역량강화의지	D1-8	.558**	.565**	.384**	.598**	1						

지식기술개발능력	D1-5	.218**	.342**	.137	.212**	.211**	1					
전문인력평가	D1-4	.396**	.327**	.211**	.195*	.349**	.552**	1				
전문인력역량강화	D1-9	.519**	.377**	.282**	.367**	.366**	.151	.345**	1			
사회적역량 네트워크수	D2-2	.034	.083	-.029	.029	.035	.016	-.055	-.127	1		
지식정보교류공유	D2-3.3	.143	.357**	.324**	.219*	.205	.124	-.024	.028	.188	1	
구성원간접촉정도	D2-3.4	-.021	.049	.055	.179	.089	.051	.129	-.170	.110	.242*	1

* $p < .05$

** $p < .01$

〈표 III-88〉 기관평가 문항 상관관계

기관평가	문화예술교육 목적 인식	• 기관평가 타 3항목(B12-3, B12-1, B5)과, 인적역량 4항목(D1-8, D1-5, D1-4, D1-9)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식	• 인적역량 4항목(D1-8, D1-5, D1-4, D1-9)과 사회적역량 3문항 중 지식정보 교류 및 공유(D2-3.3)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프로그램 운영상태 자평가	• 인적역량 4항목(D1-8, D1-5, D1-4, D1-9)과 3문항 중 지식정보 교류 및 공유(D2-3.3)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프로그램의 기관 고유 목적, 기능과의 부합정도 평가	• 인적역량 4항목(D1-8, D1-5, D1-4, D1-9)과 3문항 중 지식정보 교류 및 공유(D2-3.3)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인적역량	기관의 역량강화 의지 정도	• 인적역량 타 3항목(D1-5, D1-4, D1-9)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관계자의 지식, 기술 개발능력 정도	• 인적역량 4항목 중 전문인력(강사) 평가(D1-4)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사회적역량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 사회적역량 3항목 중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D2-3.3)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 기관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의 정도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인식정도」와 관계성을 가지며, 또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상태에 대한 자평가」, 「프로그램이 해당기관의 목적, 기능에의 부합 정도 평가」와도 상관관계가 있음.
- 「교육목적 인식」은 「교육사업 인식」, 「프로그램운영 상태 평가」, 「프로그램 부합 정도 평가」, 「인적 역량강화 의지」, 「지식기술개발 노력」,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상관관계가 있음.
- 「교육사업 인식」은 「프로그램운영 상태 평가」, 「프로그램 부합 정도 평가」, 「인적 역량강화 의지」, 「지식기술개발노력」,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식정보교류 공유」와 상관관계가 있음.
- 「프로그램운영 상태 평가」는 「프로그램 부합 정도 평가」, 「인적 역량강화 의지」,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식정보교류 공유」와 상관관계가 있음.
- 「프로그램 부합 정도 평가」은 「지식기술개발 노력」, 「인적 역량강화 의지」,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식정보교류 공유」와 상관관계가 있음.
- 「인적 역량강화 의지」는 「지식기술개발 노력」,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상관관계가 있음.
- 「인적 역량강화 의지」는 「지식기술개발 노력」, 「전문인력 평가」, 「전문인력 역량 강

화」와 상관관계가 있음.

- 「지식기술개발 노력」은 「전문인력 평가」와 상관관계가 있음.
- 「전문인력 평가」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상관관계가 있음.
- 「지식정보교류 공유」는 「구성원과 접촉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
- 이는 기관 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인적역량 강화의지」를 높이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을 높이게 되며, 「구성원과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지식정보 교류 및 공유가 많아짐을 의미함.

2.2. 문화예술(교육) 인력 통계 분석

2.2.1. 기초통계

□ 참여시설 수

- 참여시설 수 평균은 1.4, 최소 1, 최대 9임.

〈표 III-89〉 참여시설 평균 수(단위: 개)

	N	Min.	Max.	평균
문예회관	20	1	3	1.3
문화의집	12	1	2	1.2
문화원	18	1	2	1.1
도서관	32	1	4	1.3
박물관	36	1	2	1.1
미술관	19	1	6	1.3
학교	114	1	9	2.3
복지시설	60	1	6	1.8
평생교육시설	25	1	9	1.9
생활문화센터	34	1	5	1.2
기타	67	1	5	1.4
계	437			1.4

□ 주요 참여시설 1, 2, 3순위별 분포

- 참여시설의 1순위의 분포를 보면, ‘학교’가 3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박물관’ 14.1%임.

〈표 III-90〉 주요 참여시설 1,2,3 순위 분포

	참여시설 1		참여시설 2		참여시설 3	
	N	%	N	%	N	%
문예회관	24	10.0	13	8.8	7	6.5
문화의집	5	2.1	2	1.4	3	2.8
문화원	13	5.4	8	5.4	3	2.8
도서관	14	5.8	4	2.7	2	1.9
박물관	34	14.1	1	.7	0	0
미술관	14	5.8	55	37.4	0	0
학교	77	32.0	30	20.4	35	32.7
복지시설	29	12.0	1	0.7	16	15.0
평생교육시설	4	1.7	4	2.7	4	3.7
생활문화센터	7	2.9	28	19.0	9	8.4
문예회관	0	0	0	0	2	1.9
기타	20	8.3	1	0.7	26	24.3
계	241	100	147	100	107	100
결측	12		106		146	
합계	253		253		253	

□ 주요 참여시설의 운영 주체

- 주요 참여시설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기관)’가 51.2개(n=2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자체, 위탁운영시설, 사립, 기타 순임.

〈표 III-91〉 주요 참여시설(1,2,3)의 운영 주체(단위: 개소)

	N	Min.	Max.	평균
중앙정부(기관)	256	28	78	51.20
지자체	68	6	19	13.60
위탁운영시설	47	3	14	9.40
사립(개인, 기업)	6	1	4	2.00
기타	6	2	4	3.00
계	383			

□ 주요 참여시설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수

- 주요 참여시설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수 평균은 2.8개이며, 최소 1, 최다 16임.

〈표 III-92〉 주요 시설(1,2,3)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수(단위: 개)

	N	Min.	Max.	평균
프로그램 수	250	1	16	2.8

□ 문화예술교육 종사방식

- 종사방식은 ‘시간제 강사’가 60.2%로 가장 많고, ‘정규직’은 7.2%임.

〈표 III-93〉 문화예술교육 종사방식

		정규직강사	시간제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종사	자원봉사	기타	계	결측	합계
종사방식	N	18	150	72	2	7	249	4	253
	%	7.2	60.2	28.9	0.8	2.8	100		

□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 교육 경력기간은 '11년 이상'이 30.5%로 가장 많고, '1~3년'이 20.5%로 나타남.

〈표 III-94〉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계	결측	합계
경력기간	N	12	21	51	40	49	76	249	4	253
	%	4.8	8.4	20.5	16.1	19.7	30.5	100		

□ 해당시설에서의 활동기간

- 해당시설에서 활동기간은 '1~3년' 2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5년' 18.5%, '6~10년' 17.7%, '6~12개월' 16.9% 순으로 나타남.

〈표 III-95〉 해당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기간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계	결측	합계
경력기간	N	21	42	55	46	44	41	249	4	253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문화예술교육 종사 동기

- 문화예술교육 종사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는 '자신의 전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자신의 문화예술 능력 발전을 위해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는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1,2,3 순위의 응답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전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가 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96〉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제 1, 2, 3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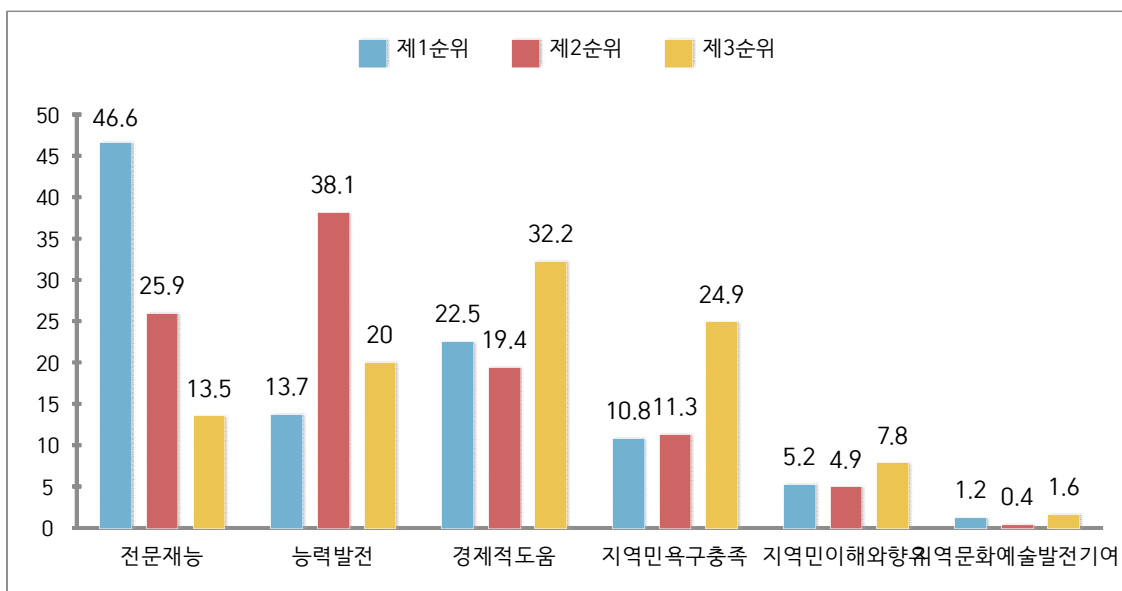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N	%	N	%	N	%
자신의 전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116	46.6	64	25.9	33	13.5
자신의 문화예술 능력 발전을 위해서	34	13.7	94	38.1	49	20.0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56	22.5	48	19.4	79	32.2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27	10.8	28	11.3	61	24.9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이해와 향유를 위해서	13	5.2	12	4.9	19	7.8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3	1.2	1	0.4	4	1.6
지인의 소개 및 추천	0	0	0	0	0	0
계	249	100	247	100	245	0
결측	4		6		8	0
합계	253		253		253	0

〈표 III-97〉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기타) 주관식

내용	응답자수(N)
강사부족	1
노인예술치료에 대해	1
문화예술교육을 좋아해서	1
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
우연한 기회에 권유 받게 되서	1
적성에 맞고 경제적 수입 균형	1
직장의 연결로	1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성 및 창의력	1
계	8

〈그림 III-9〉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제 1, 2, 3 순위)



□ 현 시설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제1 순위)

- 활동기간별 프로그램(수업)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순위로는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내용과의 적합성’이 43.0%로 가장 높고, ‘수강생의 특성(연령대, 학생, 노인 등)’ 29.7% 임.

〈표 III-98〉 현 시설 활동기간별 프로그램(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제 1순위)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전체 %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내용과의 적합성	N	4	16	25	21	14	27	107
	%	3.7	15.0	23.4	19.6	13.1	25.2	100
	%	19.0	38.1	45.5	45.7	31.8	65.9	43.0
수강생의 문화예술 이해 수준	N	2	8	7	7	4	4	32
	%	6.3	25.0	21.9	21.9	12.5	12.5	100
	%	9.5	19.0	12.7	15.2	9.1	9.8	12.9
수강생의 특성(연령대, 학생, 노인층 등)	N	12	13	18	12	14	5	74
	%	16.2	17.6	24.3	16.2	18.9	6.8	100
	%	57.1	31.0	32.7	26.1	31.8	12.2	29.7
지역주민에 필요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	N	2	5	2	5	6	5	25
	%	8.0	20.0	8.0	20.0	24.0	20.0	100
	%	9.5	11.9	3.6	10.9	13.6	12.2	10.0
해당지역의 문화예술적 특성	N	1	0	0	1	3	0	5
	%	20.0	0	0	20.0	60.0	0	100
	%	4.8	0	0	2.2	6.8	0	2.0
기관의 교육환경(공간, 교육설비, 기자재 등)	N	0	0	1	0	0	0	1
	%	0	0	100	0	0	0	100
	%	0	0	1.8	0	0	0	0.4
인적, 물적 조건(강사로, 강사대우)	N	0	0	2	0	3	0	5
	%	0	0	40.0	0	60.0	0	100
	%	0	0	3.6	0	6.8	0	2.0
계	N	21	42	55	46	44	41	249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현 시설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1)_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목적인식(1)의 ‘매우 중요하다’에는 활동기간 1~3년이 21.9%로 가장 많음.

〈표 III-99〉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전체
목 적 인 식 (1)	매우 중요하다	N	13	32	37	24	32	31	169
		%	7.7	18.9	21.9	14.2	18.9	18.3	100
		%	61.9	76.2	67.3	52.2	72.7	75.6	67.9
	어느 정도 중요하다	N	7	8	14	21	10	9	69
		%	10.1	11.6	20.3	30.4	14.5	13.0	100
		%	33.3	19.0	25.5	45.7	22.7	22.0	27.7
	보통이다	N	1	2	4	1	2	1	11
		%	9.1	18.2	36.4	9.1	18.2	9.1	100
		%	4.8	4.8	7.3	2.2	4.5	2.4	4.4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계 결측(n=4)		N	21	42	55	46	44	41	249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현 시설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2)_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 목적인식(2)의 ‘매우 중요하다’에는 활동기간 1~3년이 21.5%로 가장 많음.

〈표 III-100〉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전체
목 적 인 식 (2)	매우 중요하다	N	11	23	26	19	18	24	121
		%	9.1	19.0	21.5	15.7	14.9	19.8	100
		%	52.4	54.8	47.3	41.3	40.9	58.5	48.6
	어느 정도 중요하다	N	4	15	25	19	20	14	97
		%	4.1	15.5	25.8	19.6	20.6	14.4	100
		%	19.0	35.7	45.5	41.3	45.5	34.1	39.0
	보통이다	N	6	4	3	7	6	3	29
		%	20.7	13.8	10.3	24.1	20.7	10.3	100
		%	28.6	9.5	5.5	15.2	13.6	7.3	11.6
	중요하지 않다	N	0	0	1	1	0	0	2
		%	0	0	50.0	50.0	0	0	100
		%	0	0	1.8	2.2	0	0	0.8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계 결측(n=4)		N	21	42	55	46	44	41	249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현 시설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3)_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 목적인식(3)의 ‘매우 중요하다’에는 활동기간 1~3년이 21.3%로 가장 많음.

〈표 III-101〉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전체
목 적 인 식 (3)	매우 중요하다	N	10	25	30	23	25	28	141
		%	7.1	17.7	21.3	16.3	17.7	19.9	100
		%	47.6	59.5	54.5	50.0	56.8	68.3	56.6
	어느 정도 중요하다	N	9	15	21	21	17	11	94
		%	9.6	16.0	22.3	22.3	18.1	11.7	100
		%	42.9	35.7	38.2	45.7	38.6	26.8	37.8
	보통이다	N	2	2	4	2	2	2	14
		%	14.3	14.3	28.6	14.3	14.3	14.3	100
		%	9.5	4.8	7.3	4.3	4.5	4.9	5.6
	중요하지 않다	N	0	0	1	1	0	0	2
		%	0	0	50.0	50.0	0	0	100
		%	0	0	1.8	2.2	0	0	0.8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계 결측(n=4)		N	21	42	55	46	44	41	249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현 시설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4)_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 목적인식(4)의 ‘매우 중요하다’에는 활동기간 1~3년이 23.3%로 가장 많음.

〈표 III-102〉 활동기간별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4)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6개월미만	6~12개월	1~3년	4~5년	6~10년	11년이상	전체	
목 적 인 식 (4)	매우 중요하다	N	8	30	35	23	28	26	150	
		%	5.3	20.0	23.3	15.3	18.7	17.3	100	
		%	40.0	71.4	63.6	50.0	63.6	65.0	60.7	
	어느 정도 중요하다	N	11	11	19	20	10	12	83	
		%	13.3	13.3	22.9	24.1	12.0	14.5	100	
		%	55.0	26.2	34.5	43.5	22.7	30.0	33.6	
	보통이다	N	1	1	1	3	6	2	14	
		%	7.1	7.1	7.1	21.4	42.9	14.3	100	
		%	5.0	2.4	1.8	6.5	13.6	5.0	5.7	
	중요하지 않다	N	0	0	1	1	0	0	2	
		%	0	0	50.0	50.0	0	0	100	
		%	0	0	1.8	2.2	0	0	0.8	
	전혀 중요하지 않다	N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계 결측(n=4)			N	20	42	55	46	44	40	247
			%	8.1	17.0	22.3	18.6	17.8	16.2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인의 전문영역(장르) 1~6순위 (복수응답)

- 본인의 전문 장르 1순위로는 무용(n=70), 미술(n=60)의 순서로 나타남.

〈표 III-103〉 본인의 전문영역(장르)(1~6 순위)

		장르1	장르2	장르3	장르4	장르5	장르6
국악	N	24	-	-	-	-	-
	%	100	-	-	-	-	-
무용(춤, 요가 등)	N	70	6	-	-	-	-
	%	92.1	7.9	-	-	-	-
연극	N	30	3	2	-	-	-
	%	85.6	8.6	5.7	-	-	-
영화	N	5	2	-	1	-	-
	%	62.5	25.0	-	12.5	-	-
만화애니메이션	N	4	4	-	-	-	-
	%	50.0	50.0	-	-	-	-
미술(서예포함)	N	60	6	4	-	1	12
	%	72.3	7.2	4.8	-	1.2	14.4
음악	N	11	5	1	-	-	1
	%	6.1	2.8	5.5	-	-	5.5
디자인	N	4	9	1	2	-	-
	%	25.0	56.2	6.2	12.5	-	-
사진	N	3	2	4	-	1	-
	%	30.0	20.0	40.0	-	10.0	-
공예(생활, 전통)	N	17	12	7	1	1	1
	%	43.5	30.7	17.9	2.5	2.5	2.5
문학(시, 시조 등)	N	3	2	1	-	-	-
	%	50.0	33.3	16.7	-	-	-
기타	N	22	8	5	-	-	-
	%	62.8	22.9	14.3	-	-	-
계	N	253	59	25	4	3	14
	%	100	56.2	23.8	3.8	2.8	13.3
결측	N	0	194	228	249	250	239
합계	N	253	253	253	253	253	253

□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범위: 0.00~10.00)

- 해당 분야에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및 능력 수준 평가 평균은 8.30, 최소 4, 최대 10임.

〈표 III-104〉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전체)

	N	Min.	Max.	평균
전체 지식, 경험, 능력 자평가	247	4	10	8.30
결측	6			
합계	253			

- 종사방식과 지식, 경험 및 능력수준 자평가에서는 ‘시간제 강사’가 8.7, ‘정규직 강사’ 8.2 임.

〈표 III-105〉 종사방식 - 지식, 경험 및 능력 수준 자평가

	평균	N
정규직 강사	8.2	18
시간제 강사	8.7	145
지원사업을 통한 조성	7.9	71
자원봉사	4.0	2
기타	8.0	7
계	8.3	243

- 활동기간별 자평가에서는 ‘6~10년 미만’이 10점 만점 평가에서 9.2, ‘11년 이상’ 9.1로 나 타남.

〈표 III-106〉 활동기간별 자평가-주요 참여시설(1,2,3)의 운영 주체(단위: 개소)

	평균	N
6개월 미만	6.7	21
6개월~1년 미만	8.1	41
1~3년 미만	8.1	54
3~5년 미만	8.3	44
6~10년 미만	9.2	44
11년 이상	9.1	39
계	8.3	243

- 주요 전문장르별 자평가에서는 ‘디자인’이 9.8로 가장 높고, ‘영화’ 9.2, ‘국악’이 8.8, ‘음악’, ‘문 학’, 8.7, ‘연극’ 8.6, ‘만화애니메이션’ 8.5, ‘무용’ 8.4이며, ‘공예’ 7.8, ‘미술’은 7.7. 상대적 으로 낮음.

〈표 III-107〉 주요 전문장르별 자평가-주요 참여시설(1,2,3)의 운영 주체(단위: 개소)

	평균	N
국악	8.8	24
무용(춤, 요가 등)	8.4	70
연극	8.6	30
영화	9.2	5
만화애니메이션	8.5	4
미술(서예포함)	7.7	57
음악	8.7	10
디자인	9.8	4
공예(생활, 전통공예)	7.8	17
문학(시, 시조 포함)	8.7	3
기타	8.0	20
계	8.3	247

□ 주요 학습대상층 분포

- 학습대상의 생애주기별 분포에서는 ‘청소년층’이 60.8%로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유아’가 17.8%로 적은 편임.

〈표 III-108〉 주요 학습대상층 분포(중복응답)

	생애주기별							대상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다문화	가족단위	기타
N	45	150	154	70	75	96	81	38	42	35
%	17.8	59.2	60.8	27.7	29.6	37.9	32.0	15.0	16.6	13.8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1, 2, 3 순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에서는 ‘예산지원’이 30.9%,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25.7%임.

〈표 III-10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 2, 3 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N	%	N	%	N	%
전문인력 지원	64	25.7	34	13.7	32	13.0
예산지원	77	30.9	50	20.1	38	15.4
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33	13.3	49	19.7	37	15.0
홍보 및 정보 확산 강화	11	4.4	16	6.4	17	6.9
지역분권화/지역민과의 연계	5	2.0	12	4.8	14	5.7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20	8.0	46	18.5	44	17.9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보	11	4.4	24	9.6	29	11.8
그외	28	11.2	18	7.2	35	14.2
소계	249	100	249	100	246	100
결측	4		4		7	
합계	253		253		253	

□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1순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 1순위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강사’는 67.9%, ‘지원사업을 통한 조성 강사’는 22.4%로 응답함.

〈표 III-110〉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순위)

		정규직 강사	시간제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한 조성	자원 봉사	기타	계
전문인력 지원	N	6	29	27	0	2	64
	%	9.4	45.3	42.2	0	3.1	100
	%	33.3	19.7	38.0	0	28.6	26.1
예산지원	N	3	53	17	2	1	76
	%	3.9	69.7	22.4	2.6	1.3	100
	%	16.7	36.1	23.9	100	14.3	31.0
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N	4	20	9	0	0	33
	%	12.1	60.6	27.3	0	0	100
	%	22.2	13.6	12.7	0	0	13.5
홍보 및 정보 확산 강화	N	0	6	5	0	0	11
	%	0	54.5	45.5	0	0	100
	%	0	4.1	7.0	0	0	4.5
지역분권화/지역민과의 연계	N	0	3	2	0	0	5
	%	0	60.0	40.0	0	0	100
	%	0	2.0	2.8	0	0	2.0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N	1	11	6	0	0	18
	%	5.6	61.1	33.3	0	0	100
	%	5.6	7.5	8.5	0	0	7.3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보	N	1	6	3	0	1	11
	%	9.1	54.5	27.3	0	9.1	100
	%	5.6	4.1	4.2	0	14.3	4.5
그 외	N	3	19	2	0	3	27
	%	11.1	70.4	7.4	0	11.1	100
	%	16.7	12.9	2.8	0	42.9	11.0
계	N	18	147	71	2	7	245
	%	7.3	60.0	29.0	0.8	2.9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 인적역량 자가진단(9문항)

- 장르 전문성에 대한 자평가에서는 ‘예술강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의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90% 이상 높게 나타남.

〈표 III-111〉 장르 전문분야에 대한 자가진단(9문항)

		매우그렇다	어느정도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계
1.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	N	134	107	10	0	0	251
	%	53.4	42.6	4.0	0	0	100
2.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N	125	106	20	0	0	251
	%	49.8	42.2	8.0	0	0	100
3.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N	85	115	44	7		251
	%	33.9	45.8	17.5	2.8		100
4.전문분야에 대한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	N	121	99	22	8	1	251
	%	48.2	39.4	8.8	3.2	0.4	100
5.전문분야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다	N	95	95	53	5	2	251
	%	38.2	37.8	21.1	2.0	0.8	100
6.전문분야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N	109	78	49	12	3	251
	%	43.4	31.1	19.5	4.8	1.2	100
7.전문분야 작품을 전시를 하거나, 공모전 등에 입상한 적이 있다	N	105	55	40	28	23	251
	%	41.8	21.9	15.9	11.2	9.2	100
8.전문분야의 공연이나 전시회를 자주 견해보고 다른 표현방법을 개발한다	N	104	96	38	9	4	251
	%	41.4	38.2	15.1	3.6	1.6	100
9.다양한 예술 활동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N	114	83	42	10	2	251
	%	45.4	32.8	16.6	4.0	.8	100

□ 인적역량 직무역량 자가진단(16문항)

- 직무역량 자가진단 16문항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자들의 올바른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예술을 즐겁게 접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술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의 5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90%이상으로 나타남.

〈표 III-11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직무역량 자평가(16문항)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계
문화예술교육 교육이론을 이해하고 있다	N	79	130	40	1	0	250
	%	31.6	52.0	16.0	0.4	0	100
교수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다	N	73	142	32	3	0	250
	%	29.2	56.8	12.8	1.2	0	100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N	118	107	25	0	0	250
	%	47.2	42.8	10.0	0	0	100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	N	102	123	23	2	0	250
	%	40.8	49.2	9.2	.8	0	100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 자들의 올바른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N	149	85	16	0	0	250
	%	59.6	34.0	6.4	0	0	100
학습자들이 예술을 즐겁게 접하고 성취감을 맛보 게 하는 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N	161	74	15	0	0	250
	%	64.4	29.6	6.0	0	0	100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창의적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N	126	95	27	1	0	250
	%	50.6	38.2	10.8	0.4	0	100
다양한 교수방법(강의, 실기, 체험 등)을 활용하 고 있다	N	126	95	29	0	0	250
	%	50.4	38.0	11.6	0	0	100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보조 교재를 적절히 사 용한다	N	109	109	31	1	0	250
	%	43.6	43.6	12.4	0.4	0	100
다양한 평가방법(사전평가, 교육 중 평가, 교육 후 평가 및 지필평가, 실기평가, 연구평가 등)을 골고루 활용한다	N	60	113	70	7	0	250
	%	24.0	45.2	28.0	2.8	0	100
수업 전 계획서와 수업 진행 후 수업일지, 결과 물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후 자료화 한다	N	87	98	59	6	0	250
	%	34.8	39.2	23.6	2.4	0	100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N	97	111	34	7	0	250
	%	39.0	44.6	13.7	3.8	0	100
문화적 다양성(다문화, 연령대 등)을 잘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	92	92	52	12	2	250
	%	36.8	36.8	20.8	4.8	0.8	100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일하 는 보람을 느낀다	N	147	78	20	1	4	250
	%	58.8	31.2	8.0	0.4	1.6	100
학습자 차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N	101	112	35	2	0	250
	%	40.4	44.8	14.0	0.8	0	100
타 예술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인력들과 적극적 인 정보 교류와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타 예 술장르와의 통합수업을 꾀한다	N	67	95	67	18	3	250
	%	26.8	38.0	26.8	7.2	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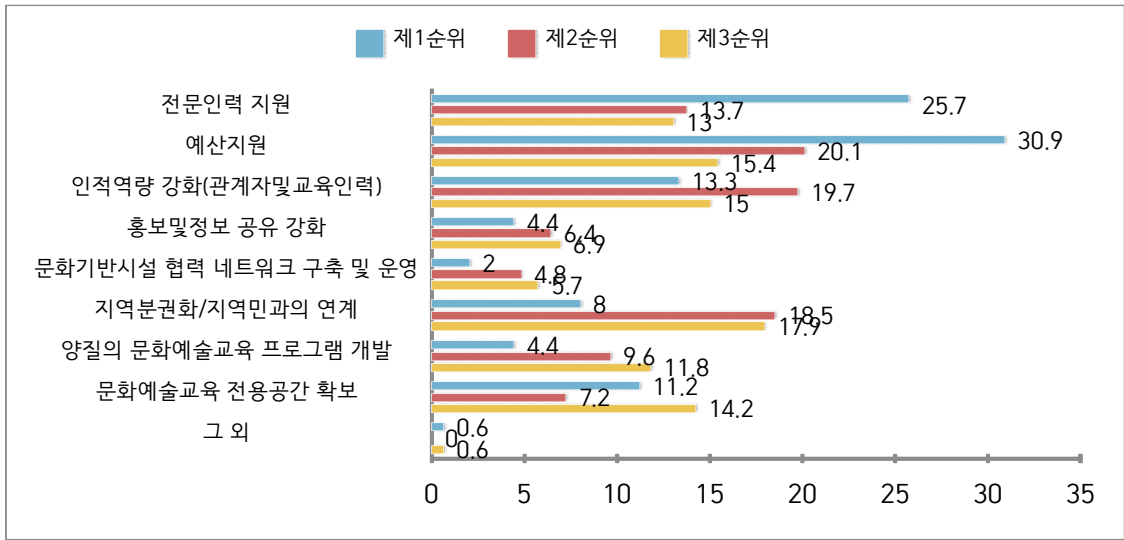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할 때 한계 및 문제점(제1, 2, 3 순위)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한계 및 문제점(1순위)에서는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21.9%로 가장 많고, 2,3순위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이 20.7%, 21.6%로 나타났다.
- 그러나 1,2,3순위의 응답을 합하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이 5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이 51.9%,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44%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할 때 한계 및 문제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 그리고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표 III-11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시 한계 및 문제점(제 1, 2, 3 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N	%	N	%	N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	49	19.8	39	15.9	39	16.2
교육프로그램 참여자(학습자) 저조	30	12.1	24	9.8	28	11.6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	54	21.9	32	13.0	22	9.1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30	12.1	45	18.3	38	15.8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	34	13.8	51	20.7	52	21.6
처우 부족(강의로 등)	37	15.0	41	16.7	38	15.8
별다른 어려움 없음	11	4.4	7	2.8	17	7.1
기타(직접기재)	2	.1	7	2.8	7	2.9
합계	247	100	246	100	241	100
결측	6		7		12	
합계	253		253		253	

〈그림 III-10〉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시 한계 및 문제점(제 1, 2, 3 순위)



□ 사회적 역량 자가진단(9문항)

- 사회적 역량 자가진단에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긍정적 반응을 자주 듣는다’, ‘내가 전한 내용에 대한 상대방 반응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상대방 특성과 눈높이에 단어 및 대화를 구사한다’의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90%이상 나타남.

〈표 III-114〉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가진단(9문항)

		매우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 다	계
학습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부담 없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여 편안하게 접근한다	N	102	116	29	0	0	247
	%	41.3	47.0	11.7	0	0	100
학습대상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의사소통, 코칭, 파트너십 등)을 하고 있다	N	107	113	25	2	0	247
	%	43.3	45.7	10.1	0.8	0	100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창작이나 연주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호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N	95	103	45	4	0	247
	%	38.5	41.7	18.2	1.6	0	100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듣는 편이다	N	124	101	21	1	0	247
	%	50.2	40.9	8.5	0.4	0	100
내가 전달한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N	128	103	16	0	0	247
	%	51.8	41.7	6.5	0	0	100
상대방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단어 및 대화 기술을 구사한다	N	116	110	21	0	0	247
	%	47.0	44.5	8.5	0	0	100
관계 기관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N	49	125	66	7	0	247
	%	19.8	50.6	26.7	2.8	0	100

해당 지역 전통문화, 역사적 배경과 기능을 습득하여 그 지역 학습자와 함께 공동체적 작업을 하고 있다	N	45	99	78	24	1	247
	%	18.2	40.1	31.6	9.7	0.4	100
관계기관 내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N	66	97	68	16	0	251
	%	26.7	39.3	27.5	6.5	0	100

□ 외부 네트워크 유무, 수(평균)

- 외부 네트워크는 72.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네트워크 수는 2.35개 임.

〈표 III-115〉 네트워크 유무(기관, 단체, 모임)

	N	%
있음	178	72.7
없음	67	27.3
계	245	100
결측	8	
합계	253	

〈표 III-116〉 네트워크 수(평균)

	N	Min.	Max.	평균
네트워크 수 평균	176	1	16	2.35
결측	69			

- 외부 네트워크의 종류의 1순위에서는 '관련 전공강사 모임' 이 5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련 문화예술단체' 21.2%임.

〈표 III-117〉 문화예술교육 관련 네트워크(기관, 단체)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N	%	N	%	N	%	N	%
관련전공 강사모임	96	58.2	-	-	-	-	-	-
전공 문화예술학회	21	12.7	21	23.9	-	-	-	-
관련 문화예술단체	35	21.2	36	40.9	15	45.5	-	-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10	6.1	18	20.5	9	27.3	5	50.0
정부·지자체 관련기관	3	1.8	13	14.8	9	27.3	5	50.0
계	165	100	88	100	33	100	10	100
결측	88		165		220		243	
합계	253		253		253		253	

□ 문화예술교육 관련 모임 빈도

- 관련 모임을 갖는 빈도에서는 ‘정기적(매월, 분기별)’이 55.1%, ‘비정기적’ 23.0%, ‘안전 혹은 관련사항이 있을 때만’이 17.4%임.

〈표 III-118〉 관련 모임

	관련 모임	
	N	%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으로 하고 있다	98	55.1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41	23.0
안전 혹은 관련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을 한다	31	17.4
거의 하고 있지 않다	8	4.5
계	178	100
결측	75	
합계	253	

〈표 III-119〉 관련모임 참석정도

	참석정도	
	N	%
정기적으로 꼭 참석한다	88	49.4
간혹 불참한다	59	82.6
한두 번(분기, 1년) 참석한다	26	97.2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5	100
계	5	100
결측	178	
합계	75	

□ 문화예술교육 관련 네트워크와 교류 형태(1, 2, 3 순위)

- 교류형태 1순위는 ‘구성원 간의 정보, 지식, 교환 및 공유’가 87.6%임.

〈표 III-120〉 문화예술교육 관련 네트워크 교류 형태(1,2,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구성원간의 정보, 지식 교환 및 공유	156	87.6	55	40.7		
공동 프로그램 개발	10	5.6	12	8.9		
공동연구 수행	1	0.6	19	14.1	22	23.9
공동 작품 창작	4	2.2	12	8.9	13	14.1
자원봉사 활동	3	1.7	34	25.2	7	7.6
구성원들 간 유대관계 강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	2	1.1	1	0.7	26	28.3
소규모 사적 친목 활동	0	0	0	0	24	26.1
기타	2	1.1	2	1.5	0	0
계	178	100	135	100	92	100
결측	75		118		161	
합계	253		253		253	

□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 정도

-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67.4%이며, 네트워크 이외 친목 교류의 정도로는 ‘가끔 만나 교류하고 있다’가 64.8%임.

〈표 III-121〉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 정도

	N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43	24.2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120	67.4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5	8.4
전혀 공유, 교류가 없다	0	0
계	178	100
결측	75	
합계	253	

〈표 III-122〉 관련 이외 친목 교류 정도

	N	%
자주 만나 교류하고 있다	49	27.8
가끔 만나 교류하고 있다	114	64.8
문화예술 이외에는 전혀 공유, 교류가 없다	13	7.4
계	176	100
결측	77	
합계	253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기관명

-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연수)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한 적 있음’ 66.8%이며, 참여 기관으로는 ‘참여 중인 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이 50.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30.9%임. 참여 횟수로는 ‘1~2회’가 67.3%임.

〈표 III-123〉 교육프로그램, 연수 참여

	참여 여부	
	N	%
있음	165	66.8
없음	82	33.2
계	247	100
결측	6	
합계	253	

〈표 III-124〉 교육 프로그램, 연수 참여기관명

	참여 중인 문화기반시설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그외	계	결측	합계
N	84	51	30	165	88	253
%	50.9	30.9	18.2	100		

〈표 III-125〉 참여횟수

	N	%
1~2회	109	67.3
3~5회	36	22.2
5회~10회	11	6.8
10회이상	6	3.7
계	162	100
결측	91	
합계	253	

□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연수)의 필요성(범위: 0.00~10.00)

-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8.2점, 최소 3점, 최대 10점임.

〈표 III-126〉 네트워크 수(평균)

	N	평균	Min.	Max.
교육프로그램(연수) 필요성	166	8.2	3	10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의 1순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연수’가 47.9%, ‘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이 15.0%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연수’가 20.4%, ‘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이 18.6%로 나타남. 3순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이 27.3%,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지원이 20.6%로 나타남.
- 1,2,3순위의 응답을 합하면 ‘문화예술(교육)연수’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이 60.9%로 나타남.

〈표 III-12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1,2,3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문화예술(교육)연수	80	47.9	34	20.4	14	8.5
수업 컨설팅	19	11.4	21	12.6	20	12.1
연구모임지원	16	9.6	28	16.8	21	12.7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지원	7	4.2	22	13.2	34	20.6
타 강사 수업 참관	15	9.0	14	8.4	11	6.7
멘토링 지원	4	2.4	17	10.2	17	10.3
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25	15.0	31	18.6	45	27.3

지원						
기타	1	0.6	0	0	3	1.8
계	167	100	167	100	165	100
결측	86		86		88	
합계	253		253		253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연수방법

- 적절한 교육(연수) 방법에 대해서는, ‘집체연수’ 57.7%, ‘출퇴근’ 25.2% 순으로 응답함.

〈표 III-128〉 연수방법

	N	%
집체연수	94	57.7
출퇴근	41	25.2
온라인	24	14.7
기타	4	2.5
계	163	100
결측	90	
합계	253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9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함’의 긍정적인 응답이 90%로 넘게 나온 문항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 임.

〈표 III-129〉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9문항)

		매우필요함	어느정도 필요함	그다지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프로그램 기획	N	88	71	8	0
	%	52.7	42.5	4.8	0
프로그램 개발	N	100	59	8	0
	%	59.9	35.3	4.8	0
예술전문분야 심화	N	86	63	18	0
	%	51.5	37.7	10.8	0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N	93	67	7	0
	%	55.7	40.1	4.2	0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N	94	60	13	0
	%	56.3	35.9	7.8	0
문제해결 능력 (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N	89	65	13	0
	%	53.3	38.9	7.8	0

		매우필요함	어느정도 필요함	그다지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	N	65	93	9	0
	%	38.9	55.7	5.4	0
사회적 관계형성 능력	N	61	85	20	1
	%	36.5	50.9	12.0	0.6
프레젠테이션 능력	N	66	66	32	2
	%	39.8	39.8	19.3	1.2
강의 및 기타업무	N	44	71	44	3
	%	27.2	43.8	27.2	1.9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의 중요성(범위: 0.00~10.00)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의 중요성의 평균은 8.5점. 최소 3점, 최대 10점임.

〈표 III-130〉 인적역량 강화의 중요성

	N	Min.	Max.	평균
전문인력 역량강화 중요성 평균	167	3	10	8.5
유효수	167			

□ 교육프로그램, 연수 불참 이유(복수응답)

- 교육(연수) 불참 이유 1순위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62.8%, ‘프로그램(연수)의 유무를 몰라서’ 25.5%임.

〈표 III-131〉 교육 프로그램, 연수에 불참한 이유(1,2,3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프로그램이나 연수의 유무를 몰라서	61	25.5	-	-	-	-
시간이 맞지 않아서	150	62.8	37	31.9	-	-
거리가 멀어서	7	2.9	61	52.6	22	42.3
연수기간이 길어서	2	0.8	10	8.6	19	36.5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15	6.3	4	3.4	7	13.5
기타	4	1.7	4	3.4	4	7.7
계	239	100	167	100	165	100
결측	14		86		88	
합계	253		253		253	

□ 강의를 주로 하는 기관(시설) 및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 강의를 주로 하는 기관(시설)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11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70%로 이상 나온 문항은 ‘해당단체 또는 시설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해당 단체 또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까’로 11개 문항 중 3개의 문항임.

〈표 III-132〉 문화예술교육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11문항)

		매우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계
해당 단체 또는 시설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N	78	117	44	6	2	247
	%	31.6	47.4	17.8	2.4	0.8	100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N	67	111	49	15	4	246
	%	27.2	45.1	19.9	6.1	1.6	100
해당 단체 또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까	N	76	110	44	11	4	245
	%	31.0	44.9	18.0	4.5	1.6	100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서 관계자,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까	N	34	68	75	61	9	247
	%	13.8	27.5	30.4	24.7	3.6	100
강의 이외에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관련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N	28	67	75	59	18	247
	%	11.3	27.1	30.4	23.9	7.3	100
그 문화예술교육활동의 대상들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으로 다양합니까	N	54	71	62	46	14	247
	%	21.9	28.7	25.1	18.6	5.7	100
타 지역의 다른 공동체(예술단체, 주민단체 등)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N	26	54	69	70	28	247
	%	10.5	21.9	27.9	28.3	11.3	100
지역 일반주민들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식, 정보를 소통, 공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N	23	52	82	68	22	247
	%	9.3	21.1	33.2	27.5	8.9	100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N	41	99	76	24	6	246
	%	16.7	40.2	30.9	9.8	2.4	100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보존, 개발을 위해 다른 공동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까	N	31	69	90	41	16	247
	%	12.6	27.9	36.4	16.6	6.5	100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보존,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N	33	72	82	47	13	247
	%	13.4	29.1	33.2	19.0	5.3	100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내용(중복응답)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내용 1순위에서는, ‘전공분야 연구’ 57.1%로 가장 많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29.0%임.

〈표 III-133〉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내용 (1,2,3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전공분야의 연구	140	57.1	-	-	-	-
교육프로그램 개발	71	29.0	95	58.6	-	-
관련기관(학교, 연구소 포함)과 협업	16	6.5	26	16.0	28	33.3
공모사업 지원과 수행	9	3.7	33	20.4	38	45.2
지역문화예술 보존단체 활동	6	2.4	8	4.9	14	16.7
그 외	3	1.2	-	-	4	4.8
계	245	100	162	100	84	100
결측	8		91		169	
합계	253		253		253	

□ 성별, 연령, 연령대, 학력

-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여성이 80.6%로 남성보다 많으며, 연령대는 20, 30, 40, 50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학력은 대졸자가 40.5%로 가장 많으며, 대학원(석사)(재학포함)이 39.7%의 순으로 나타남. 93.2%가 대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34〉 성별		
	N	%
남성	48	19.4
여성	199	80.6
계	247	100
결측	6	
합계	253	

〈표 III-135〉 평균연령				
	N	Min.	Max.	평균
연령	243	22	70	40.9
유효수	243			

〈표 III-136〉 연령대		
	N	%
20대	54	22.2
30대	60	24.7
40대	60	24.7
50대	58	23.9
60대이상	11	4.5
계	243	100
결측	10	
합계	253	

〈표 III-137〉 학력		
	N	%
고졸이하	3	1.2
전문대졸	14	5.7
대졸(재학포함)	100	40.5
대학원(석사)(재학포함)	98	39.7
대학원(박사)(재학포함)	32	13.0
합계	247	100
결측	6	
합계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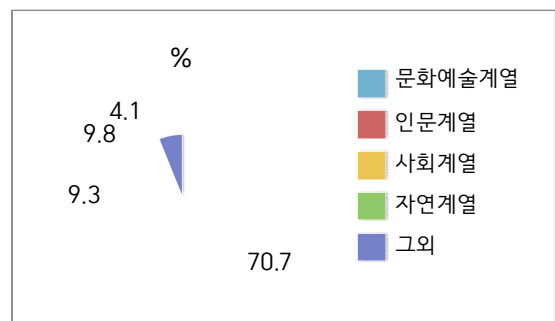
□ 전공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공은 ‘문화예술계열’이 70.7%로 이며, ‘인문, 사회, 자연계열 및 그 외의 전공’이 29.3%로 ‘문화예술계열의 전공’이 가장 많음.

〈표 III-138〉 전공

전공		
	N	%
문화예술계열	174	70.7
인문계열	23	9.3
사회계열	24	9.8
자연계열	10	4.1
그 외	15	6.1
계	246	100
결측	7	
합계	253	

〈그림 III-11〉 전공



□ 참여유형 수

-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형 1순위로는 ‘문화예술 교육사’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 2순위를 포함해서는 ‘학교예술강사’가 75.6%로 가장 높고, 1~3순위를 포함해서는 ‘예술가’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39〉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형(복수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문화예술교육사	112	46.1	1	.8	-	-
학교 예술강사	67	27.6	60	48.0	2	4.0
사회 예술강사	24	9.9	18	14.4	16	32.0
예술가	14	5.8	40	32.0	23	46.0
기타(직접기입)	26	10.7	6	4.8	9	18.0
계	243	100	125	100	50	100
결측	10		128		203	
합계	253		253		253	

□ 강의지역, 거주지역, 출신지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강의-거주-출신지역 일치/불일치’를 묻는 질문에서 ‘모두 같음(출신, 강의, 현거주지)’이 60.7%, ‘출신지, 강의지역(현거주지와 같음)다름’이 24.8%로 강의, 거주, 출신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표 III-140〉 강의-거주-출신지역 일치/불일치

	N	%
모두 같음(출신, 강의, 현 거주지)	147	60.7
현 거주, 강의 지역 다름	30	12.4
출신지, 강의 지역(현 거주지와 같음) 다름	60	24.8
현 거주지, 출신지, 강의 지역 다름	5	2.1
계	242	100
결측	11	
합계	253	

□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격증 보유 현황은 61.3%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의 종류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41〉 자격증 보유

	N	%
보유	147	61.3
없음	93	38.8
계	240	100
결측	13	
합계	253	

〈표 III-142〉 자격증 종류

	N	%
문화예술교육사	91	63.6
학예사	11	7.7
교사(유아,중등)	5	3.5
그외	36	25.2
계	143	100
결측	110	
합계	253	

2.2.2. 전문인력(강사) 상관관계 분석

2.2.2.1. 주요 변수 간 이원적 상관관계

□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 실시 중요기준

- 종사방식과 프로그램(수업) 시행 시, 중요한 기준과의 관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3〉 종사방식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기준(1순위)

		정규직 강사	시간제 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조성	자원봉사	기타	전체
자신의 전문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N	8	65	29	1	4	107
	%	7.5	60.7	27.1	.9	3.7	100
		44.4	43.3	40.3	50.0	57.1	43.0
자신의 문화예술능력 발전을 위해서	N	2	19	11	0	0	32
	%	6.3	59.4	34.4	0	0	100
		11.1	12.7	15.3	0	0	12.9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N	7	45	18	1	3	74
	%	9.5	60.8	24.3	1.4	4.1	100
		38.9	30.0	25.0	50.0	42.9	29.7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육구충족을 위해서	N	1	14	10	0	0	25
	%	4.0	56.0	40.0	0	0	100
		5.6	9.3	13.9	0	0	10.0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이해와 향유를 위해서	N	0	2	3	0	0	5
	%	0	40.0	60.0	0	0	100
		0	1.3	4.2	0	0	2.0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서	N	0	0	1	0	0	1
	%	0	0	100	0	0	100
		0	0	1.4	0	0	.4
합계	N	0	5	0	0	0	5
	%	0	100	0	0	0	100
		0	3.3	0	0	0	2.0

$$K^2 = 37.15 \quad p < .05$$

□ 종사방식 - 전문분야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 종사방식과 전문분야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4〉 종사방식 -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에 대한 자평가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67.968	4	16.992	8.460**
Within Groups	478.032	238	2.009	
Total	546.000	242		

** $p < .01$

□ 종사방식 - 인적 역량(9문항) 평균

- 종사방식과 인적 역량(9문항) 평균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5〉 종사방식 - 인적 역량 평균(범위: 0.00~4.00)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11.394	4	2.849	7.771**
Within Groups	88.710	242	.367	
Total	100.104	246		

** $p < .01$

□ 종사방식 - 직무역량(9문항) 평균

- 종사방식과 직무역량(9문항) 평균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6〉 종사방식 - 직무역량 평균(범위: 0.00~4.00)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4.858	4	1.214	5.619**
Within Groups	52.091	241	.216	
Total	56.949	245		

** $p < .01$

□ 현 시설 활동기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 활동기간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과의 관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7〉 활동기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 시행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1순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6~10년 미만	11년 이상	전체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내용과의 적합성	N	4	16	25	21	14	27	107
	%	3.7	15.0	23.4	19.6	13.1	25.2	100
	%	19.0	38.1	45.5	45.7	31.8	65.9	43.0
수강생의 문화예술 이해 수준	N	2	8	7	7	4	4	32
	%	6.3	25.0	21.9	21.9	12.5	12.5	100
	%	9.5	19.0	12.7	15.2	9.1	9.8	12.9
수강생의 특성(연령대, 학생, 노인층 등)	N	12	13	18	12	14	5	74
	%	16.2	17.6	24.3	16.2	18.9	6.8	100
	%	57.1	31.0	32.7	26.1	31.8	12.2	29.7
지역주민에 필요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	N	2	5	2	5	6	5	25
	%	8.0	20.0	8.0	20.0	24.0	20.0	100
	%	9.5	11.9	3.6	10.9	13.6	12.2	10.0
해당지역의 문화예술적 특성	N	1	0	0	1	3	0	5
	%	20.0	0	0	20.0	60.0	0	100
	%	4.8	0	0	2.2	6.8	0	2.0
기관교육환경(공간, 교육설비, 기자재 등)	N	0	0	1	0	0	0	1
	%	0	0	100	0	0	0	100
	%	0	0	1.8	0	0	0	0.4
인적, 물적 조건(강사료, 강사대우)	N	0	0	2	0	3	0	5
	%	0	0	40.0	0	60.0	0	100
	%	0	0	3.6	0	6.8	0	2.0
합계	N	21	42	55	46	44	41	249
	%	8.4	16.9	22.1	18.5	17.7	16.5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46.052 \quad p < .05$$

□ 현 시설 활동기간 -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에 대한 자평가

- 현 시설 활동기간과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에 대한 자평가와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8〉 활동기간 - 해당분야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111.441	5	22.288	12.155
Within Groups	434.559	237	1.834	
Total	546.000	242		

** $p < .01$

□ 현 시설 활동기간 - 인적 역량(9문항) 평균

- 현 시설 활동기간과 인적 역량(9문항) 평균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49〉 활동기간 - 인적 역량 평균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9.857	5	1.971	5.264**
Within Groups	90.248	241	.374	
Total	100.104	246		

** $p < .01$

□ 현 시설 활동기간 - 직무역량(16문항) 평균

- 현 시설 활동기간과 직무역량(16문항) 평균과의 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50〉 활동기간 - 직무역량 평균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4.203	5	.841	3.824**
Within Groups	52.747	240	.220	
Total	56.949	245		

** $p < .01$

□ 현 시설 활동기간 - 사회적 역량(9문항) 평균

- 현 시설 활동기간과 사회적 역량(9문항) 평균과의 관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III-151〉 활동기간 - 사회적 역량 평균

구분	Sum of Squares	df	평균 Squares	F
Between Groups	3.065	5	.613	2.468*
Within Groups	58.866	237	.248	
Total	61.932	242		

* $p < .05$

2.1.2.2. 상관관계 분석

- 이상의 기초통계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은 설정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함.

〈표 III-152〉 전문인력(강사) 상관분석 문항 구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공동체(Communality) 영역	E2-1~11	지역공동체성 관련 문항(11문항)	.897
	A1-7	문화예술교육 경력	-
	A1-8	현 시설(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기간	-
	E1-1,F	강의 지역, 현 거주지 일치도	-
인식·의지 영역	A1-9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	-
	A2	프로그램(수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
	B1	문화예술교육 목적 인식(4문항)	.803
인적역량 영역	B2-2	장르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
	C1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9문항)	.881
	C2	직무역량 자평가(16문항)	.915
	C4	사회적역량 자평가(9문항)	.854

□ 공동체 영역 상관관계

- 공동체 영역 상관관계는 $p < .05$,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지역공동체성'은 '문화예술교육 경력',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지역/거주지 일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지역공동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높고,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며, 강의지역/거주지 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경력은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길수록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153〉 공동체 영역 문항 상관관계

	측정	E2-1~11(평균)	A1-7	A1-8
지역공동체성	E2-1~11(평균)	1		
문화예술교육 경력	A1-7	.157*	1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A1-8	.176**	.722**	1
강의지역/거주지 일치	E1-1/F	.195**	.050	.020
		** $p < .01$	* $p < .05$	

□ 인지·인식 영역 상관관계

- 인지·인식 영역 상관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인지·인식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와 ‘프로그램(수업)시 중요기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가 프로그램(수업)시 중요기준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함.

〈표 III-154〉 인지·인식 영역 문항 상관관계

	측정	A1-9	B1	A1-8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	A1-9	1		
프로그램(수업)시 중요기준	A2	.198**	1	
문화예술교육 목적 인식	B1	-.062	-.015	1

** $p < .01$

□ 인적 역량 영역 상관관계

- 인적 역량 영역 상관관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분야 자평가에서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는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와 ‘직무역량 자평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지식, 경험, 능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전문분야 능력’과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분야 자평가에서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는 ‘직무역량 자평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전문분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직무역량’과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분야 자평가에서 ‘직무역량 자평가’는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직무역량’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표 III-155〉 전문분야 자평가 영역 문항 상관관계

	측정	B2-2	C1	C2	C4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B2-2	1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	C1	.525**	1		
직무역량 자평가	C2	.499**	.631**	1	
사회적역량 자평가	C4	.371**	.457**	.721**	1

** $p < .01$

□ 전문인력(강사) 상관관계(공동체영역-인지·인식영역-인적역량영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지역공동체성’은 ‘문화예술교육 경력’,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지역/거주지 일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 ‘직무역량 자평가’,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지역공동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높고,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며, 강의지역/거주지 일치도가 높고,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전문분야 능력’과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경력’은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문화예술종사동기’,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 ‘직무역량 자평가’,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높을수록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며,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전문분야 능력’과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은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 ‘직무역량 자평가’,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전문분야 능력’과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와 ‘프로그램(수업)시 중요기준’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문화예술교육 종사동기가 프로그램(수업)시 중요기준에 영향을 끼침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자평가’는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와 ‘직무역량 자평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지식, 경험, 능력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전문분야 능력’과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분야 능력 자평가’는 ‘직무역량 자평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전문분야 능력’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직무역량’ 그리고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직무역량 자평가’는 ‘사회적 역량 자평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이는 ‘직무역량’이 높다고 판단할수록 ‘사회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높음을 의미함.

〈표 III-156〉 전문인력(강사) 문항 상관관계 계수

		E2	A1-7	A1-8	E1-1/F	A1-9	A2	B2-2	C1	C2	C4
공동체영역											
지역공동체성	E2	1									
문화예술교육경력	A1-7	.157*	1								

현시설활동기간	A1-8	.176**	.722**	1								
강의/거주지역일치	E1-1/F	.132*	.049	.008	1							
인자 인식영역 문화예술중사동기	A1-9	-.013	.133*	.049	-.050	1						
프로그램중요기준	A2	.000	-.101	-.076	.022	.198**	1					
인적역량영역 자식경험능력수준	B2-2	.180**	.538**	.405**	-.028	.082	-.069	1				
전문분야능력	C1	.278**	.379**	.297**	-.005	-.046	-.053	.525**	1			
직무역량	C2	.418**	.343**	.235**	.021	.001	-.048	.499**	.631**	1		
사회적역량	C4	.435**	.265**	.200**	.075	.000	-.050	.371**	.457**	.721**	1	

* $p < .05$

** $p < .01$

- 공동체영역, 인지·인식 영역, 인적역량 영역에서 각 문항 간 상관관계는 <표 Ⅲ-157>의 내용과 같음.
- 지역을 근거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성은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거주지역 일치, 인적 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의 평가, 전문분야 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 등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Ⅲ-157> 전문인력 문항 상관관계

공동체영역	지역공동체성	•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A1-7),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A1-8), 강의/거주지역 일치(E1-1/F), 인적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 평가(B2-2), 전문분야 능력(C1), 직무역량(C2), 사회적역량(C4)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 공동체영역의 현시설에서의 활동기간(A1-8), 인지·인식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중사동기(A1-9), 그리고 인적역량 영역 4항목(B2-2, C1, C2, C4)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현시설에서의 활동기간	• 인적역량 영역 4항목(B2-2, C1, C2, C4)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강의/거주지역 일치도	• 공동체 영역의 지역공동체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인지·인식 영역	문화예술교육중사 동기	• 공동체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A1-7)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프로그램(수업)기준	• 인지·인식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중사동기(A1-9)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인적역량 영역	지식, 경험, 능력수준	• 인적역량 영역의 나머지 3문항(C1, C2, C3)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전문분야 능력	• 인적역량 영역의 나머지 2문항(C2, C3)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직무역량	• 사회적역량(C4)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2.3. 기관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인력 공통문항 비교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정도 비교

○ ‘문화예술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92.8%, 기관관계자는 85.2%로 긍정적인 응답을 함.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기관관계자 모두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은 균등한 기회 제공’한다는 목적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단, 미세한 차이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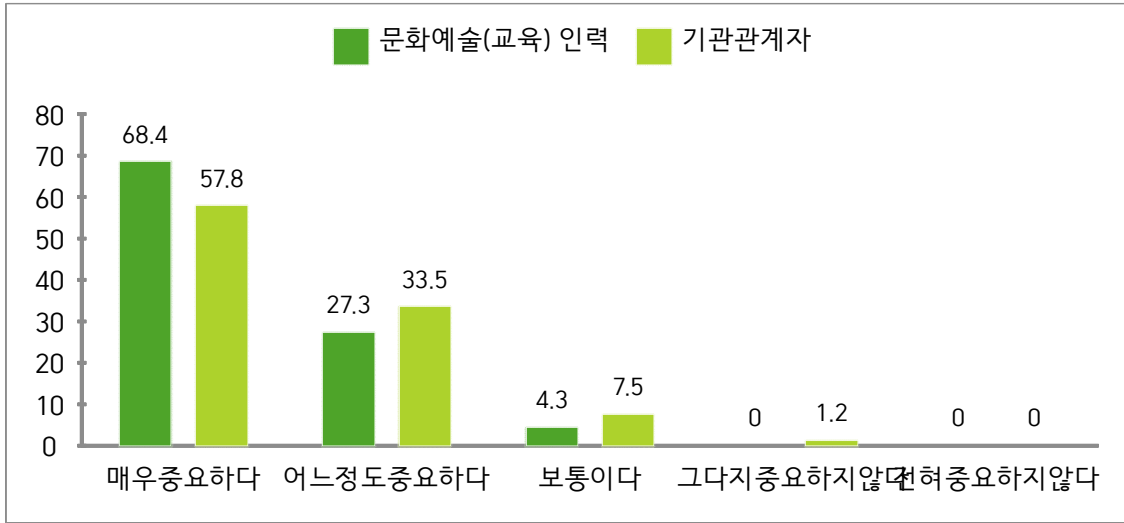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68.4%, ‘어느 정도 중요하다’ 27.3%로 95.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기관관계자는 ‘매우 중요하다’ 57.8%, ‘어느 정도 중요하다’ 33.5%로 91.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기관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 모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적 인식이 높음.

〈표 III-158〉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지 않다	전체
목적 인식 (1)	문화예술 (교육) 인력	N	173	69	11	0	0	253
		%	68.4	27.3	4.3	0	0	100.0
		%	65.0	56.1	47.8	0	0	61.1
	기관관계자	N	93	54	12	2	0	161
		%	57.8	33.5	7.5	1.2	0	100.0
		%	35.0	43.9	52.2	100.0	0	38.9
계		N	266	123	23	2	0	414
		%	64.3	29.7	5.6	0.5	0	100.0
		%	100.0	100.0	100.0	100.0	0	100.0

〈그림 III-12〉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1):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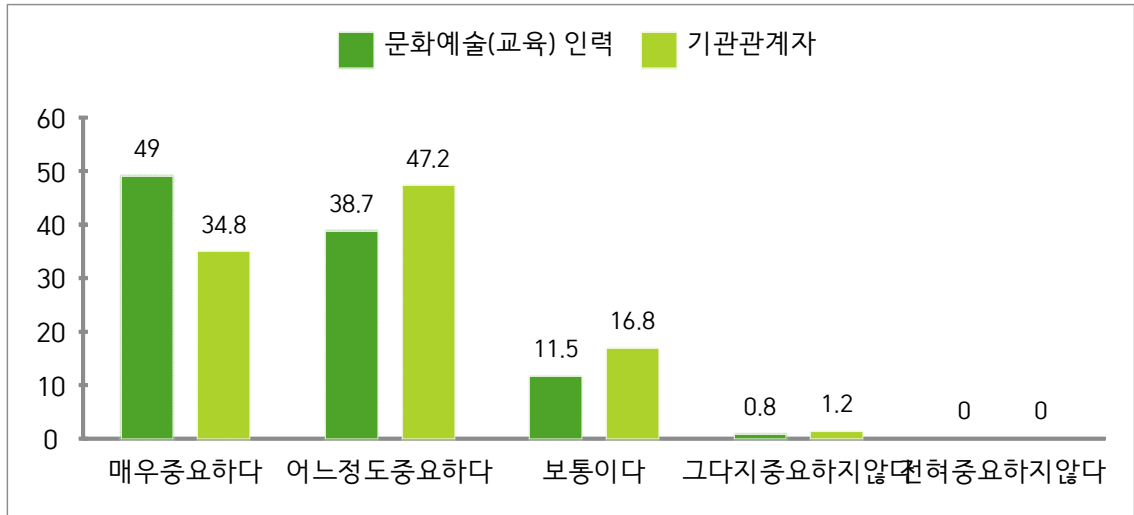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2)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기여’ 문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49.0%, ‘어느 정도 중요하다’ 38.7%로 87.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기관관계자는 ‘매우 중요하다’ 34.8%, ‘어느 정도 중요하다’ 47.2%로 8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기관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 모두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기여’에 대한 목적 인식이 높음.

〈표 III-159〉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지 않다	전체
목 적 인 식 (2)	문화예술 (교육) 인력	N	124	98	29	2	0	253
		%	49.0	38.7	11.5	0.8	0	100.0
		%	68.9	56.3	51.8	50.0	0	61.1
	기관관계자	N	56	76	27	2	0	161
		%	34.8	47.2	16.8	1.2	0	100.0
		%	31.1	43.7	48.2	50.0	0	38.9
계 결측(n=4)		N	180	174	56	4	0	414
		%	43.5	42.0	13.5	1.0	0	100.0
		%	100.0	100.0	100.0	100.0	0	100.0

〈그림 III-13〉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2):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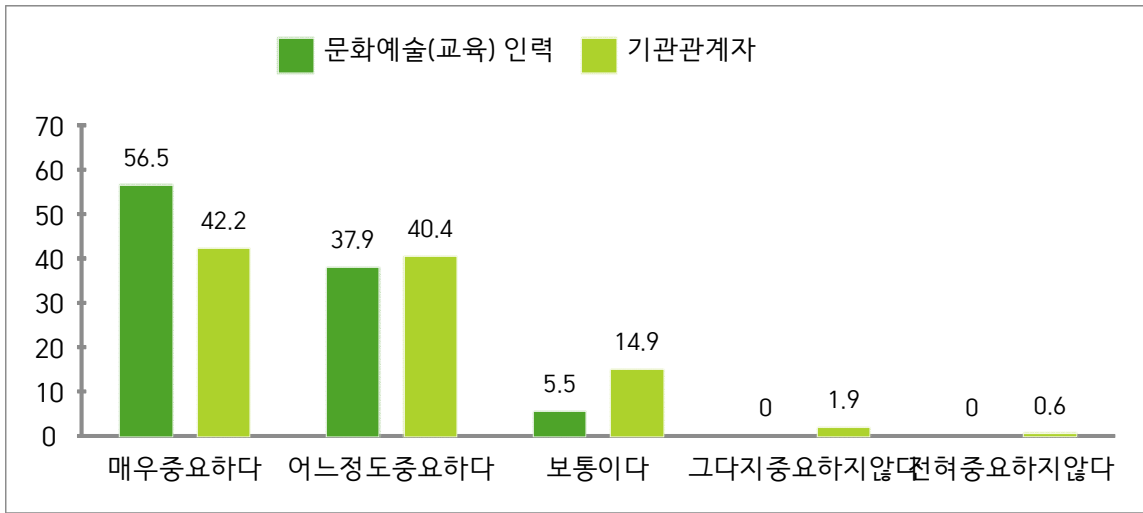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3)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문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56.5%, '어느 정도 중요하다' 37.9%로 94.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기관관계자는 '매우 중요하다' 42.2%, '어느 정도 중요하다' 40.4%로 82.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기관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 모두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에 대한 목적 인식이 높음.

〈표 III-160〉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지 않다	전체
목 적 인 식 (3)	문화예술 (교육) 인력	N	143	96	14	0	0	253
		%	56.5	37.9	5.5	0	0	100.0
		%	67.8	59.6	36.8	0	0	61.1
	기관관계자	N	68	65	24	3	1	161
		%	42.2	40.4	14.9	1.9	0.6	100.0
		%	32.2	40.4	63.2	100.0	100.0	38.9
계		N	211	161	38	3	1	414
		%	51.0	38.9	9.2	0.7	0.2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I-14〉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3):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 정도(4)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균
등한 기회 제공’ 문항
-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60.6%, ‘어느 정도 중요하다’ 33.9%로 94.5%가 긍정
적인 응답을 하였고, 기관관계자는 ‘매우 중요하다’ 45.3%, ‘어느 정도 중요하다’ 39.8%
로 85.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기관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 인력 모두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에 대한 목적 인식이 높음.

〈표 III-161〉 문화예술교육 목적인식(4):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지 않다	전체
목 적 인 식 (4)	문화예술 (교육) 인력	N	152	85	14	0	0	251
		%	60.6	33.9	5.6	0	0	100.0
		%	67.6	57.0	40.0	0	0	60.9
	기관관계자	N	73	64	21	2	1	161
		%	45.3	39.8	13.0	1.2	0.6	100.0
		%	32.4	43.0	60.0	100.0	100.0	39.1
	계	N	225	149	35	2	1	412
		%	54.6	36.2	8.5	0.5	0.2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1, 2, 3 순위) 비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기관관계자는 제1순위로 ‘예산지원(45.7)’, 제2순위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25.7%)’, 제3순위로는 ‘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13.3%)’로 응답함.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제1순위로 ‘예산지원(20.1%)’, 제2순위로 ‘인적 역량 강화 (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19.7%)’, 제3순위로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18.5%)’로 응답함.
- 기관관계자는 ‘예산지원’ 다음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과 ‘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예산지원’ 다음으로 ‘인적 역량 강화 (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III-16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것(제 1, 2, 3 순위)’ 기관관계자/문화예술(교육) 인력 비교

	기관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인력
1순위	예산지원 (45.7%)	예산지원 (20.1%)
2순위	전문인력지원 (25.7%)	인적 역량 강화 (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19.7%)
3순위	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13.3%)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18.5%)
의미	- 기관관계자는 시설 운영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프로그램의 운영의 관점에서 응답하고 있음	

□ 기관관계자의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할 때 한계 및 문제점 비교

- 기관관계자의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10문항)
 - ‘예산 및 재정 부족’이 69.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이 51.5%,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이 37.0%로 나타남.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로 예산, 시설환경, 전문인력을 지적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할 때 한계 및 문제점(1,2,3순위)
 - 1순위로는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3순위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이 20.7%, 21.6%로 나타났음.
 - 그러나 1,2,3순위의 응답을 합하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이 5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이 51.9%,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44%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할 때 한계 및 문제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 그리고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10문항: 기관 관계자),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비교

○ 기관 관계자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10문항)

-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9.4%, ‘전공 분야의 전문성’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2.8%, ‘수준 높은 교수(강의)’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63.4%,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3.9%,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5.1%,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3.9%,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향상’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7.1%,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6.3%,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80.8%, ‘강의 외 기타 업무’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62.5%로 높게 나타났음.

○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9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함’의 긍정적인 응답이 90%로 넘게 나온 문항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 임.

○ 기관 관계자와 문화예술(교육)인력 모두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IV. 문화기반시설 운영 우수 사례

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분석
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 토론회
3.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사례 :
광주 ‘아트 피크닉’
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특징

Ⅳ. 문화기반시설 운영 우수 사례

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우수 사례 분석

-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현장 사례를 기초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된 지역 문화기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수 사례 요인을 범주화하여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음. 연구 방법론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연구방법론

1.1.1. 근거이론

- 개요 : 우수사례 조사 분석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면접법에 기반 한 질적 조사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원칙을 준용함.
- 질적 방법론으로서의 근거이론
 - 근거이론은 연구자가 직접 장기간에 경험한 사실들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현상을 예측하거나 이론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임.²⁶⁾
 -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의 편리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기반시설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심도 있게 분석할 가능성을 제공함.
- 상호작용의 한 방식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근거이론은 상징적 존재로서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행위의 의미를 고려함.
 -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문화예술교육 활동 역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한 방식이기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질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26) 근거이론은 1960년대 미국에서 Barney G. Glaser와 Anselm L. Strauss의 『근거이론의 발견』(*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New York: Aldine, c1967)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Strauss와 Corbin에 의해 근거이론이 더욱 정교화 되었는데, 그들의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적용하여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의 실용화와 확산에 기여하였다. 유기웅 외,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018, 76쪽.

1.1.2. 주요개념

○ 이론적 민감성

- 이론적 민감성이란 수집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찾아내고 내용들의 유사점이나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뜻함.
- 연구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개별 사안을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의 출발점이 됨.
-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민감성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구분해내고 이론에 적합한 내용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중요한 능력임.

○ 이론적 표집

- 근거이론을 통한 자료 수집은 주로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짐.
- 먼저 연구자가 연구 주제에 맞는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이론적 개념을 통해 다음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론적 표집이라 함.

○ 포화

-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이러한 표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이론적 포화상태라 함.

1.1.3. 분석 절차

○ 개방코딩

- 개방 코딩이란 모든 수집한 자료를 해체하여 반복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여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최초범주화 시키는 코딩 과정을 말하며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연구자 자신의 신념을 통해 각각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이기도 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 자료는 명확히 분류되어 개별 사안들에 대해 비교 가능한 형태로 구분됨.

○ 줄 단위 분석

- 인터뷰 내용을 해체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을 의미함. 연구 대상의 대한 경험이나 인터뷰를 문자로서 자료화할 때,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말함.

○ 메모(연구노트)

- 줄 단위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메모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판단한 주관적인 내용으로 연구자의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 사례 연구에서의 메모는 우수사례 기관 분석으로 제시함.

○ 범주화 작업

- 줄 단위 분석과 메모를 통하여 나타난 다수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의미함.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각각의 세분화된 개념과 경험들을 대표적인 범주로 분류하면서 통합된 범주표를 생성하는 것을 뜻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묶어 대표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함.

○ 범주의 명명

- 개별 사안에 대한 특징들을 포착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범주화가 된 자료를 명명하는 것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각의 사안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대표적인 구성 요인을 추출하여, 4개의 대영역과 대영역 내 소영역의 차별화된 범주로 의미를 명명함.

○ 축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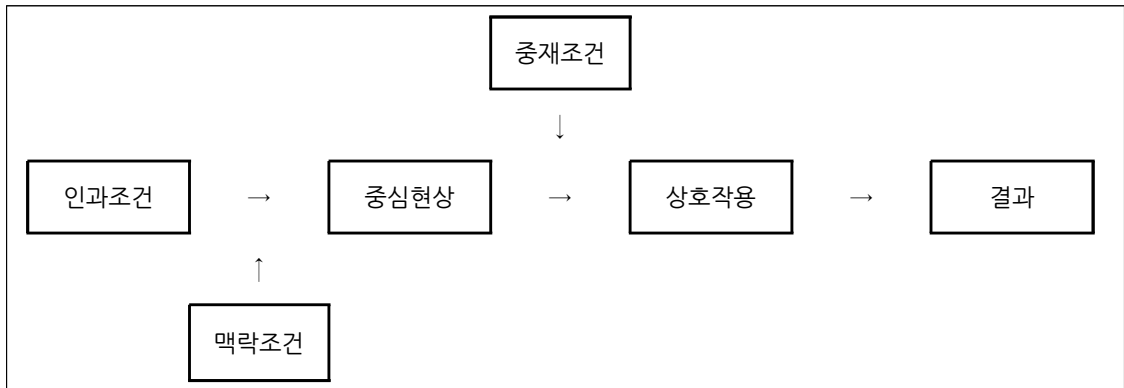
- 대표적인 개념들과 하위범주들이 맺는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틀 속에서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각각의 범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는지를 제시함.

○ 패러다임 도식화

- 패러다임이란 범주들 사이에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을 말함.
-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묘사하는 과정이 축 코딩에서의 핵심 작업임.²⁷⁾
- 패러다임 모형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인 특성이 있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음.

27) 같은 책, 94쪽.

〈그림 IV-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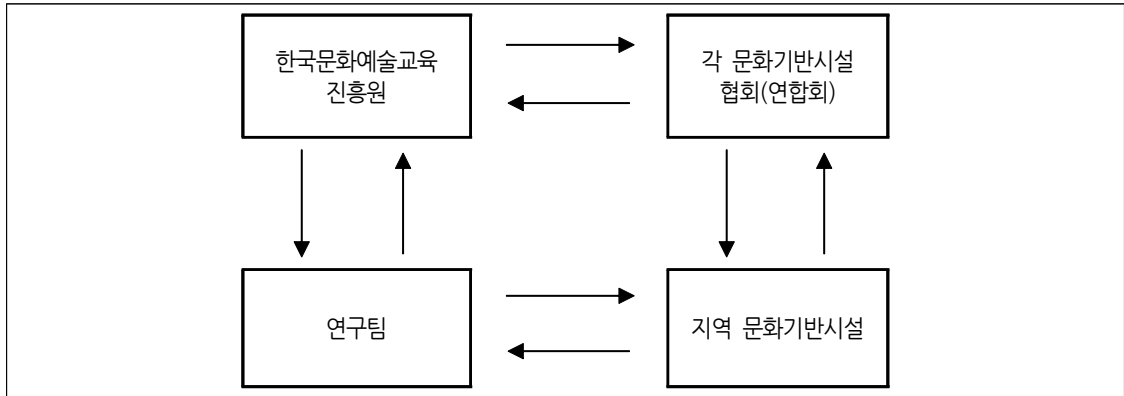
- 인과적 조건 :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거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함. 문화예술교육에서 인과적 조건은 문화예술교육을 유발되는 문화격차와 문화소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맥락적 조건 : 인과조건과 중심현상이 유발되는 사회적·구조적 조건을 의미함. 문화격차와 문화소외를 유발하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중심현상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배태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경제적 불평등, 도농 간 문화교육 격차,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노인 세대 소외 등을 말할 수 있음.
- 중심현상 :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사건이나 현상을 뜻함.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지와 시도들을 말함.
- 중재적 조건 : 중심현상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외부의 지원증감이나 그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함.
- 상호작용 전략 : 연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의 참여자들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조절과 반응의 결과를 말함. 문화예술교육에서 외부 지원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변화가 유발하는 다양한 변화가 이에 해당됨.
- 결과 :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난 참여자들의 행동, 인식의 결과를 의미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들임.

1.1.4. 기관 방문 과정

○ 심층 인터뷰 방문대상 선정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 우수사례 조사 분석 작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로부터 우수사례를 추천받고 심층 인터뷰 사례를 추출한 후 추진함.
- 문화기반시설 유형, 지역적 분포, 운영 주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주요 요인인 지역 공동체성을 고려해 심층 인터뷰 사례를 추출하였음. 이와 같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IV-2〉 우수사례 방문대상 선정과정



○ 방문 및 심층 인터뷰 수행

-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에서 23곳의 기관을 방문,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 함.
-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가 제공한 기관 이외의 ‘기타’ 기관을 포함했는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공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유의미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우수 사례 선정 기준

- 방문 대상 문화기반시설 유형, 교육 대상과 내용의 차별성,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11곳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우수 구성 요인 특성의 포화도 역시 고려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특성이 우수하더라도 유사하거나 반복될 경우, 특정 기관에 대표성을 부여함.

〈표 IV-1〉 우수사례 목록

연번	기관명	소재지	단위	방문일자	주요특징	시설 종류
1	성북문화원	서울	기초	7.10	응용력, 네트워킹	문화원
2	삼천문화의집	전북	기초	7.16	지역공동체성, 주민친화성	문화의집
3	북구문화의집	광주	기초	7.16	민주성	
4	김천문화의집	경북	기초	8.21	자발성, 소명의식	
5	마포평생학습센터	서울	광역	8.28	공공성	도서관
6	토탈미술관	서울	광역	8.28	전문성	미술관
7	대담미술관	전남	기초	7.17	노인친화성	
8	상상나라박물관	서울	광역	8.29	체계성	박물관
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	광역	9.18	규모, 교육전문성	문예회관
10	충남서부종합장애인복지관	충남	광역	8.20	장애인친화성	기타
11	와촌책마루도서관	경북	기초	7.30	사회성, 자발성	기타

○ 심층 인터뷰 질문 내용

- 인터뷰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 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함.
- 방문 초기 인터뷰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차별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었고 다소 산만한 비구조화 된 면접이 진행됨.
- 3개월이 넘는 방문 기간 동안 유의미한 질문들이 추출, 정리되면서 대체로 구조화된 면접의 형태로 진행됨.
- 구조화된 질문표를 중심으로 질문하되, 필요시 심도 있는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가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짐.
- 주요 질문

1. (기관소개)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 (프로그램 내용)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 (문화예술교육 인력 수급)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어떻게 수급되는지요?
(전문강사/주민강사, 혹은 문화예술교육사 여부)
4. (교강사 역량)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강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외부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요?
6. (개선점)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나요?
7. (지역공동체성)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기관이 어떤 기여를 수행하고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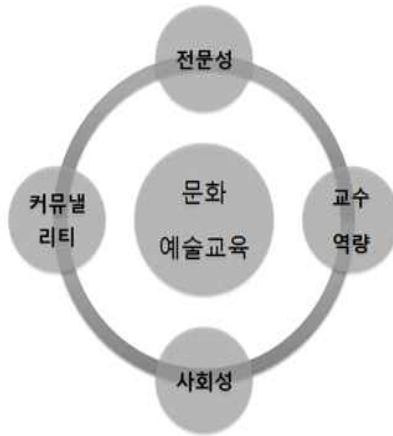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인 추출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요구되는 구성 요인 범주들은 ①전문성(professionality), ②교수역량(Instructional method), ③사회성(sociality), ④지역공동체성(communality) 등 4개 대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전문성은 교·강사나 기획자, 그리고 수강생 개인의 동기이자 내적 역량을 의미함.
- 교수역량은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특수 역량을 말함.
- 사회성은 타인이나 외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외적 역량을 뜻함.
- 지역공동체성은 사회성을 기반으로 특정한 지리적, 관계적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의 범주별 상호관계

- 4개의 구성 요인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결 되는 성격을 띠. 예컨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지역공동체성은 개인의 전문성과 교수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동기가 되기도 함.

〈그림 IV-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 범주별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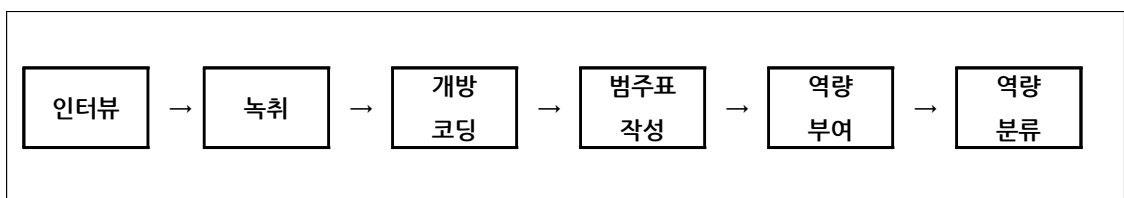


1.1.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분석 및 추출

○ 코딩

- 질적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거이론의 원칙에 따라 코딩하는 과정을 거침.
- 심층 인터뷰 대상자의 진술들을 유의미한 단위로 분절, 분류하고, 개별 단위에 역량 의미를 부여함.

〈그림 IV-4〉 심층 인터뷰 코딩과정



○ 구성 요인의 분류

- 개별 요인은 유사성과 차이에 관점에서 분절하면서 대영역으로 통합되거나 소영역으로 세분화함.
- 개별 요인 단위들은 각 문화기반시설이 위치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유의미한 방식으로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범주화 함.

〈표 IV-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인

대영역	소영역	내 용
전문성 (Professionalism)	성취력	목표를 달성하여 보람을 느낌
	능동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냄
	호기심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해결책, 방법을 찾아냄
	내적성숙	문화예술을 통한 성찰과 삶의 태도 변화
	리더십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을 이끌어 나감
	응용력	다양한 자산을 전문적 문화예술 형식으로 변용
	융합력	서로 다른 분야의 문화예술을 인정, 융합
	행정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운영체계 마련
	지속성	직무의 지속성에서 나오는 기관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
	현장적응력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역량
교수역량 (Instructional method)	전달력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친화력	수강생들과 적극적으로 다가가 소통하고 어울림
	다양성	다양한 재료를 수용하고 함양함
	활동성	과정에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
	구성력	교육 커리큘럼을 스스로 구성하고 실천
	확장성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는 능력
	효과성	프로그램의 효과로 수강생 능력 함양
사회성 (Sociality)	네트워크역량	지역 내/외의 다른 기관, 자원들과 협업
	주도성	외부간섭, 지원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매개력	강사진, 아티스트, 학부모,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보조성	지역주민을 문화예술 활동 주체로 성장시키는 보조함
	개방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함
	시민성	불평등을 지양.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를 인정하고 의식함
	호혜성	강사, 관계자, 주민이 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서로 나눔
	사교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역량
	공공성	문화예술의 공적책임무성에 대한 인지
	이타성	보상과 상관없이 타인을 도우려는 특성
지역공동체성 (Communality)	공동체성	지역 공동체의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산을 개발, 설립함
	연대성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소속감

1.2. 우수사례

1.2.1. 성북문화원

○ 역사와 문화가 마주치는 중간플랫폼

- 성북문화원은 서울시 성북구 혜화동과 돈암동 사이에 위치한 문화기반시설이며, 서울 북부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와 정주민 모두 많은 주거지역에 위치함.
-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의 접점이며, 서울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인근을 통과하는 교통 중심지
- 지역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풍부한 교육적 인적 자원을 배경으로 삼아 활발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압도적인 탐구력과 전공 전문성

-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압도적 탐구력을 들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국장과 팀장은 모두 역사학 전공자였고, 성북문화원이 위치한 성북로 4길 7(동소문로 1가 1번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역사에 정통해 있음.
-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근간은 거의 이러한 전문 연구역량에 기반 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탐구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탐구를 성북문화원은 “성북학”으로 범주화하고 성북학 관련 지역 거점 역사문화자산의 아카이빙과 이를 이용한 모바일 앱 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기획팀의 탐구력은 일종의 전공역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터뷰 내내 강조되었음.

[사무국장과 운영과장] 둘 다 역사학 전공이에요, 지역학이 대두되고, 자치분권이 대두되고, 예산집행도 점점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오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단계가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특히 복지나 이런 건 있지만 문화나 그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거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육도 문화재청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성북구도 도성을 끼지만 아이들의 방문교육도 문화재청을 통해 했어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 예를 들어 보훈처에 학술회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고, 그래서 지역컨텐츠로 했어요 [...]

○ 응용력, “원소스-멀티유즈”

-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탐구력이 단순한 정보 축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임.
- 성북문화원은 그러한 역사적 탐구의 결과물을 문화예술자산으로 변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환은 전공역량 가운데서도 응용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응용력이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를 경계를 넘어 다른 효과를 변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단순 역사전공자의 연구역량과는 달랐음.
- 성북문화원의 응용력은 개인역량에 머물지 않고 조직구성에 반영되어 있었음.

〈표 IV-3〉 성북문화원 조직구성

문화교육사업팀	문화기획팀	성북학연구팀	마을기록아카이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강좌 및 문화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기획 진행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료 수집보존 - 역사문화자료 보존 - 성북학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록아카이브 업무 - 마을기록항목개발

조직구성을 지역학 연구팀을 성북학 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했어요. 또 한축으로는 마을기록 아카이브 팀으로 해서 지역에 관련된 문헌부터 역사적인 자료, 사진, 영상, 현재의 모습들, 전통시장 등 아카이빙을 디지털화하고, 그걸 모바일이나 구 관련 정보들을 오픈하는 걸 5개년 계획으로 지금 2년차 진행하고 있어요. 전문팀, 전문 인력으로 가고 있어요. 문화팀은 축제부터 다양한 문화기획팀이 있고, 문화예술교육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하는데, 인원은 적지만 한 팀당 2명꼴로 하고 있는데, 마을기록 아카이브팀은 따로 서울시 뉴딜정책, 일자리를 활용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큰 골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성북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이나 도시라든지, 연령대별로 이런 거도 있고, 성북을 넘어서서 서울 전체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

- 예컨대 성북문화원의 탐구로 지역 독립유공자 조사가 포함되며, 실제로 90여명의 지역 관련 독립유공자들이 조사, 발굴되었고, 이 가운데 9명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신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이름.
- 이렇게 발굴된 지역 기반 독립유공자들의 역사정보는 뮤지컬, 연극, 인디뮤직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변용되었고, 대학로의 공연장을 통해 문화 상품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공유되었음.
- 담당자들은 “원소스-멀티유즈”로 표현하고 있음.

특이사항은 3년 전에 지역의 독립 운동가를 찾았는데 성북구 예산으로 신규로 96명을 찾았어요. 다 새로운 분들은 아니고 훈장을 받은 분도 계시는데 성북구랑 연관성을 찾은 분이 96명이예요. 아예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12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서훈 신청을 했는데 8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구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이분들을 위한 책자라든지, 이육사라든지, 이런 소재를 뮤지컬, 미술, 시, 인디밴드를 접목해서 시에 노래를 짓기도 했구요. 저희가 기획하고 그에 맞는 공모를 따 와서 현장으로 응용하는 작업을 했지요.

○ 네트워크 역량

- “원소스-멀티유즈”는 다양한 구성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 담당자의 역사적 정보에 관한 전문성은 뮤지컬 제작자나 연출가, 작곡가, 연주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 혹은 협업을 통해 변용되었음.
-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탐구력이 성북문화원의 내부 역량이라면 다양한 영역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도출하는 역량은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성과를 구성하는 사회성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 역량은 전문적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가와 지역 내 개인, 단체, 상점, 기관들의 참여를 확장해 내고 있음.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그들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들이 뭐가 필요 하나, 저들은 봉사점수 필요하고 우리는 공연 팀이 필요하고 연극회는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는 공간을 알려줌으로써, 그 연결고리가 됨으로써 저희가 그렇게 되어야 저희를 찾아오는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 고생했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었죠.

○ 다양한 이해관계가 번역되는 “중간플랫폼”

- 담당자는 뛰어난 연구 및 탐구력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발굴, 축적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 구성원의 참여확대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단순 협업이 협업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협업이 유발되는 메커니즘이 분명하지 않는데 반해 네트워킹 작업은 협업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확대함.
- 성문문화원의 문화예술 기획은 다양하고 상이한 참여자들-주민, 예술가, 상인, 기업,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번역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중간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함.

재단도 있고 다양한 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간 거점이에요. 사람을 기다려서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대한 느낌과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연결하는 접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민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예술인이나 단체에서도 분명 어필을 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젊은 직원들이 공유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나 했을 때 만약 예를 들면 연극협회가 뭘 낭독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앵커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인맥과 공간을 통해서 더 좋게 지원 해드리고 예산이 0원이더라도 그런 일은 우리일이다 생각하고 해드리고요. 어떤 분이 최근에 비올라 하시는 분인데 공간에 갈증이 있어서 좋은 취지니까 좋은 시설을 무료대관 해드리고, 그런 어떤 중간 플랫폼 구실을 해야 하는데 수직구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좀 수평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 “성북동문화재야행-저 별이 기억하는 밤”

- 성북문화원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꼽은 “야행”은 지난 5월 19일(금)~20일(토) 이틀간 무려 4만여 명이 참여한 대표적 지역 문화예술 이벤트였으며, 만해 한용운심우장(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성북동 이종석별장(서울특별시 민속 문화재 제10호), 최순우 옛집(등록문화재 제268호) 등 지역 역사문화자산 우리옛돌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성북구립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길상사, 정법사 등 역사종교시설, 아울러 성북구 소재 미술협회, 사진가협회, 국악협회 등 전문 예술가 단체들까지 다양한 영역의 제도 및 인력이 참여했음.
- 각 시설은 고립된 역사물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음악 공연, 뮤지컬 공연, 그림자극 등 다양

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었으며,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청은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를 보유할 수 있었고, 개별 문화기반시설과 단체들은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음.

- 전문예술가들은 이 행사를 자신의 표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하는 무대로 삼았고, 주민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가 되었음.
- 성북문화원의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매개되면서 상호 확장되는 중간플랫폼으로 기능함.

“야행”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우리 마을에 대한 설명을 우리주민이 한다는 거에 자부심이 상당히 많고 그걸 한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교랑 매칭하고 서포트 하니까 수익구조도 나고 자부심 나고 야행 행사 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해주고.. 가게나 식당이 있으면 아, 문화원 너무 잘하니까 5만원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곰탕 3만원 술집 5만원, 이런 식으로 다 홍보도 해주고 축제 때 그 가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고 그래서 이왕이면 회식할 때 소개해주고 어떤 사업은 있는데 이 지역 마당놀이로 지명유래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주고 그냥 말기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기획이나 고민을 해서 그 단체나 내지는 예술인들에 맞게끔 그런 거가 있죠.

○ 능동성, 혹은 주도성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

- 성북문화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관통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능동성”과 “주도성”이라 할 수 있음.
- 담당자들은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인터뷰 중간 중간에 이를 되풀이 했으며, 이는 정부, 지자체, 문화재단 등 외부의 간섭이나 재정지원에 대립되는 주체적 역량으로 파악되었음.
-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진술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모-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되는 외부의 공적자금은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임.
- 그런 상황에서도 담당자들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관이 주도할 때 나타나는 내용 없는 형식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자발성에 입각한 주체적 기획력 이야말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과 수행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주동성과 전문적 기획력을 확보된다면 외부의 공적 지원은 언제라도, 얼마라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줌.
- 외부지원은 일종의 물적 조건이자 무대일 뿐 그 물적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증명해야 할 것은 바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성과 자기 주도성임.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주체적 시민의 양성

- 주도성은 기획자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러한 공동

체의 주도성은 ‘시민성’으로 범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 활동은 곧 시민 만들기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독립운동 및 4.19 민주화혁명 역사 자료 발굴 작업은 자주와 독립과 민주화와 연결되고 있음.
- 그러한 자주 독립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발굴되고 축적되어야 할 성북지역의 역사자산일 뿐 아니라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스며들 공동체의 가치라 할 수 있음.
- 그러한 역사문화 정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참여 주민은 주체적 시민과 다르지 않음.

홈페이지가 이제 11월 목표로 열리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직접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면 이것들을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해야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올리구요. 또 하나는 아까 주민기록단 교육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교육하고 내년부터는 실습을 나갈 건데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왜냐하면 문화원이 아무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해도 주민들만큼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내가 살아봤더니 우리 동네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게 주민들 스스로가 기록자가 되는 형태로 가는거죠.

○ 지역공동체성으로서의 역사 자산

- 성북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는 다양한 역사자산, 인적-제도적 자산에 기반 함.
- 역사자산으로 지역 자체가 조선 이후 수도였으며, 우리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음.
- 지역 역사를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전략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음.

○ 인적-제도적 자산

- 성북구는 서울의 8개 국·공립 사립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성북문화원은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학의 제도적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
- 지역의 인구수와 밀집도가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생활수준 자체가 높으며, 성북문화원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잘 활용하고 있음.

○ 성북문화원의 우수 요인과 특성

- 강한 사회성과 전문성
- 성북문화원의 인터뷰에서 문화예술역량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을 때 사회성과 전문성 관련 진술이 많았음.
- 성북문화원은 전문적 연구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

로 응용하는 탁월한 역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응용력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 자원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인, 단체와의 협력이라는 사회성 관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하고 있음.
- 공동체 형성 원리로서의 지역 역사
- 성북문화원의 사례에서 지역의 역사와 그 역사의 문화적 변용 작업은 단순 사회성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원리로서 기여하고 있음.

1.2.2. 삼천문화의집

○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꾼방

- 현재 전주에서 활동하는 5곳의 문화의집 가운데 하나
- 삼천문화의집은 다양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필요 공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발적 동아리 중심 사업을 컨설팅, 지원하고 있음.
- 삼천문화의집은 마을 축제, 생활문화장터 등 동아리와 주민들이 교류하며 호흡하는 무대를 제공함.
- 삼천문화의집과 동아리들은 지역 속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면서 막걸리 골목, 삼천천변 활동 등을 중심으로 생활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삼천문화의집의 특징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비즈니스 활동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임.
- 경제적 손익계산이 과도하게 개입할 때 동아리 활동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활동이 오히려 주민의 삶과 일상에서 동아리 활동에 즐거움과 활력을 줄 수 있음.
- 삼천문화의집 인터뷰 응답자는 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표현했음.
- 응답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단순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된 친목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좀 더 주민의 삶의 영역에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됨. 막걸리 골목 네트워크와 삼천2동 공예공방 작가-주민 네트워크 등은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막걸리골목을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상인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함께 노력한 결과임.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보자. 저희 막걸리 골목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쇼룸처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삼천2동에 있는 공예공방 선생님들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막걸리골목을 활성화를 할 것인가. 그냥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감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

○ 일꾼방-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곳

- 삼천문화의집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사무실을 ‘일꾼방’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직원들은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고 있음.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 또한 ‘일꾼’이며, 일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일꾼방임.
-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며, 일꾼들은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고 있음.
- 지역주민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인 듯 보이며, 일꾼방 곧 삼천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문화예술을 삶과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서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여기 보시면 사무실이 일꾼방이라고 써져있거든요. 일꾼방, 여기 공간은 주민들의 공간이고 우리는 주민들이 여기서 재밌게 생활문화로 그냥 즐겁게 노는데 있어서 우리는 일꾼이다.

○ 문화 창조 주체로서의 지역주민

- 삼천문화의집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삼천주민기획단을 모집하는 것임.
- 기획단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기서 주민은 단지 문화의 향유 대상이 아니라 문화 창조주체가 됨.
- 주민은 시민예술가 모임과 공예공방 강사, 교육공동체 운영자, 복지관 강사들이 함께 기획단을 구성하고 마을 축제와 행사들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함.

저희가 항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공동체 함께하는 삼천문화의집이에요. 사업을 따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삼천사람 주민기획단이라고 여기서 모집을 해요.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지역 문화창조 인력이라 그래서 거기에 삼천사람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의 어떤 향유 대상이 아니라 창조 주체로 삼아보자. 그냥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같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분야별로 나뉘어요. 삼천사람 안에 이제 주민기획단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축제라든지 같이 행사들 같이 기획하고 진행해요. 또 삼천사람 안에 시민예술가모임 아까 여기 공예공방 선생님들, 또 지역아동센터랑, 여기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복지단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교육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마을이 학교라는 측면으로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 동아리, 혹은 또 다른 삼천문화의집

- 삼천문화의집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라면, 동아리는 삼천문화의집의 ‘육화’된 형태라 할 수 있음.
- 삼천문화의집 프로그램 참여 주민은 개인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는 다른 관계들과 엮이고 중첩되면서 커다란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 강사와 수강생, 동아리와 다른 동아리들 사이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이 엮이고 쌓여 만들어진 이 관계 덩어리는 삼천문화의집의 또 다른 존재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동아리는 삼천문화의집을 이루는 작은 단위이며, 개별 동아리들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그 자체로 삼천문화의집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저희는 동아리가 좀 많은 이유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수강생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강사 분들 유대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주체적으로 알아서 공헌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노인회 봉사활동 가시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이거는 동아리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동아리로 활동을 해보시면 어떠냐. 동아리 활동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좀 해보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동아리 화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참여자들의 변화

- 삼천문화의집의 차별화된 운영은 참여자들에게 큰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관찰됨.
- 응답자는 아이들이 성격이 달라지고 활발해진다고 말하는데 먼저 아이 자신을 생각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함.
- 노인들은 삶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게 됨.
- 삼천문화의집은 그러한 만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만남은 행복과 변화를 주며, 이러한 변화는 일꾼들의 세심한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삼천문화의집은 기획자, 강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례를 경험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상의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반영함.

○ “맹꽁이와 식구들” 또 다른 식구들

- 삼천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임.
- 삼천 천변에 서식하는 맹꽁이, 수달과 반딧불이, 천연기념물인 곰솔나무는 삼천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중요한 식구이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과정은 곧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임.
- 이 밖에 평화동의 용기놀이 같은 마을의 역사유산 등이 활용되기도 하며, 마을아카이브 사업 역시 비슷한 맥락임.
- 이처럼 마을의 생태와 역사는 삼천문화의집이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음.

저희가 보통 교육활동을 할 때 항상 생태자원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항상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땀뽕이 서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천천변에 수달이나 반딧불이 그런 자원이고 천연기념물로 곰솔나무, 평화동에 마을 유산 용기놀이라고 있어요. 평화동에서 많이 했던 그런 거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런 자원요소를 함께 배우거나 다른 분들한테도 주민들하고 논의합니다. 또 저희가 공예공방거리가 있어요. 그거도 저희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 일환을 올해 삼천공방하고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합니다.

○ 관계의 개방성과 적극성

- 삼천문화의집 응답자들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이 관계 맺기였는데, 여기서 개방성과 폐쇄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임.
-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성과 역시 그러한 관계 맺기의 개방성과 폐쇄성에 따라 달라짐.
- 삼천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기획과 운영은 적극인 관계 맺기를 통해 지역주민을 굳이 예술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성장시킴.

거의 이걸 사회학적인 성격이 크죠. 문화예술 이걸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간혹 문화예술에서 이걸 한다면 예술가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꼭 그래야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다가가려고 하는 그 적극성만 있으면 그게 꼭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제일 먼저는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람과 관계 맺기에 대해서 열려있나 닫혀있냐에 따라서 기획이나 운영이나 모든 게 다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및 공동체 이런 관련한 아카데미 수업이나 역량강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 삼천문화의집의 우수 요인과 특성

- 강한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
- 삼천문화의집 인터뷰에서 나타난 역량구성상의 특징은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삼천문화의집은 지역 내 주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전문성 역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조적 역량으로 활용되고 있음.

1.2.3. 북구문화의집

○ 체험 기반 창의성을 키우는 메이커스페이스

- 북구문화의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에 위치해 있으며 북구청으로부터 광주문화자치회의가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임.
-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공적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적어도 공간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
- 북구문화의집은 지자체나 외부의 공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도입, 조화하고 있었고, 특히 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열악한 공간을 북구문화의집이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음.

○ 도구를 통한 체험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북구문화의집은 매우 특징적인 경우였음.
- 북구문화의집은 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도입하는 외부자원의 출처의 차이를 넘어 북구문화의집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차별성을 드러냄.
- 북구문화의집은 주민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도구와 연장을 이용한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며, 창의예술학교 <바퀴달린학교> 프로그램 등은 도구와 연장을 통한 제작 체험을 전통적인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3D 프린터를 이용한 공작체험-<장난감 공장>, 건축-<주말건축학교>까지 넓혀 놓았음.
- 여기에 <땅과 예술>을 포함하면 도구와 재료를 통해 사물과 재료의 물성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체험은 북구문화의집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임.
- 북구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주부발명프로젝트 살림랩>의 발문에 표현되어 있음.

○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노작교육

“손을 쓴다는 것, 직접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였을 때 걸음마를 익히고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배웠던 것과 비슷하다. 만들기에 몰입할 때 우리는 사물과 세계를 사용 설명서나 정형화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직접 이해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

주부발명프로젝트 “살림랩”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우리 집 살림살이 불편한 부분을 직접 고쳐보고 싶었던 사람
 -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
 - 혼자서 전등도 갈고, 별 것 다 고치는 사람
 - 주변에서 “금손” 이라고 칭찬 좀 받아본 사람
- ☞ 무얼 하나요?
- 모여서 나의 라이프사이클을 이야기해요!
 - 그리고 무엇이 불편하고 바꾸고 싶었는지 생각을 모아봅시다.
 - 거칠어도 좋고, 못 그려도 좋으니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요.
 - 각자의 기술로 아이디어를 실현, 시제품 제작 돌입!

- 인터뷰에 응했던 관계자는 북구문화의집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특징을 이른바 ‘勞作教育’, 즉 구체적인 ‘노동’(勞動)과 ‘작업’(作業)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고 길러내는’(敎育) 것으로 표현함.
- 중요한 것은 창의성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었는데, 창의성은 특정한 방식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체험의 문제로 보고 있음.
- 몸과 도구, 실제 현장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체험 없이 창의성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임.
- 체험에서 얻어지는 창의성은 몸에 스며들고, 몸에 스며든 창의성은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며, 삶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성화 된다는 것임.

○ 자발성과 시민성,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 담당자는 체험을 통해 몸에 각인되는 창의이 주민의 내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확신이 전제된 듯 보였고, 이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이 더욱 자발적으로 변모했다고 대답함.
- 자발적 개인은 비슷한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공적 관계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는 주민들 사이에서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적 관계라 할 수 있음.
- 북구문화의집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체험은 자발적인 개인을 공적참여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생각됨.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느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업만 하고 끝나는데 어떤 날은 같이 배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먹으려고 감자도 삶아오기도 하고 뭔가 조금 더 끈끈하게 형성될 때가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하나씩 있어져요.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요.

- 응답자는 주민의 내적변화와 자발성, 그 자발성을 통한 공적 참여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하기도 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자족적인 단순 취미 동아리”, “아마추어 생활문화 동아리”²⁸⁾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민주화의 한 형태로 보고 있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별로 그렇게 조금 재밌어하고 배워보고 싶어 하는, 뭔가 수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아리로 만들어지거나 기초단계의 수업을 했는데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역량을 더 키워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선이 여기까지라면 그 이후를 위해서 스스로 모임을 만든다거나 더 배워보려고 하는 고 퀄리티의 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가 목표 했던 것의 이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28) 정민룡(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365]』, 2017.07.24., <http://www.art365.kr/?p=60127>, 2019. 8. 1 방문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더 좋은”,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나아가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타인에게 “자원봉사”를 행하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됨.

○ 주민강사-나눔과 공유의 생활예술

- 북구문화의집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은 일종의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예컨대 ‘주민강사’는 북구문화의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
-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익힌 손기술과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나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북구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의 오랜 전통으로 보임.
- 외국생활을 오래하신 80대 할머니가 생활영어 ‘한 토막’을 나누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가곡 한 소절’을 가르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전문성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미’임.
- 정년퇴임한 전직 교사가 “자수”를 가르치고 정작 전문예술가인 화가는 회화가 아니라 목공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는 화가 자신에게나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함.
- 응답자는 오히려 주민강사를 찾아내고 섭외하는 일이 전문강사를 섭외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웠다고 말하며,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이처럼 주민강사 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북구문화의집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가깝기 때문임.

○ 북구문화의집의 우수 요인과 특성

- 강한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
 - 북구문화의집 역시 강한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으로 특징되는데, 주민과 강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부지원을 통해 주민-기관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 시민성의 강조
 - 사회성 가운데 시민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재료가 다양한 사고를 가능케 하고 이는 민주적 시민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임.
 -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혹은 교육영역을 넘어 전체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1.2.4. 김천문화의집

○ 어울리며 가르치는 즐거움

- 김천문화의집은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건물 3층에 위치하며, 대구가톨릭 사회 복지회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시설 내에 위치함.
- 김천 문화의집은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있음.
- 특히 열악한 상황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담당자의 언급은 문화예술교육 상황에서 기획자 와 교·강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함.

○ “사고의 다양성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서 나온다.”

- 쉽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대도시 주민과 달리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문 화예술에 대한 참여의도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활동들이 매우 많음.
- 김천문화의집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가능하면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다는 점임.
- 그러한 다양성은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손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제공하는데, 예컨 대, 미술 관련 프로그램은 크레파스, 파스텔 같은 고착화 되어있는 재료 뿐 아니라 지우개, 1회용품 등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이용함.
-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가 그러한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감각과 체험의 다양성 확대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양한 재료 의 활용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생산하는 효과로 여겨졌음.

단지 크레파스 파스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접하면서 사고가 넓어지는 거 같아요. 재료선택에서부터 다양성을 접하다보니 사고도 덩달아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 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석 용돈봉투 만들기를 했어요. 지우개를 파서 도장을 찍고 한글글씨 를 써서 만드는 캘리그래피와 지우개 스탬프를 접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연필을 잘 안 쓰잖아 요. 학부모들은 집에 가면 굴러다니는 지우개가 되게 많아요. 그걸 꺾어내서 동심도 다시 느끼며 기 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속마음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며 회복도 되고 그리고 작품화가 되면 성취감도 생겨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심리적인 부분과 공예적인 부분 양방향에서 모두 긍정적인 거 같아서 좋아요.

○ 버려지는 것들의 아름다움

-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활동과 재료들을 사용하며 주민들의 고착화되어 사고와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됨.
- 김천문화의집 프로그램은 생활용품을 매개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속마음도 얘기하며 연대를 생산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
- 예컨대 지역주민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으며, 단

순히 환경문제에 관한 공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

- 버려지는 것들을 작품화하고,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완성된 작품들을 경험하면서 환경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됨.

그리고 버려지는 것들을 작품화해서 만들면 사람들의 인식도 버려지는 것들이 미술화 되고 공예화 되어 생활에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다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이런 인식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 우리 집구석의 역사 “남의 집 부엌 속 찬장이야기”

- 김천문화의집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남의 집 부엌 속 찬장이야기”는 남의 집 부엌을 들여다보고, 그 부엌의 문화적 양식을 파악하면서 김천만의 독특한 문화와 연결시키는 작업이었음.
- 김천 전통주 가운데 ‘과하주’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하주라는 김천만의 특유한 역사자산을 추출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확보하는데 공헌하고 있음.

저희가 “남의 집 부엌 속 찬장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남의 집 부엌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며 김천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처음 저희가 연결을 시켰던 게 과하주예요. 김천에는 과하주라는 술이 있어요. 양조장도 있고 우물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다른 게 아니고 지역의 역사도 중요하니까 지역역사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풀어가며 부엌을 소재로 우리 집의 역사도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 지역주민에서 생활강사로 중요한 것은 강사의 전문성보다 어울림

- 김천문화의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전문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 인성이었음.
- 강사는 단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과 어울리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담당자는 손재주가 좋은 주민을 찾아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되고 있음.
- 동아리의 특성을 지닌 강의를 통해 지역주민들 스스로 몰랐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음.

○ 즐기며 일하기, 문화예술교육자의 소명의식과 능동성

- 김천 문화의집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응답자의 능동성과 소명의식이었으며, 응

답자는 이를 “즐기며 일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음.

○ 김천문화의집의 우수 요인과 특성

– 높은 자발성과 교수

- 김천 문화의집의 경우 능동성이 두드러졌음.
- 김천문화의집은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방문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사회복지기관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어 차별화 된 문화예술교육이 어렵고 전담 운영인력 또한 응답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모든 어려움을 개인의 능동성을 통해 극복함.

1.2.5. 마포평생학습관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적 플랫폼

- 마포 평생학습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며,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도서관으로 분류되었음.
- 서울시 광역 단위에서 평생학습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임.
- 마포평생학습관이 보여주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성이었음.
- 공공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문강사 선정,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삼는 의식 등으로 나타남.
- 공공성, 전문성, 소외계층 지향성은 마포 평생학습관이 지향하는 지역의 연대의식에 기반이 되고 있음.

○ 공적 행정에 기반한 전문성

- 마포평생학습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답게 행정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전문성을 문화예술교육에도 반영하고 있음.
- 공적기관은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현안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반영해야 하며, 이는 전문적 행정능력을 통해 실현됨.
- 행정 편의주의나 관례가 문화예술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마포평생학습관의 응답자는 오히려 행정의 전문성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강사와 지역주민을 충분히 엮는 개인 역량으로 연결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강사진을 양성하는 공적 플랫폼

-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주민강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타 기관들과는 달리 전문강사들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며 전문분야의 퇴직자,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전문

인력을 재교육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 강사진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임.

- 마포평생학습관은 전문강사의 자기계발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강사를 하나로 묶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예컨대 지역주민 가운데 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그러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주민과의 연계를 이루거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왔음.
- 응답자는 행정 전문인력으로써 이러한 문예적 교육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 문화예술과 접목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음.

퇴직자 이후에 초창기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지역의 사각지대에 교육을 제공하다가, 지금은 고령화가 되면서 인력이 많이 남아 기관마다 그러한 인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이어서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하는 역할로 변화해서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분들이 학교에 틈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봉사단이 생겼어요. 그러한 분들이 학교에 투입하는 선순환구조의 시스템을 “서울평생교육봉사단”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봄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역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우선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전문가 과정을 양성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되어 지도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 인문학을 접목한 융합프로그램

-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화예술교육은 도서관, 혹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
- 이를 위해 문화예술과 인문학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컨대 ‘유럽 여행을 떠나는 음악여행’, ‘여행을 떠나는 미술여행’을 같은 융합프로그램 등은 기초 과정에 머물러 있던 강의들을 더욱 마니아들을 위한 심층적인 프로그램들로 발전했음.
- 매번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있는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주민들의 수준이 성장함에 맞춰 기관의 프로그램 수준을 인문학과의 접목을 통해 높여 나감.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단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기획자들의 역량들도 함께 성장하게 됨.
- 마포평생학습관의 융합프로그램들은 도서관과 학습관을 겸하면서 이용자들이 소음 발생에 많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악교육 활동을 인문학적 형태로 변형하는 등의 기획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문화예술도 많습시다. 저희가 악기 종류도 있고 요즘은 인문학 형태로 학문을 통해서 ‘유럽여행을 떠나는 음악여행’, ‘여행을 떠나는 미술여행’ 이라든지 이렇게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영역에는 좀 더 마니아들이 심도 있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성찰과 행정

- 마포 평생학습관은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프로그램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토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다는 대목은 담당자들의 충분한 성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로 보임.
- 응답자는 행정적 편의나 효율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 소외 탈피, 문화적 접근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고 서울시 전체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관리하면서 효과적인 재정사용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 그러한 성찰과 행정력은 매우 중요해 보임.

저희는 평생학습관으로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문예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지역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습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게 학습관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 응답자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두었으며, 이는 공적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행정가로서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시발점으로 보였음.
- 응답자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소외 탈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들고 있음.
- 이러한 공적 의식 속에서 지역주민과 강사를 연계하고, 노년 문맹자에 대한 한글의 깨우침 필요성, 아이들의 창의성 제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사명과 가치는 예산집행의 기관 운영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은지심, 화합, 규합, 회복, 소외극복 등의 최하위 범주에서부터 연대, 호혜, 합의, 역량개발 등의 하위범주, 그리고 사회성, 전문성(개인 및 기관역량) 등으로 범주화되었음.

고령화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이 보다 더 많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예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한글교육에 집착하십니다. 한글을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운 시점이 지나게 되면 내 삶에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마포평생학습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높은 사회성과 전문성
- 마포평생학습관의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성과 전문성으로 차별화될 수 있음.

- 응답자는 사회성 영역에서도 문화예술의 공적책무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보조적 기능을 강조했음.
- 또한 행정력을 매개로 도서관 혹은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의 특성과 문화예술교육을 응용, 융합하는 전문성 역량을 얻을 수 있었음.

1.2.6. 토탈미술관

○ 작가와 주민이 만나는 공간

- 토탈미술관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미술관이며, 지난 십 수 년 간 주류미술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토탈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작가진, 훌륭한 전시기획력을 통해 주민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었음.
- 굳이 전문예술/생활문화의 구분 없이도 문화예술가와 주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예술 그 자체의 목적과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경, 인종, 문화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토탈미술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자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토탈미술관의 작가, 건축가, 디자이너가 인도네시아에 건너가 주민들과 함께 “바틱”이라는 천연 염색을 통해 물품들을 함께 제작했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바틱”의 역사, 재료, 완성된 물품을 패키징하는 방법 등을 진행하고 “바틱스토리”라는 로고까지 만들었음.
- 현재까지 미술관과 지역주민들은 작가들과 메신저를 통해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사진 찍어 올리고 이야기하며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원조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원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빈민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은 사례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바틱”이라고 천연 염색 같은 건데, 근데 애네들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바틱”의 역사가 뭐고 어떤 재료를 하고, 이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형 눈 붙이듯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가님들하고 같이 가서 건축가 분도 있고 디자이너 분들도 있고 해서 로고도 만들어주고 여기는 “바틱스토리”라는 이름도 지었죠. 같이 청소하고 재료 정리도 하고 물품을 만들면 어떻게 패키지를 하는 등등 작업을 했어요.

○ 지역 초등학교 큐레이팅 협업

- 미술관과 순천초등학교와의 협업 또한 토탈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인상적인 사례였음.
- 순천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으며, 토탈미술관의 기획자들은 이 학생들과 큐레이팅 수업을 함께 진행함.
- 방과 후 아이들과 1년 동안 그림, 글 등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고 초청장을 제작하는 등 전시의 전 과정을 모두 함께함.

-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함께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프로젝트를 끝낸 후 많은 변화를 보였음.
- 아이들은 스스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해보았기 때문에 전시에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뮤지엄 에티켓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재 방과 후 큐레이팅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큐레이팅 수업에 관한 교안을 만들고 있음.

순천에 전교생 40명인 되게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5학년 7명이 큐레이터 팀이 되고 애들이 1년 동안 작업했던 거 글 쓰고 그림 그렸던 것들을 모두 큐레이팅하는 과정을 했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으로라서 순천의 문화예술회관을 대관을 해놓고 전시를 도와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 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그냥 애들이 한 거니까, 애들이 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너무 좋다면서 방과 후 팀을 학교에서 만드셔서 애들이 기획을 쓰고 보도자료 만들고 초청장 만들고 디스플레이 다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큐레이터 수업이 약간 복합교육이랄까? 글쓰기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안 만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교육은 만남이다”

- 토탈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폐아들과 협업이 포함되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이전에는 모방만 할 수 있던 아이들이 모두 다른 자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함.
- 여기서 “작가”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데, 상담자나 교육자는 흔히 내담자나 피교육자들의 현 상황을 해석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술가로서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장애인들의 개성들을 존중하고 개방된 의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사과를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왜 사과를 파란색으로 색칠했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사과 되게 멋있다.”라는 칭찬과 함께 인정해 주는 것임.
-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폐를 가진 인원 다섯 명은 가족동반도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해외 워크숍을 참여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보였음.
- 토탈미술관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는 것으로 보임.

복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는데 사과나 이런 것을 그렸는데 사과를 파란색으로 칠하면 왜 사과가 파란색이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작가들은 와서 파란색 사과 되게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가서는 사실 복지관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발작증세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칼이나 가위 같은 것도 잘 안주고 글루 같은 거 못쓰게 하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계속 글루도 쓰고 칼도 쓰고 심지어

튀김까지 하고 그러니까 복지사분들이 되게 긴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고 각자가 좋아하는데 다른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심지어 자폐친구 다섯 명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워크숍을 가족도 없이 갔어요. 근데 그건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폐친구들이 다섯 시간 이상 폐쇄공포 같은 것도 있는데 갑갑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폐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 분들도 말레이시아 가서 자폐기관하고 같이 연계하고 했어요. 굳이 언어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늘었어요.

○ 기획자의 호기심

- 응답자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기획자의 “호기심”을 꼽았음.
- 처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는 관계자들 대부분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찾는 것이 중요했음.
-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지역 주민과 만나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변화 또한 가능했음.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호기심인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할 때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저걸 왜하냐는 친구가 있는가하면 ‘우와 거기는 뭐가 있을까’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기까지 뭐 하러 가냐 생각하면 궁금하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어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하면 책으로라도 공부를 하거나 쌓아질 수 있는데 기획은 사실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 궁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직접 만나본 내가 아는 작가라서”

- 흥미로웠던 점은 토탈미술관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미술관의 가용한 작가 인력풀이 그만큼 풍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음.
- 미술관이 작가들을 주민, 아동, 장애인과 만남을 기획하는 과정은 주민과 예술가 사이의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었음.
- 예컨대 홍순명, 안중현 등의 작가들이 초등학교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은 일상의 물건들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상의 생활에서의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음.
- 작가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현대 미술 뿐만이 아니라 미술관에 대해서 무지하다시피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의 문턱을 낮춰 주고 나아가 고급문화를 향유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주었음.

‘어느 작가님이 대구에서 전시를 하신다.’ 그랬더니 순천 애들이 대구 가서 그 전시를 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작가인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술관이 편해지고 여기서 자꾸 애들한테 만져도 된다. 뛰어놀아도 된다. 그런 거 절대 안하거든요. 저희 관장님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만날 여기는 미술관이니까 뛰면 안 된다고 저한테 혼나요. 근데 만날 야단치는데 저를

굉장히 잘 따라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뛰어다니면 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미술관은 놀이터는 아닌 거니까 공공장소에 대한 교육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인거죠.

○ 문화예술교육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술관에서 전시만을 생각하지만, 기록, 영상처럼 오픈 아카이브 식의 전시도 가능하며, 전시가 꼭 전시장의 형식이 아닌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음.
- 큐레이터라는 직무가 오늘날 프로듀서에 가까우며, 기획자는 작품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야 함.
- 미술관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큐레이터는 멀티자원이 되어야 함.
- 토탈미술관은 이러한 역량들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해 작가들과 큐레이터가 함께 국내, 해외를 넘나들며 시야를 넓히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작가와 기획자가 정기적으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한 변화의 시도를 통해 기획자와 작가들의 협동성, 사회성이 발전하고,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인식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엄밀하게 큐레이터 과정이라기보다는 프로듀싱 과정이라는 게 더 많은 부분이라서요. 큐레이터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작품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 큐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면 미술관 큐레이터는 그걸 하면서 동시에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미술관이 갖게 되는 교육적인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뺏쳐서 나가요. 근데 제가 독립 기획자들을 보면 왜 전시를 만들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전시회 형식이 꼭 전시장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걸 작가도 마찬가지고 큐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월요살롱이라 하는 것도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어떤 전시가 있는지 이 작가는 뭘 고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들을 곳도 없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미술관에서 사실 큐레이터 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 토탈미술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교수역량 및 사회성
 - 토탈미술관의 경우 교수역량 및 사회성 요인이 두드러졌는데, 자발성의 경우 응답자의 호기심과 창의적 프로그램 구성력이 특징적이었음.
 - 중견의 전문작가들과 함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 초등학교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협력하는 등 교수역량에 관한 진솔도 많았음.

- 토탈미술관의 활동에서 점차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을 전업하지 않는 전문작가와 주민, 아이들 사이의 만남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토탈미술관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교수역량으로 보였음.
- 토탈미술관의 운영과 활동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역량의 보조성,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의미 있는 현상임.

1.2.7. 대담미술관

○ 아티스트가 된 향교리 할머니들

- 대담미술관은 전남 담양(담양읍 언골길 5-4)에서 정희남 관장이 설립한 사립 미술관임.
- 대담미술관은 전시장 규모, 레스토랑, 카페, 박물관 등 다양한 분업체제를 갖춘 상당한 수준의 문화기반시설의 면모를 갖춘.
- 대담미술관은 미술관답게 지역작가를 키우고 중앙에서 인정을 받는 국내외의 중견 작가를 초대하는 등 활발한 전시활동을 문화예술교육에 연결하고 있음.

○ 작가가 된 할머니들, 향교리 아티스트

- 대담미술관의 장점은 미술관이 수행하는 예술창작의 장점을 교육활동의 콘텐츠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임.
- 그 대상 또한 일반 관객 뿐 아니라 지역 아동과 지역주민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지역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였음.
- 대담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에 대한 감상, 단순 체험에 머물지 않고 예술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주민, 그것도 노인-할머니들을 예술가로 변모시키고 있었음.
- 예술가로 변모한 할머니들에게 대담미술관은 “향교리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부여했고, 미술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전시회에 참여시켰음.
- “향교리 아티스트”는 단순히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예술가로서의 창작체험을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은 할머니들에게 강렬한 내적 변화를 유발했고, 문화예술교육 활동 또한 미술관 개관 이후 10여 년간 지속되었음.

어머님들이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향교리 화가라고 직업을 드렸죠. 저 어머님들이 미술관 오셔가지고 미술지도를 해주시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평소에는 농사일 밭일 하시다가 미술관 모이는 날이면 오셔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일반 분들 옆에서 가르쳐 드리고 이제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향교리 아티스트라고 부르거든요.

○ 선생님이 된 향교리 할머니

-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대담미술관은 폐쇄적인 순수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사람을 변모시키는 그런 공간이었음.
- 대담미술관이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글을 읽고 쓸 수도 없었던 할머니들을 “향교리 아티스트”로 만들었음.
- 연구자가 주목했던 것은 그들 “향교리 아티스트”-할머니들이 또 다른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교사가 되어 다른 참여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음.
- 할머니들은 창작하는 예술가이자 예술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신안, 보성 등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함께 전시회를 갖고 있음.
- 예술가로서 이들은 자신의 표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교사로서 자신이 체험을 함께 나누며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은 인상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 동네방네미술관, 커뮤니티아트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대담미술관은 다시 미술관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확장하고 있는데,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주민의 활동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
- 대담미술관은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물을 단순히 작품 제작과 전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향교리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고자 함.

지금은 본인도 그림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그림을 저 뒤에 타일이 있잖아요. 저 타일이 다 어머님들이 하신 건데, 지금 어머님들 집 앞에 가시면 저 타일들이 다 붙어 있어요. 명패처럼. 집안 명패처럼 혹은 집 한쪽 벽에 갤러리처럼 한명 한명의 특징을 살려서 갤러리처럼 꾸며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머님들 집 앞에 인테리어도 되지만 또 마을 미술환경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그림을 통해서 마을을 가꾸고.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향교리 전체가 동네방네 미술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단계 쌓아가고 있죠.

○ 포용성, 신뢰, “정말 어린아이아이 같은”

- 문화예술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대담미술관 관계자는 “소통”과 “신뢰”라고 답했음.
- 응답자들이 표현한 소통과 신뢰는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할머니들과의 일치된 소통이었음.
- 그러한 소통과 신뢰는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지향성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 대한 선한 의지를 나누고 쌓아나가면서 축적된 친교를 통해 대담미술관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나 여기는 지역사회고 처음에는 미술관 들어오면서 관장님이 마을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 때부터 계속 쌓아 온 거예요. 미술관 생겼으니까 놀러오세요. 그게 아니라 미술관 지으면서 여기 마을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옆집에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것처럼. 또 명절이면 우리 관장님은 손님 중에 브이아이피(VIP), 상류층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1순위는 향교리 어머님들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 다른 손님들도 대접하시고 우리 관장님께서 마을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을과 함께 가야 우리 미술관도 살고 지역주민들도 살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이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됐지 이게 아니고 그 마인드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문화예술교육

-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이 갖는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예술체험은 그 체험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부심과 일종의 “성취”를 제공해 주는데, 작품은 그 성취의 객관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예술가는 그러한 성취를 이루는 주체이며, 향교리아티스트-할머니들은 이름 없는 시골 농부가 아니라 예술적 성취를 구가하는 예술가이자, 또 다른 관객과 주민을 가르치는 교사라 할 수 있음.
- 대담미술관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아트의 반경 내에서 공동체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보임.

○ 대담미술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전문성과 사회성, 지역공동체성
 -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협력 속에서 운영자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운영자의 가치 지향이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반영되어 있음.
 - 대담미술관의 문화예술 활동은 “향교리아티스트”, “한켄갤러리” 등 지역사회의 특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공동체성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성 가운데 지역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사교성이 중요한 요소로 관찰되었음.

1.2.8. 상상나라박물관

○ 전문성과 체계적 시스템에 기반 한 문화예술교육

- 상상나라박물관은 2013년 서울시의 공립기관으로 건립되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다가 현재 뮤지엄

경영연구소가 위탁받아 운영 중.

-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며, 주로 어린이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많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음.
- 상상나라박물관은 체계화된 조직 운용과 고도의 전문성 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연간회원제를 통한 회원관리

- 상상나라박물관은 다른 문화기반시설들과는 달리 연간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 약 6,500가족, 23,000여명의 연간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들은 보통 연간 5.9회 정도의 높은 이용률을 보임.
- 연간 회원제를 통한 체계적 이용자 관리는 상상나라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조금 드문 케이스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연간 회원제를 운영을 해요. 연회비를 내고 1년 동안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외 박물관은 많이 있는 제도인데 국내는 국립박물관이 다 무료이면서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평균 4회 정도 오면 가능한 비용으로 연회비를 신청해봤는데 연간 회원들이 현재 약 6,500가족 23,000명가량의 연간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횟수가 연회비의 요금보다도 훨씬 높은 5.9회를 이용 하세요. 근 6회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온다는 거죠. 굉장히 자주 찾으시는 관람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 체계적인 인력과 조직 관리

-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직무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인력들의 박물관에 대한 애정을 담보하고 있음.
- 상상나라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박물관 정학예사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7명의 전문 에듀케이터(Educator)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 박물관은 2013년 개관 이후 7년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였고, 직원들의 뛰어난 소속감은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정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박물관 내부 인적자원들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고, 주기적인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 박물관은 건물 청결과 안전, 미화 등 프로그램 외적인 부분까지 관리하면서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상상나라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이 보여주는 체계성과 전문성은 응답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삼성문화재단에서 재직한 경력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기업 조직 운영 경험이 문화예술교육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내부 인적 자원들이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영적인 측면이 굉장히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삼성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을 해요.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보시기 때문에 청소나 미화는 기본적으로 “전시물이 점점 중입니다.” 같은 것들이 일주일이상 가지 않도록 자체 테크니션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 보수하고 전 직원 소방훈련 하는 것부터 안전과 위생 관련된 활동들을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직접 다 느끼시는 거 같아요.

○ 나눔, 소통 그리고 사회성에서 민주시민으로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이 갖는 순수성이나 예술성이 아닌 나눔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인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사회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예술로 인식하고 있음.
- 관계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정서적 변화와 독창성, 창의성, 감수성의 발달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음.
-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은 언어적인 소통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소통활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됨.
- 이러한 과정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점차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움.

문화 다양성 인식인거죠. 예를 들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누게 돼요. 또는 함께 협동해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활동이 일어나요. 언어적인 소통 이외에 질서라던지 다양한 형태로의 소통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성취감을 얻어내면서 모두가 같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표현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몇 살 친구들이고 어디에 살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치 않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수면 아래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공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인 과정이죠.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성

- 상상나라박물관은 문화예술의 사회성은 크게 아이들과 어른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질서를 배우고 소통을 배워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며 문화예술은 순수함을 넘어 사회 재규합의 가능성 즉, 사회성을 가능하게 함.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반면에 사회성이 조금씩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존재감을 표현하는 정서적이고 감수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개인의 정서적인 변화가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협동하고 이런 면이 많아지는 거죠.

- 실버 어르신 자원봉사제를 통해 노인들이 직접 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70여 명의 노인이 주기적으로 박물관에 찾아오고, 심지어 그들이 유치원, 문화의 날 행사에도 참여함.

○ 상상나라박물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상상나라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전문성임.
 - 상상나라박물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했고, 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
 -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성과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예술교육 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임.

1.2.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문화예술교육의 거점들의 거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01년 개관했으며, 전주를 대표하는 문예회관이자 전국적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기관임.
- 일반적으로 문예회관이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외부 전문가 조직이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기관의 위상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예술가를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전문예술교육을 수행 중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문화예술기반 시설 간 기능적 분화와 협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수업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현재 진행 중인 연수 프로그램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며, 강사와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높은 강사 수준과 디테일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 선생님 뿐 아니라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

○ 인생을 바꾸는 문화예술교육

- 강사들은 프로그램에 직접 이용자들을 참여시키고 활동하게 하여 그들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올려주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음.

- 예컨대 표정변화가 없었던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통해 웃음이 생기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능력과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함으로써, 단일 감각을 벗어나기도 함.

변화는 크죠. 가령 아동청소년들 같은 경우 정말 커요. 왜냐하면 그 아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말 저희가 청소년 뮤지컬단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있었어요. 다문화 중학생 쌍둥이 여자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정말 밝을 나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두운 게 아니라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표정이 왜 그래? 재미있는 게 없어? 그랬더니 그 쌍둥이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살면서 재미있다고 느낀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연습하고 공연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갈채도 받고 학교에서 스타가 되잖아요. 그때 애들이 비로소 웃더라고요. 내가 뭔가 인정받은 거 같고 사랑받은 거 같고 그게 그 친구들 일생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이 뮤지컬 배우가 안 되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잖아요.

○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공간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진행 중인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강사 및 유치원 선생님들을 자신들이 수업하는 여섯 살 아이들과 똑같이 대함.
- 참여자들은 실제 교육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그래서 교수진들을 섭외를 해서 팀을 꾸리고 강사와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해요. 유치원에 돌아가서 수업할 수 있도록 여섯 살 아이들 수업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여섯 살이예요 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다보면 선생님들도 재밌고 하루 종일 강의만 듣다 가면 지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 얘기할 때 이 연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장단하나 아니면 판소리 한 대목을 배워 가는게 목적이 아니다. 전통문화 판소리라고하면 누구나 싫어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선생님이 재미있어야 우리 애들한테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선생님들이 볼 때도 판소리를 재미없어 하면 안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바꿔 드리는 게 이 연수의 목적이라고 말해드려요.

○ 다양성의 인정, 대상에 대한 이해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강사들에게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첫째, 타 장르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장르에 대한 선입견은 다른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통합예술교육을 방해할 수 있음.
- 둘째, 바로 수강 대상에 대한 이해이며, 아무리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뛰어나고 수준 높은 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임.

대상에 대한 이해예요. 예를 들어 유아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꽤 떨어진 지역까지 강사 파견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을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미니거점을 하나 뒀어요. 그쪽에서 강사 선생님 한 팀

을 꾸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악, 놀이, 연극 이렇게 세 명이 팀을 꾸려야 하는데 그쪽에서 추천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타악기다보니 동네 어른들이나 대학교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하셨지 유아는 안 해보신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커리큘럼이 뛰어나고 좋고 어떤 훌륭한 스펙을 가진 선생님을 갖다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죠.

○ 함께하는 통합수업

- 일반적으로 통합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한정된 수업시간에 강사 개인들이 할당된 시간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통합수업은 강사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함.
- 통합수업은 놀이였다가 미술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연극수업이기도 하며, 하나의 수업에 여러 장르들의 문화예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 강사들은 본인들의 강의가 끝난다고 수업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강사는 단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며 수업 내내 함께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람임.
- 이러한 수업의 형태는 주로 생활문화예술교육 기관에서 주민강사들에게 높게 나타났던 친화력, 공감능력을 전문 문화예술교육 인력에게 함양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조금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미숙한 단체들은 통합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음악 선생님 한 30분하고 빠지고 놀이 30분하고 빠지고 그런 식인데 저희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전부다 놀이였다가 소리였다가 바로 미술이었다가 연극이었다가 짧은 40분 안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 속에 들어 있다가 바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이 다른 기관과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교육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 거점들의 거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

- 대개 문화기반시설들은 고유의 콘텐츠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복합 문화시설은 콘텐츠를 특정할 수 없음.
- 공연장은 일종의 텅 빈 중립적 공간이지만, 오히려 공연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보유한 규모와 수준은 그러한 협업을 가능하게 함.
- 이를 통해 전문 아티스트들의 공연 뿐 아니라 일반인을 아티스트들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문화 향유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가장 큰 거는 이런 거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관만의 특성이 들어간 콘텐츠인데 박물관, 미술관은 콘텐츠가 고유로 있어요. 미술작품이 있고 박물관 유물이

있죠. 근데 공연장은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공연장, 시설인거죠. 그러니까 뭔가 콘텐츠를 만들기에 그렇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콘텐츠나 다 가능해요.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우수 요인과 특성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탁월한 전문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담당자의 인터뷰 진술은 압도적인 전문성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 인터뷰 방문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가 많지 않았고, 운영 프로그램의 콘텐츠 또한 차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의미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했음.
- 담당자가 강조한 전문성은 대부분의 전문성의 하위 역량들을 망라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규모나 콘텐츠 상의 수준과 차별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향후 문화예술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1.2.10.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교육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남 보령 주교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임.
- 주로 장애아동 대상으로 삼고 있고,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도입하고, 또한 문화예술이 갖는 특성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효과로 변환하고 있음.
-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이 상호 협력하며 서로의 목적을 공유하는 모범적 사례임.

○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흔히 문화예술은 일종의 지적인 교양의 영역으로 주로 문화예술을 영위할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상류층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작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이건 소외된 사람들이 많으며 그 소외된 사람들은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임.
- 특히 장애인 나아가 장애아동은 문화예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자, 그것을 누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이며,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가장 크게 확인하는 대상이기도 함.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관이 지향하는 사회 복지의 목적을 실천하고 있음.

○ 문화예술과 사회복지의 정책적 협력

- 문화예술은 일종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임을 증명해 왔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필요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시각에서도 반복되어 왔는데, 사회복지에서 문화예술은 보조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극적으로 이용되어 왔음.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영역이 경계를 넘어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
-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영역에 개입하는 방식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만날 수 있음.

○ 장애아동의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과 사회복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때로 문화예술의 효과가 사회복지보다 더 사회복지의 목적에 충실한 효과를 내기도 함.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정교하게 고안된 장애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참여 문화예술가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도 매우 유익한 콘텐츠를 보여줌.
-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고립, 외로움, 사회성 결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문화예술교육자로 참여한 무용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내재된 상호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음.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는 공적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문화예술가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상승작용 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저희 장애인들은 사회성이 낮은 분들이 많이 있고 배려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문화예술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또래관계 형성이라든지 상호작용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이 친구 분명히 집에서 티비만 보고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나와서 신체활동을 하면서 많은 신체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심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좋고.

제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욕설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봐요. 말을 안 하던 친구가 이렇게 만나고 활동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이런 모습이 대개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교수역량과 사회성

-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터뷰 진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범주는 교수역량과 사회성으로 보임.
-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가 문화예술교육자가 아닌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수역량이 가장 강조되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교육대상이 장애인, 자폐아동을 다루는 상황에서 교육 강사의 교수역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임.
-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그 성과는 교수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역량에 대한 강조는 복지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 교·강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요인으로 파악됨.

1.2.11. 와촌책마루도서관

○ 문화예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한 주민 자치 도서관임.
- － 대구시 동구, 경산시 하양, 진량에 인접하며, 문화향수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소외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 － 농업 외에 달리 일거리가 없고, ‘장수마을’이라는 타이틀에 암시된 것처럼 노령인구 중심의 오래된 마을에서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여성, 아이들, 그리고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

○ 항상 분주한 사랑방

-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아이들의 공동육아, 공동교육을 지향하는 여성, 학부모가 모여 만들어진 주민자치 공동체임.
- － 현재의 도서관 역시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공간과 책을 마련해가며 출범함.
-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지자체나 중앙 조직을 둔 공적 조직이 아니었고, 와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자발적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라 할 수 있음.

처음에 할 때 문화의집이라거나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동교육, 공동육아처럼 아이들을 함께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원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돈도 십시일반 모아서 필요할 때 모아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기관이 조금 커져서 조금씩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이라던가.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참여 지향적 자발성

-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다름 아닌 “자원봉사”였으며, 누구도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음.
-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정해진 강사, 보조 강사비를 제외하면 어떤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음.
- 따라서 누구도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필요한 일을 함.

월세 외에는 전기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지 않았고 일단 급여가 나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며 봉사를 해주셔서요. 운영비나 월세의 경우도 모두 후원 받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 “우리 아이들 한번 잘 키워보자”, 엄마들의 참여가 마을을 바꾸다

- 도서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아이들 한번 잘 키워보자”는 막연한 동기였는데, 외촌 지역에는 학원도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으며 이웃하는 하양읍 학원이라도 보내려면 번거로운 대중교통과 비싼 학원비를 감당해야 했음.
- 이런 상황에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필요했으며, 엄마들의 참여와 봉사를 이끌어내는 데는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형태였음.
-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엄마들의 아이교육이 지역 공동체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인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또한 함께 성장해야 하며, 마을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임.
- 이러한 활동이 이어져 오면서 도서관의 활동은 점점 확장되었고, 현재는 마을과 지역의 대표적인 비영리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 성장함.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이죠. 그러려면 아이들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 할머니들 또 마을 분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할머니 대상으로도 하고요. 같이 아이들의 창의성이라거나 자율성이나 독서교육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문제라는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애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해보신 분이 잘 이끌어주시고 저희도 하다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점차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그냥 엄마들 차 한 잔 마시고 수다 떨고 좋은 책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책 읽고 하다가 후원금으로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외부 환경에서 안와도 그분들 역량도 키우게 되는 거죠.

○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 기능만 수행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기반시설과 비교해도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음.
- 책 구입이나 기증, 독서모임,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글쓰기대회 참가 등 일반적인 도서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아동), 사랑방특공대(어르신), 플로리스트과정(여성)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음.
- 와촌책마루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정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대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은 참여자의 내면에 잠재한 재능을 발견해서 실현하는 방법으로 생각함.

일단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파는 것 보다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담감이 없어요.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재능을 발견해서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인거 같아요. 사람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 연대감이 주는 행복과 내적 변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아이들, 여성, 어르신,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조직인 운영위원들의 내적 변화를 유발해 나감.
- 계전리 노인 회관에서 진행한 “사랑방특공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평생 처음” 이런 행복을 체험했다고 말하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됨.
- 이번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서관 엄마들에게 안부를 묻고 새 프로그램을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는 등 상호작용들이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음.

우연하게 할머니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꼭 이걸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가나 신체 건강관리 하는 것들이나 노래 같은 것들은 하지만 이런 기획해서 만드는 예술적인 프로그램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해보시고 정말 재미있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려요.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문화예술이 준 새로운 정체성

-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도서관이 생겨나기 전에는 누구 며느리, 누구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어 왔지만 도서관이 생기고 자원봉사를 하게 된 후 그들의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 이제는 선생님이로 불리며 행동들 또한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

면서 내적 성숙을 이루게 됨.

- 응답자 가운데 한 명은 이런 변화를 “도서관 다니는 여자”로, “교양 있는 여자”로 표현함.
- 와촌책마루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주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음.

할머니들이 마을 주민과는 또 다르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실 정도로 대우도 해주셔요. 기운도 많이 받고요. 원래는 누구 머느리 그런 식으로 불리었는데 새로운 일이죠.

저는 대구 살다가 이리로 건너와 가지고 우연찮게 학부님께 영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물어봤다가 여기 왔어요. 여기가 선생님들이 전부 봉사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일본어를 전공해서 나도 봉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인연으로 계속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게 원래는 일본어에 관한 경력이 단절되었던 상태였는데 우연찮게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경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디를 가도 여기서 수업 한 것들이 경력이 되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연하게 왔지만 제 인생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 되게 감사해 하고 있어요.

○ 봉사 품앗이, 봉사는 또 다른 봉사로 이어진다.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서관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자원으로 삼았음.
- 봉사가 다른 봉사로 이어지면서 일련의 사슬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 돈으로 거래되는 교육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선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참여자들은 가치와 다양성을 수용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게 됨.
- 와촌책마루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봉사와 참여의 사슬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임.

학생들도 많이 와요. 학생들이 형, 아우 프로그램이라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이런 식으로 교육봉사를 해줘요. 학원 선생님보다도 더 친절하고 시간들이 없지만 짬을 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죠. 그래서 저희가 멘토·멘티를 맺어줘요.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짜서 매주 와서 공부를 해요.

○ 지역공동체성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지역공동체성을 공동체의 구성원리라고 볼 때 와촌책마루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이 곧 그러한 원리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음.
- 도서관의 문화예술 활동은 봉사의 사슬이 되어 전문예술가, 상인, 주민조직을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로 엮는 공유와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

○ 와촌책마루도서관의 우수 요인과 특성

-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

- 와촌책마루도서관은 지역의 자조적인 문화예술교육 기관이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기관 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의 근거로 활용함.
- 응답자의 진술 역시 대부분 사회성과 지역공동체성 요인으로 분류됨.
- 구성원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였고, 공동의 모금으로 공간을 마련했으며,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진행, 성과관리의 모든 면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성의 관점에서 와촌책마루도서관의 성과는 중요한 참조점이라 할 수 있음.
- 와촌책마루도서관의 운영과 성과는 외부적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 얹힌 봉사의 사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1.3. 문화기반시설 우수사례의 시사점

○ (인과조건)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가능케 한 배태한 사회적 상황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소외,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맥락조건)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유발하는 사회적 배경

-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도농격차,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여성경력단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었음.

○ (중심현상)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문화예술가들의 사회참여

- 문화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접촉면이 늘어나고 있음.
- 커뮤니티예술, 공공미술 등 동시대 예술계의 미학적 흐름의 변화

○ (중재조건) 문화예술교육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

- 정부, 지자체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
-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 등 정책방향의 변화

○ (상호작용) 문화예술교육의 분화: 기초단위-생활문화교육/광역단위-전문예술교육

- 이번 방문 및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문화예술교육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첫째는 전문 예술교육이며, 우리가 이미 순수예술로 규정하는 미술(유화, 동양화, 서예 등), 음악(국악, 악기 등)의 형태이거나 적어도 장르화 된 형태(가요교실, 수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생활문화교육은 기존의 예술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들 예컨대 생활지혜, 음식 만들기, 목공, 골목답사 등을 포함
- 기초단위/광역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양상이 생활문화교육/전문예술교육으로 분화됨.
- 생활문화교육이 주로 지역공동체의 나눔, 호혜, 일상, 공유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전문예술교육은 수강생 개인 예술기량의 증진, 만족감,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상호작용) 주민강사와 전문강사

- 생활문화교육과 전문 예술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교·강사의 형태에서 관찰되었음.
- 생활문화교육의 경우, 지역주민들 속에서 충원되는 주민강사의 경향을 보였으며, 그 원인은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전문강사의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수강생 주민과 강사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였음.
- 전문예술교육의 경우, 대학에서 장르별 순수 문화예술 전공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지역공동체 외부에서 충원되는 경우가 많았음.

○ (상호작용) 교육대상

- 전문예술교육은 주로 노인, 아동, 주부 등 특정한 대상에 수강자격을 부여하고 교·강사/수강생 사이의 비교적 명확한 구분 속에서 프로그램의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음.
- 생활문화교육은 주민강사/주민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적이고, 교·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관계 역시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 생활문화교육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에서 교·강사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강생이 되는 경우도 많았음.

○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상대적 차별화

- 주로 기초단위에서 지역공동체 형성, 유지를 지향하는 생활문화교육이 사회성, 지역공동체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전문성, 교수역량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함.
-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광역단위에서 전문예술교육은 전문성, 교수역량요인이 강하고 지역공동체성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함.
- 사회성은 기초/광역, 생활문화교육/전문예술교육 모두에서 주로 기관 운영자에게 강하게 요구되었음.
- 기초단위-생활문화교육-주민강사/광역단위-전문예술교육-전문강사의 분화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체계,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확보 여부와 밀접한 관계

를 보임.

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 토론회

-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제를 도출하고자 문화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 간의 협력 활동이 긴밀한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관계자들 간의 토론회를 추진함으로써 활성화를 위한 요구와 방안을 살펴봄.

2.1. 추진 개요

- 목적 :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소규모 지역(생활권 내)의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 및 인적역량 강화 활동이 밀도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문화기반시설,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등)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추진함
- 추진일정 : 2019년 11월 8일(금)/ 14:00~17:00, 광주 북구 문화의집 2층 문화관람실

〈표 IV-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토론회 진행 내용

구 분	진행 내용	참석자
진행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기조 발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 소개 및 조사 결과 공유	오레지나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시설 간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과 놀이 (광주비엔날레-미술관-재단 중심 연계)	이은화 (광주시립미술과 문화센터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소리의 전당 특성을 반영한 예술교육 운영 사례	유경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사업팀 대리)
	인적 역량 강화: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문화예술교 육 전문인력(문화기반시설 중심)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토론	시설 간 네트워크	이영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김희련 (문산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운영)
	인적 역량 강화	국승희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간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적 역 량 강화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팀장)

- 추진 방법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현장·학계 관계자, 광주 등 지역 생활권 내 문화 기반시설,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토론회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함. 지역 사례를 토대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은 시설 간의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참여 전문 인력 역량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

2.2. 토론회 주요 이슈 및 논의 사항

-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위치
 -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반시설의 특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함. 즉 문화기반시설의 기본 운영 비전 및 목적, 기능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 종속변수라 보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때는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특성이 반영되게 됨.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핵심 운영 프로그램을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로 기능하거나 시설에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편으로 주민들의 문화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매개역할의 성격이 강함.
 - 문화기반시설의 법적 정의와 특성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이 주요한 목적사업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시민들의 생활의 근거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간 네트워킹 및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
 - 각 시설의 연계와 협력은 자원 공유가 가능한 접근성이 전제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됨. 광주지역의 경우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반시설의 협력이 성공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음.
 - 미술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 자체를 작품으로 구성하여 놀이터로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협력함. 아울러 기획자와 작가뿐 아니라 참여자를 통해 완성되는 교육, 나아가 고정된 분야를 벗어나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나 작업이 단순히 한 두 기관의 기획자와 작가들만의 협업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시설·기관으로 그 공간적 영역을 넓히고 기관장 간의 협업 의지 확충, 비슷한 일을 하는 운영자·기획자·관계자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형성될 때 다양한 영역의 협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 특히 문화기반시설의 네트워킹은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역할과 기능

- 공연장은 하드웨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공연장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즉 하드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 예를 들면 진로탐색 프로그램, 국악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아리랑 수업) 등으로 특성을 갖추거나 참여 접근성을 고려해 가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청소년, 어르신 뮤지컬단을 운영하거나,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이후에 보조강사, 멘토의 역할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늘 과정 속에 있으며 문화를 만드는 일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은 삶과 문화를 바꿀 수 있음. 그러므로 빠른 성과지표보다는 느리고 느슨하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원칙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요구와 지역적 요구를 반영할 때 활성화될 수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교육의 흐름임.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안목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의 전문 인력 활용

-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은 15.6²⁹⁾%정도의 수준임. 물론 16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총 9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수많은 경로 중 하나이며 역량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발급해주는 이수형 자격증임.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며 변수가 많은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를 대상으로 팀을 꾸려 부족한 역량을 다양한 예술분야의 협업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는 시설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역할이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또한 필요하므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9) 15.6% 수치는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임.

서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시설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파견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또한, 문화시설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기획역량, 행정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유아교사연수 프로그램을 3년째 진행하고 있음. 직무연수를 진행하는 각 기관(유아교사 전문)에서 모집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

-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인력은 예술 교수역량을 갖춘 강사 인력과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으로 나눌 수 있음.
- 예술강사 인력의 경우 예술에 관한 교수·학습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술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예술의 전문성 뿐 아니라 교수능력이 동시에 갖춰져야 함. 주로 교수법과 의사소통 능력, 놀이 능력, 학습 대상과의 상호작용, 교육 분석 및 비평 능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의 경우 기획, 평가, 행정, 비평, 분석능력이 중요함. 특히 창의적 기획능력은 주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조화 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적 역량을 토대로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핵심역할은 코디네이팅(매개)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수, 학습자간 역할 조정자이자 매개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맡함.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혹은 예술교사의 필요, 요구(생산)와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수용(소비) 사이에서 효율적인 소통을 매개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의미함. 네트워크를 중요시 여기고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의 역할에 있어서 “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술 등 어떤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대중하고 호호하는 강사도 중요함.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활동비를 받거나 무보수로 활동이 이루어짐.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활동은 활동에 만족감이 저하되거나 지속적 참여 동기를 획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활동이 중단될 수 있음.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꾸준한 역량강화교육, 다양한 현장경험, 정당한 활동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주민들의 삶의 기술과 노하우를 찾아내어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강사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어떻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 문화의집 등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은 첫째, 생활권내 소규모 근린시설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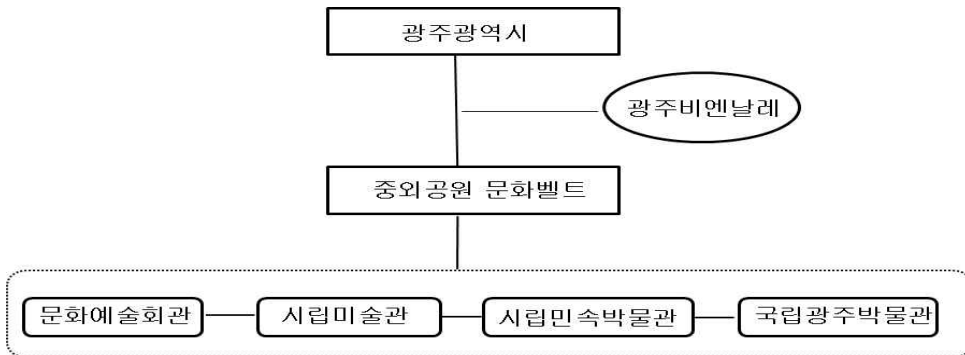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량이 필요함. 둘째, 취향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역량이 요청 됨.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거나 동아리를 섭외하는 것, 나아가서는 단순 취미를 강의실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확장시키는 일, 개별적인 동아리들의 커뮤니티를 엮어내는 활동이 필요함. 셋째,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만드는 역량(스토리텔링 역량)이 필요함. 스토리텔링의 가치지향적인 활동, 인식적 활동, 가공활동, 소통활동은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인 목적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마치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줌. 넷째, 문제의식을 만들어 내고 해결하는 역량이 요청됨. 문제의식을 도출하는 역량은 기획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사항 임. 다섯째, 니즈의 해석 능력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맥락적 니즈를 파악하는 일임. 개인의 성향, 문화적 욕구가 어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니즈의 해석능력은 곧 주민들의 교육적 욕구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단순 욕구를 맥락적 니즈로 발전 시켜내는 지에 대한 것, 즉 교육대상 전략을 구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됨.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정성임. 다양한 프로그램(기간이 일회적이거나, 짧거나, 길거나), 다양한 강사(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등이 존재해야 하며, 시설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적정한 역량과 능력이 요구됨.

3.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사례 : 광주 “아트 피크닉”

-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소규모 지역(생활권 내)의 문화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밀도 있게 운영되고 있는 광주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협업사례로서 광주 “아트 피크닉”을 살펴봄.
- 광주광역시외의 주최로 2016년 광주비엔날레와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행사로 시작되었음. 지역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20년 아시아 문명을 테마로 하는 “아시아 문화정원”을 조성하여 체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 추진하면서 시작됨.
-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V - 5〉 중외공원 문화벨트 협력체계



○ 추진 경과

• 2016년

- ‘가족 예술소풍(Art Picnic)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됨
-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체험·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보고 듣는 예술, 함께 만드는 예술, 놀고 즐기는 예술이라는 3가지 주제로 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시킴.
-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은 각 문화기관별로 추진한 문화아트파크, 문화 이벤트, 공연, 전시 등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동선 체계를 개선함.
- 각 시설, 기관이 적극 협업하고 문화예술회관 꽃길 산책로를 조성해 시립미술관과 시립·국립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외공원 문화벨트 내 다람쥐 순환버스 운행, 명품 테마길 조성, 통합 홍보물 제작,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마련 등을 논의하면서 시작됨.
-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비엔날레 사이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진행됨.

• 2017년

- 중외공원과 자치구 테마공원 일대에 가족 중심의 생활예술 권역이자 광주문화발전의 한 축으로 육성
- 4월~11월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매월 1~3주는 중외공원, 4~5주는 자치구 테마공원일대에서 진행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술관,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작가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으로 진행됨. 그리고 다양한 주체(초·중·고교생)들의 참여와 일반단체, 동아리의 자율적 참여로 공연활동이 진행됨.
- 풍암호수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수완호수공원 등 자치구 테마파크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 2018년

- “힐링소풍을 떠나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토요일 오후2시~6시로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진행됨.
- 프로그램은 상설, 특별, 시즌으로 구분되어 진행됨. 상설프로그램은 어린이·어른 아트스쿨, 아트 직업체험, 아트공방 체험존, 아이돌보미, 아트 블록 놀이터, 아트 휘게실, 색채놀이, 아트 동화나라, 악기 마당, 푸드 카라반, 아트 포토존, 퍼즐 투어 등이 진행됨. 특별프로그램은 반려 식물아트, 아트 앤 쿡, 누구나 아티스트 등이 있음. 시즌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가족 예체능, 모기장 영화제, 물총놀이 등이 진행됨.
- 예년과 다르게 비가 내리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행됨. 대체 프로그램은 어린이 아트스쿨, 아트 직업체험, 일러스트 초상화, 명화 엽서 그리기, 아트 휘게실, 헤어 스타 일링, 보드 게임, 핫플레이스 포토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2019년

- ‘2019 우리 가족 상상놀이터 ART · PICNIC ’으로 3월~10월 매주 토요일 14시 ~18시.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진행됨.
- 2019 아트 피크닉은 아이들, 가족, 함께,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됨.
-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기부/가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됨.
- 2019년 광주시는 비엔날레와 국립박물관을 연결하는 중외공원 공중보행로 조성을 추진하여 고속도로가 관통해 권역의 동선과 기능이 단절되었던 부분을 브릿지를 건설하여 문화 브릿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2020년 아시아 문명을 테마로 하는 아시아 문화정원 조성하여 체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함.

- 시사점

- 광주광역시의 주최로 광주비엔날레와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행사로 시작되어 문화기반시설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와 환경을 조성함.
- 중외공원 문화벨트라는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함.
-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협업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며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가져옴.
- 중외공원 문화벨트 내 문화기반시설들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시민들과 야외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기반시설의 협업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로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함.
- 아시아 문명을 테마로 하는 아시아 문화정원 조성을 위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국립

박물관을 연결하는 문화브릿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사를 확대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의 협업 체계 구축→우천 시 프로그램 개발→문화브릿지 조성 등

- 문화기반시설의 협업체계의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간 협업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특징

- 사례 분석 및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문화기반시설의 유형적 차이 뿐 아니라 지리적 · 문화적 · 행정적 차원의 배후 지역의 성격이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곧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상이하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기관 유형별 목적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별 자율성, 자발성 등이 전제된 협력적 관계가 필요함.

-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장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 정리 될 수 있음.

- (1)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맥락성이 상이함 :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혹은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유효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은 기관 유형 및 목적과 기능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음. 배후지역 자원이 우수한 경우에는 아카이빙,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며, 배후지역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문화소외 계층을 고려해 다수의 프로그램 기획 ·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 위탁 운영의 제한성이 내포되어 있음 : 운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동 범위나 프로그램 성격, 참여도가 영향을 받기도 함.
- (3) 참여 경험의 접근성은 지역적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특화된 비전이나 주요 콘텐츠가 존재함. 역사, 환경, 생태 · 자원, 비즈니스, 노작 등이 여기에 해당됨. 기초단위에서는 일상의 문화에서 지역의 문화로 가치를 연결해 가는 관계 형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추진되기도 하며, 광역단위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폭넓게 추진하거나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방법으로 특화하여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 (4)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인식됨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플랫폼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단위 중심의 문화의집, 문화원에서는 재능기부, 사회공헌 등 자발성과 호혜성의 참여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단순 체험에 머물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모습을 구축하려는 내적 동기가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효용성으로 읽혀지고 있음.

- (5) 주민과의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기초단위의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획단 혹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발견됨.
- (6)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은 기획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문화예술 전공 유무와 관계없이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문화예술 영역과 접점을 찾으려 하면서 단순 강좌 개설이 아닌 기관 정체성을 내포한 프로젝트 기획의 원동력이 되기도 함.
- (7) 참여 강사의 관계 지향적인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강사에게 요구되는 혹은 중요하게 인식되는 역량은 인성, 소통, 연대, 호기심, 신뢰의 태도나 가치들이었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주민 강사, 주민 작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주민이 강사로 성장해 가는 사례도 있음. 광역단위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할 경우, 예술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함.
- (8)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잔존함 :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역 문화기반시설이더라도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존해 기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9) 문화기반시설 간의 협력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촉진 함 :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성과 역량이 결합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연계될 때 역동적인 지역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됨. 이때에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며 지역의 공간,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함. 각 지역의 여건이 상이하기에 지역별 전략이 요청됨.
- (10)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인식과 환경이 상이함 :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지역 플랫폼 공간이지만 문화예술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곳은 아니기에 문화기반시설의 유형 혹은 지리적 접근성³⁰⁾, 운영 주체 성격³¹⁾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의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이 달리 드러남.

30) 광역 혹은 기초단위 지역적 접근성, 그리고 지역적 맥락성

31) 국립, 공립, 사립, 대학

V.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과제

1.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지원체계 구축
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활동 확대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

V.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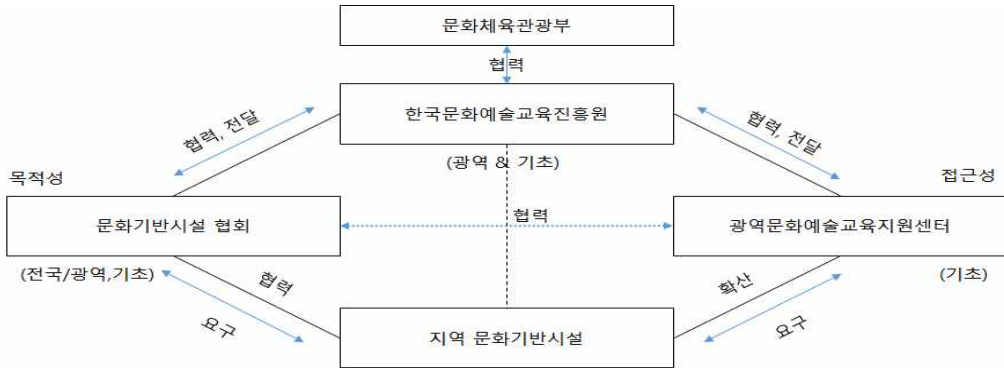
1.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2009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논의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현재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2021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준비를 위한 논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기초단위 지역까지 문화예술교육이 충분히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의는 사업 전달 체계 혹은 공모 사업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잠재해 있음.

- 문화기반시설 관련 문화예술교육은 기관 고유 목적성을 고려한 접근과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가 동시에 요구됨. 아울러 사업 전달 체계보다 협력 관계로서의 추진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 고유 기능과 목적을 기반으로 한 접근성은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를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요청됨. 이때 박물관, 미술관은 기관 규모, 운영 주체 성격에 따라 접근성과 기능이 상이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문화예술회관은 기초/광역단위에 따라 실행 역할이 상이하기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³²⁾가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단순 수혜기관이 아닌 협력 혹은 주체기관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위치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음.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전문가와 연계해 기관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자원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함.

32)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안착되면 이에 대한 역할 제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잔존 함.

〈그림 V- 1〉 지역 문화기반시설 전달 체계³³⁾



〈표 V-1〉 문화기반시설 파트너십을 위한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예시)

구 분	기 능	역 할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개발 기능 협력 및 지원 기능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의 회의 운영 · 의제 발굴 및 지원 제도 모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 조정 기능 협력 기능 컨설팅 기능	· 정책 협력 체계 마련(진흥원↔협회/ 진흥원↔광역센터) ·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고유 목적성 사업, 인력 양성 지원 협력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및 지역 접근성 협력 · 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문화기반시설 대상 사업 협력(예: 유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및 협력 ³⁴⁾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관리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인력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진흥원↔광역센터/협회↔지역 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의 회의 운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코디네이팅 기능 정책 개발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컨설팅 기능	· 문화기반시설 협회, 지역 문화기반시설 대상 네트워크 구축(광역센터↔협회↔지역 문화기반시설)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타 생활문화, 복지, 교육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 담당자, 관계자(강사 및 기획자) 대상 연수 추진 · 시설/기관 지원 방안 구축 · 연구 모임 지원 추진(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컨설팅(매칭) 지원 추진(진흥원↔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33)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기반으로 도식화 한 것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의 역할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34)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2019년에 추진되었으나, 그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구 분	기 능	역 할 (예시)
↑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	정책 지원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코디네이팅 기능 컨설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개발 지원 방안 구축(진흥원↔협회) - 기관장 대상 연수 추진 -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추진 - 기초 단위를 포함한 협회 소속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기관 고유 목적 및 기능, 지역성 강화를 위한 환경 구축 및 공유 - 조사, 통계, 자원 등 연구 기반 마련 - 코디네이팅,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의 회의 협력(진흥원↔협회)
↑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기능 협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참여/ 문화예술교육 협력 혹은 수혜 기관으로의 참여 - 지역 내 전문 인력 발굴 및 역량 강화(광역)/기관 내 인력 역량 개발(기초)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기관 네트워크 참여 및 협력 - 지역 자원의 조사, 공유,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 수립

- 현재 정책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이 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의 역할 제고 및 파트너십이 중요함.
-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의 경우, 기초단위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기관 고유 목적성을 공유하는 코디네이팅 역할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굴·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는 정책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 제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의 연구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문화기반시설과 기초문화재단, 교육,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 자원(기관, 공간, 인력, 단체, 콘텐츠)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기능이 요구됨. 이는 향후 기초 단위에 조성 예정인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역별 자원 조사·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전문 인력 역량 개발 관리가 어려운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매칭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함. 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컨설팅 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시설별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이처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공간과 인적 자원 및 정보 자원을 연계하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후에 주체간의 역할 모색이 필요 함.

코디네이팅으로, 문화기반시설 협회는 기관 고유 목적성을 공유하는 코디네이팅 역할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대를 조성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문화기반시설 협회의 협력 채널 마련이 필요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를 통해 공유되고 개선되는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 조정 기능으로 구체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원 배분과 지원 정책으로 제시되는 파트너십이 요청됨.

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활동 확대

2.1.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시스템 마련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은 다층적이거나 전문 인력 역량 강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임.
-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크게 기관/시설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강사 및 기획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 요구되는 전문성과 활동 환경이 상이하기에 직무(역할)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원 체계가 필요함. 아울러, 직무와 연계된 개인의 역량 개발 뿐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의 조사·연구-기획-실행-관리-평가를 위한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함.
- 지원 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살펴볼 수 있으며 광역단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유형에 따른 기관 운영의 목적과 기능에 준하여 기획형, 학습형, 네트워크형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초단위에서는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 내 유관 기관(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이때에는 기획형, 체험형, 학습형 등으로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각각의 지원 형식 또한 광역과 기초, 혹은 운영 방식의 구분을 넘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기획형의 경우에는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와 참여 강사가 함께하는 연수 및 연구 모임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지원과 관계자들의 자기 개발 환경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함. 이는 연수 시스템 내에서 혹은 컨설팅,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음.

〈표 V- 2〉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체계

구분	대상	광역 (기관 유형 중심/ 목적성)		기초 (지역 일상성 중심 / 접근성)	
		형태	주체	형태	주체
연수 (일시/집중)	기관 관리자	체험형 학습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관 담당자	기획형 네트워크형		기획형 체험형	
	강사 및 기획자	학습형		체험형	
				학습형	유관기관
				기획형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상시/연간)	기관	방문형(매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구모임 지원 (상시/연간)	기관 담당자 및 강사	지역 자원 조사형/ 콘텐츠 개발형/ 네트워크 실행형 (담당자 및 강사 co-work/ 타 기관 결합형으로 추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위와 같은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지원될 수 있음.

〈표 V- 3〉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성격

구분	추진 형식		추진 방향
	형태	초점	
연수 (일시/집중)	기획형	역량 개발	- 기관 담당자 : 지역/생활 단위의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아카이빙, 코디네이팅 포함) 기획 역량 - 강사 및 기획자 : 구체적인 교수 역량이 전제된 프로그램 기획 역량
	학습형		-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화예술의 전문성 · 교육(교수)전문성 역량
	체험형	지식 공유	-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전환의 기회로 제공 - 일상적인 경험이 미적 ·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매개하는 경험으로 작용
	네트워크형		- 기관 콘텐츠, 지역 자원을 결합하고 연계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간의 네트워크, 동료 컨설팅(Peer consulting) 등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커뮤니티의 연결(Link)의 의미를 발견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사전적 경험이자 작업으로 작동
컨설팅 (상시/연간)	매칭형		- 기관별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연구모임 지원 (상시/연간)	지역 자원 조사형 콘텐츠 개발형 네트워크 실행형		- 기관/시설 담당자 및 강사 co-work 혹은 타 기관 결합형으로 추진 - 지역성, 콘텐츠, 지역 공동체성을 이슈로 지속가능한 모임 지원

2.2.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방식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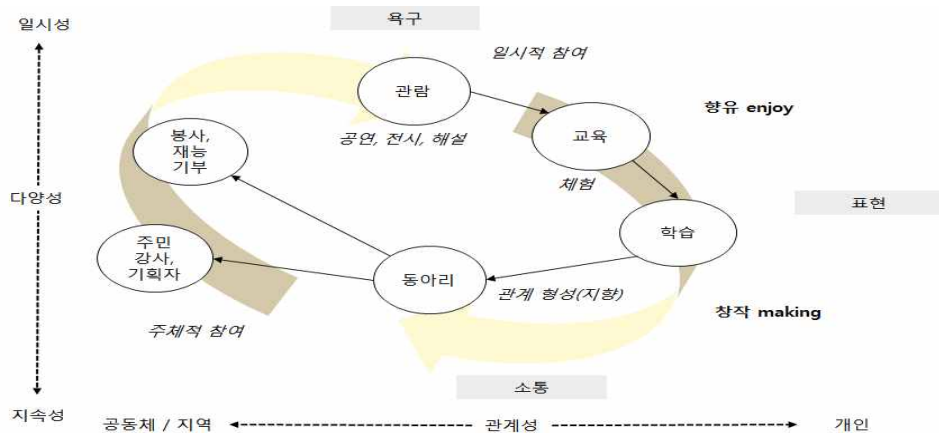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행위는 일회적인 체험에서 벗어나 문화향유로 문화애호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음.
- 문화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던 초기 제한적 모델에서 벗어나 관람, 학습 등 참여 행위로 향유하고 관람, 학습, 표현, 봉사 등 적극적인 참여 행위로 진입하는 애호계층으로 참여 범주를 확장하고 있음. 이와 같이 문화향유 역량을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척되어 왔으며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³⁵⁾임.
-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경험의 깊이, 참여의 접근성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쉽게 발현되는 범주가 아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형태로부터 발현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고 이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표현 방식을 발견하고 지속하는 학습으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토대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며 주체적인 활동을 위한 관계 형성 및 자조 모임, 동아리, 동호회 등의 문화애호로 연결되게 됨.
- 문화애호 계층은 주민강사, 지역주민 기획자로 나아가거나 봉사,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게 됨. 이와 같은 관계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성은 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구조가 다양하고 관계적이어야 함. 어느 특정한 방향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문화예술 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관람(전시, 공연, 해설), 교육(체험)이 문화예술에 관한 자발적 참여의 욕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지점에서 확장될 수 있는 참여 구조<그림 V- 2>가 설계되어야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구조, 즉 생태계적 성격을 고려해 각각의 문화기반시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 경험을 활성화할 것인지 참여성의 내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하겠음.
-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³⁶⁾, 도서관 등이 관람(공연, 전시, 해설)에서 교육(체험)으로, 그리고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층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원, 문화의집 등은 학습에서 자치 모임, 동아리 등 관계 형성으로, 그리고 주민 강사(기획자), 봉사(재능기부)로 연결될 수

35)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36)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문화기반시설이기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한정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연구(2017)'에서 살펴보듯이 교통 접근성이 기초문화재단이 가장 용이하므로 기초문화재단에서 직접 혹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의 역할 제고가 필요 함.

있는 매개자 혹은 플랫폼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함.

〈그림 V- 2〉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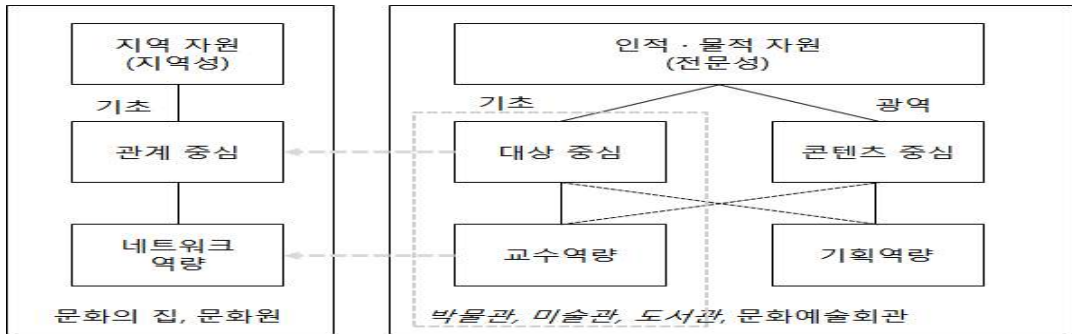
- 특히, 문화예술회관³⁷⁾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및 재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광역단위의 거점이자 기초/생활권 단위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역할 모색이 요청된다 하겠음. 문화예술회관은 광역/기초 단위로 지리적 접근성이 각각 확보되어 있으며 공간 자원 유형(공연, 전시, 강연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기에 이를 활용한 역할이 요청 됨.

〈표 V- 4〉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에서의 문화기반시설별 주요 핵심 위치

구 분	접근성	주요 초점	주요 접근 방식 (예 시)
도서관	기초/생활권 (콘텐츠 중심)	교육(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강연), 소모임 위주의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 기반 문화 읽기(Literacy) 프로그램 문학, 미디어 교육 기반 프로그램
박물관		관람(전시, 해설), 교육(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Collection)을 매개로 한 접근(광역:콘텐츠/기초:주민) 역사, 문화, 전통, 인문 등 주요 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전시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혹은 작가를 매개로 한 접근(광역:콘텐츠/기초:주민) 전시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작가 레지던시 기반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광역(기초)	관람(공연, 전시, 해설), 교육(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과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접근 상주예술단체/공간 기반 진로 체험/감상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자치 모임, 동아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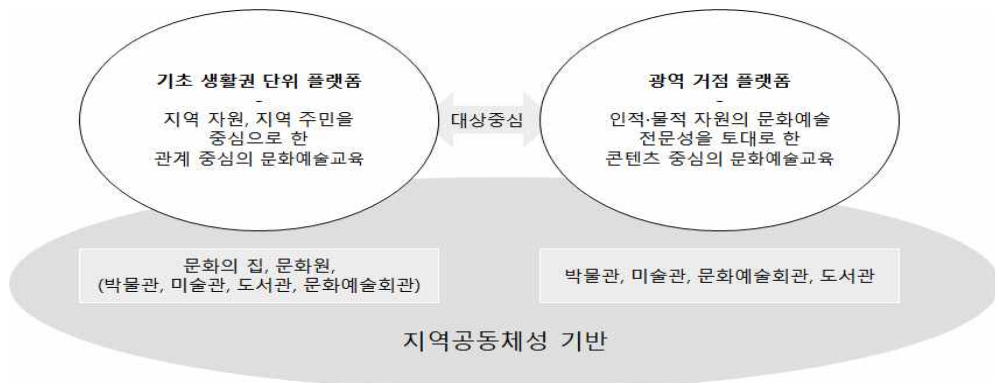
37) 전문성과 지역성을 두루 갖춘 인적·물적 자원은 광역단위 문화예술회관이 더 충분하게 갖추고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그림 V- 3〉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장성(실재적 성격)



- 광역단위에서는 국립, 공립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을 가질 수 있음. 이럴 경우에는 광역 거점 플랫폼 기능을 갖추게 됨.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전문 인력 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뜻함.
- 기초/생활권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즉,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접근성이 낮은(부족) 환경 하에서 참여(향유) 대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 사립 등 민간영역이 주축이 되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상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모델로 기능과 역할이 이동되는 경향을 띠게 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의 특징과 제한적인 자원(인적, 물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결합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띠게 됨.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V- 4〉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협력 추진 체계, 기관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기초 생활권, 혹은 광역 거점이라는 물리적 접근성과 관계 중심 혹은 콘텐츠 중심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예술교육은 콘텐츠(참여 경험) 중심의 공모(단위 사업)지원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대상 중심으로 콘텐츠가 접근된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지역의 맥락성과 기관 고유 기능의 관계에서 특화된 콘텐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광역 혹은 기초단위의 사업 추진 시에도 위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플랫폼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사업방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
-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문화의집, 문화원과 달리 시설 규모, 전문성이 상이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은 특정한 유형으로 군집화 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은 광역 혹은 기초단위에서, 공공(국립, 공립) 혹은 민간(사립, 대학)영역에서 콘텐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혹은 관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재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3.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

3.1. 문화기반시설 인적 역량 강화 연수의 비전 및 전략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술교육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자생력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로부터 비롯되므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표 V-5〉 문화기반시설 인적 역량강화 연수의 비전 및 전략

구분	세부내용	
비전	창의적 교육역량과 실천능력을 갖춘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	
목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	
구성요인	문화예술교육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비전 등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문화기반시설 목적 및 특성
	직무역량	기획역량,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	자발성, 연대성, 공유성, 소속감 등

구분	세부내용			
운영전략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고유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협력과 공유를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질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실천능력 배양			
추진전략	교육지원	환경지원	연구지원	취업지원
	교육체계구축	협업체계 구축	교육과정 구성	취업정보공유
	질 관리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	연수자료 개발	사업정보공유
	컨설팅	아-파일박스 (eFile Box)	연구소모임 지원	전문인력의 매칭

3.2. 연수 모델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

- 기관관계자 설문조사에 기초해 볼 때 기관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의 정도는 ‘문화예술교육사업 인식정도’와 관계성을 가지며, 또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상태에 대한 자평가’, ‘프로그램이 해당기관의 목적, 기능에의 부합 정도 평가’와도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상태와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 의지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와 ‘전문인력(강사)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남.
- 이는 기관관계자의 ‘인적역량 강화의지’를 높이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을 높이게 되며, 그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기관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잦을수록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관관계자의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는 ‘외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한편,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강사) 설문조사에서는 ‘강사 인적역량영역’에서 ‘강사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전문분야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지역공동체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 경력’이 많고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이 길고 ‘강의지역 및 거주지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적 맥락성과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각기 관계 중심형, 대상 중심형, 전문성 중심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지역의 특수성과 맥락성 및 기관의 지향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
- 그러므로 연수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맥락과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해야 함.
-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제 중심 또는 시설 유형별, 사업 유형별 접근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직무역량(기획,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강화하는 형식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V-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 및 내용

NO	구성요인		내용
1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목표, 사업, 정책, 비전 등의 이해
2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문화기반시설의 목적 및 특성
3	직무 역량	기획, 행정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조직, 코디네이팅, 운영, 관리 등
		교육전문역량	문화예술교육지식, 문화예술교육방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4	지역공동체성		자발성, 지역적 연대성, 공유성, 소속감, 관계성, 공동체성 등

○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 강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한계 및 문제점(1순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이 2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이 19.8%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은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목표,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은 일관성 있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인식은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상태와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므로 연수는 문화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정책, 비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및 교육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 문화기반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성 및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양적, 질적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설관계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설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미술관은 89.5%, 박물관은 88.2%로 차별성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도서관은 69.6%, 문화원은 69.2%, 문화의집은 63.6%, 문예회관은 61.9%로 차별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미술관,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획일성, 유사성, 예산 부족, 대중적, 유행 편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음.
-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의 내용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한 Text Mining 분석결과 ‘생각’, ‘강사’의 차별성, 그리고 ‘지역’, ‘아이들’, ‘주민’ 용어의 빈도가 많았음. 이것은 각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의 차별성’, ‘강사들의 차별성’, ‘지역강조’, ‘아이들 강조’, ‘주민 강조’를 스스로의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노력’에 대한 주관식 문항의 Text Mining 분석결과 질적 강화를 강조하는 용어로 빈도가 잦은 것은 ‘개발’, ‘전통’, ‘다양’, ‘연계’, ‘지역’이었음. 이는 각 기관의 질적 강화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전통이 강조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계 프로그램’, ‘지역 연관적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지역사회와 각 문화시설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전문성/적정성, 예술강사/주민강사/기획자, 문화예술교육/생활중심 문화예술교육 등)을 인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를 이룰 때 가능해질 수 있음. 그러므로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와 지역 유관기관(대학), 광역센터를 통해 각 시설의 고유성과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연수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을 해야 함.

○ 직무역량

- 역량이란 개인과 조직의 성공적 성과달성에 핵심이 되면서 관찰, 측정 및 지도 가능한 행위로 표현되는 내재적 특성이라 말 할 수 있음(김기덕, 2007:49). 직무역량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함. 문화기반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매우 그렇다 53.4%)’, ‘강의 외 기타업무(그렇다 50.6%)’, ‘융합교육(그렇다 49.1%)’,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그렇다 46.6%)’ 등으로 답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기획, 행정, 코디네이팅역량 필요)과 일치하기도 함
- **기획, 행정역량** : 문화기반시설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과 강의 외에 기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역량 그리고 학습대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사회문화 활성화를 위한 애니메이터(animateur) 자격제도도 강사의 성격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음(우주희, 2009:180).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핵심역할은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수, 학습자간 역할 조정자이자 매개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혹은 예술교사의 필요, 요구(생산)와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수용(소비) 사이에서 효율적인 소통을 매개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의미함. 교수자와 학습자간 존재하는 요구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낼 수 있는 ‘코디네이팅’ 역량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할이라 할 수 있음(정민룡, 2019:55).
- **교육전문역량** : 교육전문역량은 문화예술교육 지식과 문화예술교육 방법을 포함하는 교육적인 전문성을 의미함. 문화예술교육 지식이란 직무수행에서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이론, 개념들로서 문헌을 통한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 가능한 내용이며, 문화예술교육 방법이란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법을 의미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들 중 문화예술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적인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교수자로서의 지식과 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사회적인 역량은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 연수를 통해서

실천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수의 구성 역량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지역공동체성

- 인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성격적 특성(personality)을 가지듯이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이 갖는 다른 지역의 주민과 다른 어떤 공동의식이나 사회적 성격을 지역공동체성(communality)(정지웅외 3인, 2000:253)이라 할 수 있음. 지역사회 안의 구성원 모두의 특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공유성 내지 공동성의 문화인 지역의 공동체성은 그 지역의 독특한 성격 내지 공통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개인적인 차원의 사회적 역량이 공동체로 확장된 것이 지역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지역의 역사적 전통을 기초로 한 올바른 가치문화 전승 및 지역사회문화의 창조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공동감 형성 및 사회적 공감대 조성(정지웅외 3인, 2000:253)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는 대상이 자신과 자신의 이웃 즉, ‘나-너’, ‘우리’ 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 관심사를 주제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따라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소지역성을 근간으로 접근성, 일상성, 관계성(네트워크)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추진되어지고 있음(정민룡, 2017).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광역센터 및 문화기반시설 등)을 모두 포괄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모두의 참여 하에 지역 주민들의 구성과 수요들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보급, 수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양혜원, 2015).
- 또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공동체성은 강사들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거주 지역 일치’, ‘인적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 평가’, ‘전문분야 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관계성 등이 깊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지역 출신의 강사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속감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과 체계 그리고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 구성도 필요함

3.3. 연수 운영 및 추진전략

3.3.1. 연수 운영전략

○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인력 양성

- 기획형, 학습형, 체험형, 네트워크형 연수를 통해 1)문화향유에서 문화창조로 2)문화교육에서 예술교육으로 3)기술, 방법 중심에서 원리 중심으로 4)지식 이해에서 지식의 활용 및 적용으로 5)지식의 습득에서 자아실현으로 6)모방에서 창조로 7)무가치에서 가치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
- 기획형 연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 프로젝트 기획 역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형 연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식 및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체험형 연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재를 체험하고, 네트워크형 연수에서는 기관 콘텐츠, 지역 자원을 결합하고 연계, 다양한 전공별 전문 인력간의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력과 공유를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자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임. 이를 횡(지역 문화기반시설 간,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간, 기초센터 간, 광역센터 간)과 종(지역 문화기반시설-지역 유관기관(대학)-기초센터-광역센터-진흥원/지역 문화기반시설-기초센터-광역센터-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진흥원)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허브가 필요함.

○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제 중심 또는 시설 유형별, 사업 유형별 접근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성과 시설의 고유성, 그리고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인력 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고유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기초센터, 광역센터, 문화시설협회(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고유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연수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질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기초, 광역, 중앙차원의 연구-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수의 질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수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강사의 역량에 맞추어진 기존의 연수방식으로는 연수의 체계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음, 그러므로 연구를 기반으로 연수내용이 체계화되고 이를 기초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실천능력 배양

- 실천능력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성을 강화했을 때 배양될 수 있음. 이론적인 이해로는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음.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실천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므로 개인과 공동체 즉, 조직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함.

3.3.2. 연수 추진전략

○ 교육지원

- 교육체계구축 : 각 문화기반시설의 목적성 및 지역/생활의 접근성을 기초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 속에서 지역 자원을 발굴, 해석, 공유, 확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질 관리체계구축 : 기초단위에서는 문화기반시설과 기초센터에서, 광역단위에서는 광역센터와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에서 그리고 진흥원에서 각각 연수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연수의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컨설팅 : 연수 기획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연수 계획 및 내용구성, 운영 등 컨설팅 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시설별, 기초센터별, 광역센터별, 협회(연합회)별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환경지원

- 협의체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광역센터, 기초센터는 연수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유기적인 연수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별 · 대상별 · 시설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 체계 운영을 통해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의 현황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음. 또한, 문화예술교육 연수 방향, 내용,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 연수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 : 문화시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도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 기존에 조성된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을 더욱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 시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각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역량은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 **이파일 박스(eFile Box)** : 기존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자료실을 체계화(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문화예술교육과정, 분야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학습대상의 특징 및 문제해결방법, 문화예술 교수학습방법,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검증된 현장의 우수사례, 동영상 자료 등)하여 문화기반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및 전문인력들이 쉽게 접근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통해 각각의 연수가 자기주도적인 심화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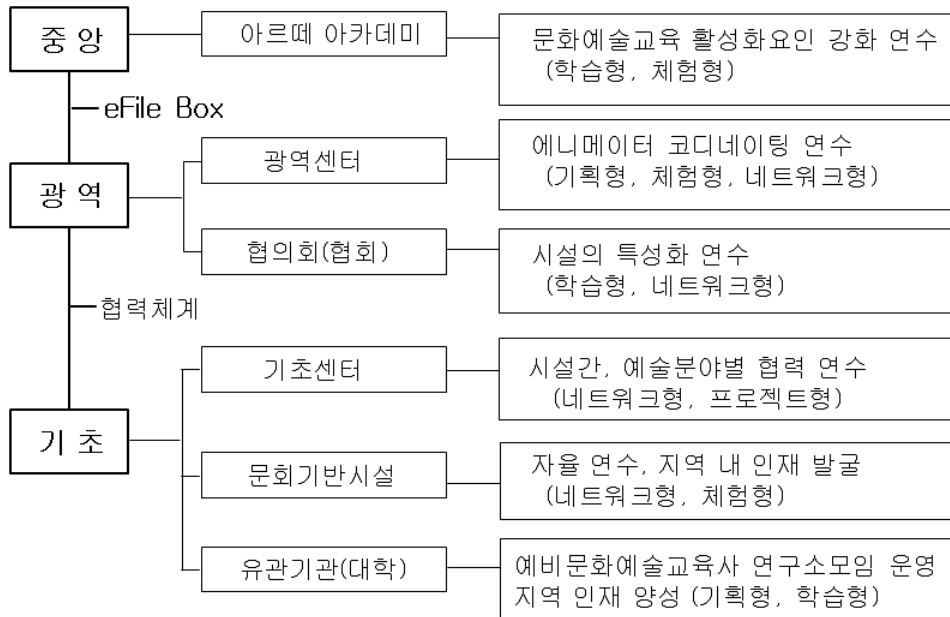
- **교육과정 구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광역지원센터 및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기초센터의 연수자료를 정리하고 문화예술교육과정 및 연수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 이를 위해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 개발** : 기초, 광역, 중앙의 연수 주체들은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연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한 연구지원사업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소모임 지원** : 기초단위에서 연수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모임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심화학습 및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광역단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업지원

- **취업정보공유** : 지역단위, 광역단위의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취업정보를 연수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지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사업정보공유** : 광역단위 및 중앙의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정보를 연수대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지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전문인력의 매칭** : 지역단위, 광역단위, 중앙의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취업으로의 연계도 가능해질 수 있음.

3.4. 연수 운영 및 지원체계

〈그림 V-5〉 연수 체계도



○ 인적 역량 강화 연수 모델의 특징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일관성 확보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성요인에 기초한 커리큘럼 구성
- 개인 및 시설의 요구에 따른 선택형(개인 선택, 공동체 선택 등)
-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지역성과 시설의 고유성을 고려
- 질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연수

○ 연수의 중장기 목표

-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연수의 단기목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을 강화하여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임.
- 연수의 중장기 목표는 연수체계를 지역화하고 문화시설 및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표 V -7〉 연수 중장기 목표

NO	유형	내용
1	단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요인 강화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기초를 구축 - 집체연수 - 연수 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식공유체계 및 인력협업체계 구축 - 집체연수와 On-line연수 병행 - 인적 역량 강화
2	중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수준의 문화예술교육과정 구축 - 자체연수가 가능한 지식공유체계 및 인력협업체계 활성화 - 집체연수와 On-line연수 확대 - 시설 역량 강화
3	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문화예술교육전공자 및 주민강사 등) -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연수 활성화

○ 연수 구성요인에 따른 연수 주체 및 대상

-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연수 주체들의 강점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또한, 연수 대상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연수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에 기초한 학습형, 체험형 연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기획형, 네트워크형, 프로젝트형의 연수는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수 구성요인에 따른 연수 주체 및 대상을 정리하면 〈표 V-8〉와 같음

〈표 V-8〉 연수성격에 따른 연수주체 및 대상

NO	주체	대상	연수성격	구분
1	진흥원	기관장, 연합회(협회)장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 강화 연수	중앙
2	연합회(협회)	행정가, 기획자	문화기반시설의 특성화 연수	광역
3	광역센터	기획자	애니메이터 양성을 위한 코디네이팅 연수	광역
4	기초센터	실행자	시설 간, 예술분야별 협력연수	기초
5	문화기반시설	실행자	자율연수	기초

○ 연수 주체에 따른 연수의 진행 방법

• 중앙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 강화연수

-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기획역량,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 등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
- 이론적인 기초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형과 체험형 연수로 진행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의 구체화 및 연수내용의 구조화, 체계화 필요
- 기관장,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
-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은 기관장,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를 대상으로,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은 행정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기획역량, 행정역량은 행정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교육전문역량은 실행자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성은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

• 광역센터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코디네이팅의 실제에 관한 연수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학습자 요구 분석, 학습자간 매개, 지역의 니즈 분석,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지역자원과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학습자, 지역 기반 효율적인 소통과 매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기획형과 체험형, 네트워크형 연수로 진행
-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팅의 실제에 관한 연수내용의 체계화, 구체화 필요
- 기획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

• 협회(연합회) : 문화기반시설의 특성화 연수

-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목표, 비전,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 전략 및 사례, 네트워크 전략 및 실제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학습형, 네트워크형 연수로 진행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고유성 및 특성에 관한 연수내용의 체계화, 구체화 필요
- 행정가, 기획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

•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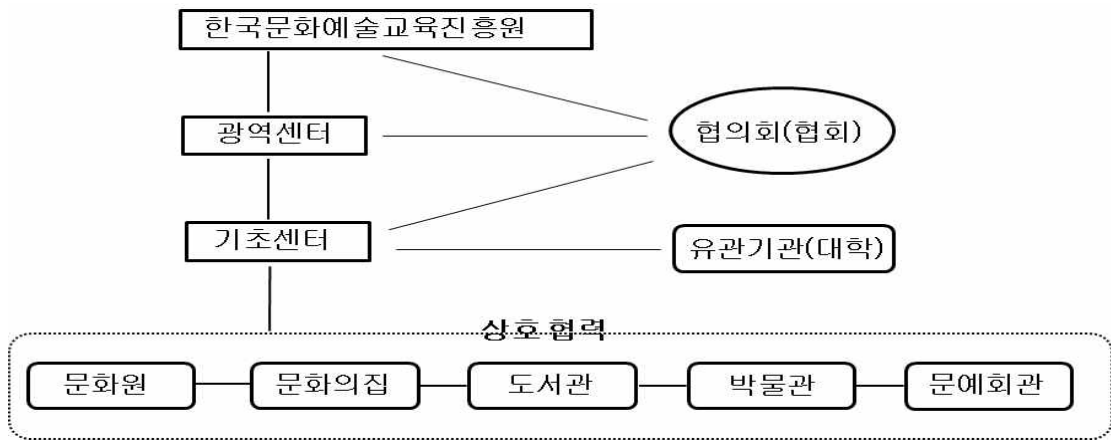
• 기초센터 : 시설 및 예술분야 간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프로젝트형 연수

-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우수사례 워크숍, 문화예술교육현장의 문제해결 워크숍,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등 문화기반시설 간의 협력과 각 예술분야 간의 협력을 기초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네트워크형, 프로젝트형 연수로 진행
- 지역의 현장성을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내용의 체계화, 구체화 필요
- 실행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
- 문화기반시설 : 지역 내 인재 발굴 및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 공동체의식, 유대감,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네트워크형, 체험형 연수로 진행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장성을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연수의 구체화, 다양화 필요
- 실행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
- * 2021년 기초센터 지정 이후, 광역센터-기초센터 간 역할 재설정 검토 필요

○ 연수 운영주체별 협력관계는 <그림 V-6>, 역할은 <표 V-9>와 같음.

<그림 V-6> 연수 운영주체별 협력관계



<표 V-9> 연수 운영주체별 역할

NO	운영주체	역할
1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계획 수립 및 관리, 평가 - 연수 협력 체계 마련(진흥원↔협의/ 진흥원↔광역센터)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에 기초한 연수내용 연구 및 개발 - 문화기반시설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대상 연수 추진 -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대상 연수 추진 - 연수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파일 박스(eFile Box) 조직 및 지식공유체계 운영

NO	운영주체	역할
2	광역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협력 체계 마련(광역센터↔기초센터/ 광역센터↔협회(연합회)) - 문화기반시설 협회, 지역 문화기반시설 대상 네트워크 구축(광역센터↔협회↔기초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지역 중심 코디네이팅의 실체에 대한 연수내용 연구 및 개발 - 기획자 대상 연수 추진 - 문화예술교육 인력풀 구성 -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협업체계 조직 및 운영
3	문화기반시설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협력 체계 마련(협회(연합회)↔광역센터↔기초센터↔문화기반시설/진흥원↔협회(연합회)) - 문화기반시설의 특성화 연수내용 연구 및 개발 - 행정가, 기획자 대상 연수 추진 - 기초 단위를 포함한 협회 소속 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기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협력 체계 마련(기초센터↔광역센터/기초센터↔협회(연합회)/기초센터↔문화기반시설/기초센터↔유관기관(대학)) - 시설 간, 예술분야별 협력 연수내용 연구 및 개발 - 실행자 대상 연수 추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시설 간 협의를 통해 시설의 성격에 맞게 교육프로그램 조정역할 수행
5	유관기관(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연구모임 운영 - 지역 인재양성
6	문화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전문 인력 발굴 및 역량 강화 자체연수 추진 - 지역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에 대해 시설관계자들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 53.4%’, ‘학습대상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38.5%’,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36.0%’, ‘문화기반 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 34.8%’로 응답하였으며. 강사들은 ‘프로그램 기획, 52.7%’, ‘프로그램 개발, 59.9%’, ‘예술전문분야 심화, 51.5%’,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55.7%’,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56.3%’,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53.3%’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양적, 질적 연구 및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연수 현황에 기초하여 볼 때 연수의 내용은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요인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표 V -10〉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강화 연수 구성안

구성요인		내용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비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철학,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 시설의 역할 및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사회변화 속 문화읽기와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목표, 비전,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특성화 전략 및 사례, 네트워크 전략 및 실제 등 시설 및 예술분야 간 협력의 실제 :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우수사례 워크숍, 문화예술교육현장의 문제해결 워크숍,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등
직무역량	기획, 행정역량	문화예술 교육기획, 문화예술 교육행정,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팅,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리 및 운영, 기획 워크숍 등 코디네이팅의 실제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학습자 요구 분석, 학습자간 매개, 지역의 니즈 분석,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지역자원과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학습자, 지역기반 효율적인 소통과 매개 등
	교육전문역량	문화예술교육자의 역량과 역할, 문화예술 교육과정, 문화예술 교육대상의 이해, 학습자의 동기유발, 문화예술 교수학습방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등
지역공동체성		자발성과 동기, 지역사회와 지역자원의 활용, 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인재 양성과 지원, 자치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의 구성과 실제 등

- 연수의 시기는 주말과 방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수 장소는 연수대상자들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 강사들은 적절한 교육(연수) 방법으로 ‘집체연수’ 57.7%, ‘출퇴근 연수’ 25.2%로 응답하고 있음.
- 교육(연수) 불참 이유 1순위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62.8%, ‘프로그램(연수)의 유무를 몰라서’ 25.5%로 응답하였으며, 2,3순위로는 ‘거리가 멀어서’라고 52.6%, 42.3%로 응답하였음.
- 국가수준의 연수교육과정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연수의 효율적인 연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연수 참여자들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VI. 결론 및 제언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토대로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및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연결하고 소통,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지역 공간을 아우르는 물리적·상징적 공간이자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음.
- 문화기반시설에서는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협력기관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기관의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1) 지방문화원은 향토/지역문화를 콘텐츠로, 전통/지역문화의 거점으로 2) 문화의집은 생활문화를 콘텐츠로, 생활문화커뮤니티 거점으로 3)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전시형태로, 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 거점으로 4) 도서관은 인문학을 콘텐츠로, 지역 인문학의 거점으로 5)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각예술/전시 형태로, 참여 대상 및 지역 단위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강화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와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및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는 창의적 교육 역량 증진, 전문 교수법 체득, 예술 전문성 심화,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등을 목표로 실행되며, 다양한 대상에게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체계화된 국가 수준의 연수 교육과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연수 담당강사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및 광역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능력 향상 및 창의적 교육역량 증진 등 교육 현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수를 실행하고 있음.
- 광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는 연수의 일관성 및 지역적 특성이 부족하여 연수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니며, 아르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연수의 위계 또는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유사한 형태의 연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앙차원의 연수

체계 확립이 필요함.

- 전국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기타 중 161개의 문화기반 시설 관계자 및 253명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대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인적 역량강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음.
- 문화기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관관계자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 인식’의 정도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인식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상태에 대한 자평가’, ‘프로그램이 해당기관의 목적, 기능에의 부합 정도 평가’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 의지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와 ‘전문인력(강사)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의 ‘외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잦을수록 ‘지식, 정보 공유와 교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이유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가 71.7%로 가장 많았음.
-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의 기준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진의 판단’이 24.8%, ‘지역특성 반영도’ 13.7%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것에 대한 제 1순위는, ‘예산지원’ 45.7%, 다음으로 ‘전문인력 지원’ 26.6%로 나타남.
- ‘시설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미술관은 89.5%, 박물관은 88.2%로 차별성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도서관은 69.6%, 문화원은 69.2%, 문화의집은 63.6%, 문예회관은 61.9%로 차별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미술관,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획일성, 유사성, 예산 부족, 대중적, 유행 편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음.
-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 능력, 기량에 대한 자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가 50.5%로 가장 많았음.
-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61명 중 7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능력(89.4%)’, ‘해당 기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86.3%)’, ‘학습대상자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85.1%)’,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해도(80.8%)’,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향상(77.1%)’, ‘타 분야와의 융합교육(73.9%)’, ‘문제해결

능력(73.9%)’, ‘전공분야의 전문성(72.8%)’, ‘수준 높은 교수(강의)(63.6%)’, ‘강의 외 기타 업무(62.5%)’로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공동체성은 강사들의 ‘문화예술교육 경력기간’, ‘현 시설에서의 활동기간’, ‘강의/거주 지역 일치’, ‘인적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수준 평가’, ‘전문분야 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관계성 등이 깊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종사방식은 ‘시간제 강사’가 60.2%으로 가장 많고, ‘정규직’은 7.2%이었음.
- 교육 경력기간은 ‘11년 이상’이 30.5%, ‘1~3년’ 20.5%이었음.
- 문화예술교육 종사 동기 1순위에서는 ‘자신의 전문재능을 살리기 위해서’가 46.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도움’이 22.5%, ‘지역민 욕구충족’이 10.8%순으로 나타났음.
- 활동기간별 프로그램(수업)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순위로는,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내용과의 적합성’이 43%로 가장 높았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순위에서는, ‘예산지원’이 30.9%,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25.7%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행 시 한계 및 문제점(1순위)에서는, ‘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마인드 부족(21.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 부족(19.8%)’의 순으로 나타남.
- 외부 네트워크는 72.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네트워크 수는 2.35개로 나타남.
- 외부 네트워크의 종류의 1순위에서는 ‘관련 전공강사 모임’이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 문화예술단체’가 21.2%로 나타남.
- 교류내용 1순위에서는, ‘구성원 간의 정보, 지식, 교환 및 공유’가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적절한 교육(연수) 방법으로는, ‘집체연수’ 57.7%, ‘출퇴근’ 25.2%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연수) 내용 9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함’의 긍정적인 응답이 90%로 넘게 나온 문항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문제해결 능력(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타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교육’ 임.
- 교육(연수) 불참 이유 1순위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62.8%, ‘프로그램(연수)의 유무를 몰라서’ 25.5%로 답하였음.

- 전국 8개 지역, 23곳의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화기반 시설 유형, 교육 대상과 내용의 차별성,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11곳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1)전문성(professionality), 2)교수역량(Instructional method), 3)사회성(sociality), 4)지역공동체성(communality) 등 4개 대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 분석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의 특수성과 맥락성 및 기관의 지향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전달 체계를 넘어 참여 주체간의 사업 추진 체계 수립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각 문화기반시설 협회-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적 논의의 장이 요청되며, 기관 고유 목적성과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문화기반시설 협회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의 협의가 가능한 정책적 환경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기관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 예산지원, 인적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도와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인력 역량 강화와 자기 개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적 구조에서 각각의 위치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핵심 성격을 설정하여야 함.
 - 이는 곧 기초 생활권 단위 플랫폼, 광역 거점 플랫폼으로 문화기반시설의 기능이 재편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함.
 - 특히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은 주체(국립, 공립, 사립, 대학), 접근성(광역, 기초), 자원(인력, 전문성, 콘텐츠) 등이 각 유형 내에서도 매우 상이하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문화기반시설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술교육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자생력은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로부터 비롯되므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그러므로 연수모델 구축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적 특수성과 맥락성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에 기초해야 함. 이에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직무역량(기획, 행정역량, 교육전문역량), 지역공동체성으로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강화하는 형식의 모델을 구축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 및 관계자들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와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구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기관의 인적역량 강화 의지’는 ‘직무관련 지식, 기술개발 노력정도’, ‘전문인력(강사)의 문화예술교육 능력, 기량 평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필요항목에 대한 평가’와 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이를 볼 때 기관관계자의 ‘인적역량 강화의지’를 높이는 것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문인력 인적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 행정역량 및 교육 전문역량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음이 확인되었음
- 설문조사에서 지역공동체성은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의 ‘인적 역량영역의 지식, 경험, 능력 수준 평가’, ‘전문분야 능력’, ‘직무역량’, ‘사회적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 관계성 등이 깊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지역 출신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속감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인적 역량강화 연수는 1)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인력 양성, 2)지역성과 문화기반시설의 고유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3)협력과 공유를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5)질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6)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와 실천능력 배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효율적인 인적 역량강화 연수의 추진을 위해서는 1)교육지원(교육체계구축, 질 관리체계구축, 컨설팅), 2)환경지원(협의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이파일 박스(eFile Box) 운영), 3)연구지원(교육과정 구성, 자료 개발, 연구소모임 지원), 4)취업지원(취업정보공유, 사업정보공유, 인력 매칭)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인적 역량강화 연수의 특징은 1)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일관성 확보, 2)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성요인에 기초한 커리큘럼 구성, 3)개인 및 시설의 요구에 따른 선택형, 4)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체계성 및 효율성 확보, 5)지역성과 시설의 고유성을 고려, 6)질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는 연수로 정리될 수 있음.

○ 연수 운영주체 및 내용, 대상은 <표Ⅵ-1>와 같음

<표 Ⅵ-1> 연수 운영주체 및 내용, 대상

NO	주체	연수성격	연수 내용			대상	구분
1	진흥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구성 요 인 강 화 연 수	구성요인		내용	기관장 행정가 기획자 실행자	중앙
			문화예술 교육의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비전, 가치와 철학 등		
			직 무 역 량	기획, 행정	문화예술 교육기획, 행정, 관리 및 운영 등		
				교육전문	문화예술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개발, 현장의 이해 등		
			지역공동체성		지역자원의 지원 및 활용, 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예술교육 등		
2	협회 (연합회)	문화기반시설 특 성 화 연 수	문화기반시설 고유성 및 특성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목표, 비전, 특성화 전략 및 사례 등	행정가 기획자	광역
3	광역 센터	문화예술교육 코 디 네 이 팅 수 연 수	지역 및 학습자 요구 분석, 지역 기반 효율적인 소통과 매개 등			기획자	광역
4	기초 센터	시 설 및 예 술 분 야 별 수 협 력 연 수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우수사례, 문제해결 워크숍,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 등			실행자	기초
5	문화기반 시설	자 율 연 수	공동체의식, 유대감, 소속감 강화			실행자	기초
6	유관기관 :대학	인 재 양 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소모임 운영			예비문화 예술교육사	기초

2. 제언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성을 고려한 인력개발 및 양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됨.
-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자원에 따라 그것을 문화예술로 활용, 재생산해내는 범위가 상이함. 따라서 지역공동체성은 이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토대가 되어야 함. 동일 기관 유형일 경우에도 지역적 맥락성에 따라 활성화 정도의 기반이 다르게 드러나므로 지역공동체의 인적·물적·문화예술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인적 역량 강화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및 커리큘럼에 기초하는 것도 중요하나 문화예술교육 목표 및 내용을 담아내는 국가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개발을 통해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수준의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목표, 지향 그리고 정책 및 현장을 일관된 시각에서 이해하고 시설별, 장르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함.
-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자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임. 이를 횡(지역 문화기반시설 간,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 간, 기초센터 간, 광역센터 간)으로 종(지역 문화기반시설-기초센터-광역센터-진흥원/ 지역 문화기반시설-기초센터-광역센터-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진흥원)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허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력지원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함.
- 인적 역량 강화 연수는 기초, 광역, 중앙으로 세분화하여 지역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오프라인(Off-line) 연수와 온라인(On-line) 연수를 병행하는 형태가 더욱 발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요구됨.
- 지식 중심의 학습형 연수는 온라인(On-line) 연수로 체험 및 네트워크형 연수는 오프라인(Off-line) 연수로 진행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인적 역량 강화 연수는 자기주도적인 심화학습이 가능해지고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체계와 협업체계를 활성화 하는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의 직접 지원보다는 사업 기획이 가능한 협력 채널(협의 회의)을 지속하거나 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원(인적, 공간, 정보)을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자원 정보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인적 자원(개인, 단체)을 연결하고, 공간 자원(각 시설)을 공유하며, 정보(콘텐츠, 경험 지식)를 공유하는데 정책적 역량 집결이 요구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관기관 (시설형)협의 회의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의 협의 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함.
- 협의 회의를 통해 중앙(전국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체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 조율이 필요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 기초문화재단 및 교육, 복지, 주민자치, 생활문화 등의 기관/시설 정보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및 단체 등 지역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분산되어 있는 인적 자원, 공간 자원, 정보 자원을 지역단위로 조사·아카이빙하고 이와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문화 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간의 협업 가능한 토대 구축이 필요함.
 - 지역 여건에 따라 네트워크 모임, 포럼, 워킹그룹 등을 추진하거나 지역 문화기반시설(기타 시설 포함)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단체가 연결될 수 있는 실무자 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콘텐츠 중심의 정보 자원과 인적 자원, 공간 자원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연수 협력 기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예산)이 필요함.
-
- 문화기반시설 중에서도 운영 주체, 지역적 접근성에 따라 시설의 역량과 역할이 상이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전략 연구가 필요함.
 - 운영 주체별, 광역/기초단위별 프로그램 운영 성격과 운영 가능한 자원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검토가 요청됨.
-
- 향후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이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생활권 단위로 밀착되는 역할로서, 지역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기덕 외 2명(200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직무분석 및 CDP 수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원갑(2011), 생물학적 자기조직화와 현대건축 디자인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70호, 181-190.
- 김윤성(1989). 그림으로 이해하는 생태사상. 개마고원.
- 김지하(1997). 생명과 자치. 숲.
- 문화체육관광부편(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박상희(2017), 지역문화예술교육매개자의 역할 인식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박유신(2017),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조형교육』 62집, 99-123.
- 박인배외 8인(2017).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적 패러다임 연구 보고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사).
- 백령, 김명준외 5명(2012),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三浦雅士(2002). 『考える身体』, 東京:NTT出版社
- 서우석외 6인(2017).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양혜원외 3인(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레지나(2018). 지역공동체성(지역공동체성)communality를 위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9 집 제4호(통권61호), 한국무용교육학회.
- 우주희외5인(2009),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유기웅외3명(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피와이메이트).
- 윤영수(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이보희(2017), 문화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정엽외7인(2018),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재)지역문화진흥원.
- 이호섭(2011),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연계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인식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흥민(2009). 역량평가 - 인적자본 역량모델 개발과 역량평가, 리드리드출판.
- 임재택(2008). 생태유아교육개론. 양서원.
- 임학순 외(2016).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학순외 5인(2018). 2018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민룡(2017),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ate365.
- 정민룡(2019),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인력 및 역량,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
- 정지웅, 이성우, 정득진, 고순철(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齊藤忠彦他4人(2018). 「芸術教育における子供たちの感性の育成に関わる一考察」, 『信州大学教育学

- 部研究論集』, 第12号, pp.123-135.
- 차운정, 전승훈(2009). 숲 생태학 강의. 지성사.
- 추미경 외 5명(2018), 2018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 통계청(2014).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경험 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편(2018). 문화예술교육 평가체계 연구 - 지역협력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지희(2016),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인적·사회적 자본 개발, 전문 직업성 인식과 직무 만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David Burnie(2002). 생태학을 잡아라 (이한음 역). 궁리. (원저 1999년 출판)
- Stephane, Olivesi. (2005). La communication selon Bourdieu. Jeu social et societe. Paris, L'Harmattan, Coll
- 横浜市芸術文化教育プラットフォーム事務局(2018). 『横浜市芸術文化教育プラットフォーム・学校プログラム 平成29年度事業報告書-アーティストが学校へ-』, 横浜市芸術文化教育プラットフォーム.(<https://y-platform.org/>).
-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kr/

부록

부록

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기관 담당자용 설문지

〈기관담당자용〉

ID	
조사장소	
조사일시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인적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지역 거점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에 반영될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기관의 대표성을 띄는 응답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리며 그에 맞는 분이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저희들의 연구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 수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책임연구원 오레지나)

연구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R&D팀

A

기관의 일반적인 사항

A1. 기관명칭																		
A2. 시설 보유여부	① 자체기관 시설 보유____ ② 타기관 시설 임차 또는 임대계약____																	
A3. 회원수 (연평균)	귀 기관은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아래질문으로 ② 아니다. A4로 회원제일 경우에 2019년 회원수(정회원, 준회원 포함)는 몇 명입니까? 명																	
A4. 2019년 이용자 분포	연령대 구분	유아 (만5세 이하)	아동 (만6~11세)	청소년 (만12~17세)	청년 (만18~34세)	중년 (만35~50세)	장년 (만50~64세)	노년 (만65세 이상)	특수 계층 (장애인, 이주민 등)	기타	계							
	이용자 비율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100% (명)							
	<table border="1"> <tr> <td>구분 \ 성별</td> <td>남성</td> <td>여성</td> <td>계</td> </tr> <tr> <td>이용자 비율 (성인기준)</td> <td>약 %</td> <td>약 %</td> <td>100%</td> </tr> </table>											구분 \ 성별	남성	여성	계	이용자 비율 (성인기준)	약 %	약 %
구분 \ 성별	남성	여성	계															
이용자 비율 (성인기준)	약 %	약 %	100%															
A5. 직원 및 교 육 담당인력 (2019년)	전체 직원 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명	명	명	명												
	자원봉사자 수		명															
	문화예술(교육) 인력 수		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인원 수 *1명의 인력이 중복으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비율을 고려하여 작성 (예) 0.5명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문화예술(교육) 인력														
				총인원	자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수급												
명		명	명	명	명	명												

A6.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예산	항목	세부 내용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금액 _____백만원
	지방비(지자체)	금액 _____백만원
	공공기금	금액 _____백만원
	민간지원	금액 _____백만원
	자부담(자체예산)	금액 _____백만원
	타 부처 지원금 예산	금액 _____백만원
	기 타 (회원비, 후원 등)	금액 _____백만원

B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념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공예, 디자인 등 예술 영역과 문화산업, 문화재(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 강좌·강습형, 체험과 실습, 단기 프로젝트(공연 및 전시, 관람 포함), 복합형(관람+체험 등), 기타

B1. 귀 기관에서는 2019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대상 구분	생애주기별							대상별		
	유아 (만5세이하)	아동 (만6~11세)	청소년 (만12~17세)	청년 (만18~34세)	중년 (만35~50세)	장년 (만50~64세)	노년 (만65세이상)	다문화 (부모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포함)	가족 단위	기타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계 (전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B2.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기관의 사업방침(기관대표의 의지) _____ ②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_____
 ③정부(지자체)시책으로 인한 예산지원 _____ ④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_____

⑤기관 홍보_____ ⑥프로그램의 차별성_____

⑦기타()

B3. 귀 기관에서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기획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_____ 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진의 판단_____

③기관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_____ ④지역 특성 반영도_____

⑤지역 보유의 문화예술(교육) 인력 활용 _____ ⑥외부의 지원_____

⑦기타()

B4.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순위별로 3순위까지 체크해 주세요.

(제 1 순위_____) (제 2 순위_____) (제 3 순위_____)

①전문인력 지원_____ ②예산 지원_____ ③인적 역량 강화(관계자 및 문화예술(교육) 인력) _____

④홍보 및 정보 공유 강화_____ ⑤문화기반시설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_____

⑥지역분권화/지역민과의 연계_____ ⑦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_____

⑧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보_____ ⑨문화예술교육 법·정책적·제도적 지원 _____

⑩그 외(직접 기재: _____)

B5. 귀 시설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10점 만점 중에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B6.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종류의 문화기반시설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_____

②아니오 (차별성이 없는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_____

*위의 질문에서 ①예 _____라고 응답하신 분은 B7 질문으로 ②아니오_____라고 응답하신 분은 B8 질문으로

B7. 귀 시설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

B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타 프로그램과 중복 사용되는 경우도 전용공간으로 포함시켜 응답)

①예 _____ ②아니오 _____

*위의 질문에서 ①예 _____ 라고 응답하신 분은 B9 질문으로 ②아니오 _____ 라고 응답하신 분은 B10 질문으로

B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간의 면적은 어떠합니까?

(※ 전용공간이 타 프로그램과 중복 사용되는 경우도 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간 수	()개	면 적	약	m ²
------------------	------	-----	---	----------------

B10. 귀 기관에서는 개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수강료를 받고 있다 _____ ②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다 _____
 ③수강료는 안 받고 재료비만 받는다 _____ ④수강료는 안 받고 기관 회원으로 회비만 받는다 _____
 ⑤기타 방식(*직접 기재 : _____)

B11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 정도로 책정하였습니까?

①10만원 이상 _____ ②7~10만원 미만 _____ ③4~7만원 미만 _____ ④3~4만원 미만 _____
 ⑤3만원미만 _____ ⑥지급하지 않음 _____ ⑦기타(*직접 기재 : _____)

B12. 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수행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평가	B12-1.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_____
		②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 _____
		③보통이다 _____
		④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_____
		⑤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 _____
	B1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문항을 모두 체크 해 주세요)	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부족 _____
		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의 부족 _____
		③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_____
		④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 _____
		⑤예산 및 재정 부족 _____
		⑥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_____
		⑦참여자들의 낮은 호응 및 참여도 _____
		⑧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_____
		⑨문제점 없음 _____
		⑩기타(직접 기재 : _____)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	B12-3.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귀 기관의 인식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①우리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우리 기관은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우리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우리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및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우리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예술교육 목적성

C1. 아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법 상 명시된 목적과 기본원칙 입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 기관이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중요하 다	어느 정도 중요하 다	보통이 다	중요하 지 않다	전혀 중요하 지않다
①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②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③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①	②	③	④	⑤
④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그 외(*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사회적 역량 사항

D1.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교육 전반적인 기획 및 관리() ②교육 프로그램의 직접적 운영 및 강의() ③교육 관련 행정 및 예산() ④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의 보조() ⑤그 외(직접 기재 :)	
D1-2. 위의 활동분야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6개월 미만() ②6~12개월() ③1~3년() ④3~5년() ⑤5년이상()	
D1-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공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그렇다____ ②아니다____
*위의 질문에서 ①그렇다____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질문으로 ②아니다____라고 응답하신 분은 D1-4로	
☞ 보유하고 계신 최종 학위의 전공명과 자격증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학사) _____(석사) _____(박사) _____(자격증)	
D1-4.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____ ②그렇다____ ③보통이다____ ④아니다____ ④전혀 아니다____
D1-5. 본인의 문화예술교육 능력과 역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충분히 갖추고 있다____ ②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____ — ③보통이다____ ④조금 부족하다____ ⑤매우 부족하다____
D1-6. 본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____ ②아니다____
*위의 질문에서 ①그렇다____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질문으로 ②아니다____라고 응답하신 분은 D1-8로	
D1-7. 문화예술교육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____ ②문화예술교육 담당 전문인력 확보____ ③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____ ④문화예술(교육) 인력, 주민과의 협업적 네트워크____ ⑤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____ ⑥기타(직접기재: _____)	
D1-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역량을 강화하려는 귀 기관의 의지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0~10점 사이에 해당되는 점수를 체크해 주세요)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D1-9.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강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②예술 전공분야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③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교수(강의)	①	②	③	④	⑤
④타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⑤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문제해결능력 (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①	②	③	④	⑤
⑦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⑧귀 기관의 고유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①	②	③	④	⑤
⑨귀 기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의 최신 동향 이 해도	①	②	③	④	⑤
⑩강의 외 기타 업무	①	②	③	④	⑤

D2.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D2-1. 귀하 혹은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지식을 공 유하는 외부 네트워크(단체, 기관)가 있습니까?				①있다____	②없다____ ☞ E 로	
*위의 질문에서 ①있다____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질문으로						
D2-2.	☞ 네트워크(단체, 기관 등)는 대개 몇 개 정도입니까? _____개					
D2-3.	시설별 네트워크 정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D2-3.1. 시설유형 (*해당되는 것에 전부 체크해 주세요)	D2-3.2. 연계/협력 형태 (*아래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기재 부탁드립니다.)	D2-3.3. 문화예술교 육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	D2-3.4. 문화예술교 육 관련 상호협력 모임 여부
문화 시설	공연시설	문화예술회관 (종합/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시설	기타 전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	문화의 집				
	복지시설	복지회관				
		문화체육시설				
	문화보급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전수시설	국악원					
	전수회관					
	평생교육시설					
교육연구 시설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행정복지 센터	주민센터					
생활문화 시설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div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선택 항목 </div>						
D2-3.2. 연계/협력 형태	<div>☞ 네트워크와는 어떤 형태의 연계/협력이 있었습니까?(*해당되는 것 전부 작성해 주세요)</div> <div> <div>①문화예술교육 공동 수행</div> <div>②인력 지원</div> <div>③프로그램 개발</div> <div>④장소 제공</div> <div>⑤경비 지원</div> <div>⑥예산 보조</div> <div>⑦기타(해당란에 직접 기재:)</div> </div>					
D2-3.3. 문화예술교 육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	<div>☞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는 어느 정도 입니까?</div> <div> <div>①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div> <div>②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div> <div>③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div> <div>④전혀 공유, 교류가 없다</div> </div>					
D2-3.4. 문화예술교 육 관련 상호 협력 모임 여부	<div>☞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div> <div> <div>①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으로 하고 있다</div> <div>②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div> <div>③안건 혹은 관련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을 하고 있다</div> <div>④거의 하고 있지 않다</div> </div>					

E

응답자 기본 정보

성별	남 _____ 여 _____	연령 (만)	세	현 거주지	_____ 특별·광역시·도 _____ 구·군
직위	(직접 기재) _____				

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인력 설문지

<문화예술(교육) 인력(강사용)>

ID	
유형	
지역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인적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지역 거점으로써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역량개발과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에 반영될 것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저희들의 연구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 수행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책임연구원 오레지나)

연구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R&D팀

A

주요 참여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A1. 귀하께서 2019년도에 활동중인 문화예술교육(강의, 지도, 교육프로그램 등)과 참여시설에 관한 일반문항입니다.

A1-1. 참여하고 있는 시설 수	_____개소		
A1-2. 참여시설종류	*주로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숫자를 작성해 주십시오.		
	①문예회관_____개소 ②문화의집_____개소 ③문화원_____개소 ④도서관_____개소 ⑤박물관_____개소 ⑥미술관_____개소 ⑦학교_____개소 ⑧복지시설_____개소 ⑨평생교육시설_____개소 ⑩생활문화센터_____개소 ⑪기타(_____개소)		
A1-3. 주요 참여 시설 명	*주요 참여시설 3곳 이내의 명칭을 작성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A1-4. 참여시설 성격	*위에 작성된 기관의 운영 주체는 어디인지 그 숫자를 작성해 주십시오.		
	①중앙정부(기관)_____개소 ②지자체_____개소 ③위탁운영시설_____개소 ④사립(개인,기업)_____개소 ⑤기타_____개소		
A1-5. 참여프로그램 수	*위의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총 개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_____개		
A1-6.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종사 방식	①정규직 강사_____ ②시간제 강사_____ ③지원사업을 통한 종사_____ ④자원봉사_____ ⑤기타(직접 기재: _____)		
A1-7.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총 경력 기간	①6개월이하_____ ②6개월~1년이하_____ ③1~3년이하_____ ④3~5년이하_____ ⑤6~10년이하_____ ⑥11년이상_____		
A1-8. 본 문화기반 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간	①6개월이하_____ ②6개월~1년이하_____ ③1~3년이하_____ ④3~5년이하_____ ⑤6~10년이하_____ ⑥11년이상_____		
A1-9.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자신의 전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②자신의 문화예술 능력 발전을 위해서 ③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④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⑤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홍보를 통해서 ⑥그 외(*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 귀하께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수업)을 실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기준)은 무엇
 입니 까? 우선 순위별로 3순위까지 체크해 주세요.

(제 1 순위_____) (제 2 순위_____) (제 3 순위_____)

- ①자신의 전문성과의 교육내용과의 적합성_____ ②수강생의 문화예술 이해 수준_____
- ③수강생의 특성(연령대, 학생, 노인층 등)_____ ④지역주민에 필요한 문화예술 욕구 충족
- ⑤해당지역의 문화예술적 특성_____ ⑥실시 기관의 교육환경(공간, 교육설비, 기자재 등)_____
- ⑦인적, 물적 조건(강사료, 강사대우)_____ ⑧기타(_____)

B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항

B1. 아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법 상 명시된 목적과 기본원칙 입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가 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중요하 다	어느 정도 중요하 다	보통이 다	중요하 지 않다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①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②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③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①	②	③	④	⑤
④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그 외(*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2.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B2-1. 본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국악_____ ②무용(춤,요가 등)_____ ③연극_____ ④영화_____										
⑤만화·애니메이션 _____ ⑥미술(서예포함)_____ ⑦음악_____ ⑧디자인_____										
⑨사진_____ ⑩공예(생활,전통공예)_____ ⑪문학(시, 시조포함)_____										
⑫기타(직접기입: _____)										
B2-2. 위의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본인의 지식 및 경험,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 중에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0점	1	2	3	4	5	6	7	8	9	

B2-3. 귀하가 수업에서 상대하는 주요 학습대상 계층은? (*모두 체크해주세요.)									
생애주기별							대상별		
유아 (만5세이하)	아동 (만6~11세)	청소년 (만12~17세)	청년 (만18~34세)	중년 (만35~50세)	장년 (만50~64세)	노년 (만65세이상)	다문화 (부모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포함)	가족 단위	기타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B3. 귀하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순위까지 체크해 주세요.

(제 1 순위 _____) (제 2 순위 _____) (제 3 순위 _____)

- ①전문인력 지원 _____ ②예산 지원 _____ ③인적 역량 강화(예술전문성과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_____
- ④홍보 및 정보 확산 강화 _____ ⑤지역분권화/지역민과의 연계 _____
- ⑥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_____ ⑦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확보 _____
- ⑧문화예술교육 법·정책적·제도적 지원 _____
- ⑨그 외(직접 기재: _____)

C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역량 사항

C1. 귀하의 전문분야(B3-1.에서 선택한 장르)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① 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전문분야의 역사, 이론, 매체, 작가, 현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전문분야에 대한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전문분야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전문분야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전문분야 작품을 전시를 하거나, 공모전 등에 입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나는 전문분야의 공연이나 전시회를 자주 접해보고 다른 표현 방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창작	①	②	③	④	⑤

자로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C2. 귀하의 문화예술교육의 직무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문항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① 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는 교수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자들이 올바른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학습자들이 예술을 즐겁게 접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다양한 교수방법(강의, 실기, 체험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보조 교재를 적절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다양한 평가방법(사전평가, 교육 중 평가, 교육 후 평가 및 지필평가, 실기평가, 연구평가 등) 을 골고루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⑪ 나는 수업 전 계획서와 수업 진행 후 수업일지, 결과물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후 자료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전문분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⑬ 나는 문화적 다양성(다문화, 연령대 등)을 잘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⑭ 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⑮ 나는 학습자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타 예술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인력들과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수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타 예술장르와의 통합수업을 꾀한다.	①	②	③	④	⑤
--	---	---	---	---	---

C3. 문화예술교육 수행 중 귀하가 접하게 된 한계점 및 문제에 대한 문항입니다.

C3-1. 귀하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학습자)의 인식부족 ②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학습자) 저조 ③기관 혹은 기관담당자의 관심과 마인드 부족 ④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⑤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재료 등) 부족 ⑥처우 부족(강의료 등) ⑦별다른 어려움이 없음 ⑧기타(직접 기재:)	

C4. 귀하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문항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나는 학습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부담 없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여 편안하게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② 학습대상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의사소통, 코칭, 파트너십 등)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나는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창작이나 연주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호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자주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내가 전달한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상대방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단어 및 대화 기술을 구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관계 기관과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나는 해당 지역 전통문화, 역사적 배경과 기능을 습득하여 그 지역의 학습자와 함께 공동체적 작업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나는 관계기관 내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C5.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C5-1.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지식을 공유하는 외부 네트워크 (연구회, 학회, 문화예술단체, 기관 등)가 있습니까?		①있다_____	②없다_____
☞ D1 로			
*위의 질문에서 ①있다_____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질문으로			
C			
5 -	☞ 네트워크는 대개 몇 개 정도입니까? _____개		
2.			
C5	☞ 네트워크(단체, 기관 등)는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해당되는 것 전부 체크해 주세요)		
-3.	①관련전공 강사모임 _____ ②전공 문화예술학회 _____ ③관련 문화예술단체 _____ ④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_____ ⑤정부·지자체 관련기관 _____ ⑥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사적 모임 포함) _____ ⑦외부 네트워크 없음 ☞(3. 질문으로) ⑧기타(직접 기재: _____)		
C5	☞ 위의 네트워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4.	①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으로 하고 있다 _____ ②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_____ ③안건 혹은 관련사항이 있을 때만 모임을 한다 _____ ④거의 하고 있지 않다 _____		
C5	☞ 위의 네트워크의 참석 정도는 어떻습니까?		
-5.	①정기적으로 꼭 참석하다 _____ ②간혹 불참한다 _____ ③한두 번(분기, 1년) 참석한다 _____ ④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_____		
C5	☞ 위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어떤 형태 입니까? (*해당되는 것 전부 체크해 주세요)		
-6.	①구성원들 간의 해당 정보, 지식 교환 및 공유 _____ ②공동 프로그램 개발 _____ ③공동연구 수행 _____ ④공동 작품 창작 _____ ⑤자원봉사 활동 _____ ⑥구성원들 간 유대관계 강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 _____ ⑦소규모 사적 친목 활동 _____ ⑦기타(직접 기재: _____)		
C	☞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식, 정보 공유 및 교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 -	①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_____ ②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_____		
7.	③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_____ ④전혀 공유, 교류가 없다 _____		
C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외의 개별적인 친목 교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5 -	①자주 만나 교류하고 있다 _____ ②가끔 만나서 교류하고 있다 _____		
8.	③전혀 교류가 없다 _____		
C	☞ 소속된 네트워크 내에서 역할(직위)을 맡고 계십니까?		
5 -	①그렇다 _____ ☞ 아래 질문으로 ②아니다 _____		
9.	*맡고 계신 역할(직위)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 (_____)		

D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D1.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그렇다 <input type="checkbox"/> D2로								
		②아니다 <input type="checkbox"/> D9로								
D2.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연수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①참여 중인 문화기반시설_____ 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____										
③그외(직접 기재: _____)										
D3. 최근 2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수의 참여 횟수는 몇 회입니까?										
①1~2회_____ ②3~5회_____ ③5~10회_____ ④10회 이상_____										
D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연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0점에서 최고 10점이라고 할 때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D5.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순위까지 체크해 주세요.										
(제 1 순위_____) (제 2 순위_____) (제 3 순위_____)										
①문화예술(교육) 연수_____ ②수업 컨설팅_____ ③연구모임 지원_____										
④네트워킹과 파트너십 지원_____ ⑤타 강사 수업 참관_____ ⑥멘토링 지원_____										
⑦문화예술(교육)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_____										
⑧기타(직접기재: _____)										
D6.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연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집체 연수 ②출퇴근 ③온라인 ④기타(직접 기재: _____)										
D7.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필요함	어느 정도 필요함	그다지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①프로그램 기획	①	②	③	④						
②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③예술전문분야 심화	①	②	③	④						
④문화예술교육 교수법	①	②	③	④						
⑤학습대상의 이해와 상호작용 방법	①	②	③	④						
⑥문제해결능력 (문제학생 및 돌발상황 해결 등)	①	②	③	④						
⑦타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 교육	①	②	③	④						
⑧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⑨프레젠테이션 능력	①	②	③	④						
⑩강의 외 기타업무	①	②	③	④						
D8.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인적 역량강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0점에서 최고 10점이라고 할 때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D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전부 체크해주세요)

- ①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의 유무를 몰라서_____ ②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_____
- ③거리가 멀어서_____ ④연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_____
- ⑤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_____
- ⑥기타(직접 기재: _____)

E

문화예술교육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관련 사항

E1-1. 귀하께서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하는 주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1순위: _____ (시·도) _____ (구·군) 2순위: _____ (시·도) _____ (구·군)

내 용	매우 그렇 다	어느 정도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E2-1.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2.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되어있다는 느낌 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3. 해당 단체 또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신뢰감 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4. 해당 단체 또는 시설에서의 강의 수강생들과 개인적인 교류 를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5. 강의 이외에도 해당 단체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6. 그 문화예술교육활동의 대상들은 아동·청소년·청장년·노년 등으로 다양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E2-7. 타 지역의 다른 공동체(예술단체, 주민단체 등) 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8. 지역 일반주민들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식, 정보를 소통, 공유하는 체계 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9.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중요성과 가치 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10.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유산의 보존,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다른 공동체와 함께 노력 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2-11.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보존, 발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	---	---	---	---

E3.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보존,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전공분야의 연구_____ ② 교육프로그램의 개발_____ ③ 관련분야 기관(학교, 연구소 포함)과 협업_____					
④ 공모사업 지원과 수행_____ ⑤지역 문화예술 보존단체 활동_____					
⑥ 그 외(직접 기재 : _____)					

F

개인 인적 사항

성별	남_____ 여_____	연령(만)	_____	현거주지	_____ 특별·광역시·도 _____ 구·군
학력	①고졸이하_____ ②전문대졸(재학포함)_____ ③대졸(재학포함)_____ ④대학원(석사)(재학포함)_____ ⑤대학원(박사)(재학포함)_____				
전공	①문화예술체육계열(순수·응용예술,체육,예술경영·기획,예술교육,박물관학,예술사 등)_____ ②인문계열(언어학,철학,역사학,미학)_____ ③사회계열(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문화정보,정치학,교육학,경영·경제학,관광학 등)_____ ④자연계열(공학,자연과학,보건,간호학,의학 등)_____ ⑤기타_____				
유형	*최근 2년 간,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 곳에 해당된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문화예술교육사_____ ②학교 예술강사_____ ③사회 예술강사_____ ④예술가_____ ⑤기타(직접 기재 : _____)				
자격증 여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위의 질문에서 ①예라고 응답하신 분만 다음 질문으로 ②아니오라고 응답하신 분은 출신지역 문항으로 ☞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 (자격증)				
출신지역	*현 거주지와 출신지역이 같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같지 않을 경우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광역시·도 _____ 구·군)				

3. 문화기반시설 인터뷰 질문지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기관담당자용 질문지〉

☐ 연구개요

- 연구명 : 2019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
- 책임연구원(연구단체) : 오레지나(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
- 연구기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 (기관소개)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 (프로그램 내용)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 (강사수급)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어떻게 수급되는지요?
(전문강사/주민강사, 혹은 문화예술교육사 여부)
4. (교강사 역량)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강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외부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 인지요?
6. (개선점)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나요?
7. (지역공동체성(지역공동체성))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기관이 어떤 기여를 수행하고 있는지요?

4.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서면 자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서면 자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을 모색하는 한편 인력 역량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내용은 연구 진행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면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문제는 크게

- 문화기반시설의 현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지원) 체계 및 기능과 역할, 포지셔닝은 어떻게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
- 문화기반시설의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역량과 교육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고 제시되어야 하는가?

로 집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회신일 : 11월 28일(목)

▶ 메일주소 : yskil8211@hanmail.net

▶ 문의처 : 연구원 김영순 (010-2872-8777)

2019. 11. 25

책임 연구 : 오레지나

1.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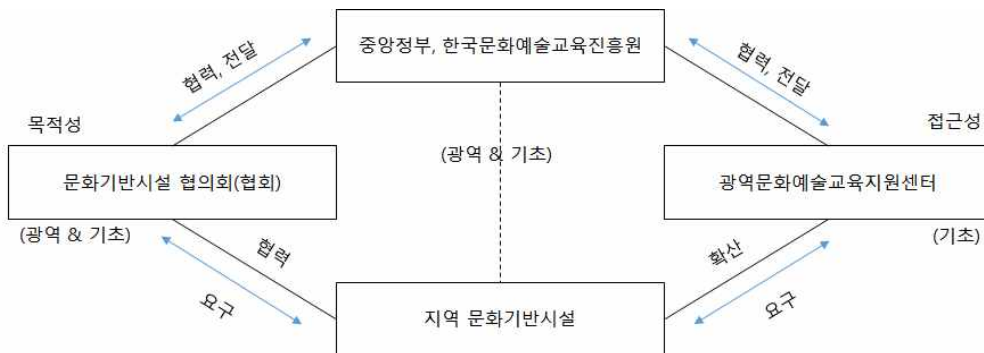
(자료 요약 및 자문 요청 사항)

1-1.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협력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기반 한 효과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전달 체계를 지양하고 각 주체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조 요약 자료> ※ 상세 자료는 별첨.

<그림1> 지역 문화기반시설 전달 체계38)



<표1> 문화기반시설 파트너십을 위한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예시)

구 분	기 능	역 할 (임무 예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책 조정 기능 협력 기능 컨설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협력 체계 마련(진흥원↔협회/ 진흥원↔광역센터) ·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고유 목적성 사업, 인력 양성 지원 협력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및 지역 접근성 협력 - 문화기반시설 대상 사업 협력(예: 유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및 협력39)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관리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인력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진흥원↔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구 분	기 능	역 할 (임무 예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코디네이팅 기능 정책 개발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컨설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회(연합회)의 운영 - 협력 기관형 혹은 수혜 기관형 문화기반시설 대상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타 생활문화, 복지, 교육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 담당자, 관계자(강사) 대상 연수 추진 - 시설/기관 지원 방안 구축 - 연구 모임 지원 추진(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컨설팅(매칭) 지원 추진(진흥원↔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책 지원 기능 정책 개발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개발 지원 방안 구축(진흥원↔협회) - 기관장/관리자 대상 연수 추진 -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추진 - 기초 단위를 포함한 협회 소속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구축 및 공유 - 조사, 통계, 자원 등 연구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회(연합회)의 협력(진흥원↔협회)
↓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기능 협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참여/ 문화예술교육 협력 혹은 수혜 기관으로의 참여 - 지역 내 전문 인력 발굴 및 역량 강화(광역)/기관 내 인력 역량 개발(기초)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기관 네트워크 참여 및 협력 - 지역 자원의 조사, 공유,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 수립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38)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기반으로 도식화 한 것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의 역할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39)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2019년에 추진되었으나, 그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후에 주체간의 역할 모색이 필요 함.

1-2.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적인 차원의 논의입니다. 검토 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인 역량 강화 모델 구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다음에 제시되오니 본 내용에서는 지원 체계에 관한 전체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요약 자료> ※ 상세 자료는 별첨.

<표2>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체계

구분	대상	광역 (기관 유형 중심/ 목적성)		기초 (지역 일상성 중심 / 접근성)	
		형태	주체	형태	주체
연수 (일시/집중)	기관 관리자	체험형 학습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협회)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기관 담당자	기획형 네트워크형		기획형 체험형	
	강사	학습형		체험형 학습형 기획형	유관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컨설팅 (상시/연간)	기관			방문형(매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연구모임 지원 (상시/연간)	기관 담당자 및 강사	지역 자원 조사형/ 콘텐츠 개발형/ 네트워크 실행형 (담당자 및 강사 co-work/ 타 기관 결합형으로 추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표3>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성격

추진 형식		추진 방향
형태	초점	
기획형	역량 개발	- 기관 담당자: 지역/생활 단위의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아카이빙, 코디네이팅 포함) 기획 역량
학습형		- 강사 : 구체적인 교수 역량이 전제된 프로그램 기획 역량
		-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화예술의 전문성· 교육(교수)전문성 역량
체험형	지식 공유	-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전환의 기회로 제공
		- 일상적인 경험이 미적·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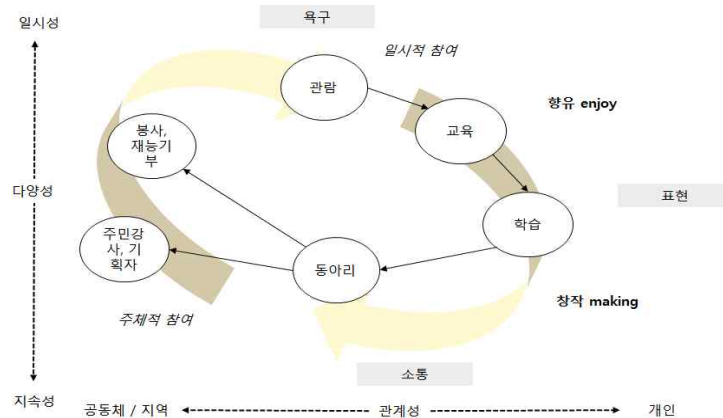
추진 형식		추진 방향
형태	초점	
네트워크형		체험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매개하는 경험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콘텐츠, 지역 자원을 결합하고 연계하는 전문 인력간의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혹은 동료 컨설팅(peer consulting) 등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커뮤니티의 연결(link)의 의미를 발견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사전적 경험이자 작업으로 작동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1-3. 문화예술교육 참여(participation) 구조에서 문화기반시설 위치(positioning)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험 구조를 살펴보고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포지셔닝이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요약 자료> ※ 상세 자료는 별첨.

<그림2>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participation) 구조



<표4>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에서의 문화기반시설 위치

구 분	접근성	참여 구조	참여 내용 및 접근 방식 (예 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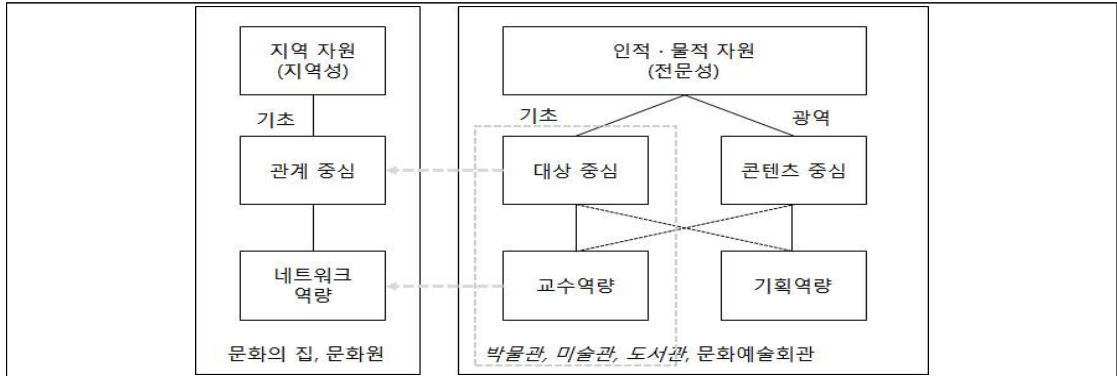
구 분	접근성	참여 구조	참여 내용 및 접근 방식 (예 시)
도서관	기초/생활권 (콘텐츠 중심) ↑ ↑ ↑ ↑ 광역 ↓ ↓ ↓ ↓ ↓ (지역·생활·중심) 기초/생활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강연), 소모임 위주의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 기반 문화 읽기 literacy 프로그램 문학, 미디어 교육 기반 프로그램
박물관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collection)을 매개로 한 접근 역사, 문화, 전통 등 주요 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미술관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혹은 작가를 매개로 한 접근(광역:콘텐츠/기초:주민) 전시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작가 레지던시 기반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과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접근 상주예술단체/공간 기반 진로 체험/감상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전문 인력 및 콘텐츠 발굴·확산 차원의 접근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혹은 역량 강화 프로젝트
문화의집		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사회참여 프로젝트 소모임,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주민)강사 역량 개발 지원 프로젝트
문화원		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대상 및 관계 중심 프로젝트 대상 및 콘텐츠 성격 중심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중심의 프로그램 소모임,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강사 역량 개발 지원 프로젝트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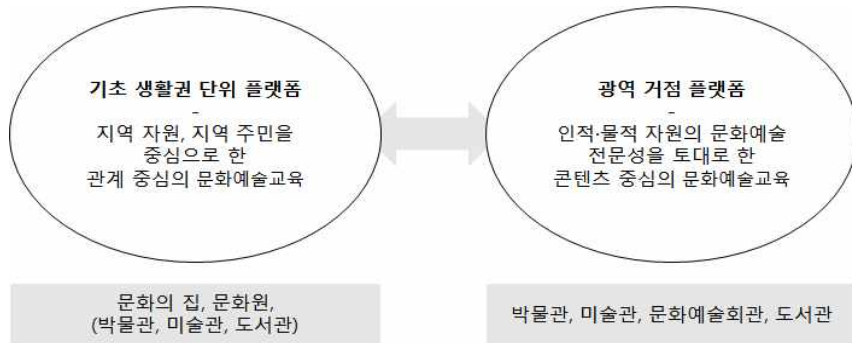
1-4.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 기능 확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화기반시설의 특징을 토대로 플랫폼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은 유형별 고유 목적성과 지역별 환경과 자원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드러나고 있기에 플랫폼의 성격을 범주화하는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토 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요약 자료> ※ 상세 자료는 별첨.

<그림3>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장성(실재적 성격)



〈그림4〉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협력 추진 체계, 기관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기초 생활권, 혹은 광역 거점이라는 물리적 접근성과 관계 중심 혹은 콘텐츠 중심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광역, 기초단위의 추진 체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플랫폼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 체계의 고도화,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은 광역 혹은 기초단위에서, 공공 혹은 민간 단위에서 콘텐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혹은 관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재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기관들은 기초/생활권에서 지역 주민, 지역 문화, 관계 중심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의집, 문화원과 달리 각기 다른 전문성, 지역/시설 자원의 차이, 시설 규모 등이 상이하고 그 차이가 명확하기에 특정한 유형으로 군집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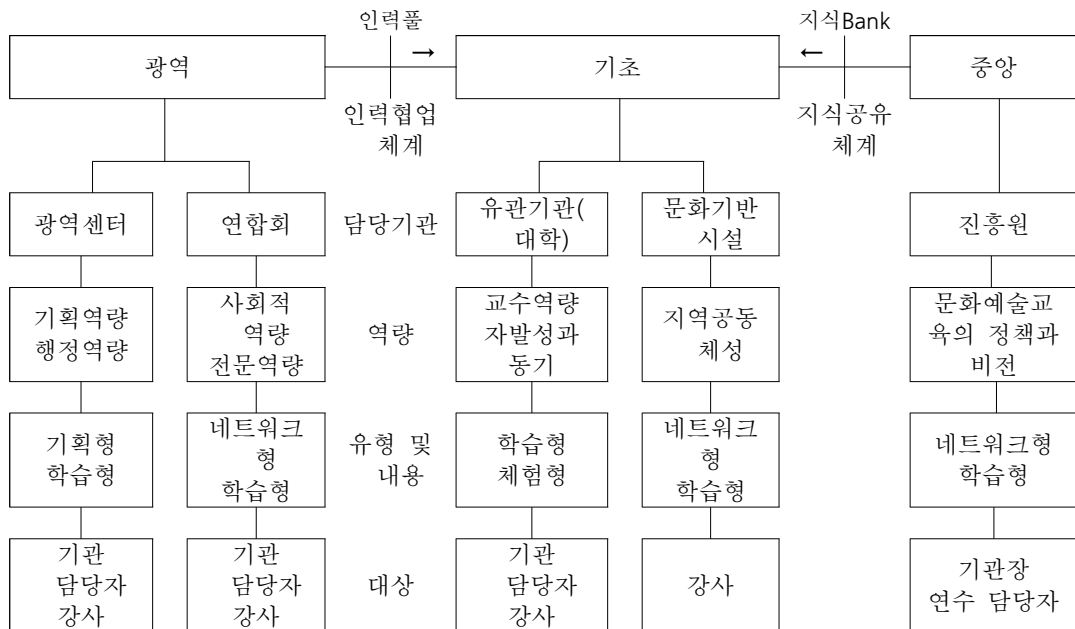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2.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 모델

2-1.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림5〉 인적 역량강화 연수모델

-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일관성 확보
- * 기초, 광역, 중앙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수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 지역성과 시설의 고유성을 고려



- * 광역단위에서 인력풀 및 인력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지원
- * 중앙에서 연구를 통해 축적된 문화예술교육지식을 Bank로 운영, 지식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담당자 및 강사에게 지원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2-2.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표5〉 연수내용 및 대상

NO	연수내용	대상	운영주체	구분
1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비전	기관장	진흥원	중앙
2	연수의 구조 및 역할, 진행방법	광역, 기초 연수담당자		
3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행정	문화예술담당자, 강사	광역센터	광역
4	네트워크 전략 및 실제	문화예술담당자, 강사		
5	시설별 고유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문화기반시설 연합회	광역
6	문화예술교육 방법	강사	기초 유관기관(대학)	기초
7	동기 및 자발성 강화 전략	문화예술담당자, 강사		
8	지역의 특성 및 시설의 특성 (지역공동체성)	강사	문화기반시설	기초

▶ 위원님의 자문 내용은 아래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1.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토대 구축을 위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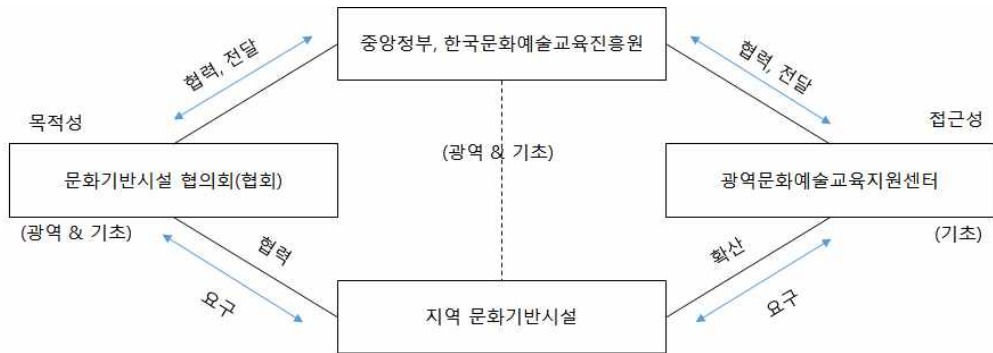
(첨부 자료)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 체계 혹은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실재적인 현상을 탐색하고자 문화예술교육의 참여(participation) 구조와 문화기반시설의 플랫폼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위치와 역할을 모색하고자 함. 문화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관계 요인이 작동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이자 실재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작동하기 때문임.

1.3.2.1.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협력 지원 체계

-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해 필요성이 있음. 2009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논의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현재는 유관기관(문화기반시설)협회(연합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2020년 예비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논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기초단위 지역까지 문화예술교육이 충분히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논의의 주요 이슈는 사업 전달 체계 혹은 공모 사업 중심의 생태계 구성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음.
- 문화기반시설 관련 문화예술교육은 기관 고유 목적성을 고려한 접근과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추진 체계가 동시에 요구됨. 아울러 사업 전달 체계보다 협력 관계로서의 추진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됨.
- 문화기반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그 특성이 상이하기에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협회)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단위에서의 협력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 함. 기관 유형별 고유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광역/기초단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려하는 것을 뜻함. <표 V-3>과 같이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구조를 토대로 살펴보면 박물관/미술관은 전문 인력 교육을, 그 외 문화기반시설은 직접 프로그램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축되어 있기에 기관 유형별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추진 체계의 내실화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특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지역적 접근성, 배후지역의 성격 등 지역적 맥락과 운영 주체가 상이함으로 이를 고려한 추진 체계 수립이 필요 함.

〈그림 V- 1〉 지역 문화기반시설 전달 체계⁴⁰⁾



- 이와는 달리 지역/생활의 접근성은 기초단위에서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⁴¹⁾가 중심이 되어 정책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것 또한 유효한 전략으로 살펴볼 수 있음.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기초단위 문화기반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간주해 볼 때, 각각의 정책 공모사업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이 문화기반시설의 역할 및 기능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요구 됨. 따라서 지역 자원을 발굴, 해석, 공유,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 짓는 기능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요구된다 하겠음.
- o 지역의 자원과 문제, 환경 등이 고려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 사업 수립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역량이 포괄하기 어려운 공간/시설 자원⁴²⁾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의 수월성이 고려된다면 문화기반시설로서의 미션과 역할이 구체화되고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표 V-1〉 문화기반시설 파트너십을 위한 주체별 기능 및 역할 (예시)

구 분	기 능	역 할 (예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정책 조정 기능 협력 기능 컨설팅 기능	- 정책 협력 체계 마련(진흥원↔협회/ 진흥원↔광역센터) · 협회를 중심으로 한 고유 목적성 사업, 인력 양성 지원 협력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및 지역 접근성 협력

40)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현상을 기반으로 도식화 한 것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의 역할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41)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안착되면 이에 대한 역할 제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잔존 함.

42) 협력기관, 수혜기관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적 성격을 고찰한 것임.

구 분	기 능	역 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 대상 사업 협력(예: 유아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및 협력⁴³⁾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AA연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관리자 대상 연수 지원(진흥원↔협회) · 인력 개발을 위한 컨설팅 추진(진흥원↔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회(연합회)의 운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코디네이팅 기능 정책 개발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컨설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기관형 혹은 수혜 기관형 문화기반시설 대상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지역 내 기타 생활문화, 복지, 교육 등 시설/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력 지원 방안 구축 · 담당자, 관계자(강사) 대상 연수 추진 - 시설/기관 지원 방안 구축 · 연구 모임 지원 추진(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컨설팅(매칭) 지원 추진(진흥원↔광역센터↔지역 문화기반시설)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책 지원 기능 정책 개발 기능 협력망 구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개발 지원 방안 구축(진흥원↔협회) · 기관장/관리자 대상 연수 추진 · 담당자, 관계자 대상 연수 추진 - 기초 단위를 포함한 협회 소속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구축 및 공유 · 조사, 통계, 자원 등 연구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시설형) 협회(연합회)의 협력(진흥원↔협회)
↓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기능 협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참여/ 문화예술교육 협력 혹은 수혜 기관으로의 참여 - 지역 내 전문 인력 발굴 및 역량 강화(광역)/기관 내 인력 역량 개발(기초)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기관 네트워크 참여 및 협력 - 지역 자원의 조사, 공유,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 수립

43)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2019년에 추진되었으나, 그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 현재 정책단위에서 협의 ·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이 주체별 기능과 역할(임무)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각 문화기반시설 협회의 역할 제고가 중요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기능이 요구됨. 문화기반시설과 기초재단, 교육,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사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 함. 아울러 전문 인력 역량 개발 관리가 어려운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매칭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함. 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그램 개발 관리,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등 컨설팅 분야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매칭하여 시설별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음.
- 각 문화기반시설 협의체(협회)의 경우, 기초 단위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 개발하여 정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는 정책 개발 및 정책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 제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의 연구 기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1.3.2.2.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시스템

- 지역 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은 다층적이나 전문 인력 역량 강화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함.
- 문화기반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크게 기관/시설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강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 요구되는 전문성과 활동 환경이 상이하기에 직무(역할)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원 체계가 필요 함. (아래의 표는 개별적인 지역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논의 임)
- 아울러 직무와 연계된 개인의 역량 개발 뿐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의 조사 · 연구-기획-실행-관리-평가를 위한 역량 강화 또한 필요 함.
- 지원 체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로 살펴볼 수 있으며 광역단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기반시설 협의체(협회)가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문화기반시설 유형과 기관 운영의 목적과 기능에 준하여 기획형, 학습형, 네트워크형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기초단위에서는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 내 유관 기관(지역 대학)이 중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후에 주체간의 역할 모색이 필요 함.

심이 되어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이때에는 기획형, 체험형, 학습형 등으로 지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각각의 지원 형식 또한 광역과 기초, 혹은 형식간의 구분을 넘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기획형의 경우에는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와 참여 강사가 함께하는 연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o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관계자들의 자기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이는 연수 시스템 내에서 혹은 컨설팅,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음.

〈표 V- 2〉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 및 자기 개발 지원 체계

구분	대상	광역 (기관 유형 중심/ 목적성)		기초 (지역 일상성 중심 / 접근성)	
		형태	주체	형태	주체
연수 (일시/집중)	기관 관리자	체험형 학습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기반시설 협회(연합회)(협회)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관 담당자	기획형 네트워크형		기획형 체험형	
	강사	학습형		체험형 학습형 기획형	유관기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상시/연간)	기관			방문형(매칭)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구모임 지원 (상시/연간)	기관 담당자 및 강사	지역 자원 조사형/ 콘텐츠 개발형/ 네트워크 실행형 (담당자 및 강사 co-work/ 타 기관 결합형으로 추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o 연수 형식으로 추진되는 역량 강화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분화하여 추진할 수 있음. 특히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지식 공유 차원에서의 자기 개발이 가능한 연수 지원도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전문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V- 3〉 지역 문화기반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성격

추진 형식		추진 방향
형태	초점	

추진 형식		추진 방향
형태	초점	
기획형	역량 개발	- 기관 담당자: 지역/생활 단위의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아카이빙, 코디네이팅 포함한) 기획 역량 - 강사 : 구체적인 교수 역량이 전제된 프로그램 기획 역량
학습형		-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문화예술의 전문성·교육(교수)전문성 역량
체험형	지식 공유	-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역량을 발전시키거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전환의 기회로 제공 - 일상적인 경험이 미작·예술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매개하는 경험으로 작용
네트워크형		- 기관 콘텐츠, 지역 자원을 결합하고 연계하는 전문 인력간의 학습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혹은 동료 컨설팅(peer consulting) 등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커뮤니티의 연결(link)의 의미를 발견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사전적 경험이자 작업으로 작동

1.3.2.3. 문화예술교육 참여(participation) 구조에서 문화기반시설 위치(posi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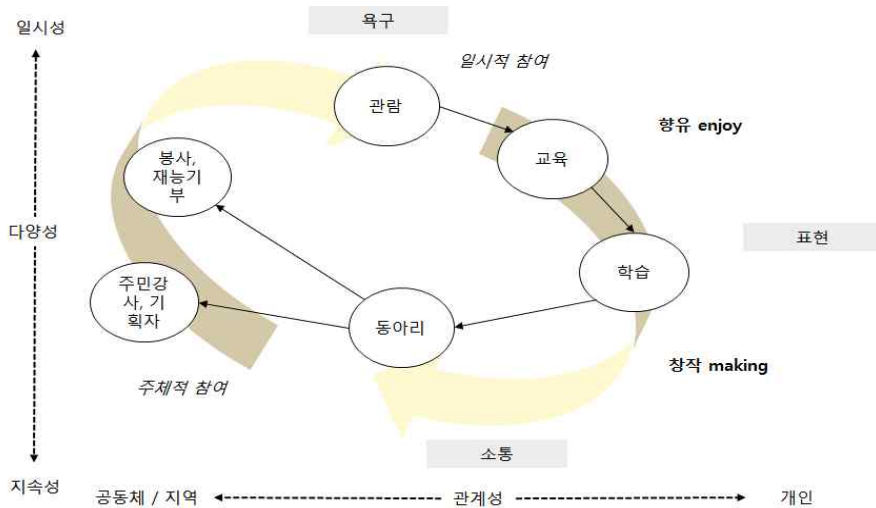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행위는 일회적인 체험에서 벗어나 문화향유(some engagement)로 문화애호(highly engaged)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음
 - 문화소외(not currently engaged)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던 초기 제한적 모델에서 벗어나 관람, 학습 등의 참여 행위로 향유하는, 그리고 관람, 학습, 표현, 봉사 등 적극적인 참여 행위로 진입하는 애호계층으로 참여 범주를 확장한 것임.
 - 이와 같이 문화향유 역량을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척되어 왔으며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스스로 체험하는 경험의 기회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참여자가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는 사업이 구축⁴⁴⁾됨과 동시에 기존 단위사업 내에서도 학습, 관람 등의 향유를 넘어 주체적인 참여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 경험의 깊이, 참여의 접근성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쉽게 발현되는 범주가 아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형태로부터 발현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것을 직접 경험(체험)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고 이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표현 방식을 발견하고 지속하는 학습으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토대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체적인 활동을 위한 동아리, 동호회 등으로 결집되는 문화애호(highly engaged)로 연결되게 됨.
 - 그리고 문화애호 계층은 주민강사, 지역주민 기획자로 나아가거나 봉사,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가게 됨. 이와 같은 관계성에서 문화에

44)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술교육에 대한 참여성은 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구조가 다양하고 관계적이어야 함. 어느 특정한 방향이 반드시 존재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문화예술 경험이 낮은 경우(not currently engaged)에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관람, 교육이 문화예술에 관한 자발적 참여의 욕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지점에서 확장될 수 있는 참여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그림 V- 2〉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participation) 구조



- 초기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이를 고려해 단순 강좌, 전달식 혹은 강의(전수)식 프로그램 제공을 지양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 경험의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식을 고심하였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⁴⁵⁾, 도서관 등이 관람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층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원, 문화의집 등은 학습에서 동아리, 그리고 주민 강사(기획자), 봉사(재능기부)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자 혹은 플랫폼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함. 이와 같은 참여 구조가 전무한 것은 아니나⁴⁶⁾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물리적 접근성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 즉, 생활권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함.

45)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문화기반시설이기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한정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연구(2017)'에서 살펴보듯이 교통 접근성이 기초문화재단이 가장 용이하므로 기초문화재단에서 직접 혹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의 역할 제고가 필요 함.

46) 우수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참여 구조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참조로 역량 강화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문화예술회관⁴⁷⁾은 광역을 중심으로 한 직접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혹은 재교육 기능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체계(접근성)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광역단위의 거점이자 기초/생활권 단위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함.

〈표 V-4〉 문화예술교육 참여 구조에서의 문화기반시설 위치

구 분	접근성	참여 구조	참여 내용 및 접근 방식 (예 시)
도서관	기초/생활권 (콘텐츠 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강연), 소모임 위주의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학 기반 문화 읽기 literacy 프로그램 문학, 미디어 교육 기반 프로그램
박물관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collection)을 매개로 한 접근 역사, 문화, 전통 등 주요 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미술관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혹은 작가를 매개로 한 접근(광역:콘텐츠/기초:주민) 전시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작가 레지던시 기반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광역	관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과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접근 상주예술단체/공간 기반 진로 체험/감상 프로그램 지역 문화예술인 연계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역 내 전문 인력 및 콘텐츠 발굴·확산 차원의 접근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혹은 역량 강화 프로젝트
문화의집	(지역-생활 -중심) 기초/생활권	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사회참여 프로젝트 소모임,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주민)강사 역량 개발 지원 프로젝트
문화원		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반 대상 및 관계 중심 프로젝트 대상 및 콘텐츠 성격 중심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중심의 프로그램 소모임,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강사 역량 개발 지원 프로젝트

1.3.2.4.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문화기반시설 기능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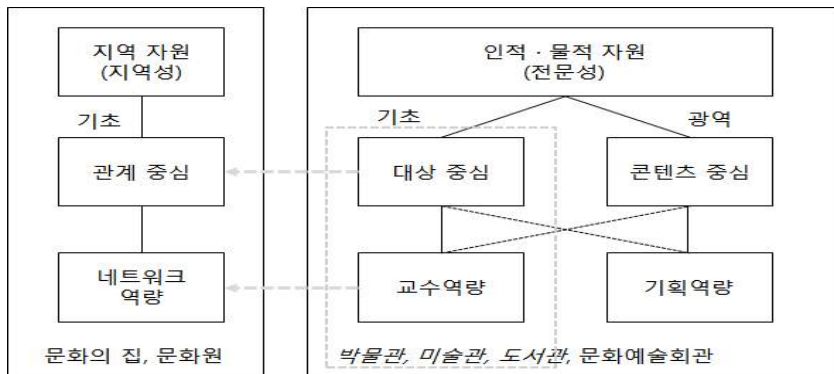
- 앞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혹은 수혜 기관으로 관계 맺거나 기관 고유의 기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 함. 결국 문화기반시설의 특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음. 문화에

47) 전문성과 지역성을 두루 갖춘 인적·물적 자원은 광역단위 회관이 더 충분하게 갖추고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 여짐.

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마중물로서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것임.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의집, 문화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주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띠고 있음. 지역 자원과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연결(network)되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촉진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은 시설 이용자 혹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역 혹은 기초/생활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대상 혹은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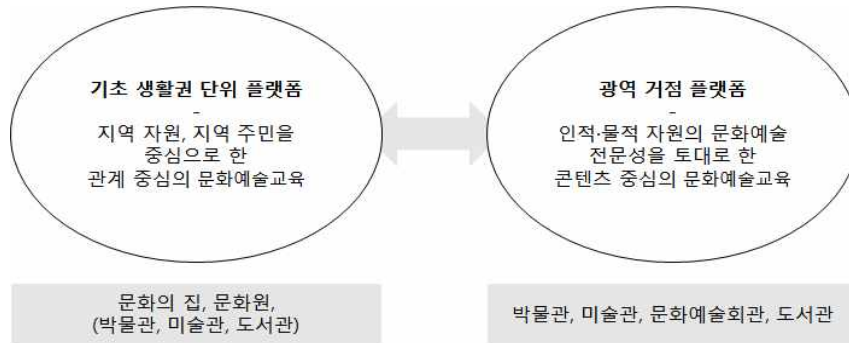
〈그림 V- 3〉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장성(실재적 성격)



- 광역 단위의 공공기관(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내 전문 인력 pool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을 가질 수 있음. 이럴 경우에는 광역 거점 플랫폼 기능을 갖추게 됨.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뜻함.
-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즉,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의 접근성이 낮은(부족) 환경 하에서 참여 대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역 문화기반시설은 지역적 맥락성과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 함. 더욱이 사립 혹은 민간이 주축이 되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상 중심에서 관계 중심의 모델로 기능과 역할이 이동되는 경향을 띠게 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인적·물적 자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결합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플

랫폼의 기능을 띠게 됨.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V- 4〉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협력 추진 체계, 기관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기초 생활권, 혹은 광역 거점이라는 물리적 접근성과 관계 중심 혹은 콘텐츠 중심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광역, 기초단위의 추진 체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플랫폼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 체계의 고도화,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은 광역 혹은 기초단위에서, 공공 혹은 민간단위에서 콘텐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혹은 관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재편성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기관들은 기초/생활권에서 지역 주민, 지역 문화, 관계 중심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의집, 문화원과 달리 각기 다른 전문성, 지역/시설 자원의 차이, 시설 규모 등이 상이하고 그 차이가 명확하기에 특정한 유형으로 군집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

도움주신 분들

강 성 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곽 신 숙	서울상상나라 운영실 수석
국 승 희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김 태 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팀장
김 희 련	문산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관장
도 준 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부장
박 우 주	광주 북구문화의집 기획팀장
신 보 슬	토탈미술관 실장
우 지 연	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유 경 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사업팀 대리
이 상 화	충남서부종합장애인복지관
이 선 종	(사)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 실장
이 영 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은 화	광주시립미술관 문화센터장
이 정 미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과장
이 재 주	마포평생학습센터 팀장
임 종 숙	와촌책마루도서관 대표
정 경 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 민 룡	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정 은 주	김천문화의집 담당
정 해 영	광주문화재단 팀장
최 기 준	삼천문화의집 관장
최 인 경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 팀장
최 호 숙	대담미술관 큐레이터

※ 이 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문화기반시설 담당자 및 문화예술(교육)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